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34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Youth Employment in Jeonbuk State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전희진

University of Michigan 사회학 박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BK21 사업단 박사후 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주연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부산대학교 노인생활환경연구소 책임연구원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 석사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5-34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Youth Employment in Jeonbuk State

전희진 이주연 전아람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전희진	책임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2절 일부) 4장, 5장
공동연구	이주연	책임연구위원	제3장 (2절 일부), 5장
	전아람	연구원	제3장 (1절, 2절 일부)

자문위원	정수경	즐거운 도시연구소 대표
	이현숙	전북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 조직교육위원장
	김창화	전 서학예술마을 현장 지원센터장
	김현진	전주시 플랫폼노동지원팀
	이경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동시장분석팀장
	이국용	군산대학교 교수
	조운정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장

연구관리 코드 : 25JU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 청년층의 일자리·정주 실태를 분석하고, 산업군별 특성과 청년 경험을 반영하여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 향상 모델과 시범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 및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통계·설문·심층면접을 통해 청년의 일·삶·정주 구조를 다층적으로 분석함
- 최종적으로 전북 14개 시·군에 적용 가능한 모듈형 정책 패키지와 실행전략 제시

■ 연구 방법

- 문헌·사례 조사, 통계 분석, 설문조사, 산업군별 심층면접·FGI, 전문가 자문 등 혼합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전북 청년 일자리의 특징과 산업군별 수요를 다면적으로 분석
-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과 지자체 사례(광주형 일자리 등), 고용·임금·산업 분포 등 계량자료를 분석하여 전북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특징과 지역 기반 생활·정주 조건을 진단
- 설문조사는 전북 거주 또는 최근 3년 내 취·창업 경험이 있는 만 19~39세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시·군·산업군·직업유형 등을 고려해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원 대면 방식으로 수행
- 산업군별 심층면접·FGI는 농업, 산단·중소제조업, 로컬, 플랫폼 등 주요 분야 청년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직무 경험, 경력 지속 가능성, 정주 요인, 정책 수요를 심층 도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산업별 현실, 시·군 적용 가능성, 시범사업 설계 방향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보완

2.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북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임금·고용안정성 취약성, 산업군별 구조적 위험요인(산단의 작업환경, 농업의 고위험 창업 구조, 로컬의 소득 불안정, 플랫폼의 안전망 부족), 그리고 주거·교통 등 정주 기반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전북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은 임금 중심 접근이 아니라 일·삶·정주를 통합한 관점에서, 산업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가 필수적임

■ 정책 제언

- 전북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이 경험하는 고용·생활·정주 여건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특히 산업군을 불문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임금·고용안정성 취약성, 주거·교통 등 생활 기반 부족, 정신건강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공통 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보험·생활SOC·심리·경력지원 등을 묶어 제공하는 구조가 요구됨
- 산업군별로는 전북의 산업·공간 구조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전략이 필요함
- 농업 분야에서는 예비 단계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창업 경로를 체계화하고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요청
- 산단 분야에서는 장기근속과 숙련 축적을 유도하고 통근·주거 등 생활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 로컬·플랫폼 분야에서는 불안정한 소득·작업환경을 보완하기 위한 안정망과 경력전환 지원이 요구됨
- 정책 실행을 위해서는 시·군별 산업 특성과 여건에 따라 농업형·산단형·로컬형·플랫폼형 모델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활용 가능한 재원을 연계해 지속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함

요약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5
 가. 연구 범위 5
 나. 주요 연구 내용 5
 다. 연구 방법 7

제2장 일자리 질 논의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1. ILO 및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 검토 13
2. 국내외 및 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와 전북 시사점 21

제3장 전북 청년 고용 실태 및 일자리 질·인식 분석

1. 전북 청년 고용 구조와 일자리 질 통계 분석 35
2.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청년 일자리 인식·선호 및 정책 수요 분석 71

제4장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	
	1.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	141
	2.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진단	176
제5장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유형과 정책 실행 전략	
	1. 산업군별 청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 유형화	189
	2. 산업군별 정책 패키지와 전북형 시범사업 설계	197
	3. 정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단계별 실행 전략	215
참고문헌	218
영문요약 (Summary)	221
부록	223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자리 질(Decent Work) 기준	13
[표 2-2] 청년 일자리 질 및 괜찮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18
[표 2-3]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노동시장·청년고용 정책 모델 비교표	25
[표 2-4] 지역 일자리 사례의 주요 특성	30
[표 3-1]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청년인구(2024년)	35
[표 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2024년)	36
[표 3-3]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세대 구성(2023년)	37
[표 3-4]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비중(2024년)	38
[표 3-5]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청년인구 추이	40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이동 추이	43
[표 3-7]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24)	44
[표 3-8] 전입-전출지간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24)	45
[표 3-9] 시도별 청년인구의 전입사유(2024)	46
[표 3-10] 시도별 청년 경제활동인구(2024)	48
[표 3-11] 시도별 청년 구직희망 여부 및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51
[표 3-12] 시도별 청년 구직단념자의 주된 활동상태	52
[표 3-13]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퇴직사유	53
[표 3-14]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vs 청년 취업자 주요 종사산업(상위 10개) ...	54
[표 3-15]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vs 청년 취업자 주요 종사직업	55
[표 3-16] 시도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 직장규모	56
[표 3-17] 시도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57
[표 3-18] 시도별 청년 계약고용자의 계약기간	58
[표 3-19] 시도별 안정적 일자리(종사상지위) 현황	60

[표 3-20] 시도별 근로시간별 일자리 현황	62
[표 3-21] 시도별 임금수준별 일자리 현황	63
[표 3-22] 2023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 산출 결과	66
[표 3-23] 2022년 대비 2023년 일 영역 지표 증감	67
[표 3-24] 2022년 대비 2023년 생활 영역 지표 증감	68
[표 3-25] 2022년 대비 2023년 제도 영역 지표 증감	69
[표 3-26] 2022년 대비 2023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 증감	70
[표 3-27] 조사 설계	72
[표 3-28] 조사 항목 및 내용	73
[표 3-29]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분포	74
[표 3-30]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표본분포(제공근비례배분법 적용)	75
[표 3-31]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분석설계	76
[표 3-31]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분석설계(계속)	77
[표 3-32]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79
[표 3-33] 최종학력별 응답자 분포	79
[표 3-34] 권역별 응답자 분포	80
[표 3-35] 가구원수별 응답자 분포	81
[표 3-36] 2인 이상 가구구성원별 응답자 분포	82
[표 3-37] 자녀수별 응답자 분포	83
[표 3-38] 거주형태별 응답자 분포	83
[표 3-39] 귀농·귀촌 활동유형별 응답자 분포	84
[표 3-40] 집단유형별 기업규모 비교	88
[표 3-41] 집단유형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비교(복수응답)	90
[표 3-42] 집단유형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93
[표 3-43] 집단유형별 희망 출퇴근거리 비교	95
[표 3-44] 집단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비교	98
[표 3-45] 집단유형별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비교 ·	100

[표 3-46] 집단유형별 희망 주업무내용 비교	102
[표 3-47] 집단유형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비교	106
[표 3-48] 집단유형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비교	107
[표 3-49] 집단유형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비교	108
[표 3-50] 집단유형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비교	110
[표 3-51] 산업분야별 현재 제공받는 시설 개수 비교	111
[표 3-52] 집단유형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112
[표 3-53]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복수응답)	113
[표 3-54] 산업분야별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 개수 비교	113
[표 3-55]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복수응답)	115
[표 3-56] 집단유형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115
[표 3-57] 범주별 일자리 만족도 비교	118
[표 3-58] 집단유형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비교	130
[표 3-59]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복수응답)	131
[표 3-60]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비교(복수응답)	132
[표 3-61]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132
[표 3-62]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133
[표 3-63]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134
[표 3-64]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134
[표 3-65]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복수응답)	135
[표 3-66]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135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표	 142
[표 4-2] 전북형 청년 일자리 관련 심층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	145
[표 4-3] 산업군별 추가 심층 질문 리스트	146
[표 4-4] 자문회의 분야 및 일정	147
[표 4-5] 산업군별 고용형태·소득·노동시장·자율성 비교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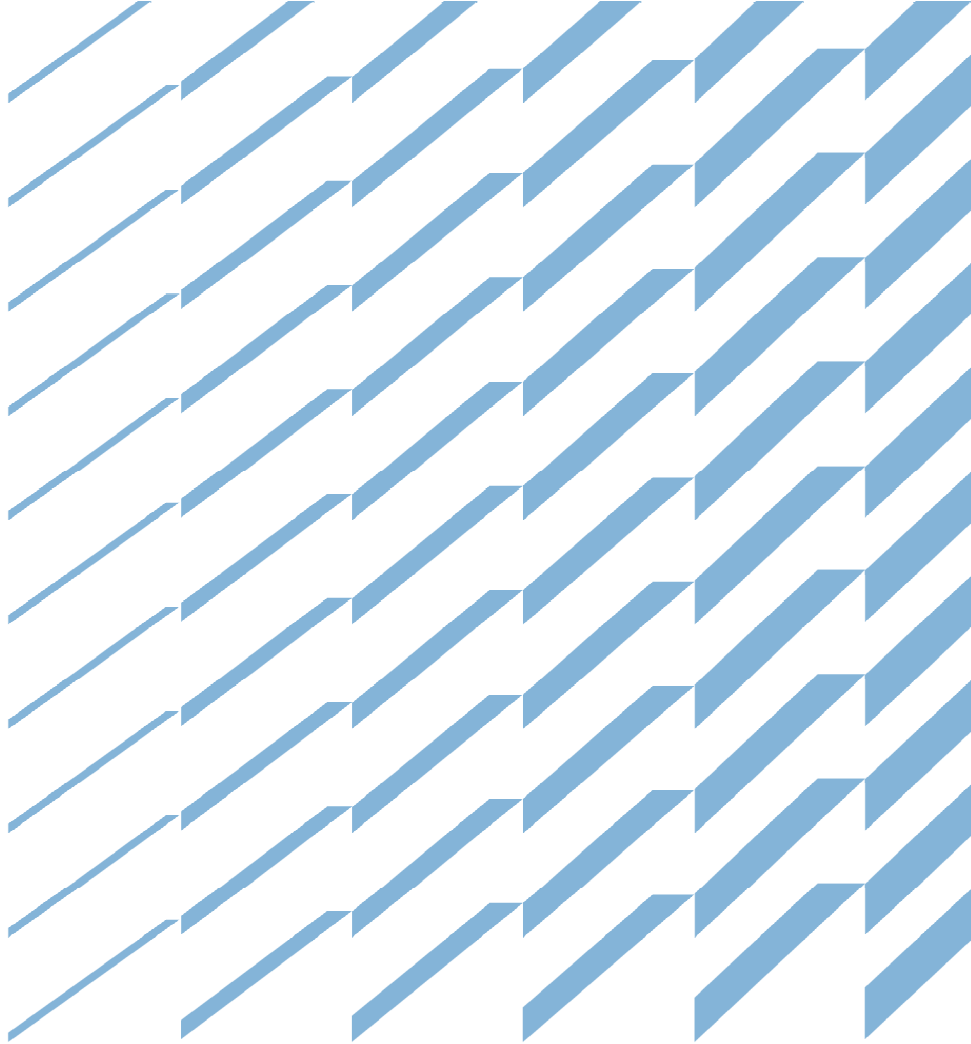
[표 4-6] 산업군별 정주성·플랫폼 활용·사회보장·경력전환 비교	180
[표 5-1] 유형별 청년 일자리 대상·일자리 특성·정책 고민 및 정책과제	195
[표 5-2] 전북형 청년 농업 벤처 연계 패키지(안)	199
[표 5-3] 농수축산업 창업 샌드박스 사업 설계(안)	200
[표 5-4] 지역근로가점 누적제(안) (정주 '갈고리' 크레딧·복지포인트 통합형)	205
[표 5-5] 전북형 지역근로가점 누적제 세부 설계(안)	207
[표 5-6] 지역근로가점제 적용방식(안)	208
[표 5-7] 전북형 비기술·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안)	211
[표 5-8] 플랫폼 노동 전환·안전망 + 공영형 지역 플랫폼 시범사업(안)	213
[표 5-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적정 사업 제안	214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시군별 비중	37
[그림 3-2] 청년인구의 시도별 분포 비중(2024년)	39
[그림 3-3] 광역시도별 2012년 대비 2024년 청년인구 감소율	41
[그림 3-4] 청년인구의 출생 대비 현 인구의 감소 현황	42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전출/전입 사유	47
[그림 3-6]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49
[그림 3-7]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고용률	49
[그림 3-8]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실업률	50
[그림 3-9]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월평균임금	59
[그림 3-10]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평균 근무시간(주업)	59
[그림 3-11] 2023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균형 지수	64
[그림 3-12] 집단유형별 응답자 분포	78
[그림 3-13] 성별 응답자 분포	78
[그림 3-14] 읍면동별 응답자 분포	80
[그림 3-15]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	81
[그림 3-16] 자녀유무별 응답자 분포	82
[그림 3-17]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응답자 분포	84
[그림 3-18] 산업분야별 응답자 분포	85
[그림 3-19] 고용상태	87
[그림 3-20] 기업규모	88
[그림 3-21]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90
[그림 3-22] 현재 임금수준	91
[그림 3-23] 희망 임금수준	92
[그림 3-24] 현재 출퇴근거리	94

[그림 3-25] 희망 출퇴근거리	95
[그림 3-26] 현재 근로시간	97
[그림 3-27] 희망 근로시간	98
[그림 3-28]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99
[그림 3-29] 현재 주업무내용	101
[그림 3-30] 희망 주업무내용	102
[그림 3-31]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103
[그림 3-32] 유연근무제 실시유형(복수응답)	104
[그림 3-33]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105
[그림 3-34]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107
[그림 3-35]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108
[그림 3-36]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109
[그림 3-37] 현재 제공받는 시설환경(복수응답)	110
[그림 3-38]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복수응답)	112
[그림 3-39] 일자리 만족도 요약	116
[그림 3-40] 고용안정성 만족도	119
[그림 3-41] 임금수준 만족도	120
[그림 3-42] 근로시간 만족도	121
[그림 3-43] 일-삶 균형 만족도	122
[그림 3-44]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123
[그림 3-45]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124
[그림 3-46]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125
[그림 3-47]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126
[그림 3-48]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27
[그림 3-49] 일자리 이직의향	129
[그림 3-50]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130
 [그림 5-1] (가칭) 농수산업 벤처 플랫폼(샌드박스)의 구성	 203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 전북지역은 청년층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현재 전북의 고용 기반은 일자리의 수적 부족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서도 한계가 뚜렷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중장기적 미래설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히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높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 복지, 문화, 공동체 등 청년 삶 전반의 질을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임
- 청년층은 직무의 안정성뿐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인정, 경력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와 국내 일자리 질 논의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성, 소득 수준, 경력 성장 가능성, 일·삶 균형 등 일자리 질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전북의 산업 구조와 청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 청년 일자리 질 진단 틀을 마련하고, 해당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책·사업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전북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 대두
- 지방소멸대응기금, 시·군 청년정책·투자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청년 일자리 질 진단 틀과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 설계와 재정투자 전략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함

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전북 청년의 실제 직무 경험과 일자리 인식을 기반으로,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등 산업군별 일자리 질을 진단하고 특성을 유형화함으로써, 청년의 고용 경로와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농업·귀농·농창업, 산업단지·중소제조업,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플랫폼·프리랜서 등 전북 내 주요 4개 산업군을 중심으로, 각 산업군별 일자리 특성과 청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질 향상 정책 패키지를 제시하고자 함. 공공기관 및 연구직은 청년이 선호하는 안정형 준거 일자리로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4개 산업군과의 비교 기준으로 활용함
- 단일한 ‘청년’이 아닌 산업군·일자리 유형별로 상이한 청년 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의 정착 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역 기반 청년 일자리·정주 생태계 조성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가. 연구 범위

-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층(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산업군별 직무 경험과 일자리 인식, 그리고 삶의 질 요소까지 포함한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을 수행함
- 청년들이 실제로 종사하거나 진입을 고려하는 농업·귀농·농창업, 산업단지·중소제조업,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플랫폼·프리랜서 등 4개 산업군을 중심으로 연구 범위를 설정함. 공공·연구직·예술·문화 등은 선행연구와 통계를 통해 참고하되, 본 연구에서는 청년 일자리 질 취약성이 큰 4개 산업군의 심층 분석에 초점을 둠
- 청년 개인의 고용경험뿐 아니라 정책 체감도, 직무 만족도, 정주 인식, 플랫폼 활용, 부채·사회보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전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 일자리·정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나. 주요 연구 내용

■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지표 검토 및 전북 적용 가능성 분석

- 국제노동기구(ILO)의 'Decent Work'와 한국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국내 일자리 질 논의를 중심으로, 고용 안정성, 직무 자율성, 복지 접근성, 경력 성장 가능성, 일·삶 균형 등 일자리 질의 핵심 구성요소를 정리하고, 전북지역 청년 고용환경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함
- 청년층이 실제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일자리의 조건과 제도적 기준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여, 정책 설계에 반영 가능한 '청년 인식 기반 일자리 질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전북 청년 일자리 질 진단 틀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함

■ 국내외 일자리 질 개선 정책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주요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고용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설계 요소와 추진 방식, 실행 성과 등을 비교함
- 광주형 일자리, 서울형 청년일자리, 부산 디지털 일자리, 덴마크 청년보장 등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동시에 추구한 정책 설계 방향과 거버넌스 구조를 정리하고, 전북형 정책 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일자리 사업을 지역 위기 유형별로 접근하여 대안을 발굴한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자리 질을 ‘고임금+정규직’에 한정하기보다, 지역과 산업, 대상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구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전북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검토함

■ 전북 청년 고용 실태 및 산업군별 일자리 특성 분석

-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북 청년층의 고용률, 임금 수준, 고용 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등 노동시장 지표를 분석함
-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직무 만족도, 이직 경험, 일자리 선택 기준, 정책 수요 등을 파악하고, 삶의 질과 연결된 고용 문제를 진단함
- 전북 주요 4개 산업군(농업·귀농·농창업, 산업단지·중소제조업,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플랫폼·프리랜서)을 중심으로 일자리 특성과 노동환경을 심층 비교하고, 공공·연구·예술·문화 영역은 선행연구와 통계를 활용한 비교·준거 지점으로 활용함
 - 실제 종사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FGI 포함)를 통해 산업군별로 청년이 체감하는 일자리 질의 구성 요소와 중요도, ‘일자리가 좋다고 느끼는 조건’의 차이를 파악함
 - 소득 구조, 고용 안정성, 복지 접근성, 경력 성장 가능성, 직무 자율성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기대와 현실 간 간극을 분석함

■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 발굴

-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과 정책 수요를 기반으로, 전북에 적용 가능한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등 4개 산업군별 정책 유형과 지원 패키지로 제시함
 - 농업·귀농·농창업형, 산단·제조업형,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형, 플랫폼·프리랜서형 등으로 세분화된 정책 유형화를 시도하고, 각 유형별로 소득·안전망·정주·역량강화 축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를 설계함
- 전북 청년정책,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실행력 높은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시·군이 선택·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정책유형·정책패키지로의 확장 가능성을 제안함
 - 정책 우선순위 설정, 정주 유도 효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다.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문헌조사 및 정책 사례 분석
 -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 및 정책 기준 검토
 - 지자체 사례(광주형 일자리 등) 중심의 일자리 사례 검토
- 통계자료 분석
 - 청년 고용 관련 통계지표 분석(고용률, 임금, 고용형태, 산업별 분포 등)

2) 조사 및 위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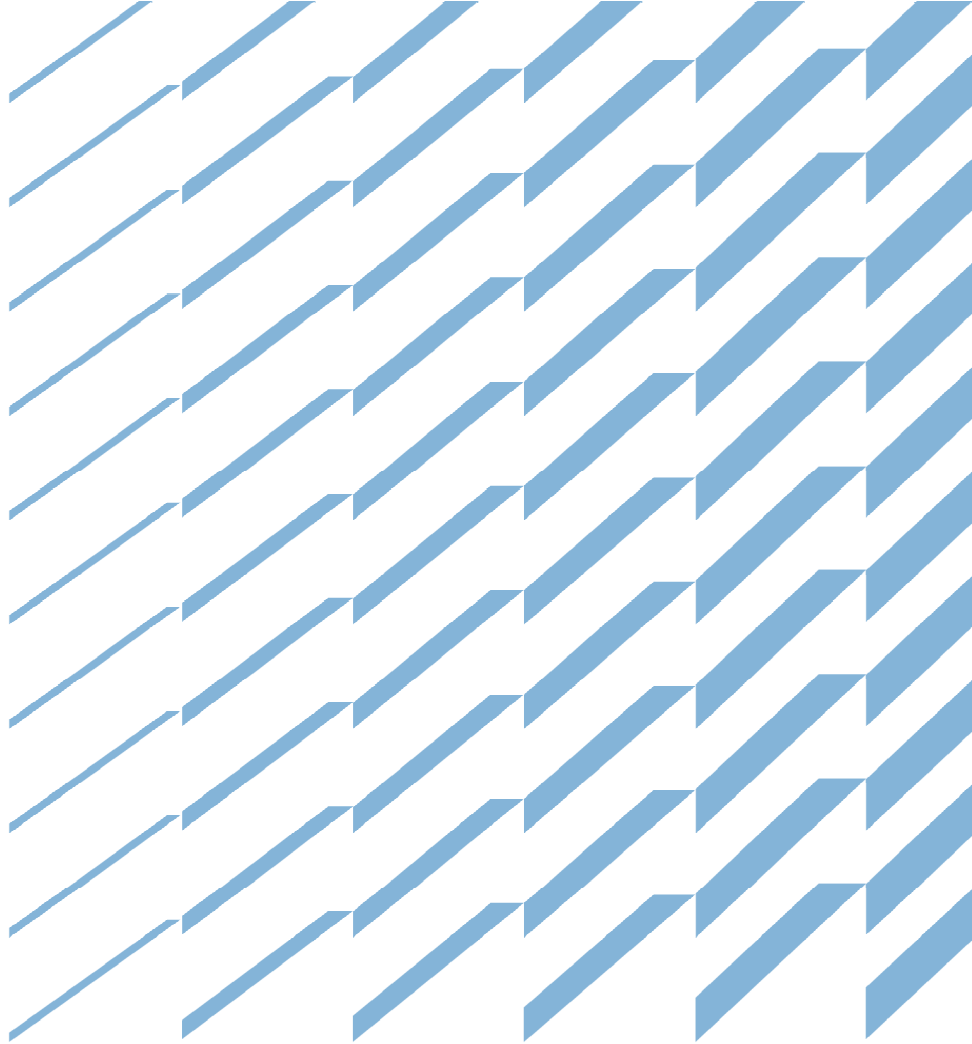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 청년 대상 설문조사 위탁

- (대상) 전북 도내 거주 또는 취·창업 경험이 있는 만 19~39세 청년 500명
 - 시·군별 분포, 산업군(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직업유형(정규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을 고려한 표본 설계
- (내용) 주요 내용
 - 일자리 만족도, 직무 경험 및 경로, 이직 또는 이탈 요인, 현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평가
 - 정주 여건(주거, 교통, 복지, 여가 등)과 일자리의 연계성
 - 지역 내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수준
 - 전북지역 청년 고용정책·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정책 수요
- (방법) 조사원을 활용한 대면 설문 (연령별·직업별 접근성 고려)
 - 사전 설문지 파일럿 테스트 후 문항 조정
- 산업군별 청년 심층인터뷰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 (대상) 전북 도내 주요 청년 고용 산업군 청년
 - 농업·귀농·농창업 청년(청년 창업농, 귀농·귀촌 청년 등)
 - 산업단지·중소제조업 종사 청년(생산직, 기능직, 관리직 등)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예술·문화 기반 자영·기획·활동 청년(로컬 매거진, 공유공간, 축제·콘텐츠 기획자 등)
 - 플랫폼·프리랜서 청년(배달·모빌리티, 디지털콘텐츠, 온라인 강의·마케팅 등 앱 기반 단기·장기 노동자)
 - 청년 일자리·노동·도시재생·로컬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관계자(보완적 자문 대상)
 - (내용) 주요 인터뷰 내용
 - 각 산업군 내 청년의 일자리 유입 경로, 업무 특성, 직무 만족도
 - 현재 일자리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청년이 '일자리가 좋다고 느끼는' 조건(임금, 안정성, 발전성 등)
 - 직업 지속 가능성 및 이직/이탈 고려 요인
 - 현재 일자리와 지역정주 간 상관성
 - 전북 청년 고용정책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및 개선 요구
 - 각 산업군 특성에 기반을 둔 맞춤형 정책 수요
 - (방법) 산업군별 3~4명으로 총 15명 내외 인터뷰 혹은 FGI 실시

3) 전문가 자문 방법

- 정책 및 노동시장 전문가 대상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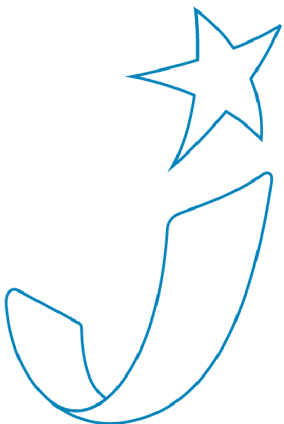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
-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실망에 대한 경험, 분야별 청년들의 정책 수요, 일자리 향상 방안의 지역별 확장성, 정책화 전략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전북 청년정책 관계자 및 도·시군 청년정책 실무자, 유관기관(청년센터, 일자리센터 등) 등을 대상으로 정책 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구상, 심층면접 내용 정리, 원고 문장 구성 및 표현 수정 등 일부 연구보조적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연구지원 도구(ChatGPT4.0·5.1Pro)를 활용하여 자료구성 및 기술적 정교화 작업을 수행



제2장

일자리 질 논의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1. ILO 및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 검토
2. 국내외 및 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와 전북 시사점



제2장 일자리 질 논의 및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1. ILO 및 국내외 일자리 질 개념 검토

가. ILO의 일자리 질(Decent Work) 개념

-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Decent Work 개념은 일자리 질을 논의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제 기준으로, 한국어로는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존엄성 있는 일자리” 등으로 번역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일자리 질(Decent Work)’로 표기함
- Decent Work는 단순한 고용 여부나 임금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보상과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는 노동을 지향하는 개념임
 - 공정한 소득, 고용 안정성, 사회적 보호, 자기실현 가능성, 노동권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등을 핵심 요소로 제시하며, 고용기회, 적정 임금, 일과 삶의 양립, 차별 금지, 사회보장, 고용 안정, 노동자 대표성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각국 노동정책의 방향을 점검하는 도구로 활용됨
 - 단순히 임금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일자리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소득과 고용 안정, 사회적 보호, 자기실현의 기회가 주어지는 모든 노동을 의미

[표 2-1] 국제노동기구(ILO)의 일자리 질(Decent Work) 기준

기준	설명
고용 안정성	- 지속적이고 해고 위험이 낮은 일자리
공정한 임금	- 전체 산업 평균 이상의 임금, 생활임금 보장
사회적 보호	- 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노동권 보장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자기실현 가능성	- 개인의 성장과 발전, 사회적 통합의 기회 제공
안전한 환경	-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 환경

- 국제노동기구는 일자리 질(Decent Work) 개념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고용기회, 생산적인 노동과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일과 삶의 양립 가능성, 강제노동 및 차별의 금지, 고용의 안정성과 보장, 안전한 작업환경, 사회보장, 고용평등, 노동자 대표성과 사회적 대화 등으로 구성된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각국의 노동·고용정책을 모니터링함
- ‘일의 심리학 이론(Psychology of Working Theory, PWT)’에서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더하여, 개인이 어떤 조건에서 일을 ‘의미 있고 적정하다’고 인식하는지에 주목함
 - 신체·정서적으로 안전한 근무 환경, 건강보험 접근성, 적절한 보상, 자유시간과 휴식의 보장, 가족과 공동체 가치에 상응하는 조직 가치를 측정하는 “괜찮은 일자리 척도(Decent Work Scale: DWS)”를 개발
 -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한국형 괜찮은 일자리 척도(Korean Decent Work Scale: K-DWS)도 개발·활용 중임
- 선행연구에서는 청년·대학생이 인식하는 일자리 질을 단순한 고용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넘어, 자율성, 삶의 질, 사회적 인정 등 포괄적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김수현 외(2014)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고용의 지속성, 보수 수준, 성장 가능성, 복지 제도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일자리의 물리적 조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함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곽미선 외 2023) 안정적인 고용과 적정 보수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무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를 “좋은/괜찮은 일자리”의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함

나.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본 청년 일자리 질 논의

■ 지역 청년 일자리 기대

- 지역 청년의 일자리 인식은 대도시 청년과 달리 정주성과 공동체 연계성,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전북·광주 등 비수도권 청년들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자리 요건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정보영 2025)에서는, 고립된 일자리보다 지역사회와 연결된 일자리, 지역 안에서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과 함께, 청년 스스로 지역 일자리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을 강조함
- 정보영(2025)은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험을 분석하며, 초기 기대와 현실의 괴리, 노동환경에서의 갈등, 불완전한 성장 경로가 청년의 일자리 질 인식과 장기적 경력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
- 청년들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삶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지역에서의 관계·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호하며, 공동체 기반 고용모델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졸 미취업 청년을 분석한 연구(이승진 외 2024)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취업준비양상과 잠재계층 유형이 다르게 나타나며, 지역 내 자원 부족과 심리적 불안정성이 청년 고용과 일자리 질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함을 확인함
- 마상진 외(2023)는 농촌 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요구를 분석하며, 농촌의 낮은 생활비, 자가 주택 비율, 넓은 주거공간 등 비경제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일자리 질에도 불구하고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함
 - 반면 농촌 청년은 문화·복지 여건과 사회 참여 기회 측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여성, 고학력, 도시 출신 청년은 정책 접근성 부족, 정보 격차,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은 30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 체험, 원격근무, 초기 정착지원 등 유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접근이 농촌 이주와 새로운 일자리 질 구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강조됨
 - 농촌 청년 정책 방향으로 ① 청년 유형별 맞춤형 접근, ② 청년 행복과 참여 중심 정책, ③ 도시 청년 유입 지원, ④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등이 제시되며, 이는 단순 고용 창출이 아니라 삶의 질·정주를 기반으로 한 지역정착형 일자리 전략과 연결됨

■ 일자리 질 유형화 및 통계 분석

- 청년 일자리의 질은 단일 지표로 설명되기 어려운 복합적 속성을 지니며, 고용형태,

임금, 복지, 직무 자율성, 만족도 등 다차원적 요소를 통해 파악될 필요가 있음

- 지혜순 외(2022)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고용형태, 임금 수준, 복지, 직무 만족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분석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질의 이질성과 다층적 구조를 실증적으로 제시함
- 황광훈 외(2021)는 지역별로 청년 일자리 질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나타나며, 특히 지방에서는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이 결합된 취약한 일자리 유형이 집중되어 있음을 밝힘
- 송영남(2011), 이성균(2011) 등은 지역별 일자리 구조의 차이가 근로자의 이동과 경력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일자리 질의 지역 간 격차가 청년의 이주와 정주 선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함
- 김진식(2024)은 일자리 질 범주의 기준을 재검토하면서,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실업자보다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통해, 노동의 질과 주관적 삶의 질 간의 관계, 일자리 경험이 심리·정서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함

■ 비정규직, 차별, 소진과 고용형태 문제

-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환경은 임금·고용 조건의 열악함뿐 아니라 차별 경험, 직무 소진, 경제적 불안이 중첩된 양상을 보임
- 김민선(2022)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직장 내 구조적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리적 탈진, 직무 만족도 저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분석함
-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강하게 연결되며, 당장의 생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이들의 노동 지속 의지와 경력 형성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는 접근보다는, 고용형태별 차별 개선, 심리적 안정성 확보, 직무 스트레스 완화가 청년 일자리 질 향상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함
- 나쁜 일자리와 실업자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일자리가 나쁘더라도 실업 상태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경우가 있으나, 직무 스트레스 수준과 일의 의미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김진식, 2024)

- 이러한 논의와 함께 “좋은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정규직·안정적 일자리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특히 청년층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터 질 낮은 일자리 경험이 누적되는 경향이 지적되고 있음(박비곤, 2023)

■ 지역 모델의 가능성

- 청년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수 증가를 넘어, 지역 기반 일자리 생태계 조성 and 일자리 질 개선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상호 외(2021)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를 검토하며, 고용 안정, 지역 정주, 지역사회 참여가 결합된 일자리 모델이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함
- 문종인(2022)은 일자리 보장제를 제안하며, 중앙정부가 최종 고용자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공공일자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년에게 사회적 기여와 노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시함
-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방의 고용불안 해소뿐만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일자리 모델로서 의미를 가짐
- 선행연구들은 청년 일자리 질을 임금·고용형태뿐 아니라 정주, 공동체 연계성, 심리·정서적 안정, 지역생태계 수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 연구가 전북 청년 일자리 질 분석에서 이러한 다층적 요소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함

[표 2-2] 청년 일자리 질 및 관측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구분	논문 제목	연구 목적	분석방법	주요 결과	정책 시사점
일자리 질 개념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청년 인식 및 기대 분석	설문, 인터뷰	인정성, 보수, 자기계발 강조	삶의 질 중심 정책 설계
	대학생이 인식하는 관측은 일자리(boom work)와 좋은 일자리(good work)에 대한 특성 탐색	대학생의 관측은 일자리 개념 탐색	설문조사	고용 인정 사회적 인정 강조	청년 기대와 노동시장 괴리 축소
	잡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의 질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상관성 분석	통계분석, 군집화유형	좋은 일자리 소득보다 안정성 중요	직무자율성 중심 정책 설계
	지역 청년의 관측은 일자리 상상	비수도권 청년 기대 및 참여경험 분석	질적 분석	지역사회 연결된 일자리 선호 기대와 현실 간 괴리 심각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정책 현장 중심 현실적 개선 필요
지역 청년 일자리 실태	농촌과 청년: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농촌 일자리 모델 기능성 분석	설문, 면담	농촌 정착 일자리 가능성	지역사회 기반 정책 필요
	지역별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 분석	지역별 일자리 질 통계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	통계분석	수도권 집중 심화 지역별 격차 확인	비수도권 일자리 질 개선 필요 지역별 맞춤형 정책 필요
	대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점재계층 유형과 영향 요인	취업준비 유형 분류	점재계층 분석	정보 접근성 중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

구분	논문 제목	연구 목적	분석방법	주요 결과	정책 시사점
일자리 질 유형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의 질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일자리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군집분석	4~5개 유형 분류	유형별 맞춤 정책 필요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 분석	지역별 일자리 질 비교 분석	통계분석	지역 격차 심화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좋은 일자리’의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시계열적 변화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인	노동시장 구조적 개선
비정규직· 차별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경험	차별 경험과 직무소진 관계 분석	회귀분석	차별 경험과 직무소진 연관	직무자율성, 공정성 증대 필요
	일자리 질 범주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나쁜 일자리와 실업자 비교	통계분석	조건부로 나쁜 일자리 우위	일자리 질 개선 중요성 강조
	괜찮은 일자리는 줄었는가	괜찮은 일자리 변화 추이 분석	통계분석	질 낮은 일자리 증가	노동시장 초기 개입 중요
정책 모델 제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지방소멸 대응 사례 분석	사례연구	지역정착 중심의 일자리 모델 필요	지역정착 중심 정책 추진
	지역일자리정책으로서 ‘일자리보장제’	일자리 보장제 가능성 검토	이론적 검토	국가 보장제 지역 확대 가능성	지역 중심 공공 일자리 제안

출처: 저자정리

-
- [표 2-2]에서 정리한 선행연구들은 ‘좋은/괜찮은 일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임금 수준, 고용 안정, 복지 및 경력개발 기회, 정주·삶의 질, 공동체 참여 등을 포괄하는 ‘청년 일자리 질’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독자적으로 정의하기보다 청년 일자리 질의 구성요소를 전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분석 틀을 설계함

2. 국내외 및 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와 전북 시사점

가. 국외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

- 국외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는 제도적 틀과 거버넌스 체계, 복지·교육·노동시장 정책의 통합 설계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북유럽 국가(덴마크 등)는 평생교육·이직보호·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합 설계한 플렉시큐리티(flexicurity) 모델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됨(Eurofound, 2007)
 - 일본은 지역 내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지역정착형 청년고용 지원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모델을 모색 중인 것으로 분석됨(Hori Yukie, 2023)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 유연안정성(Flexicurity)은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으로, 덴마크가 대표적 사례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1990년대 초·중반 실업률 상승과 노동시장 경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덴마크 정부와 노사 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화된 모델로 이해됨
- 2000년대 중반 이후 EU 차원에서 일자리 질 개선과 포용적 성장의 대표 모델로 채택되며, 유럽 노동시장 개혁의 대표 사례로 확산됨(Eurofound, 2007)
- 덴마크형 유연안정성 모델의 3대 구성요소(황금 삼각형)는 ‘고용의 유연성’, ‘관대한 소득보장’,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이루어지며(Eurofound, 2007), 유럽 주요 국가와의 비교 분석에서 덴마크 모델이 노동시장 유연성과 소득·고용 안정의 균형을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됨(조돈문, 2014)
 - ① **고용의 유연성**: 고용주는 쉬운 해고와 신속한 채용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며, 노동시장이 비정규직 중심이 아니라 정규직 기반의 유연성이라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됨
 - ② **관대한 소득보장**: 실업 시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대체율이 높고 실업 급여 수급 요건도 포괄적으로 설계됨

- ③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재교육, 취업지원, 고용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개별 행동계획(PAP: Personal Action Plan)을 통해 개인 맞춤형 취업 경로를 설계하는 체계를 갖춘. 이는 직업교육 기반의 훈련 체계(최희경 2021)와 OECD 국가 간 청년 대상 ALMP 효과 분석(김민정 2023)에서도 주요 사례로 제시됨
- 주요 정책 운영 특징으로는 ‘권리-의무’ 연계의 원칙, 지방 고용서비스센터 운영, 청년층 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들 수 있음
 - ‘권리-의무’ 연계의 원칙: 실업자는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갖지만, 동시에 재교육 및 구직 활동 참여 의무를 가짐
 - 지방 고용서비스센터 운영: 지역 고용센터(Jobcenter)에서 실업자 맞춤형 훈련과 상담 실시
 - 청년층 대상 특별 프로그램: 25세 이하 실업 청년은 4주 이내에 재교육 또는 훈련 과정에 의무 참여해야 하는 제도 운용
- 정책 효과로는 2000년대 평균 4~6% 수준의 낮은 실업률 유지, 유럽 평균에 비해 낮은 장기실업자 비율, 여성과 청년층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실업급여와 ALMP 운영비용이 높아 고령화 사회에서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며, 고숙련자 중심 설계로 인해 낮은 학력이나 경력단절 노동자의 제도 수혜 배제 가능성이 언급됨
- 제도 초기에는 청년층에게 실질적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했으나, 최근에는 일부 청년에게 비정규 고용과 노동시장 주변부 잔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은 단순한 정규직 일자리 수 확대가 아니라, 이행기 청년에게 실질적인 직무 경험, 안정적 이행 경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적 정책모델로서 의미를 가지며,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 진입 전환기에 있는 청년을 위한 교육-훈련-직업 연계 시스템 제도화 관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 네덜란드의 시간제 노동(part-time work) 모델

-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시간제 고용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여성 고용에서 시간제 비중이 절대적인 특징을 보이는 국가로 평가됨(Visser, 2002)
- 1980년대 초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Wassenaar 협약)를 계기로 임금 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한 이후(김학노, 2004), 시간제 노동은 단순한 유연노동이 아닌 제도화된 주류 고용 형태로 정착됨(박준식, 2016)
- 제도적 특징으로는 정규직과의 동일한 법적 보호,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여성 친화적 설계 등을 들 수 있음
 - **동일한 법적 보호:** 1996년 Equal Treatment (Working Hours) Act, 1999년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도입을 통해 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 간 차별 금지 및 사회보험 동일 적용 원칙을 확립함(Visser, 2002; 김학노, 2004)
 -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정규직과 동등한 계약상 권리 보장(박준식, 2016), 노동시간 조정 요구권 및 경력 개발 권리를 제도화함(김지영, 2024)
 - **여성 친화적 설계:** 자발적 시간제 선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목표로 정책을 설계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기여함(김지영, 2024; Visser, 2002)
- 주요 성과로는 전체 고용률 및 여성 고용률 증가(김학노, 2004; Visser, 2002),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 고용 구조 내에서의 시간제 고용 안정성 확보(박준식, 2016), 일·가정 양립 기회 확대(김지영, 2024),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기반 유연화 실현(Visser, 2002; 전용석, 2024) 등을 들 수 있음
- 한계로는 여성의 시간제 노동 집중이 전통적 성 역할 고착 위험을 심화시킬 수 있고(김지영, 2024; Visser, 2002), 시간제 근무자가 승진 및 교육 기회에서 배제되어 커리어 발전이 제한되는 문제(김지영, 2024), 일부 청년층과 이민자에게는 낮은 임금의 불완전 고용 형태로 작용하는 점(전용석, 2024)이 지적됨

■ 일본의 청년고용 및 노동시장 정책 모델

-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장기불황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고용 안정화와 지방정착 유도형 정책을 병행 추진해 온 국가로 평가됨(윤성원 외, 2022; 조성호, 2024)
- 2000년대 초반 이후 노동시장 경직성과 청년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 유도, 학교-직장 전이 지원, 지역 기반 청년고용 모델이 병행적으로 추진됨(Hori, 2023)
- 제도적 특징으로는 정규직화 지원, 지방 정착형 청년고용 모델,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등을 들 수 있음
 - **정규직화 유도 및 혼합형 고용유형 제도화**: 정규직 전환형 비정규직, 한정정규직(무기계약직) 등 중간 형태 고용유형을 제도화하여 청년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 하는 시도 전개(윤성원 외, 2022)
 - **지방 정착형 청년고용 모델**: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청년을 매칭해 장기 고용을 유도하고, 주거비·생활비 등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 운영.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기 파견 이후 정규직 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도 운영함(조성호, 2024)
 - **공공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Youth Hello Work 등 전담 기관을 통해 진로상담, 훈련 연계, 직무 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앙-지방-민간 연계를 통해 개별 맞춤형 고용지원 체계를 구축함(Hori, 2023)
- 주요 성과로는 청년 고용률 증가, 지방정착 지원 기반 마련, 전담 서비스 체계 확립 등을 들 수 있음
 - 청년고용률 회복: 2020년 기준 15~34세 고용률 77.2% 달성(Hori, 2023)
 - 일부 지역에서 청년 유출 완화 및 정주율 제고 효과 확인(조성호, 2024)
 - 정규직 전환형 제도 도입으로 고용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확대(윤성원 외, 2022)
 - 고용서비스기관 간 연계 강화로 구직 효율성 제고 및 취업 경로 다변화에 기여(Hori, 2023)
- 한계로는 중소기업과 수도권 간 격차, 경력 축적의 어려움, 성별 분업 구조 고착 등을 들 수 있음
 - 혼합형 고용유형이 일부 기업에서는 승진·경력 개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해 경력 발전에 한계를 보이는 점(윤성원 외, 2022)

- 청년의 경력 형성이 수도권·대기업 중심으로 편중되어, 지역 청년은 진입 장벽과 성장 경로의 제약을 경험하는 문제(Hori, 2023)

- 여성의 시간제 및 비정규직 집중이 전통적 성 역할 고착 위험과 연결되는 점(조성호, 2024)

[표 2-3]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노동시장·청년고용 정책 모델 비교표

구분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핵심 모델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시간제 노동(part-time work) 모델	청년고용 및 지방정책형 고용모델
정책 도입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0년대 실업률 상승과 경직된 노동시장 - 복지국가 재편 논의와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경제위기 극복 위한 노사정 합의 (Wassenaar 합의) - 고용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병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 장기불황 대응 - 청년고용 불안정 심화
제도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운 해고 및 채용 (유연성) - 관대한 실업급여 (소득보장)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LMP) - '권리-의무' 연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과 동일한 법적 보호 - 시간제 노동자의 권리 보장 - 여성 친화적 설계 - 정규직 기반 유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화 유도 (전환형 비정규직) - 지방 정책형 고용모델 - Youth Hello Work 등 공공서비스 개편
대표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맞춤형 행동계획(PAP) - Jobcenter 통한 훈련·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6 Equal Treatment Act - 1999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정정규직 제도 - 지방청년 고용 매칭 프로그램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률 4~6% 유지 - 장기실업자 비율 낮음 - 청년·여성 경제활동률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용률 증가 - 정규직 기반 장기 고용화 - 일·가정 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률 77.2% (2020) - 일부 지역 청년 정주율 상승 - 고용서비스기관 연계 강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용 과다 (복지+ALMP) - 저숙련자 배제 우려 - 최근 비정규 확산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 성역할 고착 위험 - 승진·경력 제한 - 청년·이민자에게 불완전 고용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중심 경력 형성 편중 - 중소기업의 승진기회 제한 - 여성 비정규직 집중
청년 관련 포인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 이하 청년은 4주 이내 재교육 의무 - 청년 위한 직업훈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청년 자발적 시간제 선택 - 커리어 연계는 상대적으로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직장 전이 지원 - 정규직화 및 주거·생활비 연계 지원

나. 국내 일자리 질 개선 및 청년·지역 일자리 정책 사례

- 국내 일자리 정책은 공공주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 청년 맞춤형 통합지원 정책, 사회적경제 기반 지역 일자리 모델 등으로 구분되며, 일자리의 양과 질, 정주·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 광주형 일자리

- 광주형 일자리는 고임금 구조 개편, 노사 상생, 지역산업 활성화를 연계하여 노동시장 유연성과 일자리 질 개선 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공공·민간 협력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평가됨
 - 임금 수준 양보(적정 임금)와 복지 확충(사회임금)을 결합한 상생형 고용 모델로, 임금 비용을 완화하는 대신 복지·주거·교통 등 사회임금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구조로 설계됨
 -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기업은 적정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형태로 노사·공공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짐
- 정책 추진 배경은 청년층 고용 위기, 지역 제조업 침체, 중소기업 인력 확보 곤란 등 복합적 지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 고용 창출이 아닌 장기 고용 안정과 지역 산업생태계 회복을 동시에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윤상용 외, 2020)
- 핵심 설계 요소는 적정임금, 사회임금,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공공지원을 들 수 있음
 - ① 적정임금: 기존 대기업 수준보다는 낮지만 지속가능한 수준의 임금으로, 고용안정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구조
 - ② 사회임금: 복지·주거·교통비 등 비임금 혜택 제공을 통해 실질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지병근, 2021)
 - ③ 노사민정 협의체 운영: 노사민정 간 사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 협약 이행을 관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장치
 - ④ 공공지원: 공공부문은 공장부지 제공, 세제 지원, 인력양성 등으로 참여기업을 지원하여 기업 비용 부담과 고용 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
- 광주형 일자리의 성과로는 현대차-광주시 합작법인(GGM) 설립 이후 청년 고용 확대,

정규직 채용 확대, 기존 대립적 노사관계를 상생의 틀로 전환하려는 노사관계 안정화 시도 등을 들 수 있음

- 단순한 공장 유치에 그치지 않고,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고용생태계 재편 모델로 평가됨(정보영, 2025)
- 한계로는 적정임금 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우려, 노사협약 체결 이후 협의체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실제 일자리의 질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정보영, 2025) 등이 제기됨
-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산업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지역 노사정 합의 모델로서, 청년에게 지역 기반의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실험적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주도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 가능함

■ 청년 맞춤형 일자리 통합지원 모델

- 대한민국은 청년층의 직무 경험 부족과 노동시장 미스매치 문제에 대응해, 직무훈련 + 취업연계 + 복지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청년 일자리 정책 모델을 2020년대 초반부터 도입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서울시 미래 청년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함(고용노동부, 2021; 이규민·지수호, 2024)
- 청년학력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실무 경험 부족, 대기업 중심 고용 구조, 비정규직 진입 증가, 청년 고용률 정체, 질적 고용 미스매치 확대 등이 지속되면서, 청년 일자리 질 관점에서의 정책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이규민·지수호, 2024)
- ‘서울시 미래 청년일자리 사업’은 직무훈련, 취업연계, 복지지원을 결합한 통합지원형 청년 일자리 모델로 설계됨(서울특별시, 2025)
 - 직무체험 중심 일경험 제공: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분야 참여기업에서 3~6개월간 실무 일 경험 제공(2025년 기준 3개 분야, 참여기업 111개, 참여자 166명 모집)
 - 직무역량 강화 교육: 참여자 대상 기본교육 및 분야별 직무교육을 병행 수행해 경력 형성 초기의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데 초점

- 인건비 및 생활지원: 서울시가 참여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월 약 180~246만 원 수준 등)하며, 참여 기업에도 4대보험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구조 적용
- 정책 효과 분석에서, 해당 사업 참여가 취업 확률을 약 4.6배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정규직 취업 여부와는 통계적 연관성은 높지 않아,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과 경력 지속성 측면에서 보완 필요성이 지적됨(이규민·지수호, 2024)
- 6개월 내외 단기간 프로젝트 위주 운영으로 인해, 프로젝트 종료 이후 고용 지속성 확보가 미흡하고, 지역·분야별 참여 불균형이 존재함
- 실제 고용 지속성, 직무 만족도, 경력 형성 효과 등 질적 지표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정책 평가의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제기됨(이규민·지수호, 2024)
- 그룹에도 이 모델은 경력 형성 중심 정책으로서 단기 실무 경험을 제공해 청년의 경력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직무·기업 매칭 강화를 통해 고급 일경험과 산업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복지지원 병행을 통해 일자리 접근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며, 대도시형·서울형 지역 맞춤형 청년 일자리 질 개선 모델로서 정책적 의미를 가짐

■ 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일자리 모델

- 청년 고용 위기는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직무경험 부족, 노동시장 진입 지연, 정규직 진입의 어려움 등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전통적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 공공성과 지역 연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일자리 모델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는 수익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통해 창출되며,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기(transition) 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가짐
- 특히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공공성·사회적 가치·지역 정주를 아우르는 정책 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주목됨(안수지, 2022)

-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는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개발, 사회적 기여에 대한 자긍감 고양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지역 기반 청년정책의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참여 경험은 단지 고용 기회를 넘어, 사회적 자본 축적, 삶의 질 향상, 자아존중감 회복 등 비경제적 효과를 통해 청년의 정체성 강화와 미래 설계 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이나경, 2022)
- 청년은 사회적경제의 이념적·공익적 가치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참여에 있어서는 고용 불안정, 경력 설계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이는 단순 고용 지원이 아닌 진로교육·경력설계가 통합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시사함(박재환·이일한, 2018)
- 실제 정책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서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유형이 일부 운영되었으나, 단기 고용 중심, 직무 다양성 부족, 성과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드러난 바 있음(안수지, 2022)
- 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일자리는 중앙정부-지자체-현장 조직 간 연계,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 직무 기반 경력설계, 비경제적 성과의 제도적 반영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청년 노동시장 이행기 안정화와 지역 정주 유도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됨
-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익적 목적은 청년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책임의식, 정체성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적·문화적 기제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고용 형태와 구별되는 사회적경제 일자리의 고유한 정책 자산으로 간주됨

■ 지역 위기 유형별 일자리 정책 사례

- 지역의 인구 감소, 산업 구조 변화, 청년 유출 등은 지역마다 다양한 양상과 원인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일자리 문제도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보임
- 지역 일자리 정책 역시 일률적 모델이 아닌, 지역별 위기 유형에 기반을 둔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요구됨

- 이상호 외(2021)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지역을 ‘전통 산업 쇠퇴형’, ‘산업단지 재편형’, ‘주민 유출형’, ‘관광 산업 중심형’, ‘고령화·복지형’ 등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일자리 정책 사례를 분석함

[표 2-4] 지역 일자리 사례의 주요 특성

사례 유형	러스트벨트형	대학소멸 위기형	원도심 쇠퇴형	풀뿌리 공동체형
위기의 성격	지역 대기업 폐업으로 산업 쇠퇴	지역 대학 입학자원 감소 경쟁력 약화	지역산업 및 원도심 쇠퇴, 인구유출	인구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
공간적 층위	중규모 도시	광역 수준	동 수준	마을 수준
일자리 연계	산업-노동 연계	교육-산업 연계	산업-정주환경-문화 연계	농업-주거-정주환경 연계
선택 사례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광주-전남, 경남	부산 영도 도시재생 뉴딜	경북 의성 이웃사촌마을

출처: 이상호 외. 2021

다. 전북의 적용 가능성

■ 청년 일자리 질에 대한 다원적 접근 필요

- 국내외 사례는 하나의 정형화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맥락에 따라 다른 일자리 질의 조건이 존재함을 보여줌
- 전북에서도 임금 수준 외에 경력 개발 기회, 정주 지원, 일·삶의 균형, 지역사회 기여도 등 복합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일자리 설계와 정책 지원 필요

■ 지역과의 ‘연계 가치’를 중시하는 일자리 모델 개발

- 사회적경제 기반 일자리처럼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직무 설계는 전북 청년의 지역 정주 유도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 전북이 추진 중인 로컬크리에이터, 지역문화예술, 생태관광, 농생명 산업 등과 결합 가능성이 크며, 일자리 질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여지가 있음

■ 청년 산업군별 맞춤형 접근 필요

- 전북에는 농업, 산업단지 노동, 문화예술, 공공서비스, 플랫폼 노동 등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청년 산업군이 공존하고 있음
- ‘하나의 일자리 해법’이 아니라, 산업군 특성별로 다른 일자리 질 개선 전략과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청년 페르소나 기반 정책 발굴 방식이 유효한 접근으로 평가됨

■ 정책 실험의 장으로서 전북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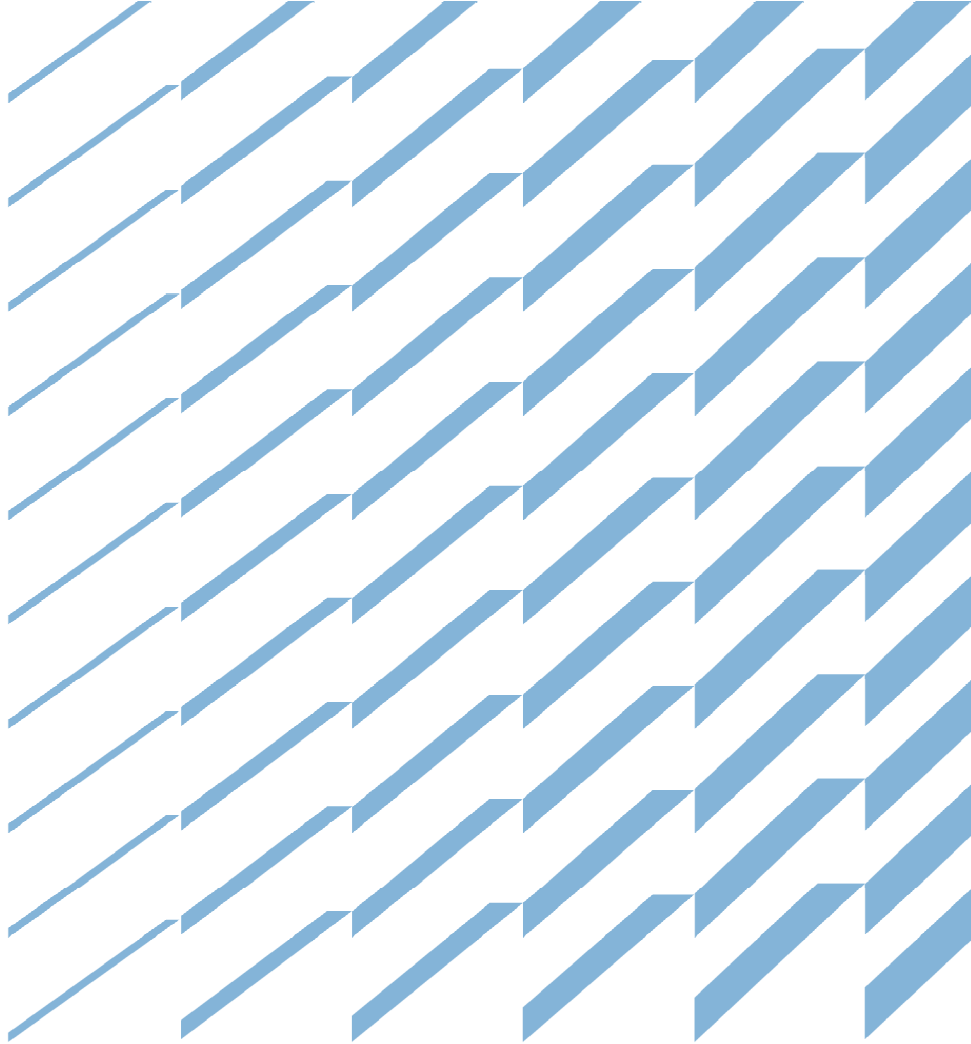
- 광주형 일자리나 일본의 지방정착형 청년고용 모델에서 보듯, 노사정 협의와 지역자원 연계를 결합한 일자리 모델은 전북의 산업·인구 구조와도 부합하는 방향임
- 특히 인구감소지역 특례, 정주 인센티브, 맞춤형 직무훈련 등을 결합한 청년 일자리·정주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정책 실험지로서의 지역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

■ 지역 위기 유형별 일자리 대응 전략의 체계화

- 이상호 외(2021)에서 제시한 ‘러스트벨트형’, ‘대학소멸형’, ‘원도심 쇠퇴형’, ‘풀뿌리 공동체형’ 등 지역 위기 유형은 전북 내부에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전북 내 시·군별 지역 위기 유형을 진단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주 정책 대응을 체계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질과 지역 정주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전략 마련 필요

■ 핵심 분석 대상(4대 유형) 선정의 전략적 함의

- 본 연구는 전북의 산업적 특수성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니즈가 교차하는 농업, 산업단지, 문화예술, 플랫폼 노동을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선정함. 이는 단순한 산업 분류가 아닌, 전북 청년 일자리 생태계의 안정성과 역동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지역 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연결망(Network)으로서 중요한 함의를 가짐
- **(농업 분야: 뿌리와 정착)** 전북의 기반 산업이자, 귀농·귀촌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생애 정착(Settlement)을 유도할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함
- **(산업단지: 안정과 성장)** 지역 경제의 주력 엔진이나, 심각한 인력 수급 불일치(Mismatch)를 겪고 있는 역설적 공간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주된 이유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음을 상기할 때, 기존 제조업 현장의 노동 환경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문화예술: 활력과 매력)** 문화예술은 지역의 '매력도'를 창출하여 청년 유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함. 로컬의 고유성을 콘텐츠화하려는 청년들의 시도는 많으나, 자생적 생태계가 부족하여 그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임. 지역이 단순한 '일터'를 넘어 매력적인 '삶터'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여 지역 내 활력을 회복해야 함
- **(플랫폼 노동: 유연과 탐색)** 청년에게 보편화된 노동이자 '이동성'이 보장되는 분야로, 플랫폼 노동이 갖는 '직업적 이동성(Mobility)'은 역설적으로 전북에 연고가 없는 청년들도 지역에 잠시나마 머물며 탐색할 수 있는 유연한 진입로를 제공할 여지가 있음. 또한 정규직 위주의 기존 일자리에 근무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청년이나 로컬크리에이터 등 많은 청년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과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전북 청년들의 성장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4가지 유형별 접근은 전통적 일자리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 선호도가 높은 유연한 일자리(문화·플랫폼)와 지역 기반의 전통적 일자리(농업·산업)가 결합되는 방식을 제도권에서 지원함으로써, 전북형 청년 일자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균형 잡힌 미래 설계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



제3장

전북 청년 고용 실태 및 일자리 질·인식 분석

1. 전북 청년 고용 구조와 일자리 질 통계 분석
2.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인식·선호 및
정책 수요 분석



제3장 전북 청년 고용 실태 및 일자리 질·인식 분석

1. 전북 청년 고용 구조와 일자리 질 통계 분석

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및 청년 고용 현황

■ 청년인구 일반 현황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는 369,403명이며 그 중 남성은 약 53.3% (197,044명), 여성은 약 46.7%(172,359명)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
-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103,740명(28.1%)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가 93,011명 (25.2%), 30~34세 89,545명(24.2%), 35~39세 83,107명(22.5%)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청년의 연령대별 비중은 30~34세가 26.7%로 가장 많고, 25~29세 25.4%, 35~39세 24.2%, 19~24세 23.7% 순으로 나타나 전북 청년의 연령대별 구성과 차이가 있음

[표 3-1]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청년인구(2024년)

단위: 명, %

		총 인구	남성	여성
전국	청년 전체 인구	13,014,729	6,782,787	6,231,942
	19~24세	3,082,324	1,598,912	1,483,412
	25~29세	3,307,842	1,725,897	1,581,945
	30~34세	3,479,212	1,834,878	1,644,334
	35~39세	3,145,351	1,623,100	1,522,25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전체 인구	369,403	197,044	172,359
	19~24세	103,740	56,099	47,641
	25~29세	93,011	50,665	42,346
	30~34세	89,545	47,605	41,940
	35~39세	83,107	42,675	40,432
전국 대비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비중	청년 전체 인구	2.8	2.9	2.8
	19~24세	3.4	3.5	3.2
	25~29세	2.8	2.9	2.7
	30~34세	2.6	2.6	2.6
	35~39세	2.6	2.6	2.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 중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주시로, 청년인구 163,572명으로 전체 전북 청년인구의 44.3%를 차지함. 전주시에 이어 익산시(59,121명), 군산시(53,670명), 완주군(20,854명) 순으로 청년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14개 시군 중 청년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장수군으로 전북 청년의 약 0.7%에 해당하는 2,598명만이 거주중이며 진안군(3,062명), 무주군(3,097명) 등 지역의 청년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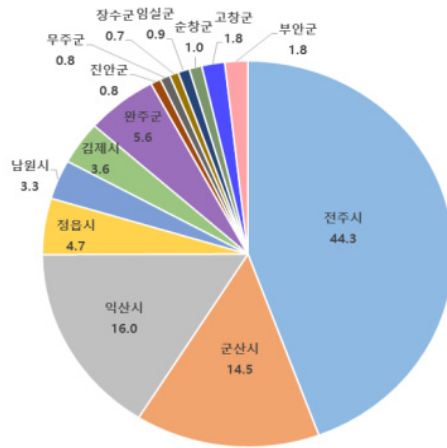
[표 3-2]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청년인구(2024년)

단위: 명, %

	총 인구	남성	여성	성별 비중	
				남성	여성
전북특별자치도	369,403	197,044	172,359	53.3	46.7
전주시	163,572	85,219	78,353	52.1	47.9
군산시	53,670	29,224	24,446	54.5	45.5
익산시	59,121	31,820	27,301	53.8	46.2
정읍시	17,291	9,519	7,772	55.1	44.9
남원시	12,135	6,536	5,599	53.9	46.1
김제시	13,379	7,310	6,069	54.6	45.4
완주군	20,854	11,183	9,671	53.6	46.4
진안군	3,062	1,650	1,412	53.9	46.1
무주군	3,097	1,718	1,379	55.5	44.5
장수군	2,598	1,434	1,164	55.2	44.8
임실군	3,355	1,895	1,460	56.5	43.5
순창군	3,836	2,039	1,797	53.2	46.8
고창군	6,773	3,753	3,020	55.4	44.6
부안군	6,660	3,744	2,916	56.2	43.8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중 전주시의 청년인구는 44.3%이며 익산시 16.0%, 군산시 14.5% 순으로 나타남.
- 6개 시지역의 청년 비중이 전북 전체 청년의 86.4%에 달해 청년인구가 시지역에 매우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시군별 비중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세대 구성은 2세대가 60.72%로 가장 많고, 1인 가구가 23.48%, 1세대 7.66%, 3세대 5.03%, 비친족가구 3.04%순으로 나타났으며 4세대 이상이 0.06%로 가장 적음
-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의 세대구성을 비교한 결과, 청년인구는 1세대, 2세대 가구의 비중이 낮고, 상대적으로 1인가구와 비친족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세대 구성(2023년)

단위: 명, %

		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1인 가구	비친족가구
전국	전체 인구	48,870,498	8,507,355	28,482,588	2,869,471	21,890	7,829,035	1,160,159
	%	100.00	17.41	58.28	5.87	0.04	16.02	2.37
	청년 인구	11,956,050	1,075,102	7,066,741	525,063	4,572	2,759,571	525,001
	%	100.00	8.99	59.11	4.39	0.04	23.08	4.39
전북 특별자치도	전체 인구	1,667,202	344,119	896,570	93,850	880	296,799	34,984
	%	100.00	20.64	53.78	5.63	0.05	17.80	2.10
	청년 인구	344,106	26,372	208,941	17,320	205	80,805	10,463
	%	100.00	7.66	60.72	5.03	0.06	23.48	3.04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특별자치도의 세대별 인구 비중은 19세 미만이 13.9%, 19~39세가 21.2%, 40~59세가 30.9%이며, 60~79세 27.0%, 80세 이상 7.1%로 나타남

- 전국 인구와 비교하면 전북자치도 청년인구 비중은 4.2%p 낮고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5.9%p 높음

[표 3-4]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 비중(2024년)

단위: 명, %

		계	19세 미만	19~39세	40~59세	60~79세	80세 이상
전국	N	51,217,221	7,324,873	13,014,729	16,429,193	12,005,380	2,443,046
	%	100.0	14.3	25.4	32.1	23.4	4.8
서울특별시	N	9,331,828	1,129,103	2,826,369	2,870,018	2,100,010	406,328
	%	100.0	12.1	30.3	30.8	22.5	4.4
부산광역시	N	3,266,598	419,657	772,277	1,008,656	897,939	168,069
	%	100.0	12.8	23.6	30.9	27.5	5.1
대구광역시	N	2,363,629	334,161	571,237	762,826	580,673	114,732
	%	100.0	14.1	24.2	32.3	24.6	4.9
인천광역시	N	3,021,010	442,326	798,942	992,176	672,414	115,152
	%	100.0	14.6	26.4	32.8	22.3	3.8
광주광역시	N	1,408,422	224,386	369,664	462,665	294,160	57,547
	%	100.0	15.9	26.2	32.8	20.9	4.1
대전광역시	N	1,439,157	213,488	398,045	456,893	312,385	58,346
	%	100.0	14.8	27.7	31.7	21.7	4.1
울산광역시	N	1,098,049	173,037	262,880	376,166	252,515	33,451
	%	100.0	15.8	23.9	34.3	23.0	3.0
세종특별자치시	N	390,685	90,041	99,751	134,223	56,566	10,104
	%	100.0	23.0	25.5	34.4	14.5	2.6
경기도	N	13,694,685	2,138,149	3,655,077	4,572,481	2,816,124	512,854
	%	100.0	15.6	26.7	33.4	20.6	3.7
강원특별자치도	N	1,517,766	199,882	327,258	461,536	428,686	100,404
	%	100.0	13.2	21.6	30.4	28.2	6.6
충청북도	N	1,591,177	227,413	376,440	498,465	400,080	88,779
	%	100.0	14.3	23.7	31.3	25.1	5.6
충청남도	N	2,136,574	318,748	490,962	671,356	523,421	132,087
	%	100.0	14.9	23.0	31.4	24.5	6.2
전북특별자치도	N	1,738,690	240,958	369,403	536,436	468,649	123,244
	%	100.0	13.9	21.2	30.9	27.0	7.1
전라남도	N	1,788,819	243,571	352,608	541,063	507,120	144,457
	%	100.0	13.6	19.7	30.2	28.3	8.1
경상북도	N	2,531,384	335,815	511,780	785,289	722,418	176,082
	%	100.0	13.3	20.2	31.0	28.5	7.0
경상남도	N	3,228,380	482,131	678,428	1,074,295	825,307	168,219
	%	100.0	14.9	21.0	33.3	25.6	5.2
제주특별자치도	N	670,368	112,007	153,608	224,649	146,913	33,191
	%	100.0	16.7	22.9	33.5	21.9	5.0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4년 기준 청년인구의 시도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에 청년인구의 28.1%가 분포하고 있어 비중이 가장 높으며, 서울특별시 21.7%, 인천광역시 6.1%, 부산광역시 5.9%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체 청년인구 중 과반 이상인 55.9%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청년인구의 2.8%가 분포하고 있어 17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남도예 이어 6번째로 청년인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2] 청년인구의 시도별 분포 비중(2024년)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는 2010년 522,779명에서 2024년 369,403명으로 약 29.3% 감소하였으며 해당 기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2.10%로 전국 청년인구의 연평균 감소율인 1.31%보다 높은 수준임
- 청년의 연령대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19~24세의 연평균 감소율이 약 1.95%, 25~29세가 약 1.54%, 30~34세가 약 1.90%, 35~39세가 약 3.05%로 나타나 30~39세 연령대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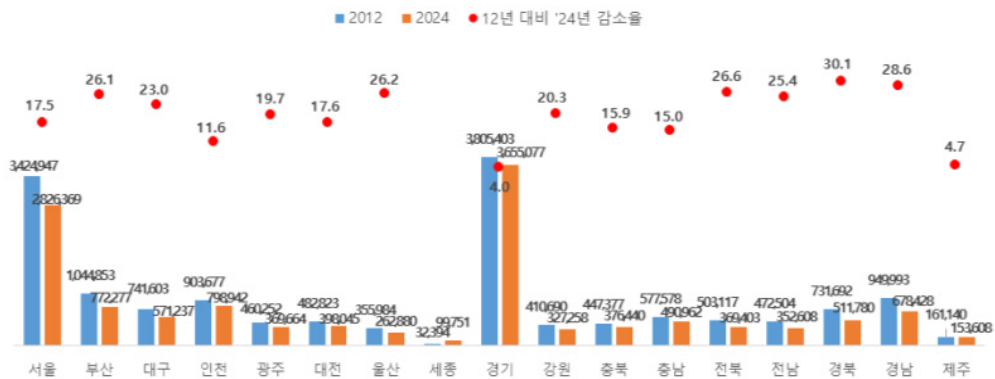
[표 3-5]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연령대별 청년인구 추이

단위: 명

		청년인구 계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국	2010	15,939,852	3,212,059	3,731,055	3,950,726	4,419,823
	2011	15,707,350	3,321,036	3,515,101	4,024,454	4,230,332
	2012	15,506,027	3,405,035	3,307,408	4,062,598	4,106,345
	2013	15,318,646	3,488,611	3,184,327	4,086,122	3,929,292
	2014	15,161,827	3,557,134	3,153,547	3,917,451	3,894,396
	2015	15,055,483	3,541,149	3,141,465	3,731,387	3,939,579
	2016	14,963,887	3,487,639	3,217,367	3,517,868	4,016,272
	2017	14,819,048	3,416,123	3,324,540	3,311,945	4,056,704
	2018	14,713,415	3,321,064	3,409,071	3,189,361	4,080,782
	2019	14,519,693	3,250,838	3,490,711	3,158,230	3,912,794
	2020	14,237,686	3,123,946	3,556,477	3,145,998	3,727,119
	2021	13,872,814	2,945,269	3,534,601	3,216,061	3,507,374
	2022	13,524,448	2,796,309	3,475,340	3,317,257	3,298,254
	2023	13,245,155	2,649,404	3,403,046	3,399,252	3,176,296
	2024	13,014,729	2,446,189	3,307,842	3,479,212	3,145,351
	연평균 감소율	1.31%	1.70%	0.81%	0.85%	2.06%
전북 특별자치도	2010	522,779	115,565	118,520	122,043	145,026
	2011	514,229	119,512	112,068	123,039	138,367
	2012	503,117	121,233	104,246	122,650	134,017
	2013	493,255	124,618	98,854	121,636	127,319
	2014	483,430	127,267	95,890	116,047	123,241
	2015	477,195	127,895	94,230	109,611	122,906
	2016	469,977	126,415	94,669	102,681	122,970
	2017	460,534	125,315	96,350	94,635	121,322
	2018	448,480	120,638	96,854	88,672	119,202
	2019	435,496	116,749	98,080	85,188	112,791
	2020	421,436	111,405	99,185	83,029	105,983
	2021	407,185	104,788	99,153	83,512	98,669
	2022	392,278	97,880	97,558	85,453	91,052
	2023	380,612	92,023	96,265	87,183	85,816
	2024	369,403	84,035	93,011	89,545	83,107
	연평균 감소율	2.10%	1.95%	1.54%	1.90%	3.05%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17개 시도별 2012년 대비 2024년 청년인구 감소율은 경기도가 4.0%로 가장 낮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4.7%로 뒤를 이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당 기간 청년인구가 26.6% 감소하여 경상북도(30.1%), 경상남도(28.6%)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청년인구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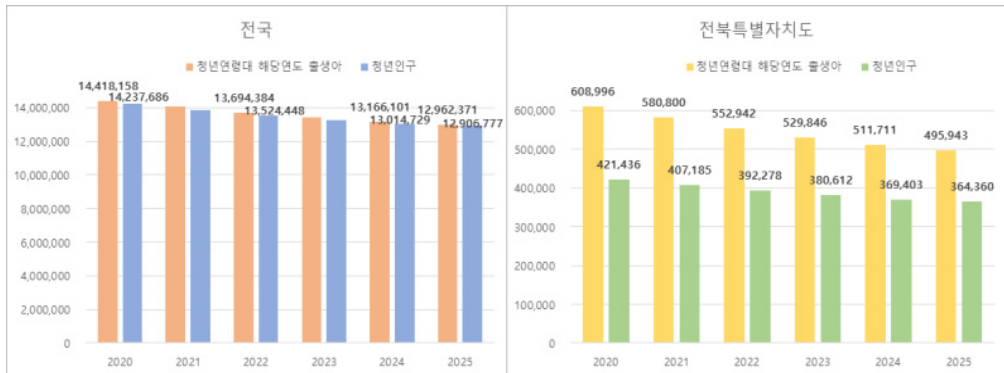


주: 2012년 대비 2024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인구는 207.9% 증가하여 그래프 상 표기되지 않음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3] 광역시도별 2012년 대비 2024년 청년인구 감소율

■ 청년인구 증감 현황

- 2020년 기준 청년인구인 1981년~2001년 출생자는 14,418,158명이며 2020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청년인구는 14,237,686명으로 출생자 대비 약 1.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5년 기준 청년인구는 해당 연령대의 출생 시기 출생자 대비 0.43% 감소하였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 기준 청년인구인 1986년~2006년 출생자는 495,943명인 반면, 2025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청년인구는 364,360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출생 시기 출생자 대비 26.5%가 감소함. 이는 전국적인 청년의 감소 정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가 자연적 감소가 아닌 사회적 감소가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음



주: 청년연령대 해당연도 출생아는 2020년의 경우 1981년~2001년 출생자임
 2025년 청년인구는 2025년 6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

[그림 3-4] 청년인구의 출생 대비 현 인구의 감소 현황

-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세대에서 인구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인구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음
- 2012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이동은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음
 - 인구가 타지역으로 가장 많이 유출된 시기는 2018년과 2019년으로 각각 13,773명, 12,748명이 순유출 되었으며, 2024년에는 6,060명이 순유출 된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에 해당하는 19~39세의 인구이동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기에서 청년의 인구 유출은 당해 연도 전체 인구의 순유출보다 큰 규모를 보임
 - 2010년 이후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유출 규모를 보면, 2018년과 2019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전체 인구의 유출규모보다 청년인구의 유출규모가 크게 나타남
- 2024년의 청년인구의 이동현황을 보면 총전입은 82,175명, 총전출은 90,148명으로 총 7,973명의 청년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6]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이동 추이

단위: 명

	전체 인구			청년 인구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2010	305,789	308,237	-2,448	122,888	128,228	-5,340
2011	308,011	306,290	1,721	123,476	126,575	-3,099
2012	271,835	275,126	-3,291	106,967	114,280	-7,313
2013	258,198	260,395	-2,197	100,005	106,664	-6,659
2014	274,337	276,900	-2,563	104,717	111,692	-6,975
2015	261,832	264,662	-2,830	100,876	107,418	-6,542
2016	248,188	252,607	-4,419	95,466	103,093	-7,627
2017	232,047	239,253	-7,206	89,802	98,491	-8,689
2018	243,324	257,097	-13,773	93,231	105,648	-12,417
2019	228,775	241,523	-12,748	88,972	101,168	-12,196
2020	249,083	257,577	-8,494	97,838	108,278	-10,440
2021	223,710	229,511	-5,801	91,216	99,453	-8,237
2022	199,432	204,547	-5,115	81,247	89,811	-8,564
2023	188,788	193,245	-4,457	77,241	84,498	-7,257
2024	198,792	204,852	-6,060	82,175	90,148	-7,97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4년 기준 청년인구의 유출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상남도로 12,092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었으며 경상북도 9,236명, 전북특별자치도 7,973명, 부산광역시 7,936명 순으로 유출규모가 크게 나타남. 반면 경기도(34,389명), 서울특별시(15,420명), 인천광역시(10,937명), 충청남도(2,914명), 세종특별자치시(1,656명), 대전광역시(561명)는 청년인구가 유입되었음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연령대별 순이동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일어났는데 19~24세의 순유출이 4,381명으로 가장 많고, 25~29세는 2,930명, 30~34세는 586명, 35~39세는 76명이 순유출 되어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특별시는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 초년생이 되는 20대의 청년 유입규모가 크게 나

타났으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전 연령대에서 모두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30대의 유입규모가 더욱 크게 나타남. 경기도를 제외한 8개의 광역자치도는 모두 19~24세 연령대에서 청년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7]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24)

단위: 명

	청년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특별시	15,420	31,407	10,237	-13,634	-12,590
부산광역시	-7,936	1,387	-5,370	-2,752	-1,201
대구광역시	-5,881	-2,650	-3,768	-105	642
인천광역시	10,937	1,871	2,668	3,206	3,192
광주광역시	-6,005	-1,783	-2,399	-1,143	-680
대전광역시	561	2,270	-985	-385	-339
울산광역시	-1,724	-2,081	578	-17	-204
세종특별자치시	1,656	-502	685	1,188	285
경기도	34,689	2,238	9,113	14,384	8,954
강원특별자치도	-4,869	-2,224	-1,824	-707	-114
충청북도	-1,450	-1,545	-207	31	271
충청남도	2,914	-1,693	1,629	1,602	1,376
전북특별자치도	-7,973	-4,381	-2,930	-586	-76
전라남도	-6,611	-5,255	-1,757	-54	455
경상북도	-9,236	-5,149	-2,316	-1,243	-528
경상남도	-12,092	-10,168	-2,688	340	424
제주특별자치도	-2,400	-1,742	-666	-125	133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는 서울특별시로 3,437명이 전출하여 전출규모가 가장 컸고, 경기도 1,904명, 인천광역시 1,135명, 부산광역시 923명, 세종특별자치시 887명 순으로 순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남
- 2024년 기준 청년인구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순유입한 지역은 경상남도가 486명으로 가장 유입규모가 크고, 경상북도 249명, 제주특별자치도 60명, 전라남도 26명 순으로 나타남

[표 3-8] 전입-전출지간 청년인구 순이동 현황(2024)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서울	0	-5,007	-16,691	-9,124	-4,208	-2,377	-1,743	-2,701	-6,638	-6,292	-2,120	-3,633	-3,437	-4,589	-3,386	-6,757	-3,980
부산	5,007	0	48	-1,160	-277	-447	-817	-525	-4,488	-984	-500	-595	-923	-1,060	4,935	2,612	-212
대구	16,691	-48	0	-144	-54	-12	-528	-324	-1,425	-328	-263	-234	-479	-611	2,511	1,012	-124
인천	9,124	1,160	420	0	-241	-293	-448	-382	-2,168	-1,107	-776	-889	-1,135	-1,226	-953	-1,735	-211
광주	4,208	277	54	241	0	-62	-17	-116	-464	-226	-188	-154	-345	-400	-113	-314	-81
대전	2,377	447	12	293	62	0	-95	-102	-292	-88	-35	-85	-256	-259	-33	-187	-60
울산	1,743	817	528	448	17	95	0	-51	-124	-123	-76	-97	-151	-168	1,042	12,369	-16
세종	2,701	525	324	382	116	102	51	0	-1,521	-248	-199	-600	-887	-738	-224	-237	-19
경기	6,638	4,488	1,425	2,168	464	292	124	1,521	0	-2,557	-983	-1,251	-1,904	-1,922	-1,501	-4,745	-383
강원	6,292	984	328	1,107	226	88	123	248	2,557	0	-3	-33	-21	-48	-215	-375	-42
충북	2,120	500	263	776	188	35	76	199	983	3	0	-47	-8	-122	-81	-251	-17
충남	3,633	595	234	889	154	85	97	600	1,251	33	47	0	-167	-241	-113	-334	-52
전북	3,437	923	479	1,135	345	256	151	887	1,904	21	8	167	0	-26	-249	-486	-60
전남	4,589	1,060	611	1,226	400	259	168	738	1,922	48	122	241	26	0	-220	-460	-98
경북	3,386	4,935	2,511	953	113	33	-1,042	224	1,501	215	81	113	249	220	0	-646	-36
경남	6,757	-2,612	-1,012	1,735	314	187	-12,369	237	4,745	375	251	334	486	460	646	0	-35
제주	3,980	212	124	211	81	60	16	19	383	42	17	52	60	98	36	35	0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 청년인구의 전입사유는 직업이 41.5%로 가장 많았고, 가족 28.3%, 교육 13.0%, 주택 8.8%, 주거환경 3.5%, 자연환경 0.4%로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입사유 중 가족이 35.7%로 가장 많았고, 직업 34.3%, 교육 14.4%, 주택 6.8% 등으로 나타나 전체 청년인구의 전입사유와 차이를 보임
 -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로 전입하는 청년 중 전입사유가 '직업'인 비율은 17개 시도 중 비중이 가장 낮음
-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전출사유는 직업이 49.5%로 절반에 가까우며, 가족이 20.4%, 교육이 16.9%, 주택이 5.9%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직업적 사유로 전출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직업적 사유로 전입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청년인구의 유출에 있어 일자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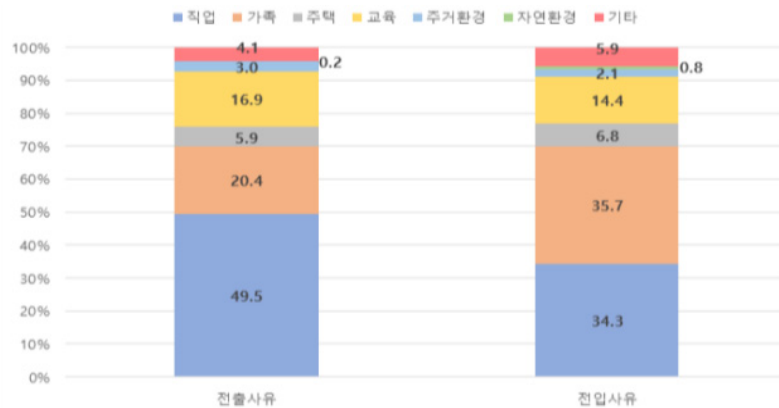
[표 3-9] 시도별 청년인구의 전입사유(2024)

단위: %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체	41.5	28.3	8.8	13.0	3.5	0.4	4.6
서울특별시	46.8	19.1	7.7	17.1	4.8	0.1	4.3
부산광역시	39.4	25.9	7.1	19.5	3.5	0.3	4.3
대구광역시	35.2	31.9	9.8	14.5	3.7	0.2	4.7
인천광역시	39.6	30.4	12.4	8.5	4.0	0.2	5.0
광주광역시	34.6	31.7	9.0	14.7	4.2	0.2	5.6
대전광역시	41.9	22.8	6.1	22.0	3.2	0.2	3.8
울산광역시	45.2	34.7	5.8	7.6	1.5	0.3	4.8
세종특별 자치시	42.0	31.5	9.9	8.0	3.6	0.3	4.6
경기도	40.0	32.0	11.7	7.7	3.8	0.3	4.5
강원특별 자치도	41.7	29.1	7.3	15.4	1.9	1.2	3.3
충청북도	43.8	26.8	7.0	15.9	1.9	0.5	4.0
충청남도	45.2	26.8	7.5	13.2	2.1	0.7	4.5
전북특별 자치도	34.3	35.7	6.8	14.4	2.1	0.8	5.9
전라남도	38.6	39.2	6.5	6.2	1.8	1.5	6.1
경상북도	38.6	30.4	6.2	16.5	2.1	0.9	5.4
경상남도	36.1	40.6	8.1	7.7	1.9	0.7	5.0
제주특별 자치도	45.1	29.7	8.7	4.4	2.5	3.2	6.4

주: 전입사유는 청년 1인가구의 전입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주: 전입사유는 청년 1인가구의 전입 기준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 분석

[그림 3-5]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의 전출/전입 사유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고용 현황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하반기 기준 청년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는 9,282,791명이며 그 중 취업자는 8,810,200명, 실업자는 472,591명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376,833명의 청년 중 경제활동인구는 249,006명으로 나타남.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는 236,622명이며, 실업자는 12,11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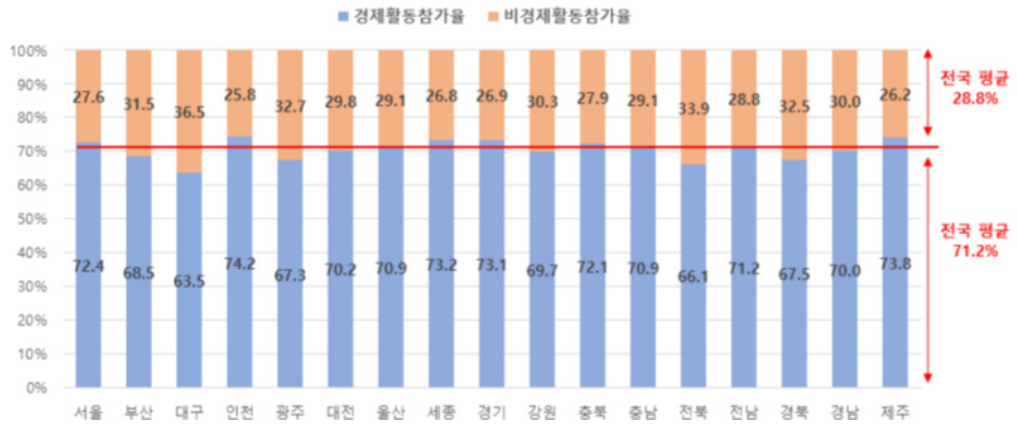
[표 3-10] 시도별 청년 경제활동인구(2024)

단위: 명

	청년인구 (19~39세)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전체	13,039,545	9,282,791	8,810,200	472,591	3,756,754
서울특별시	2,855,178	2,065,728	1,953,520	112,208	789,450
부산광역시	776,496	532,004	504,782	27,222	244,492
대구광역시	559,701	355,653	337,039	18,614	204,048
인천광역시	786,269	583,163	544,509	38,654	203,106
광주광역시	378,093	254,311	239,662	14,649	123,782
대전광역시	421,323	295,683	279,611	16,072	125,640
울산광역시	249,340	176,740	166,300	10,440	72,600
세종특별자치시	105,024	76,925	75,639	1,286	28,099
경기도	3,622,621	2,648,717	2,504,391	144,326	973,904
강원특별자치도	309,619	215,671	208,240	7,431	93,948
충청북도	404,681	291,820	279,947	11,873	112,861
충청남도	544,475	386,259	374,141	12,118	158,216
전북특별자치도	376,833	249,006	236,622	12,384	127,827
전라남도	317,459	225,883	219,096	6,787	91,576
경상북도	532,507	359,654	341,997	17,657	172,853
경상남도	650,996	455,677	438,412	17,265	195,319
제주특별자치도	148,930	109,897	106,292	3,605	39,033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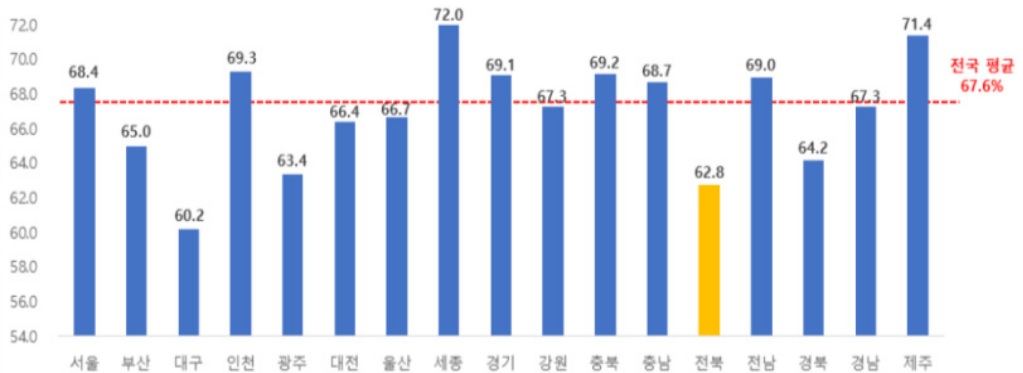
- 전국 평균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1.2%이며 광역시도별로는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4.2%로 가장 높았고, 제주특별자치도 73.8%, 세종특별자치시 73.2%, 경기도 73.1%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대구광역시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3.5%로 가장 낮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66.1%로 뒤를 이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6]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2024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고용률은 62.8%로 대구광역시(60.2%)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전국의 청년인구 고용률은 67.6%로 세종특별자치시(72.0%), 제주특별자치도(71.4%), 인천광역시(69.3%), 충청북도(69.2%), 경기도(69.1%) 등의 지역에서 고용률이 높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7]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고용률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인구 실업률은 3.3%로 전국 평균(3.6%)을 하회하는 수준임

- 17개 시도 중 실업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1.2%), 전라남도(2.1%), 충청남도(2.2%) 등임. 반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4.9%)이며, 울산광역시(4.2%), 경기도(4.0%),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3.9%) 등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8]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실업률

-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분석 결과,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희망자는 514,695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3.7%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127,827명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희망자는 14,881명으로 약 11.6%로 나타나 충청남도(9.1%), 세종특별자치시(11.3%)에 이어 세 번째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희망자 비율이 낮았음
- 전북특별자치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희망자의 일자리를 원하였으나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교육/기술/경험 부족'이 32.9%로 가장 높았고,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31.0%,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23.3%로 나타남
- 전체 청년들의 비구직 사유와 비교하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은 '교육/기술/경험 부족' 응답비율이 약 8.4%p 높았음

[표 3-11] 시도별 청년 구직희망 여부 및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직 원함	일자리를 원하였으나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구직 단념	취업 불가
		전공/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어서	원하는 임금/ 근로조건 맞 아지지 않아서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	이전에 찾을 때 일자리가 없었어서	육아 & 가사	기타		
전체	514,695	28.1	27.3	4.1	24.5	7.2	3.1	5.6	3,178,782	63,277
서울	91,444	30.2	28.2	4.2	21.5	7.1	1.8	6.8	685,231	12,776
부산	40,274	31.3	26.3	4.0	29.2	4.8	1.3	3.1	199,204	5,015
대구	33,120	27.1	36.2	5.2	20.9	7.3	0.5	2.9	167,169	3,759
인천	32,807	27.5	20.6	4.6	20.9	14.3	4.4	7.7	164,676	5,623
광주	21,339	24.5	35.3	7.4	21.8	5.8	1.0	4.2	101,310	1,133
대전	15,837	32.2	27.6	1.8	21.2	9.0	3.5	4.8	107,871	1,931
울산	12,166	11.8	32.5	4.4	34.3	5.5	9.5	2.1	59,530	904
세종	3,165	13.7	38.9	0.0	30.1	6.2	6.1	5.0	24,542	392
경기	130,744	26.0	28.2	2.2	25.9	7.3	3.3	7.0	822,806	20,354
강원	11,746	35.5	24.7	11.9	16.6	2.4	3.7	5.2	81,102	1,100
충북	17,891	23.4	28.7	6.2	33.1	3.5	1.2	3.9	93,287	1,682
충남	14,360	34.1	18.3	6.3	21.0	6.2	10.5	3.6	142,551	1,306
전북	14,881	31.0	23.3	0.0	32.9	6.9	0.0	5.9	112,260	685
전남	16,715	25.2	21.7	6.5	27.7	8.2	1.4	9.3	73,708	1,153
경북	21,516	27.2	26.0	8.7	21.2	7.9	3.0	6.1	148,336	3,002
경남	30,226	27.2	23.2	3.2	27.3	8.0	7.8	3.3	162,836	2,257
제주	6,464	64.3	20.3	0.0	11.0	4.4	0.0	0.0	32,363	205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을 단념한 3,178,782명의 청년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는 ‘정규 교육기관 통학’이 40.4%로 가장 많았고, ‘육아 및 가사’가 21.3%, ‘쉬었음’ 20.9%, ‘취업·진학 준비’ 9.5%, ‘학원, 기관 등 통학’ 5.1%, ‘기타’ 2.8%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구직단념 청년의 주된 활동상태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이 44.6%로 가장 많았고, ‘쉬었음’이 21.8%, ‘육아 및 가사’ 18.0%, ‘취업·진학 준비’ 7.9%, ‘학원, 기관 등 통학’ 3.6% 순으로 나타남

[표 3-12] 시도별 청년 구직단념자의 주된 활동상태

단위: %

행정구역	육아 및 가사	정규교육기관 통학	학원 기관 등 통학	취업·진학 준비	쉬었음	기타
전체	21.3	40.4	5.1	9.5	20.9	2.8
서울	14.6	46.5	6.0	8.7	21.7	2.6
부산	19.7	40.2	4.3	12.0	21.7	2.1
대구	17.7	43.7	4.7	12.6	19.3	2.0
인천	24.1	35.4	6.8	8.1	22.2	3.4
광주	18.7	41.1	4.4	14.4	18.0	3.4
대전	18.6	46.9	3.5	9.5	19.1	2.5
울산	31.6	34.2	5.3	11.2	15.5	2.2
세종	28.2	43.5	2.9	8.0	15.0	2.3
경기	24.4	37.0	6.6	8.0	21.3	2.7
강원	25.9	38.5	3.6	9.4	18.9	3.7
충북	25.0	37.3	3.8	12.4	18.8	2.7
충남	27.8	39.4	2.1	6.6	21.6	2.6
전북	18.0	44.6	3.6	7.9	21.8	4.1
전남	25.0	34.3	3.1	14.9	18.7	4.0
경북	22.4	43.0	2.6	9.2	20.1	2.8
경남	24.4	35.1	2.8	9.6	24.7	3.4
제주	25.0	34.5	4.9	14.7	18.8	2.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퇴직사유는 ‘개인, 가족 관련 이유’가 47.9%로 가장 많고, ‘작업여건 불만족’ 19.8%,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10.4%, ‘직장 휴·폐업/퇴직/해고 등’ 9.7%, ‘육아 및 가사’ 7.7%, ‘일거리 없음, 사업부진’ 4.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성은 ‘육아 및 가사’로 인한 퇴직이 14.3%로 남성(0.0%)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비율 역시 12.3%로 남성(8.1%)보다 4.2%p 높게 나타남. 남성은 ‘직장 휴·폐업/퇴직/해고 등’으로 인한 퇴직이 14.9%로 여성(5.3%)보다 9.6%p 높았고, ‘작업여건 불만족’도 남성(22.3%)이 여성(17.7%)보다 4.6%p 높음
 - 연령대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낮은 19~24세의 경우 ‘개인, 가족 관련 이유’가 68.3%로 과반 이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 및 가사’로 인한 퇴직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전국의 전체 청년의 퇴직사유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퇴직사유를 비교하면, 전국의 경우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로 인한 퇴직이 14.2%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10.4%)의 비중보다 3.8%p 높았음. 반면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육아 및 가사’의 비중이 2.3%p, ‘직장 휴·폐업/퇴직/해고 등’이 2.6%p 높았음

[표 3-13] 전국 및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퇴직사유

단위: %

		개인, 가족 관련 이유	육아 및 가사	작업여건 불만족	직장 휴·폐업 퇴직·해고 등	임시/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 없음 사업부진	기타
전국	전체	48.0	5.4	20.8	7.1	14.2	3.5	0.9
	성별	남성	48.0	0.3	23.4	7.7	15.1	4.8
		여성	47.9	9.9	18.6	6.6	13.5	2.5
	연령	19~24세	59.1	0.3	14.6	3.3	20.1	1.4
		25~29세	44.6	2.5	27.0	7.9	15.4	2.2
		30~34세	43.2	8.3	22.9	9.5	9.4	5.6
		35~39세	39.9	16.7	18.1	9.5	7.9	7.1
		35~39세	39.9	16.7	18.1	9.5	7.9	7.1
전북 특별 자치도	전체	47.9	7.7	19.8	9.7	10.4	4.3	0.2
	성별	남성	50.4	0.0	22.3	14.9	8.1	3.9
		여성	45.7	14.3	17.7	5.3	12.3	4.7
	연령	19~24세	68.3	0.0	22.7	0.0	6.1	2.2
		25~29세	36.4	8.7	20.8	16.5	16.5	1.0
		30~34세	46.9	7.6	18.3	10.7	10.5	6.0
		35~39세	36.7	19.1	15.3	11.6	5.6	11.7
		35~39세	36.7	19.1	15.3	11.6	5.6	11.7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국가통계포털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자의 주요 종사산업을 확인한 결과, ‘제조업’이 17.9%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0%, ‘교육서비스업’ 11.1%, ‘도매 및 소매업’ 10.7%, ‘숙박 및 음식점업’ 1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 8.6% 등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전체 취업자의 주요 종사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 15.9%로 가장 비중이 높아 청년 취업자의 해당 산업 비중(3.8%)과 큰 차이를 보였음. 그 외에 전북자치도의 전체 취업자 주요 종사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5%, ‘제조업’ 12.2%, ‘도매 및 소매업’ 8.5%, ‘교육서비스업’ 7.6% 순으로 나타남

[표 3-14]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vs 청년 취업자 주요 종사산업(상위 10개)

순위	전체 취업자		청년 취업자	
	산업	%	산업	%
1순위	농업, 임업 및 어업	15.9	제조업	17.9
2순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0
3순위	제조업	12.2	교육서비스업	11.1
4순위	도매 및 소매업	8.5	도매 및 소매업	10.7
5순위	교육서비스업	7.6	숙박 및 음식점업	10.3
6순위	건설업	6.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서비스업	8.6
7순위	숙박 및 음식점업	6.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2
8순위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2	농업, 임업 및 어업	3.8
9순위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6	금융 및 보험업	3.7
10순위	운수 및 창고업	4.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3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자의 종사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무종사자’ 23.6%, ‘서비스 종사자’ 14.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1.5%, ‘판매종사자’ 7.4%, ‘단순 노무 종사자’ 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3%, ‘관리자’ 0.1%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취업자의 종사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6.5%로 가장 많으나 청년 취업자와 비교하면 그 비중이 약 10.1%p 낮게 나타남. ‘사무 종사자’는 15.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5.5%이며 ‘단순 노무 종사자’는 15.1%, ‘서비스 종사자’ 11.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9% 등이 주요 종사직업임
- 전체 취업자 대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판매 종사자’이며 청년 취업자 대비 전체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직업은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로 나타남

[표 3-15] 전북특별자치도 전체 vs 청년 취업자 주요 종사직업

순위	전체 취업자		청년 취업자	
	산업	%	산업	%
1순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6.6
2순위	사무 종사자	15.7	사무종사자	23.6
3순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5	서비스 종사자	14.2
4순위	단순 노무 종사자	15.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1.5
5순위	서비스 종사자	11.9	판매 종사자	7.4
6순위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0.9	단순 노무 종사자	7.3
7순위	판매 종사자	7.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0
8순위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6.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3
9순위	관리자	0.8	관리자	0.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체 청년 취업자가 종사하는 직장의 규모는 1~4명이 22.9%로 가장 많고, 10~29명 18.3%, 300명 이상 17.0%, 30~99명 16.7%, 5~9명 14.2%, 100~299명 10.8%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취업자의 종사 직장규모는 1~4명이 28.1%로 가장 많고, 10~29명 17.9%, 30~99명 17.6%, 5~9명 14.6%, 300명 이상 11.9%, 100~299명 9.9% 순으로 나타남
- 종사자 수가 5명 미만인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31.7%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가 30.3%, 전북특별자치도·대구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가 28.1%로 뒤를 이음
- 반면 종사자 300명 이상의 큰 규모를 가진 직장에 종사하는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28.5%로 가장 높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가 22.2%, 서울특별시가 20.8%로 나타남

[표 3-16] 시도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 직장규모

단위: %

행정구역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22.9	14.2	18.3	16.7	10.8	17.0
서울	20.0	13.9	18.1	15.9	11.4	20.8
부산	24.8	16.9	20.4	15.9	9.8	12.2
대구	28.1	15.9	17.7	15.6	9.9	12.7
인천	23.6	15.3	19.3	15.6	10.3	15.9
광주	27.2	16.2	19.4	16.9	10.1	10.2
대전	22.7	15.7	17.5	16.3	10.9	16.8
울산	21.7	11.1	13.5	18.9	12.6	22.2
세종	19.8	9.1	13.5	17.0	12.1	28.5
경기	21.9	14.5	18.6	17.0	10.7	17.3
강원	28.1	13.8	17.6	17.7	8.7	14.1
충북	21.5	11.7	15.7	16.9	12.0	22.2
충남	21.8	11.4	17.9	15.0	14.5	19.3
전북	28.1	14.6	17.9	17.6	9.9	11.9
전남	30.3	15.0	18.7	16.5	8.7	10.8
경북	25.8	12.2	18.3	17.4	12.1	14.2
경남	22.7	12.6	18.4	20.6	10.2	15.6
제주	31.7	18.2	19.3	16.8	7.4	6.7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국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시근로자가 73.0%로 가장 많고, 임시근로자 13.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0%, 일용근로자 2.6%, 무급가족종사자 1.1% 순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의 68.8%로 가장 많았으나 17개 시도 중 제주특별자치도(65.5%)에 이어 비중이 2번째로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임시근로자(15.1%)와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5%), 무급가족종사자(3.1%)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3-17] 시도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단위: %

행정구역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73.0	13.5	2.6	3.0	6.9	1.1
서울	75.0	12.8	2.5	2.9	6.5	0.4
부산	69.6	16.8	2.5	3.3	7.2	0.6
대구	71.1	13.6	1.8	4.2	8.0	1.4
인천	71.0	13.9	4.5	2.9	7.0	0.7
광주	71.2	14.9	2.3	2.8	7.2	1.7
대전	71.4	15.5	2.4	3.1	7.1	0.5
울산	75.7	12.4	2.4	2.5	6.3	0.7
세종	76.3	12.3	1.2	3.4	6.9	0.0
경기	73.7	13.3	2.8	3.0	6.8	0.6
강원	69.2	14.5	3.0	2.8	7.9	2.5
충북	76.5	12.5	1.3	2.0	6.5	1.1
충남	74.0	12.6	2.4	2.9	5.6	2.6
전북	68.8	15.1	1.6	3.8	7.5	3.1
전남	69.0	12.5	2.4	2.9	9.0	4.2
경북	72.6	12.6	1.7	2.6	7.6	3.0
경남	74.2	11.6	2.4	3.0	7.3	1.4
제주	65.5	17.3	2.9	2.4	9.4	2.5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취업자 중 계약고용자의 계약기간을 확인한 결과, 6개월~1년 미만 54.3%로 과반이었고, 1년 23.4%, 1개월 미만 7.6%, 1개월~6개월 미만 6.7%, 3년 초과 3.5%, 1년 초과~2년 2.4%, 2년 초과~3년 2.1% 순으로 나타남
- 전국적인 청년 계약고용자의 계약기간은 1년이 38.8%로 가장 많았고, 6개월~1년 미만 30.7%, 1개월~6개월 미만 11.7%, 1년 초과~2년 6.4%, 1개월 미만 5.1%, 3년 초과 4.6%, 2년 초과~3년 3.0% 순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1년 미만 고용계약자 비율은 68.6%로 17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청년 계약고용자의 직업안정성이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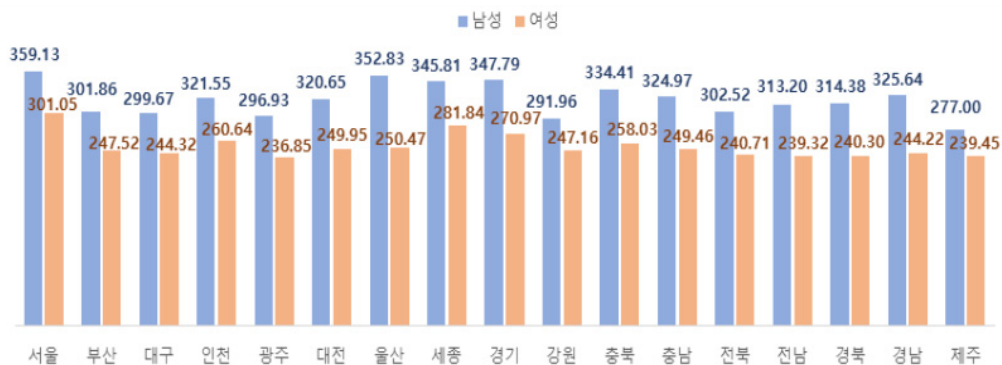
[표 3-18] 시도별 청년 계약고용자의 계약기간

단위: %

행정구역	1개월 미만	1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2년 초과~ 3년	3년 초과
전체	5.1	11.7	30.7	38.8	6.1	3.0	4.6
서울	5.4	12.2	29.4	39.4	6.6	2.4	4.6
부산	4.5	13.3	35.7	33.8	8.8	1.5	2.4
대구	1.9	13.1	28.1	41.9	3.9	3.7	7.5
인천	2.8	7.9	34.2	42.1	7.0	2.8	3.3
광주	4.8	12.7	35.1	32.2	7.5	4.6	2.9
대전	8.3	15.7	32.9	27.7	6.2	2.3	6.9
울산	4.5	11.5	32.0	29.0	12.7	4.8	5.5
세종	1.6	10.3	41.5	37.3	6.1	0.8	2.4
경기	5.8	12.1	27.0	42.9	4.9	2.7	4.6
강원	6.7	8.1	24.2	44.8	6.0	6.6	3.6
충북	0.8	7.4	36.9	39.2	6.1	4.3	5.1
충남	4.8	10.6	33.6	37.0	6.9	4.0	3.1
전북	7.6	6.7	54.3	23.4	2.4	2.1	3.5
전남	8.7	13.6	29.6	32.3	2.3	5.1	8.4
경북	4.2	13.9	31.7	32.1	8.4	5.9	3.8
경남	2.8	9.4	33.1	36.6	7.6	4.6	6.0
제주	6.3	18.9	27.9	33.0	5.0	0.6	8.3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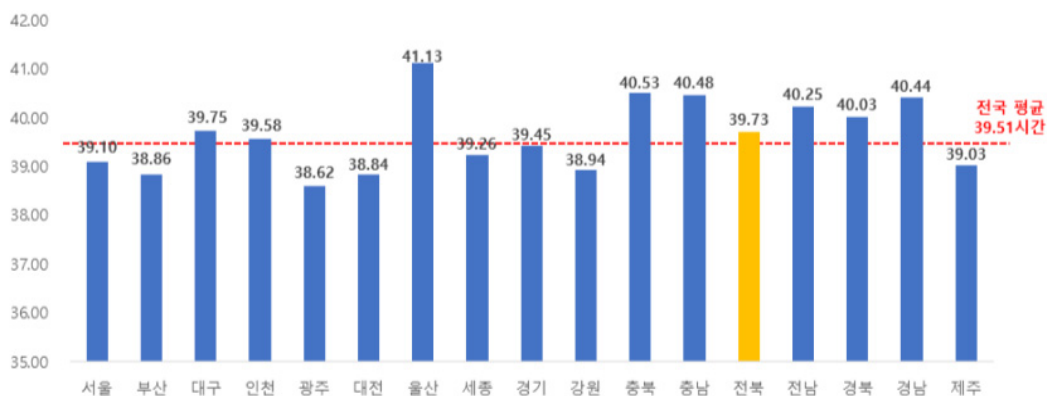
- 2024년 하반기 기준 전국 평균 청년(만 19~39세)의 월평균임금은 302.99만원이며 남성은 333.63만원, 여성은 268.12만원으로 약 65.51만원의 성별 격차를 보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월평균임금은 274.40만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259.64만원), 광주광역시(268.10만원), 강원특별자치도(271.71만원), 대구광역시(273.86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수준임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중 남성의 월평균임금은 302.52만원,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240.71만원으로 성별 임금격차는 약 61.81만원으로 나타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9]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월평균임금

-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평균 근무시간은 39.73시간으로 전국 평균인 39.51시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 17개 시도 중 청년의 평균 근무시간이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41.13시간), 충청북도(40.53시간), 충청남도(40.48시간), 경상남도(40.44시간) 등으로 나타남. 반면 광주광역시 청년의 평균 근무시간이 38.62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대전광역시(38.84시간), 부산광역시(38.86시간), 강원특별자치도(38.94시간) 등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그림 3-10] 광역시도별 청년인구 평균 근무시간(주업)

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질 지표 및 일·생활 균형 환경

■ 일자리 질 지표(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수준)

-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안정성(지속적이고 해고 위험이 낮은 일자리), 공정한 임금(전체 산업 평균 이상의 임금, 생활임금 보장), 사회적 보호(실업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노동권 보장(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차별 금지, 최저임금 보장 등), 자기실현 가능성(개인의 성장과 발전, 사회적 통합의 기회 제공), 안전한 환경(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등을 일자리 질(Decent Work)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이 가운데 지역별고용조사로 통계적으로 파악 가능한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질 지표를 분석함
- 고용안정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인 일자리 비중을 활용함
- [표 3-19]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상용근로자 일자리는 16,386,660개로 전체 일자리의 58.5%를 차지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용직 일자리는 460,999개이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일자리 중 47.0% 수준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약 11.5%p 낮음. 임시·일용근로 및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정적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낮은 구조로 나타남

[표 3-19] 시도별 안정적 일자리(종사상지위) 현황

단위: 개, %

행정구역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16,386,660 58.5%	3,969,286 14.2%	1,002,139 3.6%	1,577,737 5.6%	4,157,487 14.8%	926,496 3.3%
서울	3,217,490 64.1%	675,967 13.5%	198,041 3.9%	308,499 6.2%	554,123 11.0%	61,613 1.2%
부산	950,196 57.7%	281,740 17.1%	53,356 3.2%	106,976 6.5%	219,157 13.3%	34,919 2.1%
대구	668,899 56.8%	172,660 14.7%	42,451 3.6%	78,488 6.7%	180,447 15.3%	35,352 3.0%

행정구역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인천	987,794 59.2%	265,247 15.9%	91,120 5.5%	96,035 5.8%	196,554 11.8%	30,766 1.8%
광주	450,087 58.5%	127,663 16.6%	28,353 3.7%	42,954 5.6%	101,924 13.2%	18,588 2.4%
대전	476,398 60.7%	118,790 15.1%	26,902 3.4%	47,907 6.1%	98,525 12.6%	15,790 2.0%
울산	368,509 65.0%	80,776 14.2%	21,866 3.9%	26,642 4.7%	60,600 10.7%	8,510 1.5%
세종	152,558 71.1%	22,655 10.6%	2,758 1.3%	9,569 4.5%	23,625 11.0%	3,284 1.5%
경기	4,739,299 63.3%	980,720 13.1%	281,547 3.8%	447,246 6.0%	914,939 12.2%	123,819 1.7%
강원	408,291 47.7%	154,021 18.0%	30,260 3.5%	41,789 4.9%	170,344 19.9%	50,484 5.9%
충북	527,968 55.7%	132,339 14.0%	26,382 2.8%	37,766 4.0%	173,918 18.4%	48,795 5.2%
충남	688,430 53.3%	165,323 12.8%	38,193 3.0%	64,088 5.0%	245,458 19.0%	90,565 7.0%
전북	460,999 47.0%	167,360 17.1%	28,264 2.9%	45,299 4.6%	210,474 21.5%	67,957 6.9%
전남	442,738 43.6%	142,362 14.0%	34,236 3.4%	43,208 4.3%	255,516 25.2%	97,201 9.6%
경북	689,139 48.0%	195,916 13.6%	39,781 2.8%	62,189 4.3%	334,381 23.3%	114,428 8.0%
경남	970,914 55.0%	224,174 12.7%	44,302 2.5%	94,873 5.4%	331,809 18.8%	99,640 5.6%
제주	186,951 47.0%	61,573 15.5%	14,327 3.6%	24,209 6.1%	85,693 21.6%	24,785 6.2%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이상 52시간 이하를 근로시간으로 하는 일자리는 622,792개이며 전체 일자리의 63.9%가 해당됨. 5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시간이 긴 일자리는 53,491개이고, 15시간 미만을 근로하는 초단시간 일자리는 66,928개,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는 232,107개로 나타남
-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전북은 법정근로시간 내 일자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초단시간·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경력형성 측면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표 3-20] 시도별 근로시간별 일자리 현황

단위: 개, %

행정구역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40시간 이상 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전체	1,348,466 4.8%	5,188,234 18.6%	19,438,234 69.8%	1,859,382 6.7%
서울	194,527 3.9%	784,085 15.8%	3,701,536 74.4%	294,045 5.9%
부산	95,849 5.9%	307,761 18.8%	1,130,150 69.1%	102,652 6.3%
대구	56,560 4.8%	222,155 19.0%	826,718 70.6%	65,304 5.6%
인천	87,652 5.3%	258,521 15.6%	1,187,993 71.7%	121,851 7.4%
광주	48,999 6.4%	145,333 19.0%	527,261 69.0%	42,708 5.6%
대전	39,216 5.0%	135,086 17.4%	549,989 70.8%	52,508 6.8%
울산	26,677 4.8%	80,473 14.3%	406,848 72.5%	47,132 8.4%
세종	10,427 5.0%	35,798 17.0%	150,643 71.6%	13,449 6.4%
경기	294,343 4.0%	1,227,722 16.5%	5,437,509 73.1%	479,008 6.4%
강원	79,817 9.4%	194,190 22.9%	507,609 59.8%	67,341 7.9%
충북	50,401 5.3%	205,025 21.7%	613,580 65.1%	74,067 7.9%
충남	47,415 3.7%	292,351 22.8%	844,446 65.8%	99,557 7.8%
전북	66,928 6.9%	232,107 23.8%	622,792 63.9%	53,491 5.5%
전남	64,331 6.4%	274,714 27.1%	595,511 58.8%	77,439 7.7%
경북	77,564 5.4%	320,742 22.4%	926,646 64.8%	105,608 7.4%
경남	86,471 4.9%	372,111 21.2%	1,169,158 66.5%	131,225 7.5%
제주	21,289 5.4%	100,060 25.4%	239,845 61.0%	31,997 8.1%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전국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상인 일자리는 7,717,976개로 전체 일자리의 36.1%를 차지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상 일자리가 181,550개로 전체 일자리의 27.6% 수준에 머물며, 제주·강원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전북의 일자리 구조가 중·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자리 비중이 낮은 구조임을 의미하며, 청년층의 소득 수준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큼

[표 3-21] 시도별 임금수준별 일자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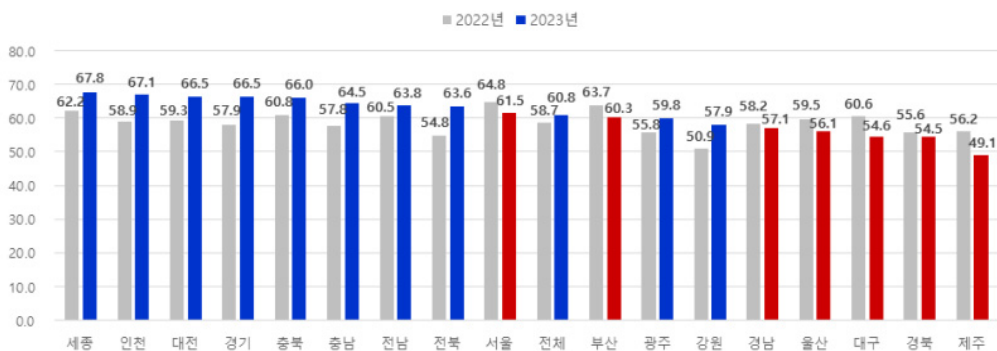
단위: 개, %

행정구역	중위소득 80% 이하	중위소득 80~100%	중위소득 100~120%	중위소득 120~150%	중위소득 150% 이상
전체	3,491,812 16.3%	2,908,402 13.6%	3,077,832 14.4%	4,162,059 19.5%	7,717,976 36.1%
서울	601,062 14.7%	493,471 12.1%	524,054 12.8%	780,402 19.1%	1,692,508 41.4%
부산	255,622 19.9%	197,882 15.4%	191,684 14.9%	258,438 20.1%	381,666 29.7%
대구	174,438 19.7%	139,682 15.8%	134,332 15.2%	173,785 19.7%	261,773 29.6%
인천	215,186 16.0%	164,545 12.2%	210,838 15.7%	284,624 21.2%	468,969 34.9%
광주	113,523 18.7%	97,398 16.1%	93,745 15.5%	115,906 19.1%	185,532 30.6%
대전	102,946 16.5%	87,655 14.1%	92,724 14.9%	125,248 20.1%	213,517 34.3%
울산	69,873 14.8%	52,505 11.1%	58,213 12.4%	84,417 17.9%	206,145 43.8%
세종	21,270 12.0%	19,185 10.8%	22,064 12.4%	26,897 15.1%	88,553 49.8%
경기	817,423 13.6%	749,043 12.5%	872,382 14.5%	1,184,255 19.7%	2,378,462 39.6%
강원	148,165 25.0%	97,365 16.4%	88,751 15.0%	105,882 17.9%	152,409 25.7%
충북	112,322 16.4%	98,038 14.3%	108,865 15.9%	137,257 20.0%	230,207 33.5%
충남	129,332 14.5%	132,754 14.9%	136,458 15.3%	182,356 20.4%	311,045 34.9%
전북	143,702 21.9%	108,722 16.6%	107,516 16.4%	115,132 17.5%	181,550 27.6%
전남	130,924 21.1%	101,299 16.4%	85,934 13.9%	112,550 18.2%	188,629 30.5%
경북	188,327 20.4%	152,254 16.5%	128,631 13.9%	175,873 19.0%	279,750 30.2%
경남	215,832 17.4%	173,198 14.0%	174,428 14.1%	245,548 19.8%	430,383 34.7%
제주	51,865 19.7%	43,406 16.5%	47,213 18.0%	53,489 20.3%	66,878 25.4%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2024년 하반기, 원자료 분석

■ 일자리 질 관련 환경조성 현황(일·생활 균형 지수)

- 일자리 질은 임금수준이나 고용형태뿐 아니라 일과 생활의 균형 수준, 가족·여가·돌봄 환경 등 주변 여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일자리 관련 환경조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 결과를 활용하여 전북의 일·생활 균형 수준을 검토함. 2022년과의 비교를 위해 2023년 지수는 가점(5점)을 제외한 총점을 기준으로 정리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3년 기준 일·생활균형 지수가 63.6점으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높아 중위권에 위치함. 2022년 전북의 일·생활균형 지수는 54.8점으로 하위권(17개 시도 중 16위)이었으나 지수가 약 8.8점 상승하여 17개 시도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임
 - 2022년 대비 2023년 지수가 가장 높아진 지역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작년 대비 8.8점이 상승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전년 대비 8.6점 상승하여 뒤를 이음. 이 외에도 대전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도 전년 대비 일·생활균형 지수가 상승한 지역으로 나타남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년 대비 7.1점이 하락하였고, 대구광역시 역시 6.0점 하락하여 점수 하락폭이 컸음. 이 외에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전년 대비 점수가 하락함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그림 3-11] 2023년 기준 시도별 일·생활균형 지수

-
- 2023년 기준 일·생활균형 지수 산출 결과를 영역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전국 평균으로는 일 영역이 15.1점, 생활 영역이 16.6점, 제도 영역이 17.5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이 11.6점으로 총점은 60.8점이며 여기에 가점 평균이 2.0점이 포함되면 가점 포함 총점은 62.9점임
 - 전북특별자치도는 일 영역 15.5점, 생활 영역 17.2점, 지자체 관심도 영역 15.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제도 영역(15.6점)과 가점(0.3점)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함
 - 생활 영역과 관심도 영역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제도 영역의 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제도 영역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함

[표 3-22] 2023년 지역별 일·생활균형 지수 산출 결과

단위: 점

행정구역	총점	총점 (가점제외)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가점
전국 평균	62.9	60.8	15.1	16.6	17.5	11.6	2.0
서울	65.5	61.5	15.9	15.8	21.2	8.6	5.0
부산	65.3	60.3	13.7	18.0	17.5	11.2	5.0
대구	54.6	54.6	13.2	15.3	17.6	8.5	0.0
인천	70.5	67.1	16.7	15.8	19.4	15.1	3.4
광주	61.4	59.8	15.7	17.2	16.9	10.0	1.6
대전	68.3	66.5	17.0	17.4	19.6	12.5	1.9
울산	59.5	56.1	13.8	17.7	15.7	8.8	3.4
세종	68.1	67.8	15.4	15.6	19.8	16.9	0.3
경기	68.4	63.7	16.0	16.0	17.3	14.4	4.7
강원	57.9	57.9	15.8	16.7	17.7	7.7	0.0
충북	66.6	66.0	15.6	16.5	17.9	15.9	0.6
충남	68.9	64.5	14.9	16.2	17.8	15.6	4.4
전북	63.9	63.6	15.5	17.2	15.6	15.2	0.3
전남	67.3	63.8	14.7	16.8	17.0	15.3	3.4
경북	54.8	54.5	14.7	15.4	16.8	8.2	0.3
경남	57.4	57.1	12.5	17.6	16.8	10.2	0.3
제주	49.1	49.1	15.0	16.7	14.0	3.3	0.0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일 영역을 산출하는 지표는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등이 있음
- 2022년 대비 2023년 일 영역 지표 증감을 확인한 결과 전북의 경우 총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모두 감소하였고, 유연근무제도 도입률과 이용률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함
 - 총근로시간은 6.8시간 감소하여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초과근로시간 역시 0.6시간 감소함. 유연근무제도 도입률은 9.1% 증가하여 대전과 강원예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유연근무제 이용률 역시 4.1% 증가함

- 반면 휴가기간은 4일이 감소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임

[표 3-23] 2022년 대비 2023년 일 영역 지표 증감

단위: 시간, 일 %p

행정구역	총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기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유연근무제도 이용률
전국 평균	-5.9	-0.6	0.2	1.3	-0.1
서울	-5.6	0.0	-0.4	-10.8	-11.2
부산	-8.6	-1.6	0.7	-4.8	-6.4
대구	-6.1	0.1	-0.4	-8.2	-7.7
인천	-6.6	-0.6	4.1	9.3	8.2
광주	-4.3	-0.5	-0.7	-1.0	-1.4
대전	-5.3	0.0	1.2	22.0	16.0
울산	-2.5	1.6	0.2	-9.6	-10.4
세종	-4.4	-1.8	2.2	6.6	5.5
경기	-7.8	-0.9	2.3	6.2	4.5
강원	-6.0	0.1	0.8	13.0	12.1
충북	-6.1	-0.8	1.3	1.1	-0.2
충남	-5.6	-1.1	0.9	6.6	5.5
전북	-6.8	-0.6	-4.0	9.1	4.1
전남	-6.0	-0.9	-1.2	1.1	-0.9
경북	-6.1	-2.3	-0.2	2.1	0.1
경남	-5.3	-0.5	0.6	-1.7	-3.2
제주	-7.7	-0.3	-3.4	-18.0	-16.3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생활 영역을 산출하는 지표는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도 등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에서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비중이 감소하였고, 평일 여가시간이 소폭 상승,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는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의 경우 전북(-3.1)은 전남과 세종에 이어 일을 우선시한다는 지표가 감소하였음. 평일 여가시간은 약 0.5시간 증가하였고,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는 5.7점 증가하여 울산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폭을 보임

-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는 5.1점 감소하였고, 일-여가생활 균형도는 일에 집중한다는 비율이 소폭 증가함

[표 3-24] 2022년 대비 2023년 생활 영역 지표 증감

단위: %, 시간

행정구역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일과 가족생활 우선도	평일 여가시간	평일 여가시간 충분도	일-여가생활 균형도
전국 평균	-4.7	0.1	0.0	0.1	0.3
서울	-1.0	4.3	-0.4	-2.9	-1.1
부산	-8.0	0.4	0.3	1.4	1.3
대구	-2.3	5.6	0.0	1.4	10.5
인천	-8.0	6.1	0.5	-1.4	-2.4
광주	-2.7	-2.7	0.4	0.0	1.1
대전	-4.0	2.3	-0.4	5.7	-19.4
울산	-5.3	1.8	0.2	7.1	-8.0
세종	1.1	-3.5	-0.9	-1.4	-3.2
경기	-1.4	-0.1	0.2	1.4	-3.2
강원	-8.8	-2.1	0.3	4.3	-3.7
충북	-3.1	-0.4	-1.0	-1.4	3.5
충남	-2.6	1.0	-0.2	1.4	9.6
전북	-5.1	-3.1	0.5	5.7	0.3
전남	-6.0	-4.3	0.2	1.4	1.2
경북	-5.9	0.9	-0.2	-1.4	2.3
경남	-5.3	-2.2	-0.7	-2.9	1.2
제주	-12.0	-2.0	0.8	0.0	13.1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제도 영역 지표는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등돌봄교실 이용률,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 배우자 출산 휴가사용 사업장 비율 등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일·가정양립제도 인지도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게 증가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배우자출산 휴가사용 사업장은 전년 대비 1.2%가 감소하였고, 여성 육아휴직 사용 사

업장 비율도 0.3% 감소함

[표 3-25] 2022년 대비 2023년 제도 영역 지표 증감

단위: %

행정구역	여성 육아 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남성 육아 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초·중·고교 이용률	일·가정양립 제도 인지도	배우자출산 휴가사용 사업장 비율
전국 평균	-0.5	0.0	0.2	2.6	0.6	15.8	-0.3
서울	-0.2	0.0	0.2	2.6	0.9	11.4	0.8
부산	-0.6	0.0	0.2	2.3	0.4	9.9	-1.1
대구	-0.5	0.0	0.1	4.7	1.3	8.1	-3.0
인천	-0.5	0.0	0.5	3.4	0.5	19.7	0.7
광주	-1.4	0.0	0.1	3.2	0.3	26.2	4.6
대전	-1.1	0.0	0.3	2.6	0.6	23.7	7.6
울산	-1.2	-0.1	0.2	2.0	0.7	17.3	0.5
세종	-1.1	0.0	0.2	5.4	-0.2	20.2	4.9
경기	-0.5	0.0	0.4	2.4	0.9	20.1	2.3
강원	0.0	0.1	0.2	1.8	-0.1	13.3	5.0
충북	-1.0	0.0	0.1	1.7	0.1	24.5	-2.9
충남	-0.3	0.2	0.5	3.1	0.3	19.7	-1.0
전북	-0.3	0.0	0.3	2.2	1.3	19.7	-1.2
전남	1.0	0.0	-0.3	2.3	1.5	12.0	-1.9
경북	-0.4	0.1	-0.5	1.6	0.4	9.7	-1.0
경남	-1.0	0.0	1.4	2.6	0.6	4.5	-2.0
제주	-0.2	0.0	-0.5	0.9	2.0	15.4	-2.4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 지자체 관심도 영역 산출 지표는 지자체의 일·생활균형제도확산 노력,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등이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자체의 일·생활균형제도확산 노력은 6.5점,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컨설팅은 11.6점 증가하여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에서 인천광역시와 함께 유일하게 0.5점을 받음

- 담당조직 유무에서의 점수변화는 없으며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에서는 0.4점 감소함

[표 3-26] 2022년 대비 2023년 지자체 관심도 영역 지표 증감

단위: 점

행정구역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제도화 노력	일·생활균형 조례 유무	담당조직 유무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일·생활균형 관련 교육·컨설팅
전국 평균	1.4	0.1	0.1	-0.3	1.8
서울	-4.6	0.0	0.0	0.0	-2.6
부산	-3.2	0.0	0.0	-0.1	-1.4
대구	-4.8	0.0	0.0	0.3	-3.9
인천	4.1	0.5	0.3	5.7	5.7
광주	4.2	0.0	0.0	-0.2	7.4
대전	1.7	0.0	0.0	-0.1	2.9
울산	-1.6	0.0	0.0	-0.2	-3.3
세종	10.3	0.0	0.0	-0.2	3.3
경기	4.2	0.0	0.2	-0.3	4.3
강원	1.0	0.0	0.0	-0.3	2.0
충북	7.8	0.0	0.0	-0.5	9.2
충남	10.3	0.0	0.0	-0.4	8.2
전북	6.5	0.5	0.0	-0.4	11.6
전남	2.2	0.0	0.2	-0.5	4.5
경북	-2.3	0.0	0.0	-0.3	-4.1
경남	-5.9	0.0	0.2	-0.5	-4.1
제주	-6.1	0.0	0.0	-0.2	-13.5

자료 : 고용노동부(2024). 2023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 산출

2. 청년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일자리 인식·선호 및 정책 수요 분석

가. 조사개요

■ 조사 배경 및 목적

- 전북청년의 지속적인 수도권 유출과 지역소멸 위기 심화는 일자리·정주 기반의 취약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청년이 지역 내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삶의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를 위해 전북청년의 실제 직무 경험과 일자리 조건,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군별 일자리 특성과 질적 수준을 유형화하여 전북의 산업·사회 구조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 질 향상 및 정주 지원 정책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북에 거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전북에서 취업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 경험, 일자리 인식·선호, 정주 인식 및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본 조사 결과는 ① 청년 유출 억제, ② 지역 정착률 제고, ③ 일자리의 양 중심 지원에서 일자리 질·정주·삶의 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북지역의 산업·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정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 조사 설계

- 2025년 9월 22일부터 10월 3일까지 12일간,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전북에서 취업·구직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할당표본추출법을 적용하여 전문면접원 조사를 실시함

[표 3-27] 조사 설계

구 분	세부내용
조사기간	- 2025년 9월 22일(월) ~ 2025년 10월 3일(금), 총 12일간
조사대상	- 18세 이상 39세 미만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대상 (전북 거주 또는 최근 3년 이내 전북에서 취업·구직 경험 보유자)
표본크기	- 총 500명 정도(표본오차 약 $\pm 4.4\%$, 95% 신뢰수준)
표본추출	- 할당표본추출법(성별을 고려한 권역별*연령대별 제곱근비례배분법 적용) * 권 역을 6개 범주로 설정함 : 전주, 군산·김제, 익산·완주, 무진장, 임순남, 고부정 * 연령대를 4개 범주로 설정함 :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조사방법	- 전문면접원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 조사내용

- 본 조사는 다음 세 영역으로 문항을 구성함
- 1. 응답자 기본정보(11문항):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거주지, 현재 고용상태, 산업·직종 등
- 2.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33문항): 현재 및 과거 일자리 경험,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고용형태), 이직·이탈 경험, 일자리 질 평가, 일자리 선택 기준, 산업군별 일자리 선호 및 수요 등
- 3. 전북청년 일자리·삶·정주 정책 수요(4문항): 주거·교통·복지·여가 등 정주 여건과의 연계 인식, 전북 및 시·군 청년 일자리·정주 정책 인지도,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정책 영역 및 사업 유형 등

[표 3-28] 조사 항목 및 내용

조사 항목	조사 내용
응답자 기본정보 (11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지역, 읍면동,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원수, 가구구성원, 거주형태, 귀농·귀촌 활동여부, 집단유형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 (33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형태 산업분야 기업규모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임금수준(현재) / 임금수준(희망) 출퇴근거리(현재) / 출퇴근거리(희망) 근로시간(현재) / 근로시간(희망)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주업무내용(현재) / 주업무내용(희망)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유연근무제 실시유형(복수응답)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시설환경(현재; 복수응답) / 시설환경(희망; 복수응답) 복리후생(현재; 복수응답) / 복리후생(희망; 복수응답) 일자리 관련 만족도 및 이동·이직의향 11개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향후 2년 이내, 전북 외 지역으로 이동의향, ② 고용안정성 만족도, ③ 임금수준 만족도, ④ 근로시간 만족도, ⑤ 일-삶 균형 만족도, ⑥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⑦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⑧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⑨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⑩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⑪ 향후 1년 이내, 일자리 이직의향
전북청년 일자리-삶 정책 수요 (4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복수응답)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복수응답)

■ 표본설계

- 조사대상자를 설정하기 위해서 전북특별자치도 6개 권역 내 20세부터 39세까지 인구를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로 구분하였고, 표본 수는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인구분포 비중을 기준으로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설계함

[표 3-29]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연령대			
		20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전북특별자치도	347,723	83,433	91,712	90,292	82,286
읍 지역	30,002	6,963	7,342	8,171	7,526
면 지역	38,742	8,832	9,969	10,187	9,754
동 지역	278,979	67,638	74,401	71,934	65,006
전주 권역	153,718	37,031	41,402	39,832	35,453
읍 지역	-	-	-	-	-
면 지역	-	-	-	-	-
동 지역	153,718	37,031	41,402	39,832	35,453
군산·김제 권역	63,444	14,571	16,311	16,595	15,967
읍 지역	566	106	166	155	139
면 지역	7,922	1,743	2,082	2,112	1,985
동 지역	54,956	12,722	14,063	14,328	13,843
익산·완주 권역	76,290	18,265	19,926	20,444	17,655
읍 지역	14,183	2,859	3,378	4,282	3,664
면 지역	12,920	2,641	3,382	3,688	3,209
동 지역	49,187	12,765	13,166	12,474	10,782
무진장 권역	8,123	2,168	2,023	1,966	1,966
읍 지역	4,091	1,076	1,032	980	1,003
면 지역	4,032	1,092	991	986	963
동 지역	-	-	-	-	-
임순남 권역	17,768	4,448	4,599	4,388	4,333
읍 지역	3,568	935	898	868	867
면 지역	5,634	1,453	1,442	1,338	1,401
동 지역	8,566	2,060	2,259	2,182	2,065
고부정 권역	28,380	6,950	7,451	7,067	6,912
읍 지역	7,594	1,987	1,868	1,886	1,853
면 지역	8,234	1,903	2,072	2,063	2,196
동 지역	12,552	3,060	3,511	3,118	2,863

자료: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읍면동/성/연령(5세)별), 2025년 8월 말 기준

[표 3-30]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표본분포(제곱근비례배분법 적용)

(단위 : 명)

구분	연령대				
	전체	18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전북특별자치도	500.0	122.3	127.7	127.3	122.7
읍 지역	96.1	23.4	24.0	24.8	24.0
면 지역	117.5	28.3	29.8	29.9	29.5
동 지역	286.4	70.6	74.0	72.6	69.2
전주 권역	106.6	26.2	27.7	27.2	25.6
읍 지역	-	-	-	-	-
면 지역	-	-	-	-	-
동 지역	106.6	26.2	27.7	27.2	25.6
군산·김제 권역	94.4	22.4	24.1	24.2	23.7
읍 지역	6.5	1.4	1.8	1.7	1.6
면 지역	24.2	5.7	6.2	6.3	6.1
동 지역	63.8	15.3	16.1	16.3	16.0
익산·완주 권역	123.5	29.6	31.4	32.4	30.1
읍 지역	32.3	7.3	7.9	8.9	8.2
면 지역	30.9	7.0	7.9	8.3	7.7
동 지역	60.3	15.4	15.6	15.2	14.1
무진장 권역	34.7	9.0	8.7	8.5	8.5
읍 지역	17.4	4.5	4.4	4.3	4.3
면 지역	17.3	4.5	4.3	4.3	4.2
동 지역	-	-	-	-	-
임순남 권역	61.9	15.5	15.7	15.3	15.3
읍 지역	16.3	4.2	4.1	4.0	4.0
면 지역	20.4	5.2	5.2	5.0	5.1
동 지역	25.2	6.2	6.5	6.4	6.2
고부정 권역	78.9	19.5	20.1	19.7	19.5
읍 지역	23.7	6.1	5.9	5.9	5.9
면 지역	24.7	5.9	6.2	6.2	6.4
동 지역	30.5	7.5	8.1	7.6	7.3

■ 분석설계

- 본 분석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6개 권역 내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의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인구비중에 따른 할당 표본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함

[표 3-31]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분석설계

ID	집단			응답자 수	집단별 인구수	집단별 인구비중	할당 표본수	가중치
1	전주 권역	동 지역	18~24세	27	37,031	10.649569	53.2	1.972142
2			25~29세	34	41,402	11.906604	59.5	1.750971
3			30~34세	34	39,832	11.455095	57.3	1.684573
4			35~39세	35	35,453	10.195759	51.0	1.456537
5	군산/김제 권역	읍 지역	18~24세	1	106	0.030484	0.2	0.152420
6			25~29세	2	166	0.047739	0.2	0.119348
7			30~34세	1	155	0.044576	0.2	0.222879
8			35~39세	3	139	0.039974	0.2	0.066624
9		면 지역	18~24세	6	1,743	0.501261	2.5	0.417718
10			25~29세	6	2,082	0.598752	3.0	0.498960
11			30~34세	8	2,112	0.607380	3.0	0.379613
12			35~39세	6	1,985	0.570857	2.9	0.475714
13		동 지역	18~24세	17	12,722	3.658659	18.3	1.076076
14			25~29세	21	14,063	4.044311	20.2	0.962931
15			30~34세	18	14,328	4.120521	20.6	1.144589
16			35~39세	19	13,843	3.981042	19.9	1.047643
17	익산/완주 권역	읍 지역	18~24세	7	2,859	0.822206	4.1	0.587290
18			25~29세	8	3,378	0.971463	4.9	0.607164
19			30~34세	10	4,282	1.231440	6.2	0.615720
20			35~39세	8	3,664	1.053712	5.3	0.658570
21		면 지역	18~24세	7	2,641	0.759513	3.8	0.542509
22			25~29세	8	3,382	0.972613	4.9	0.607883
23			30~34세	9	3,688	1.060614	5.3	0.589230
24			35~39세	12	3,209	0.922861	4.6	0.384525
25		동 지역	18~24세	14	12,765	3.671026	18.4	1.311081
26			25~29세	16	13,166	3.786347	18.9	1.183233
27			30~34세	15	12,474	3.587338	17.9	1.195779
28			35~39세	13	10,782	3.100744	15.5	1.1925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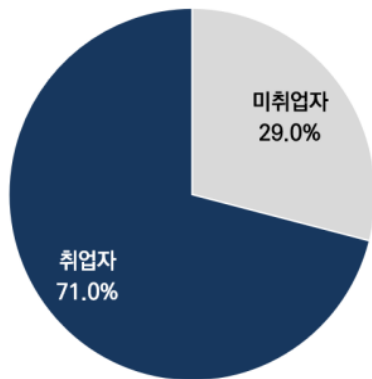
[표 3-31] 권역별*읍면동별*연령대별 분석설계(계속)

ID	집단			응답자 수	집단별 인구수	집단별 인구비중	할당 표본수	가중치
29	무진장 권역	읍 지역	18~24세	5	1,076	0.309442	1.5	0.309442
30			25~29세	5	1,032	0.296788	1.5	0.296788
31			30~34세	4	980	0.281834	1.4	0.352292
32			35~39세	4	1,003	0.288448	1.4	0.360560
33		면 지역	18~24세	5	1,092	0.314043	1.6	0.314043
34			25~29세	4	991	0.284997	1.4	0.356246
35			30~34세	4	986	0.283559	1.4	0.354449
36			35~39세	4	963	0.276945	1.4	0.346181
37	임순남 권역	읍 지역	18~24세	4	935	0.268892	1.3	0.336115
38			25~29세	4	898	0.258252	1.3	0.322814
39			30~34세	4	868	0.249624	1.2	0.312030
40			35~39세	4	867	0.249336	1.2	0.311670
41		면 지역	18~24세	5	1,453	0.417861	2.1	0.417861
42			25~29세	5	1,442	0.414698	2.1	0.414698
43			30~34세	8	1,338	0.384789	1.9	0.240493
44			35~39세	7	1,401	0.402907	2.0	0.287791
45		동 지역	18~24세	6	2,060	0.592426	3.0	0.493688
46			25~29세	7	2,259	0.649655	3.2	0.464039
47			30~34세	3	2,182	0.627511	3.1	1.045852
48			35~39세	3	2,065	0.593864	3.0	0.989773
49	고부정 권역	읍 지역	18~24세	6	1,987	0.571432	2.9	0.476193
50			25~29세	6	1,868	0.537209	2.7	0.447674
51			30~34세	6	1,886	0.542386	2.7	0.451988
52			35~39세	6	1,853	0.532895	2.7	0.444080
53		면 지역	18~24세	6	1,903	0.547275	2.7	0.456062
54			25~29세	6	2,072	0.595877	3.0	0.496564
55			30~34세	6	2,063	0.593288	3.0	0.494407
56			35~39세	7	2,196	0.631537	3.2	0.451098
57		동 지역	18~24세	8	3,060	0.880011	4.4	0.550007
58			25~29세	8	3,511	1.009712	5.0	0.631070
59			30~34세	8	3,118	0.896691	4.5	0.560432
60			35~39세	7	2,863	0.823357	4.1	0.588112
소계				540	347,723	100.000000	500	-

나. 응답자 분포

■ 집단유형별 응답자 분포

- 집단유형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미취업자」가 145명으로 29.0%를 점유하고, 「취업자」가 355명으로 71.0%를 점유함



구분	응답자(명)	비중(%)
미취업자	145	29.0
취업자	355	71.0
전체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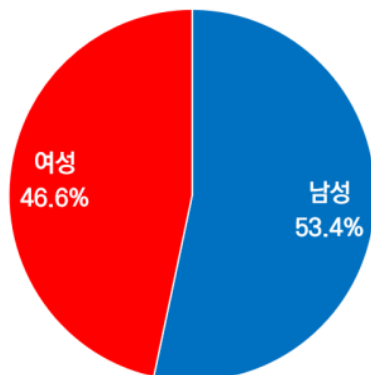
[그림 3-12] 집단유형별 응답자 분포

■ 성별 응답자 분포

- 성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남성」이 267명으로 53.4%를 점유하고, 「여성」이 233명으로 46.6%를

점유함

(단위 : 명, %)



구분	전체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남성	267	53.4	77	53.1	190	53.5
여성	233	46.6	68	46.9	165	46.5
전체	500	100.0	145	100.0	355	100.0

[그림 3-13] 성별 응답자 분포

■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25세~29세」가 26.4%(132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30세~34세(26.0%)」, 「18세~24세(24.0%)」, 「35세~39세(23.7%)」 순으로 분포함

[표 3-32] 연령대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연령대				전체 (n, 100%)
		18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35세~39세	
전체	명	120	132	130	118	500
	%	24.0	26.4	26.0	23.7	100.0
미취업자	%	57.9	30.3	8.3	3.4	145
취업자	%	10.1	24.8	33.2	31.8	355

■ 최종학력별 응답자 분포

- 최종학력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대학교(재학 포함)」가 77.8%(389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고졸 이하(11.8%)」, 「석사(과정 포함)(7.4%)」, 「박사(과정 포함)(3.0%)」 순으로 분포함

[표 3-33] 최종학력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최종학력				전체 (n, 100%)
		고졸 이하	대학교 (재학 포함)	석사 (과정 포함)	박사 (과정 포함)	
전체	명	59	389	37	15	500
	%	11.8	77.8	7.4	3.0	100.0
미취업자	%	3.4	90.3	6.2	-	145
취업자	%	15.2	72.7	7.9	4.2	355

■ 거주지역별 응답자 분포

- 권역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전주 권역」이 44.2%(221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익산/완주 권역(21.9%)」, 「군산/김제 권역(18.2%)」, 「고창/부안/정읍 권역(8.2%)」, 「임실/순창/남원 권역(5.1%)」, 「무주/진안/장수 권역(2.3%)」 순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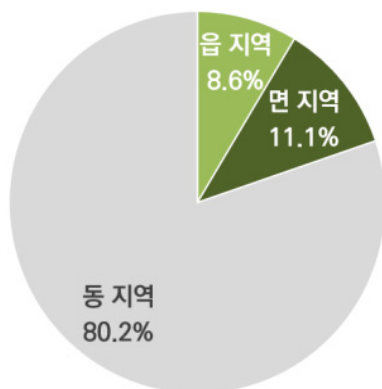
[표 3-34] 권역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권역별						전체 (n, 100%)
		전주 권역	군산/김제 권역	익산/완주 권역	무주/진안/ 장수 권역	임실/순창/ 남원 권역	고창/부안/ 정읍 권역	
전체	명	221	91	110	12	26	41	500
	%	44.2	18.2	21.9	2.3	5.1	8.2	100.0
미취업자	%	51.0	16.6	18.6	1.4	4.8	7.6	145
취업자	%	41.3	18.8	23.3	2.8	5.3	8.4	355

- 읍면동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동 지역」이 80.2%(401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면 지역(11.1%)」, 「읍 지역(8.6%)」 순으로 분포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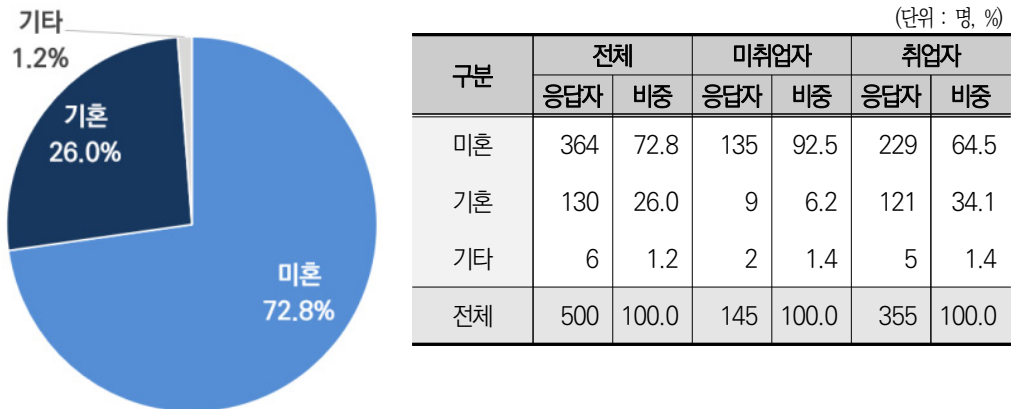
구분	전체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읍 지역	43	8.6	8	5.5	35	9.9
면 지역	56	11.1	11	7.6	45	12.7
동 지역	401	80.2	126	86.9	275	77.5
전체	500	100.0	145	100.0	355	100.0

[그림 3-14] 읍면동별 응답자 분포

■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

○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미혼」이 72.8%(364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기혼(26.0%)」, 「기타(미혼, 별가, 사별 등)(1.2%)」 순으로 분포함



[그림 3-15] 혼인상태별 응답자 분포

■ 가구원수별 응답자 분포

○ 가구원수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1인 가구」가 26.6%(133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3인 가구(24.4%)」, 「4인 가구(21.8%)」, 「2인 가구(16.3%)」, 「5인 이상 가구(10.8%)」 순으로 분포함

[표 3-35] 가구원수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가구원수					전체 (n,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전체	명	133	82	122	109	54	500
	%	26.6	16.3	24.4	21.8	10.8	100.0
미취업자	%	21.4	9.7	22.1	26.2	20.7	145
취업자	%	28.7	19.2	25.4	20.0	6.8	355

■ 가구구성원별 응답자 분포

- 가구구성원수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부모」가 59.3%(218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37.1%)」, 「배우자(35.2%)」, 「자녀(22.6%)」, 「조부모(4.3%)」, 「친구·애인(1.4%)」, 「친구(0.2%)」, 「기타(0.2%)」 순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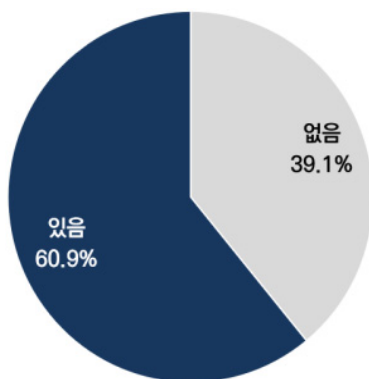
[표 3-36] 2인 이상 가구구성원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전체 (n, 100%)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 자	자녀	친구· 애인	기타	
전체	명	16	218	136	1	129	83	5	1	367
	%	4.3	59.3	37.1	0.2	35.2	22.6	1.4	0.2	100.0
미취업자	%	10.6	85.4	61.2	0.0	7.8	3.1	0.9	-	114
취업자	%	1.5	47.5	26.3	0.3	47.6	31.4	1.6	0.2	253

■ 자녀유무별 응답자 분포

- 기혼 가정의 자녀유무수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자녀 없음」이 83명으로 60.9%를 점유하고, 「자녀 있음」이 53명으로 39.1%를 점유함



구분	전체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없음	53	39.1	7	63.6	46	36.8
있음	83	60.9	4	36.4	79	63.2
전체	136	100.0	11	100.0	125	100.0

[그림 3-16] 자녀유무별 응답자 분포

■ 자녀수별 응답자 분포

- 기혼 가정의 자녀수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0명」이 39.1%(53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평균 0.93명으로 추정됨
- 그 다음으로 「1명(33.0%)」, 「2명(23.8%)」, 「3명(4.1%)」 순으로 분포함

[표 3-37] 자녀수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자녀수				전체 (n, 100%)	평균 (명)
		0명	1명	2명	3명		
전체	명	53	45	32	6	136	0.93
	%	39.1	33.0	23.8	4.1	100.0	
미취업자	%	70.0	20.0	10.0	-	10	0.45
취업자	%	36.5	34.1	24.6	4.8	126	0.97

■ 거주형태별 응답자 분포

- 거주형태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무상(부모님택 거주)」이 46.2%(231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21.5%)」, 「자가(본인·배우자 명의)(19.1%)」, 「전세(9.6%)」, 「기타(기숙사 등)(2.3%)」, 「보증금 없는 월세(1.2%)」 순으로 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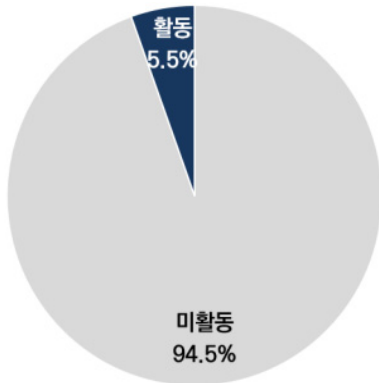
[표 3-38] 거주형태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거주형태						전체 (n, 100%)
		무상 (부모님택거주)	자가 (본인·배우자)	전세	월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기타 (기숙사등)	
전체	명	231	95	48	108	6	12	500
	%	46.2	19.1	9.6	21.5	1.2	2.3	100.0
미취업자	%	70.3	4.8	2.8	17.2	-	4.8	145
취업자	%	36.4	24.9	12.4	23.2	1.7	1.4	355

■ 귀농·귀촌 활동별 응답자 분포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귀농귀촌 미활동인」이 473명으로 94.5%를 점유하고, 「귀농귀촌 활동인」이 27명으로 5.5%를 점유함



(단위 : 명, %)

구분	전체		미취업자		취업자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응답자	비중
미활동	473	94.5	139	95.9	333	93.8
활동	27	5.5	6	4.1	22	6.2
전체	500	100.0	145	100.0	355	100.0

[그림 3-17]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응답자 분포

- 귀농·귀촌 활동유형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귀농 중(영농개시or사업자등록)」이 47.1% (13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준비단계(교육·체험·탐색)(45.3%)」, 「귀촌 중(비영농정주or농촌취·창업)(7.5%)」 순으로 분포함

[표 3-39] 귀농·귀촌 활동유형별 응답자 분포

(단위: 명, %)

구분		귀농귀촌 활동유형			전체 (n, 100%)
		준비단계 (교육·체험·탐색)	귀농 중 (영농개시or사업자등록)	귀촌 중 (비영농정주or농촌취·창업)	
전체	명	12	13	2	27
	%	45.3	47.1	7.5	100.0
미취업자	%	100.0	-	-	6
취업자	%	31.8	59.1	9.1	22

■ 산업분야별 응답자 분포

- 산업분야별 응답자 분포를 보면, 「제조업/건설업」이 24.5%(122명)로 가장 많이 분포함
- 그 다음으로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13.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12.7%)」, 「공공행정업(10.9%)」, 「교육업/예술스포츠업(10.5%)」, 「보건복지업(10.5%)」, 「기타서비스업(5.5%)」, 「농축수산업(3.5%)」 순으로 분포함



구분		산업분야별									전체 (n, 100%)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기타서비스업	해당 없음 (구직단념, 비경제활동)	
전체	명	18	122	64	65	52	52	54	28	45	500
	%	3.5	24.5	12.7	13.0	10.5	10.5	10.9	5.5	8.9	100.0
미취업자	%	2.1	6.9	4.2	16.7	15.3	11.8	9.7	2.1	31.3	145
취업자	%	4.2	31.5	16.3	11.3	8.5	10.1	11.3	6.8	-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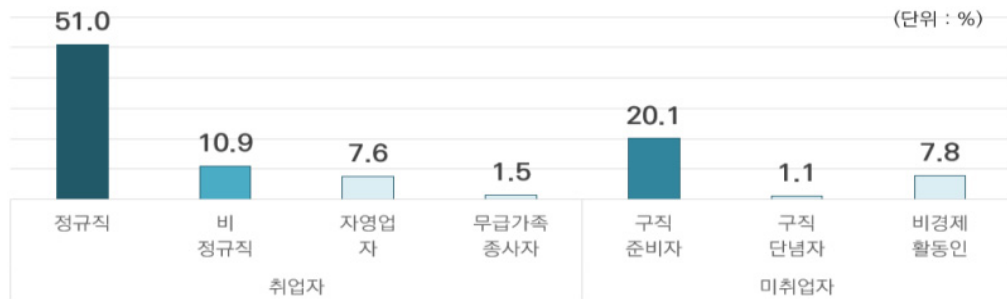
- 주1. 기타서비스업 : 운수 및 창고업, 부동산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2. 미취업자의 산업분야는 현재 종사하는 산업분야가 아닌,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산업분야임

[그림 3-18] 산업분야별 응답자 분포

다.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

1) 고용상태

- 전북청년의 현재 고용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71.0%(355명)는 「취업자」, 29.0%(145명)는 「미취업자」로 나타남
- 하위 계층별 고용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51.0%(25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구직준비자(20.1%)」, 「비정규직(10.9%)」, 「비경제활동인(7.8%)」, 「자영업자(7.6%)」, 「무급가족 종사자(1.5%)」, 「구직단념자(1.1%)」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고용상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전주 권역」, 「군산·김제 권역」, 「고창·부안·정읍 권역」, 연령대에서는 「30세~34세」,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없음」, 「기혼+자녀 있음」,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전반적으로 전북청년의 정규직 비중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미취업·구직준비·비정규직·자영업 등 다양한 상태가 혼재하고 있어, 향후 분석에서는 산업·연령·가구 특성을 고려한 고용안정성·일자리 질의 차별적 영향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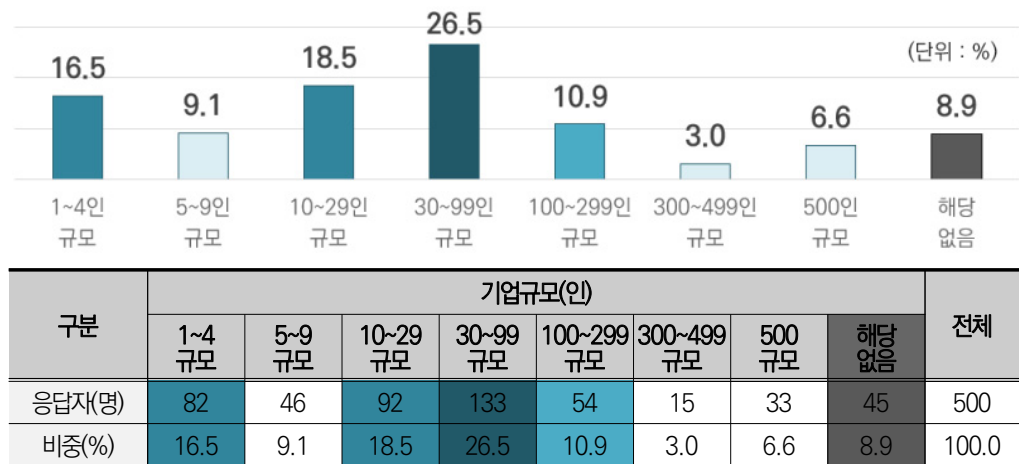
구분	고용상태							전체
	취업자				미취업자			
	정규직	비 정규직	자영업 자	무급가족 종사자	구직 준비자	구직 단념자	비경제 활동인	
응답자(명)	255	55	38	7	100	6	39	500
비중(%)	51.0	10.9	7.6	1.5	20.1	1.1	7.8	100.0

[그림 3-19] 고용상태

2) 기업규모

- 전북청년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6.5%(133명)가 「30~99인 규모」를 선택함
 - 그 다음으로 「10~29인 규모(18.5%)」, 「1~4인 규모(16.5%)」, 「100~299인 규모(10.9%)」, 「5~9인 규모(9.1%)」, 「500인 이상 규모(6.6%)」 순으로 나타남
- 범주별 「기업규모」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익산·완주 권역」, 「임실·순창·남원 권역」,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독립」,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건설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30~99인 규모 기업에서 현재 종사하거나 향후 종사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은 전반적으로 소규모(1~29인) 사업장과 중소 규모(30~99인) 사업장에서 현재 종사하거나, 현실적으로 진입 가능하다고 보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비중이 낮다는 결과는, 단순히 대기업 선호도가 낮아 서라기보다는 지역 내 대규모 기업 입지 부족, 채용기회의 제약 등 구조적 조건이 청년의 선택 자체를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께 시사함
- 이번 응답 결과는 청년의 “이상적 선호”라기보다는 현재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선택 가능한 기업규모 범위 안에서 형성된 ‘조정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지역 내에서 중견·앵커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기반 확충 전략과 전북에 거주하면서도 광역·대기업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는 원격·하이브리드·권역형 고용모델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 제기됨



[그림 3-20] 기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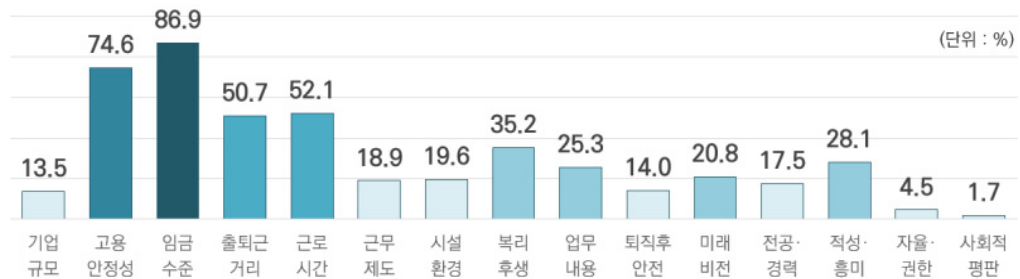
[표 3-40] 집단유형별 기업규모 비교

구분		기업규모(인)							전체 (n,100 %)	χ^2 검정
		1~4 규모	5~9 규모	10~29 규모	30~99 규모	100~2 99 규모	300~4 99 규모	500 규모		
전체		16.5	9.1	18.5	26.5	10.9	3.0	6.6	8.9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4.1	7.6	16.5	27.6	7.6	0.7	4.1	31.0	145
	취업자	21.4	9.6	19.2	25.9	12.4	3.9	7.6	-	355

주. * $p < 0.1$, ** $p < 0.05$, *** $p < 0.01$

3)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 전북청년들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9%(435명)가 「임금수준」을 선택함
 - 그 다음으로 「고용안정성(74.6%)」, 「근로시간(52.1%)」, 「출퇴근거리(50.7%)」, 「복지후생(35.2%)」, 「적성·흥미(28.1%)」, 「업무내용(25.3%)」, 「미래비전(20.8%)」 순으로 나타나, 경제적 조건과 고용 안정, 시간·공간적 조건이 1차적인 고려요소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가능함
- 범주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존재함
 - 특히 「군산·김제 권역」, 「무주·진안·장수 권역」,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있음」,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고용상태에서는 「취업자」 집단에서 임금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생계비 부담, 부양가구 존재, 업종 특유의 임금·고용 불안정성 등이 결합되면서, 일부 집단에서 임금수준이 다른 요인보다 더 절실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적성·흥미, 업무내용, 미래비전 등 비경제적·경력적 요소도 일정 비중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들이 일자리 선택 시 “소득·안정성”과 “경력·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함



구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전체
	기업 규모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출퇴근 거리	근로 시간	근무 제도	시설 환경	복지 후생	업무 내용	퇴직 후 안전	미래 비전	전공 경력	적성·흥미	자율·권한	사회적 평판	
응답자(명)	67	373	435	254	260	94	98	176	127	70	104	88	140	23	8	500
비중(%)	13.5	74.6	86.9	50.7	52.1	18.9	19.6	35.2	25.3	14.0	20.8	17.5	28.1	4.5	1.7	100.0

[그림 3-21]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복수응답)

[표 3-41] 집단유형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비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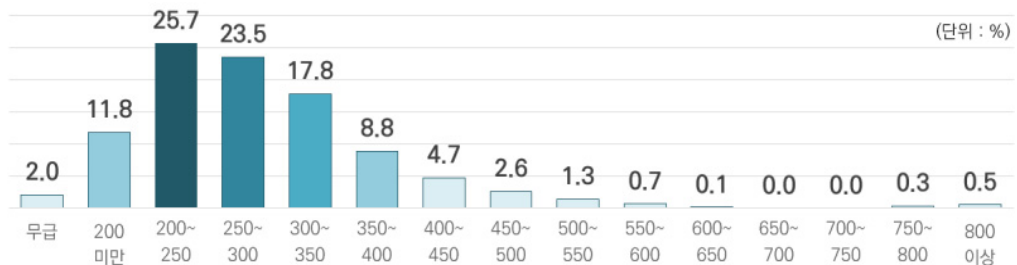
구분	일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전체 (n, 100 %)
	기업 규모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출퇴근 거리	근로 시간	근무 제도	시설 환경	복지 후생	업무 내용	퇴직 후 안전	미래 비전	전공 경력	적성·흥미	자율·권한	사회적 평판	
전체	13.5	74.6	86.9	50.7	52.1	18.9	19.6	35.2	25.3	14.0	20.8	17.5	28.1	4.5	1.7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13.8	72.4	79.3	52.4	44.6	21.5	28.1	28.7	20.2	19.3	24.6	20.1	36.3	4.2	1.2	145
취업자	13.4	75.6	90.0	50.1	55.1	17.8	16.2	37.9	27.4	11.8	19.3	16.5	24.7	4.7	1.9	355

4) 임금수준

- 전북청년의 현재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5.7%(91명)가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월 평균 임금은 293.8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3.5%)」,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17.8%)」, 「200만 원 미만(11.8%)」, 「35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8.8%)」 등의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현재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전주 권역」, 「도시지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없음」, 「기혼+자녀 있음」,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현재 임금수준이 전체 평균(293.8만 원)을 상회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대로 일부 농촌 지역, 20대 초반, 미혼·동거 가구, 서비스·숙박·도소매업 등 특정 집단에서는 평균보다 낮은 임금구간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전북청년 내부에서도 지역·연령·가구·산업에 따른 임금 격차와 이중구조가 존재함을 시사함
- 이러한 결과는 3.1절에서 확인한 전북의 중·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높은 구조와도 연계되며,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단순한 고용 확대뿐 아니라 청년 임금수준의 상향과 임금 격차 완화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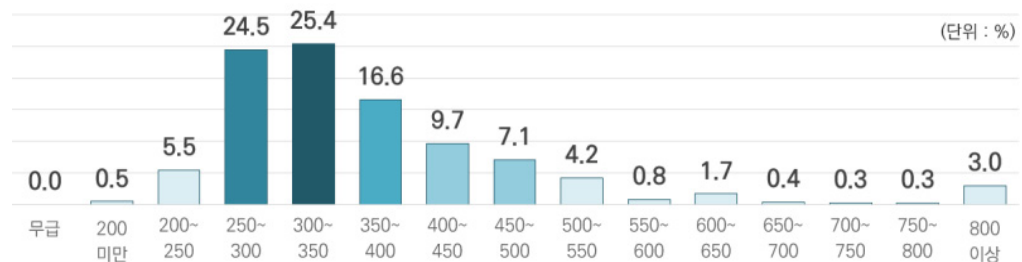


구분	현재 임금수준(만원)																취업 자 전체	평균 (만원)
	무급	200 미만	200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500 ~ 550	550 ~ 600	600 ~ 650	650 ~ 700	700 ~ 750	750 ~ 800	800 이상			
응답자(명)	7	42	91	83	63	31	17	9	5	2	0	-	-	1	2	355	293.8	
비중(%)	2.0	11.8	25.7	23.5	17.8	8.8	4.7	2.6	1.3	0.7	0.1	-	-	0.3	0.5	100.0		

[그림 3-22] 현재 임금수준

- 전북청년들의 희망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4%(127명)가 「300만 원 이상~35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희망 월 평균 임금은 369.2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24.5%)」, 「35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16.6%)」, 「400만 원 이상~450만 원 미만(9.7%)」, 「45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7.1%)」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희망 임금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유형,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 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도시지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없음」, 「기혼+자녀 있음」,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고용상태에서는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취업자」 집단에서 희망 임금수준이 전체 평균(369.2만 원)을 상회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앞서 살펴본 현재 임금수준(평균 293.8만 원)과 비교할 때, 전북청년이 기대하는 희망 임금수준은 약 70만 원 내외의 격차를 보이며, 이는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선 제공되는 보상 수준을 생활비·가구부양·노동 강도 등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부양가구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고숙련·전문성이 요구되는 산업분야, 향후 노동시장 진입 또는 재진입을 준비 중인 집단에서 희망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질 낮은 일자리의 축소와 적정 보상 수준 확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구분	희망 임금수준(만원)															전체	평균 (만원)
	미급	200 미만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400 ~450	450 ~500	500 ~550	550 ~600	600 ~650	650 ~700	700 ~750	750 ~800	800 이상		
응답자(명)	-	3	27	122	127	83	48	35	21	4	9	2	1	2	15	500	369.2
비중(%)	-	0.5	5.5	24.5	25.4	16.6	9.7	7.1	4.2	0.8	1.7	0.4	0.3	0.3	3.0	100.0	

[그림 3-23] 희망 임금수준

[표 3-42] 집단유형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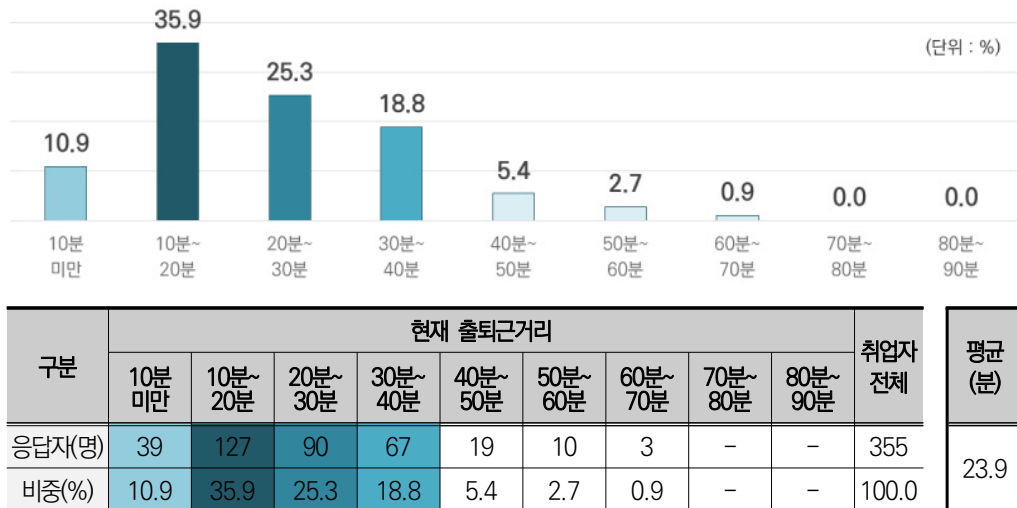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희망 임금수준(만원)																전체 (n, 100 %)	평균 (만원)	t/F 검정
		무급	200 미만	200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500 ~ 550	550 ~ 600	600 ~ 650	650 ~ 700	700 ~ 750	750 ~ 800	800 이상				
전체		-	0.5	5.5	24.5	25.4	16.6	9.7	7.1	4.2	0.8	1.7	0.4	0.3	0.3	3.0	500	369.2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	-	8.3	35.2	26.2	13.8	6.2	4.1	3.4	-	-	-	0.7	-	2.1	145	338.3	13.87 2	
	취업자	-	0.6	4.2	20.3	25.1	17.7	11.0	8.5	4.5	1.1	2.5	0.6	-	0.6	3.4	355	381.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5) 출퇴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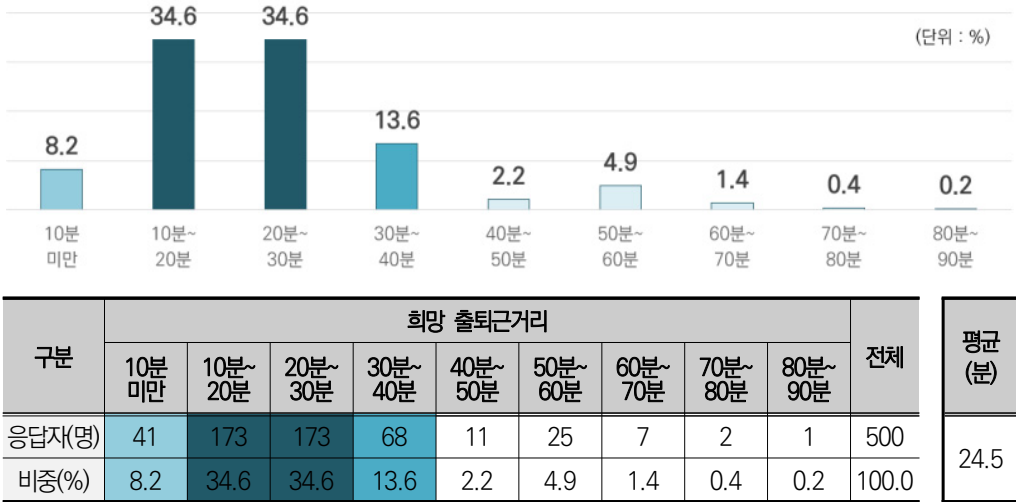
- 전북청년들의 현재 출퇴근거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9%(127명)가 「10분 이상~20분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출퇴근 시간은 23.9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20분 이상~30분 미만(25.3%)」, 「30분 이상~40분 미만(18.8%)」, 「10분 미만(10.9%)」, 「40분 이상~50분 미만(5.4%)」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현재 출퇴근거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성별,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전주 권역」, 「도시지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없음」,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집단에서 평균(23.9분)보다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는 전국 대도시권에 비해 평균 출퇴근 시간 자체는 짧은 편이지만, 일부 산업·연령·가구 집단에서는 장거리 통근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는 교통비·시간비용 증가, 돌봄·여가시간 축소 등 청년 삶의 질과 정주 만족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3-24] 현재 출퇴근거리

- 전북청년들의 희망 출퇴근거리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다수는 「10분 이상~20분 미만」과 「20분 이상~30분 미만」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균 희망 출퇴근 시간은 24.5분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는 「10분 이상~20분 미만」, 「20분 이상~30분 미만」 응답 비중이 각각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분 이상~40분 미만(13.6%)」, 「10분 미만(8.2%)」, 「50분 이상~60분 미만(4.9%)」, 「40분 이상~50분 미만(2.2%)」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희망 출퇴근거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전주 권역」, 「군산·김제 권역」, 「도시지역」, 연령대에서는 「18세~24세」, 「25세~29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중속」, 「기혼+자녀 없음」,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공공행정업」, 고용상태에서는 「구직단념·비경제활동」, 「미취업자」 집단에서 평균(24.5분)보다 희망 출퇴근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남
- 현재 출퇴근시간 평균(23.9분)과 희망 출퇴근시간 평균(24.5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북청년은 일·생활 균형 측면에서 '30분 이내 통근' 범위를 비교적 현실적인 기준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다만 일부 산업·집단에서 30분 이상 출퇴근도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은, 임금·경력·직무 내용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출퇴근 부담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임금·경력 기회와 통근 부담 완화를 함께 고려하는 직주근접·교통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함



[그림 3-25] 희망 출퇴근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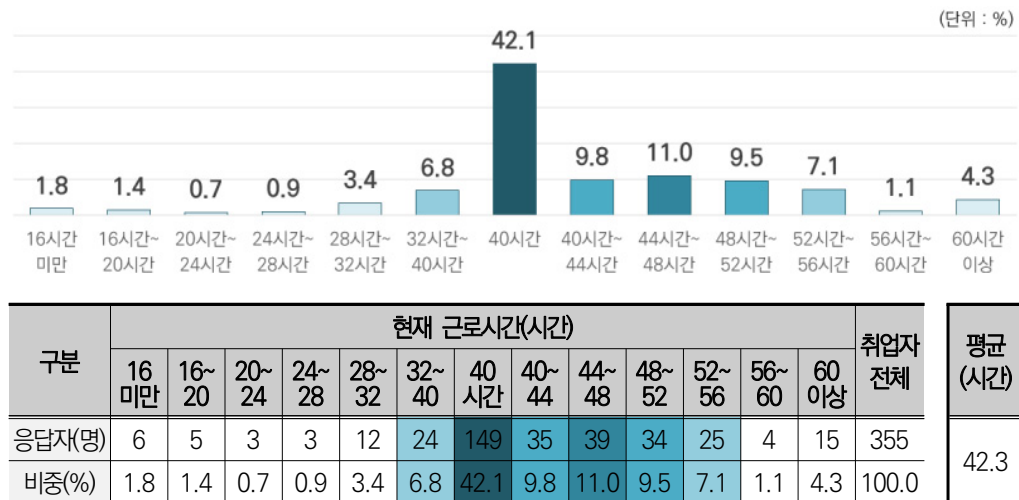
[표 3-43] 집단유형별 희망 출퇴근거리 비교

구분		희망 출퇴근거리									전체 (n, 100%)	평균 (분)	t/F 검정
		10분 미만	10분~ 20분	20분~ 30분	30분~ 40분	40분~ 50분	50분~ 60분	60분~ 70분	70분~ 80분	80분~ 90분			
전체		8.2	34.6	34.6	13.6	2.2	4.9	1.4	0.4	0.2	500	24.5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8	15.2	41.4	18.6	4.1	11.0	4.1	1.4	0.7	145	31.9	81.909
	취업자	10.4	42.5	31.8	11.6	1.4	2.3	0.3	-	-	355	21.4	***

주. * $p < 0.1$, ** $p < 0.05$, *** $p < 0.01$

6)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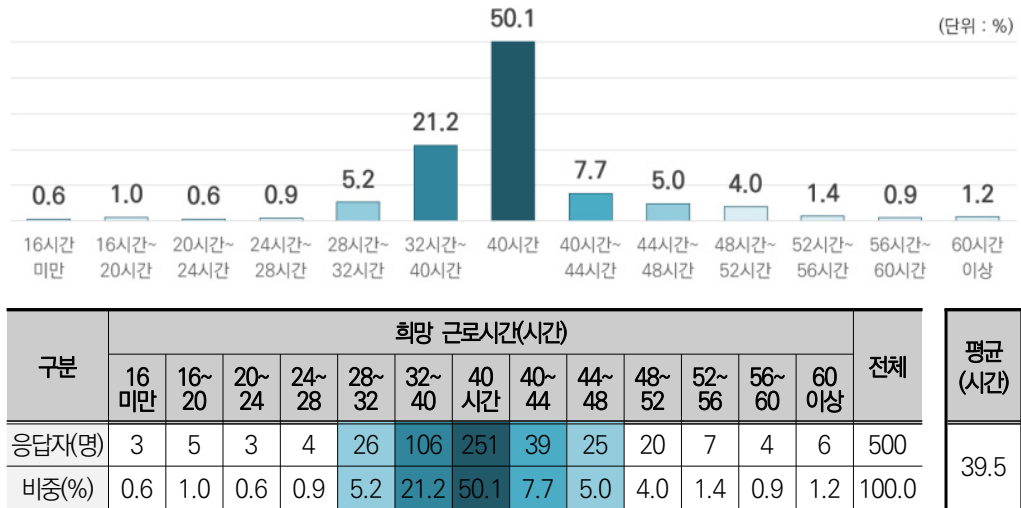
- 전북청년들의 일주일 동안 현재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1%(149명)가 「4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44시간 이상~48시간 미만(11.0%)」,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9.8%)」, 「48시간 이상~52시간 미만(9.5%)」, 「52시간 이상~56시간 미만(7.1%)」 순으로 분포하여,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전후한 구간과 44~52시간 구간에 응답이 집중됨
- 범주별 「현재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성별, 연령대,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군산·김제 권역」, 「무주·진안·장수 권역」, 「고창·부안·정읍 권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30세~34세」,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주당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42.3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남
- 법정근로시간 수준에서 근로하는 청년이 다수이지만, 일부 권역·산업·집단에서 44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임금수준·출퇴근거리와 결합될 경우 피로도·여가시간 부족·가족돌봄 제약 등 삶의 질 측면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단순 고용 유지뿐 아니라, 근로시간 적정화·유연근무 확산·휴식권 보장 등 일·생활 균형을 고려한 일자리 질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 3-26] 현재 근로시간

- 전북청년들의 일주일 동안 희망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0.1%(251명)가 「40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39.5시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21.2%)」, 「40시간 이상~44시간 미만(7.7%)」, 「28시간 이상~32시간 미만(5.2%)」, 「44시간 이상~48시간 미만(5.0%)」 순으로 분포하여, 대다수 청년이 '주 40시간 전후' 혹은 그보다 다소 짧은 근로시간을 선호하는 양상 확인됨
- 범주별 「희망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남성」, 「30세~34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집단에서 주당 희망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39.5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현재 근로시간 평균(42.3시간)과 비교할 때, 전북청년의 희망 근로시간은 약 3시간가량 더 짧은 수준으로, 청년들이 현실의 근로시간을 생계·임금 수준을 감안하면서도 다소 과중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장시간 노동 비중이 높은 산업·집단일수록 희망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긴 하지만, 전반적인 응답 패턴은 '법정근로시간(40시간) 안팎에서의 안정적인 노동'과 '여가·돌봄·자기계발 시간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청년이 바람직한 일자

리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3-27] 희망 근로시간

[표 3-44] 집단유형별 희망 근로시간 비교

구분		희망 근로시간(시간)													전체 (n, 100 %)	평균 (시간)	t/F 검정
		16 미만	16~ 20	20~ 24	24~ 28	28~ 32	32~ 40	40 시간	40~ 44	44~ 48	48~ 52	52~ 56	56~ 60	60 이상			
전체		0.6	1.0	0.6	0.9	5.2	21.2	50.1	7.7	5.0	4.0	1.4	0.9	1.2	500	39.5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	1.4	0.7	-	3.4	15.9	57.9	8.3	4.8	4.1	2.1	-	1.4	145	40.0	1.548
	취업자	0.8	1.1	0.6	1.1	5.9	23.4	46.8	7.6	5.1	3.9	1.1	1.1	1.1	355	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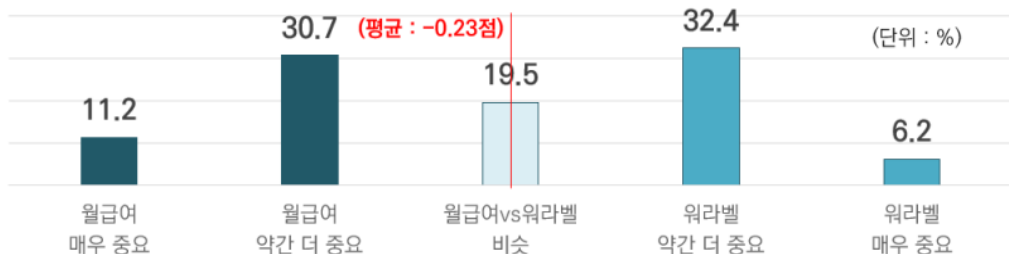
주. * $p < 0.1$, ** $p < 0.05$, *** $p < 0.01$

7)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 전북청년들이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와 워라벨(일·생활 균형) 중 어느 요소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9%(209명)는 「월급여」를, 38.6%(193명)는 「워라벨」을 더 중요하다고 응답함. 전체 평균값을 지수화하면 ‘월급여가 다소 더

중요함(-0.23점)'으로 나타나, 두 요소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가운데 약하게 월급여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양상으로 해석 가능함

- 범주별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 vs 워라벨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 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농축수산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에서는 월급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보건복지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는 워라벨을 더 중시하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에게 월급여와 워라벨을 상호 배타적인 기준이라기보다 둘 사이의 균형 속에서 약간 '소득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선택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임금 수준 개선과 함께 일·생활균형 여건을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 고용상태별로 보면, 미취업자 집단의 평균값(-0.36점)이 취업자 집단(-0.17점)보다 더 월급여 쪽으로 기울어 있어, 구직 단계 청년일수록 생계·소득 안정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취업자 집단에서는 월급여와 워라벨을 보다 유사한 중요도로 병행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남



구분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전체 (n,100%)	평균 (점)
	월급여 매우 중요 (-5점~-4점)	월급여 약간 더 중요 (-3점~-1점)	월급여vs 워라벨 비슷 (0점)	워라벨 약간 더 중요 (1점~3점)	워라벨 매우 중요 (4점~5점)		
응답자(명)	56	153	98	162	31	500	-0.23
비중(%)	11.2	30.7	19.5	32.4	6.2	100.0	

[그림 3-28]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표 3-45] 집단유형별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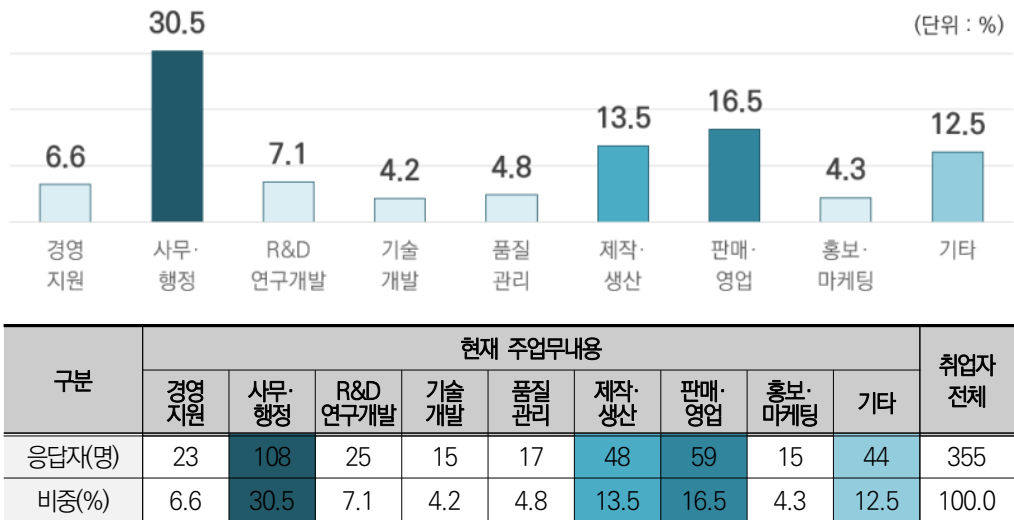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일자리 선택 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월급여 매우 중요 (-5점~4점)	월급여 약간 더 중요 (-3점~-1점)	월급여vs 워라벨 비서 (0점)	워라벨 약간 더 중요 (1점~3점)	워라벨 매우 중요 (4점~5점)			
전체		11.2	30.7	19.5	32.4	6.2	500	-0.23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9.7	33.1	24.1	27.6	4.8	145	-0.36	0.505
	취업자	11.8	29.6	17.5	34.1	6.8	355	-0.17	

주. * $p < 0.1$, ** $p < 0.05$, *** $p < 0.01$

8) 주업무내용

- 전북청년들의 현재 주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5%(108명)가 「사무·행정」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판매·영업(16.5%)」, 「제작·생산(13.5%)」, 「기타(서비스)(12.5%)」, 「R&D·연구개발(7.1%)」, 「경영지원(6.6%)」, 「품질관리(4.8%)」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현재 주업무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성별, 연령대,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전주 권역」, 「군산·김제 권역」, 「도시지역」,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대에서는 「25세~29세」,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미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사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북청년의 주업무가 사무·행정, 판매·영업 등 사무·서비스 중심 직무에 다소 집중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 구조(제조·농생명·공공부문 등)와의 정합성, 직무 다양성 및 경력 경로 측면에서 청년 직무 스펙트럼을 어떻게 확장·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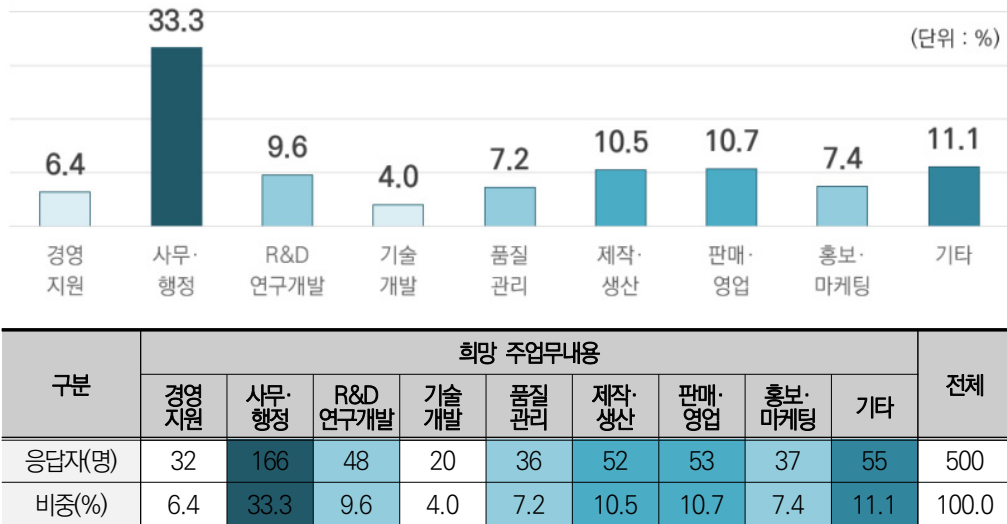


[그림 3-29] 현재 주업무내용

- 전북청년들의 희망 주업무 내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166명)가 「사무·행정」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기타(서비스)(11.1%)」, 「판매·영업(10.7%)」, 「제작·생산(10.5%)」, 「R&D·연구개발(9.6%)」, 「홍보·마케팅(7.4%)」, 「품질관리(7.2%)」 순으로 분포함
- 범주별 「희망 주업무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유형,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연령대에서는 「25세~29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독립」, 산업분야에서는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사무·행정 업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농촌지역」,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있음」,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집단에서 기타 서비스 업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없음」, 산업분야에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집단에서 판매·영업 업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30세~34세」,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건설업」, 고용상태에서는 「취업자」 집단에서 제작·생산 업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반대로 성별에서는 「여성」, 산업분야에서는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고용상태에서는 「미취업자」 집단에서 홍보·마케팅 업무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현재 주업무와 마찬가지로 사무·행정, 서비스, 제작·생산 등이 주요 축을 이루되, 일부 집단에서는 R&D·홍보·마케팅 등 전문성·창의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선호도 함께 확인되고 있어, 전북 청년의 직무 희망은 단순·보조업무보다는 안정성과 전문성·경력 형성이 가능한 직무 구조에 대한 요구를 포함하고 있음



[그림 3-30] 희망 주업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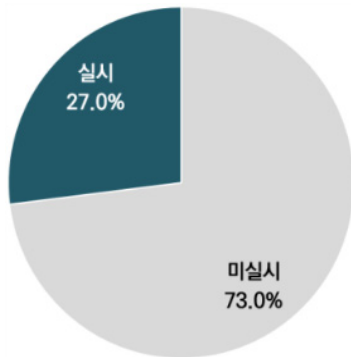
[표 3-46] 집단유형별 희망 주업무내용 비교

구분		희망 주업무내용									전체 (n100%)	χ^2 검정
		경영 지원	사무·행정	R&D 연구개발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제작·생산	판매·영업	홍보·마케팅	기타		
전체		6.4	33.3	9.6	4.0	7.2	10.5	10.7	7.4	11.1	500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3.4	33.8	11.7	4.1	13.8	3.4	9.0	13.1	7.6	145	36.636
	취업자	7.6	33.0	8.5	3.7	4.8	13.2	11.3	5.1	12.7	35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9)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 및 유형

- 전북청년들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0%(96명)가 「실시함」이라고 응답함
- 범주별 「유연근무제 실시 여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성별, 연령대,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전주 권역」, 「도시지역」,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독립」, 「기혼+자녀있음」,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미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직장 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시점에서 전북청년이 경험하는 유연근무제 실시 비율은 3명 중 1명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앞서 살펴본 일·생활균형 지수 향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 측면에서의 유연성 확보는 아직 제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함



구분	응답자(명)	비중(%)
미실시	259	73.0
실시	96	27.0
취업자 전체	355	100.0

[그림 3-31]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 전북청년들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어떤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고 응답한 청년 중 55.9%(53명)가 「시차출퇴근형」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시간선택제(31.3%)」, 「근무시간선택형(26.1%)」, 「재량근무형(8.6%)」, 「재택근무형(7.0%)」, 「집약근무형(5.0%)」 순으로 나타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과 일정 범위 내 시간 선택형 제도가 중심을 이루는 양상 확인

- 범주별 「유연근무제 실시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에 따라 상대적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전주 권역», 「고창·부안·정읍 권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25세~29세», 「35세~39세», 가구형태에서는 「기혼+자녀 있음»,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그 다음으로 「군산·김제 권역», 「익산·완주 권역», 성별에서는 「남성», 연령대에서는 「18세~24세», 「25세~29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중속», 「기혼+자녀 없음», 산업분야에서는 「공공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시간선택제를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편, 산업분야에서는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집단에서 근무시간선택형 유연근무제를, 「익산·완주 권역», 「무주·진안·장수 권역», 연령대에서는 「30세~34세», 산업분야에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집단에서 재량근무형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이 경험하는 유연근무제는 재택·집약근무보다는 출퇴근 시차 조정, 일정 범위 내 시간 선택 등 「근로시간대 조정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형식상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공간·장기휴식·집약근무 등 보다 강한 수준의 일·생활균형 제도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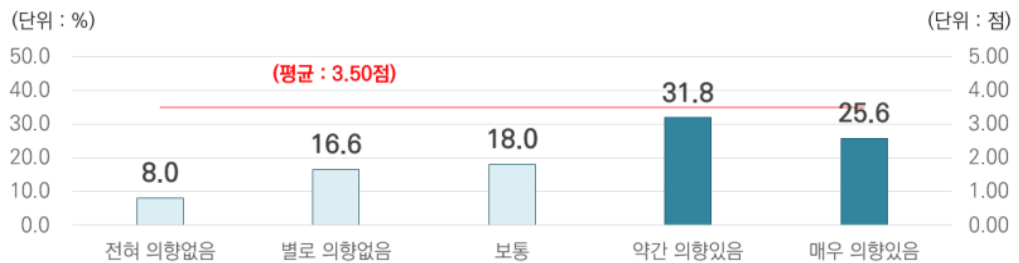


구분	유연근무제 실시유형							취업자 전체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형	탄력 근무제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응답자(명)	30	53	25	5	8	7	-	96
비중(%)	31.3	55.9	26.1	5.5	8.6	7.0	-	100.0

[그림 3-32] 유연근무제 실시유형(복수응답)

10)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4%(287명)가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24.6%(123명)는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함. 5점 척도 평균값은 3.5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참여의향으로 분석됨
- 범주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유형, 성별, 귀농·귀촌 활동 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군산·김제 권역」, 「임실·순창·남원 권역」, 「도시지역」, 성별에서는 「여성」, 활동 유형에서는 「귀농·귀촌 미활동인」, 산업분야에서는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공공행정업」 집단에서 유연근무제에 참여할 의향이 전체 평균(3.50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전북청년은 현재 유연근무제 경험 비율(약 27%)에 비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참여할 의향은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근로시간대 조정,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산 여지가 상당함을 시사함



구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응답자(명)	40	83	90	159	128	500	3.50
비중(%)	8.0	16.6	18.0	31.8	25.6	100.0	

[그림 3-33]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표 3-47] 집단유형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비교

(단위: %, 명)

구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8.0	16.6	18.0	31.8	25.6	500	3.50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5	13.8	22.1	37.9	20.7	145	3.55	0.247
	취업자	9.0	17.7	16.3	29.3	27.6	355	3.49	

주. * $p < 0.1$, ** $p < 0.05$, *** $p < 0.01$

11)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 전북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6%(115명)가 「시간선택제」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시차출퇴근형(23.8%)」, 「근무시간선택형(19.6%)」, 「재택근무형(10.2%)」, 「집약근무형(8.7%)」, 「재량근무형(6.6%)」, 「스마트워크근무형(0.5%)」 순으로 나타나, 현재 주로 경험하고 있는 시차출퇴근형과 달리, 청년들은 '근무시간대를 보다 폭넓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양상 확인
- 범주별 「유연근무제 희망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특히 성별에서는 「여성」, 연령대에서는 「35세~39세」, 산업분야에서는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체적으로 전북청년은 단순히 출퇴근 시각을 미세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하루·주간 단위의 근로시간 배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근무시간선택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의 질적 수준(선택권·예측 가능성·생활 패턴과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시사함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전체
	시간 선택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응답자(명)	115	90	74	33	25	38	2	377
비중(%)	30.6	23.8	19.6	8.7	6.6	10.2	0.5	100.0

[그림 3-34]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표 3-48] 집단유형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비교

(단위: %, 명)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전체 (n,100%)	χ^2 검정
		시간 선택제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전체		30.6	23.8	19.6	8.7	6.6	10.2	0.5	377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9.1	21.4	17.1	7.7	7.7	15.4	1.7	117	10.200
	취업자	31.4	24.9	20.7	8.8	6.1	8.0	-	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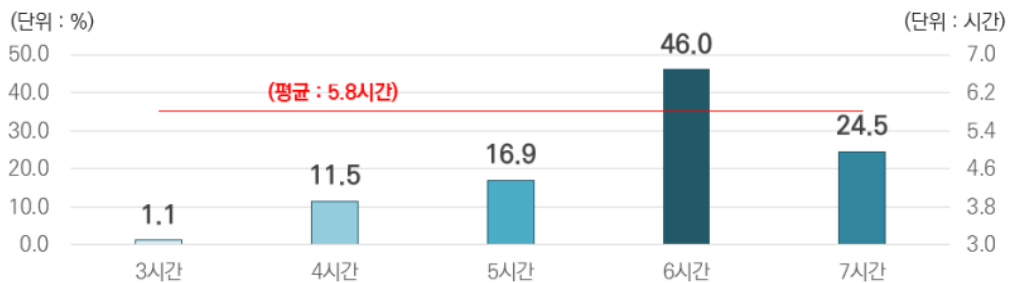
주. * $p < 0.1$, ** $p < 0.05$, *** $p < 0.01$

12)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 전북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할 경우 하루 몇 시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0%(53명)가 「6시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하루 평균 희망 근로시간은 5.8시간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7시간(24.5%)」, 「5시간(16.9%)」, 「4시간(11.5%)」, 「3시간(1.1%)」 순으로 분포하여, 전반적으로 「6시간 내외」의 단축근로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확인됨
-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성별에서는 「남성」 집단이 「여성」 집단에 비해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이 전체 평균(5.8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편으로 나타남
- 산업분야에서는 「보건복지업」, 「기타 서비스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이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집단에 비해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이 평균(5.8시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경향을 보임
- 시간선택제를 가정할 경우, 전북청년은 현재 주당 근로시간(42.3시간)보다 다소 축소된 '하루 6시간 전후' 근무를 이상적인 기준선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이는 생계유지와 함께 여가·돌봄·건강관리·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시간 구조에 대한 수요로 해석 가능함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전체 (n,100%)	평균 (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응답자(명)	1	13	19	53	28	115	5.8
비중(%)	1.1	11.5	16.9	46.0	24.5	100.0	

[그림 3-35]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표 3-49] 집단유형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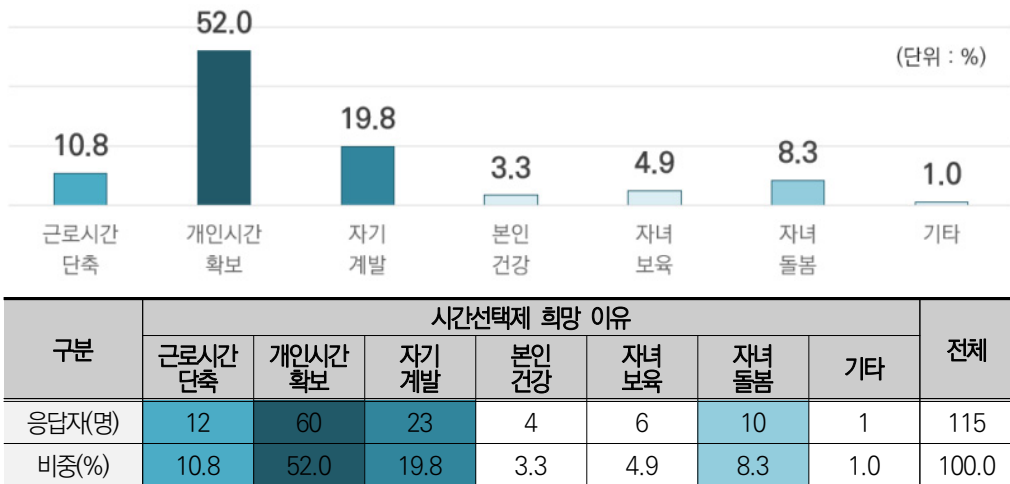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전체 (n,100%)	평균 (시간)	t/F 검정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전체		1.1	11.5	16.9	46.0	24.5	115	5.8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9	8.8	17.6	44.1	26.5	34	5.8	0.081
	취업자	-	12.2	17.1	46.3	24.4	82	5.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3)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 전북청년들이 직장 내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0%(60명)가 「개인시간 확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자기계발(19.8%)」, 「근로시간 단축(10.8%)」, 「자녀돌봄(8.3%)」, 「자녀보육(4.9%)」, 「본인건강(3.3%)」, 「기타(1.0%)」 순으로 나타나, 개인시간·자기계발·돌봄·건강 등 ‘생활 영역’과 직접 연결된 이유가 우세하게 나타남
-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됨
 - 특히 「18세~24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중속」, 산업분야에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고용상태에서는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에서 ‘개인시간 확보’를 이유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전북청년들은 시간선택제를 임금만을 조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개인시간·자기계발·돌봄·건강을 위한 ‘생활 리듬 재구성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일·생활 영역을 아우르는 지원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함



[그림 3-36]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표 3-50] 집단유형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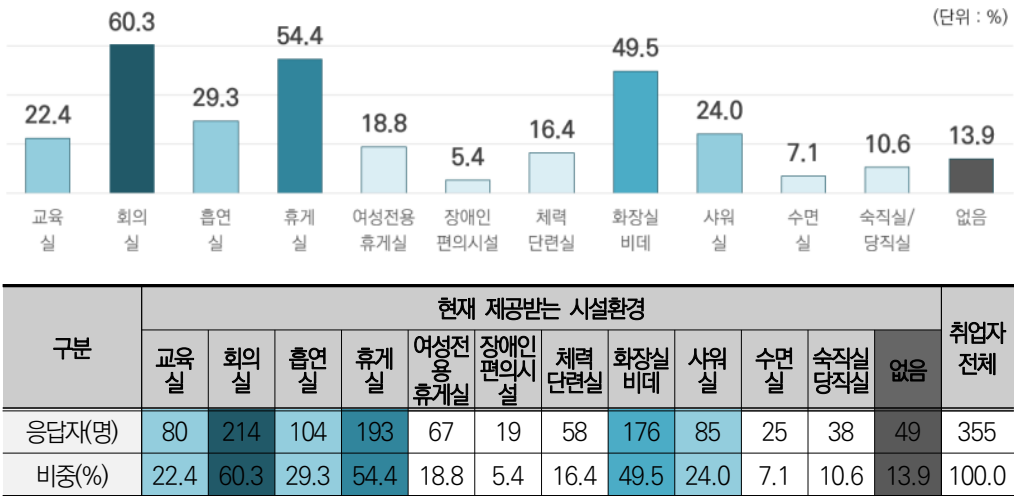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전체 (n,100%)	χ^2 검정
	근로시간 단축	개인시간 확보	자기 계발	본인 건강	자녀 보육	자녀 돌봄	기타		
전체	10.8	52.0	19.8	3.3	4.9	8.3	1.0	115	-
집단 유형별									7.449
미취업자	2.9	61.8	23.5	-	5.9	2.9	-	34	
취업자	13.4	47.6	18.3	4.9	4.9	9.8	1.2	82	

주. * $p < 0.1$, ** $p < 0.05$, *** $p < 0.01$

14) 시설환경

- 전북청년들이 재직 중인 기업에서 현재 사업장 내 제공받는 시설환경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3%(214명)가 「회의실」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휴게실(54.4%)」, 「화장실 비데(49.5%)」, 「흡연실(29.3%)」, 「샤워실(24.0%)」, 「교육실(22.4%)」, 「여성전용 휴게실(18.8%)」, 「체력단련실(16.4%)」 순으로 나타나, 업무 수행과 기본적인 휴식·위생을 위한 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 확인



[그림 3-37] 현재 제공받는 시설환경(복수응답)

- 기업이 현재 사업장 내에 제공하고 있는 시설 개수는 평균 2.49개소로 나타남
 - 산업분야별로는 「공공행정업(5.55개)», 「제조업·건설업(3.51개)», 「보건복지업(3.08개)»,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2.94개)», 「농축수산업(2.76개)」에서 평균(2.49개)보다 많은 시설을 제공하고 있어, 산업·직종 특성에 따라 근무환경 인프라 수준이 뚜렷이 차별화되는 양상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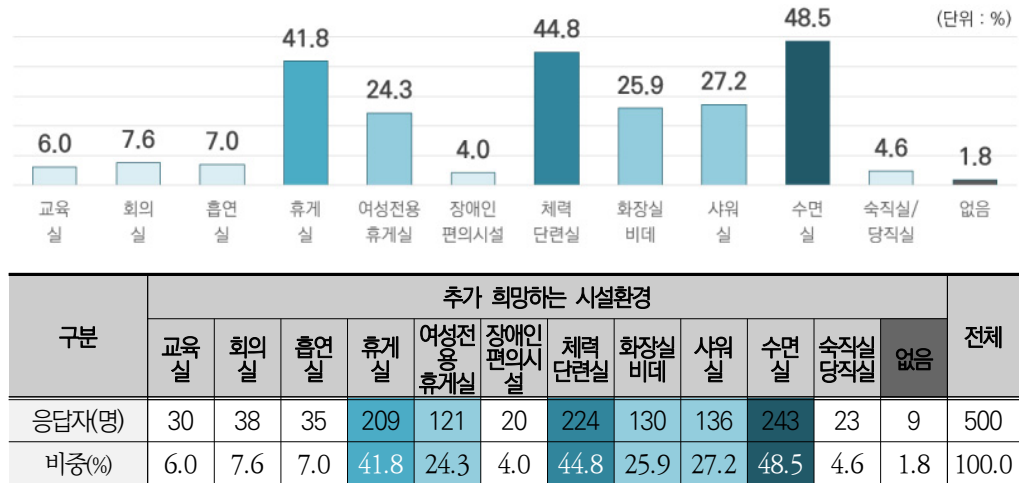
[표 3-51] 산업분야별 현재 제공받는 시설 개수 비교

(단위: 명, 개)

구분	산업분야								취업자 전체	t/F 검정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기타서비스업		
응답자	15	112	58	40	30	36	40	24	355	22.460
개수	2.76	3.51	0.90	2.94	2.30	3.08	5.55	2.15	2.49	***

- 한편, 기업이 향후 사업장 내에 추가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시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5%(243명)가 「수면실」이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체력단련실(44.8%)», 「휴게실(41.8%)», 「사워실(27.2%)», 「화장실 비데(25.9%)», 「여성 전용 휴게실(24.3%)», 「회의실(7.6%)», 「흡연실(7.0%)」 순으로 나타나, 휴식·회복·건강관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가 두드러진 양상 확인
- 범주별 「추가 희망 시설환경」을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특히 「군산·김제 권역」과 「임실·순창·남원 권역», 가구형태에서는 「미혼+독립», 산업분야에서는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기타 서비스업」 집단에서 수면실을 추가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또한 「군산·김제 권역», 「무주·진안·장수 권역», 고용상태에서는 「구직단념·비경제활동», 「미취업자」 집단에서 체력단련실 설치에 대한 희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이 경험하는 시설환경은 회의실·휴게실·위생시설 등 기본 인프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 수요는 수면·휴식·운동 등 회복과 건강을 지원하는 시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 질을 임금·고용조건뿐 아니라 근무환경, 휴식권, 건강관리 여건까지 포함한 ‘일·생활 기반’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사업장 내 휴식·회복·건강 인프라 확충과 결합된 근로환경 개선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그림 3-38]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복수응답)

[표 3-52] 집단유형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전체 (n, 100%)
		교육 실	회의 실	흡연 실	휴게 실	여성 전용 휴게실	장애인 편의 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 실	수면 실	숙직실 당직실	없음	
전체		6.0	7.6	7.0	41.8	24.3	4.0	44.8	25.9	27.2	48.5	4.6	1.8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6.6	14.2	7.3	57.9	26.0	1.8	50.3	31.7	29.1	44.3	8.9	-	145
	취업자	5.8	4.8	6.9	35.3	23.6	4.9	42.5	23.5	26.4	50.3	2.9	2.5	355

15) 복리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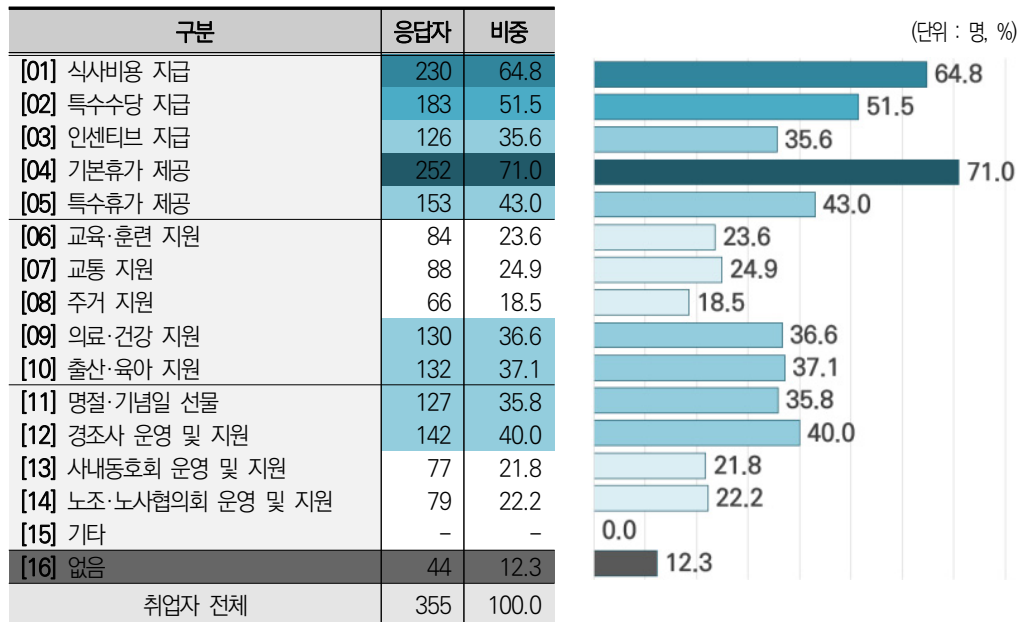
- 전북청년들이 재직 중인 기업에서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0%(252명)가 「기본휴가」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식사비용(64.8%)」, 「특수수당(51.5%)」, 「특수휴가(43.0%)」, 「경조사(40.0%)」, 「출산·육

아(37.1%), 「의료·건강(36.6%)», 「명절·기념일(35.8%)», 「인센티브(35.6%)」 순으로 나타나, 기본휴가와 식사 지원 등 필수적 복지와 더불어 수당·경조사·보건 영역이 일정 수준 제공되는 구조 확인

○ 기업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복리후생의 평균 개수는 5.26개로 나타남

- 산업분야별로는 「공공행정업(9.65개)», 「제조업·건설업(6.41개)»,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6.34개)」에서 평균(5.26개)보다 많은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어, 공공·제조·전문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 패키지가 상대적으로 두텁게 구성되는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서비스업에서는 복리후생 수준이 제한적인 양상을 보임

[표 3-53]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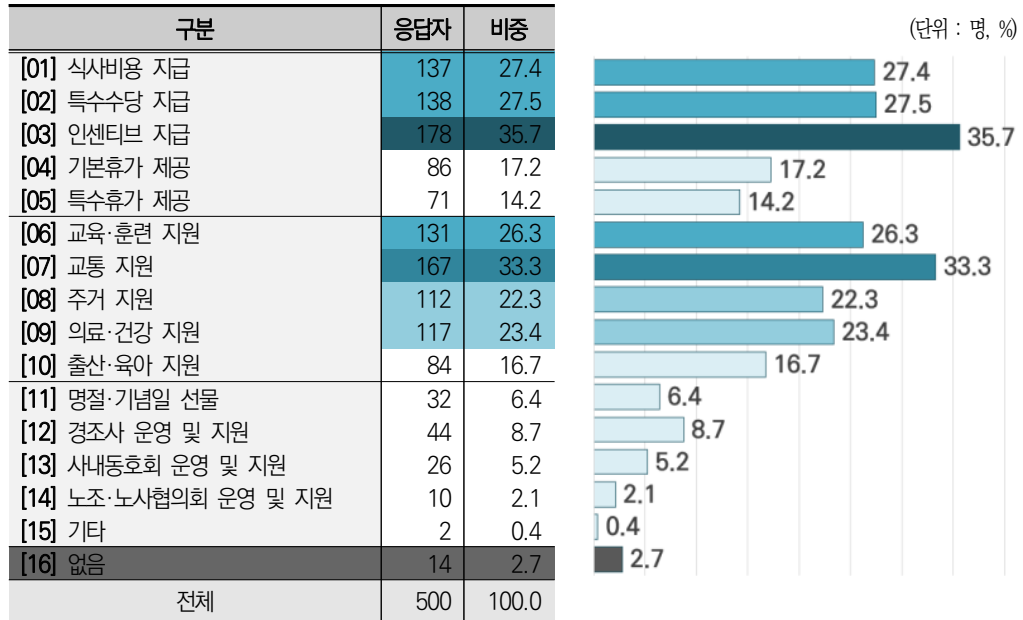
[표 3-54] 산업분야별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 개수 비교

(단위: 명, 개)

구분	산업분야								취업자 전체	t/F 검정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기술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보건복지업	공공행정업	기타서비스업		
응답자	15	112	58	40	30	36	40	24	355	31.116
개수	2.27	6.41	1.19	6.34	4.83	5.16	9.65	3.04	5.26	***

- 한편, 기업이 향후 추가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복리후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7%(178명)가 「인센티브」라고 응답함
 - 그 다음으로 「특수수당(27.5%)」, 「식사비용(27.4%)」, 「교육·훈련(26.3%)」, 「의료·건강(23.4%)」, 「주거(22.3%)」, 「기본휴가(17.2%)」, 「출산·육아(16.7%)」, 「특수휴가(14.2%)」 순으로 나타나, 성과보상(인센티브·특수수당)과 더불어 교육·훈련, 의료·건강, 주거 등 '미래경로와 생활안정'을 뒷받침하는 복지 항목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집단유형별 「추가 희망 복리후생」을 비교한 결과, 권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 분야, 고용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특히 「임실·순창·남원 권역」, 「고창·부안·정읍 권역」, 연령대에서는 「18세~24세」, 가구형태에서는 「미혼+독립」,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건설업」, 고용상태에서는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 보상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 한편, 미취업자 집단에서는 식사비용·기본휴가·교통·주거 등 기초생활비·이동·거주와 관련된 복지 항목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나,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년일수록 생계·생활 기반 안정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이 드러남
- 전북청년이 경험하는 복리후생 체계는 기본휴가·식사 지원·수당 등 전통적 복지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추가 수요는 성과보상 강화(인센티브·특수수당)와 함께 교육·훈련, 의료·건강, 주거·교통 등 삶의 기반을 뒷받침하는 복지로 확장되는 양상 확인
- 청년들이 일자리의 질을 판단할 때 임금·고용형태뿐 아니라 복리후생 패키지가 제공하는 '경력 형성 가능성'과 '생활 안정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중소·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복리후생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건강·주거와 연계된 통합형 복지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함

[표 3-55]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복수응답)



[표 3-56] 집단유형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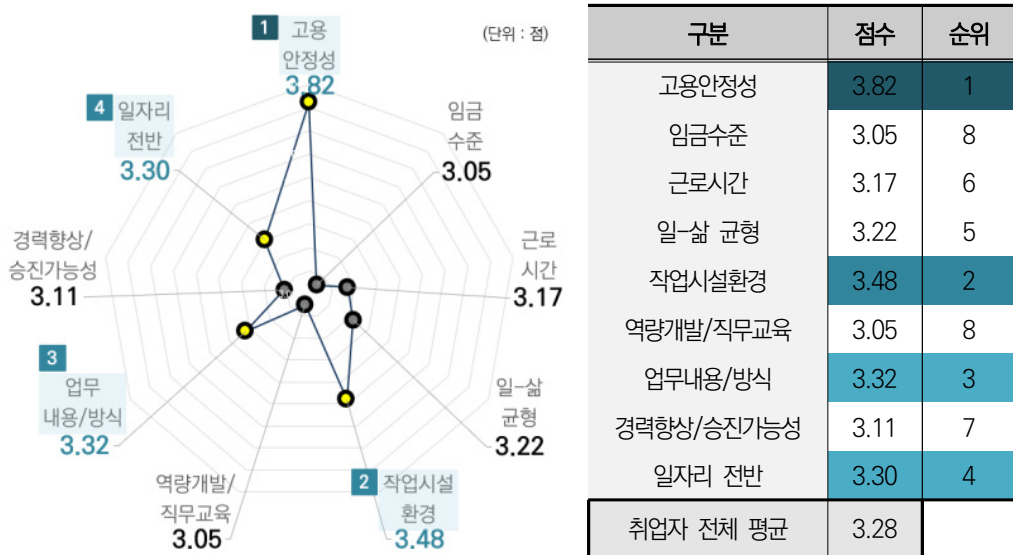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전체 (n, 100%)
		식사 비용	특수 수당	인센 티브	기본 휴가	특수 휴가	교육 훈련	교통	주거	의료· 건강	출산· 육아	명절· 기념일	경 조사	사내 동호회	노조· 협의회	기타	없음	
전체		27.4	27.5	35.7	17.2	14.2	26.3	33.3	22.3	23.4	16.7	6.4	8.7	5.2	2.1	0.4	2.7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2.8	35.8	37.9	33.5	15.7	23.9	23.5	20.9	16.9	18.2	7.4	6.4	-	1.2	-	-	145
	취업자	17.0	24.1	34.7	10.6	13.6	27.2	37.4	22.9	26.1	16.1	6.0	9.7	7.3	2.4	0.5	3.9	355

16) 일자리 만족도

- 전북청년들에게 취업 이후 9가지 일자리 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일자리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8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나타남
- [일자리 지표] ① 고용안정성, ② 임금수준, ③ 근로시간, ④ 일-삶 균형, ⑤ 작업시설환경, ⑥ 역량개발·직무교육, ⑦ 업무내용·방식, ⑧ 경력향상·승진가능성, ⑨ 일자리 전반
- 9가지 일자리 지표 중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3.82점으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작업시설환경(3.48점)」, 「업무내용·방식(3.32점)」, 「일자리 전반(3.30점)」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평균(3.28점)을 상회함
- 반면, 「임금수준(3.05점)」, 「역량개발·직무교육(3.05점)」, 「경력향상·승진가능성(3.11점)」, 「근로시간(3.17점)」, 「일-삶 균형(3.22점)」 등 소득·경력·시간 관련 지표는 평균(3.28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9] 일자리 만족도 요약



주. 5점 척도 사용 < 매우 불만족(1점) ~ 매우 만족(5점) >

-
- 범주별 「9가지 일자리 지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전북청년은 ‘일자리 자체의 존속 가능성(고용안정성)’과 ‘작업환경·업무내용’에는 비교적 만족하지만, 임금수준·역량개발·경력향상·근로시간·일-삶 균형과 같이 소득과 미래 경로, 시간 활용에 직결되는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전북의 청년 일자리가 “있기는 하지만, 소득과 경력 측면에서 성장성이 제한된 구조”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고용안정 유지 뿐 아니라 임금 수준 향상, 경력사다리 강화, 주당 근로시간 및 워라밸 개선을 동시에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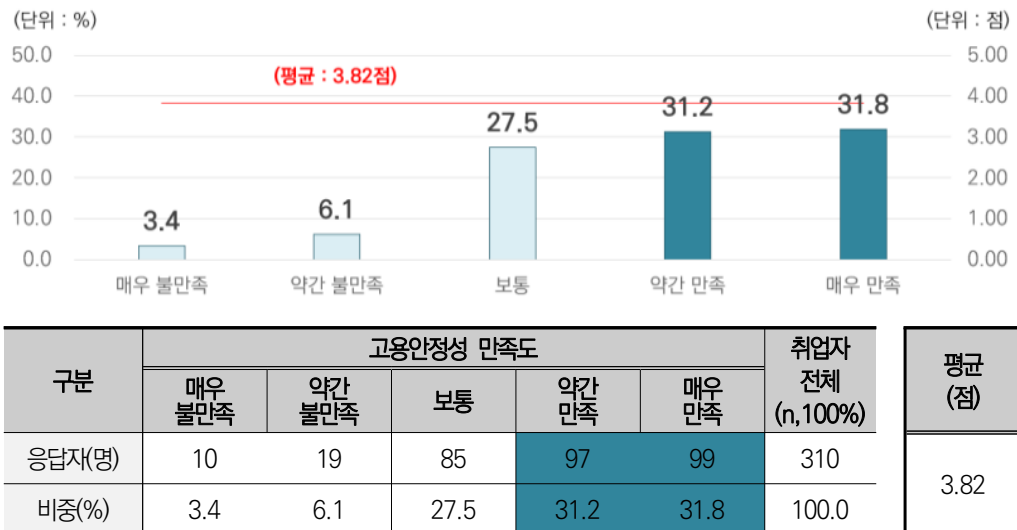
[표 3-57] 범주별 일자리 만족도 비교

구분		일자리 만족도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 시간	일-삶 균형	작업시설 환경	역량개발· 직무교육	업무 내용·방식	경력향상· 승진가능성	일자리 전반
취업자 전체		3.82	3.05	3.17	3.22	3.48	3.05	3.32	3.11	3.30
권역별	전주 권역	3.90	3.10	3.20	3.23	3.45	3.06	3.26	3.10	3.29
	군산/김제 권역	3.77	2.92	3.09	3.10	3.60	2.99	3.22	3.09	3.17
	익산/완주 권역	3.64	3.11	3.18	3.24	3.42	3.08	3.43	3.14	3.37
	무주/진안/장수 권역	3.65	3.24	3.28	3.58	3.67	3.00	3.56	3.42	3.67
	임실/순창/남원 권역	3.84	2.99	3.28	3.16	3.50	3.13	3.37	3.25	3.28
	고창/부안/정읍 권역	4.01	2.95	3.11	3.30	3.41	2.99	3.37	2.95	3.33
	차이검정									
지역별	농촌지역	3.90	3.05	3.19	3.29	3.42	2.97	3.39	3.16	3.35
	도시지역	3.80	3.06	3.17	3.20	3.50	3.07	3.29	3.10	3.29
	차이검정									
성별	남성	3.99	3.14	3.20	3.26	3.51	3.07	3.33	3.24	3.37
	여성	3.62	2.95	3.14	3.17	3.45	3.03	3.30	2.96	3.21
	차이검정	***	*						***	*
연령대 별	18세~24세	3.53	2.93	3.29	3.15	3.47	2.85	3.47	3.13	3.29
	25세~29세	3.87	2.98	3.12	3.23	3.47	3.09	3.23	3.15	3.19
	30세~34세	3.75	3.00	3.10	3.14	3.39	2.95	3.16	3.06	3.23
	35세~39세	3.95	3.20	3.25	3.32	3.58	3.18	3.49	3.13	3.47
	차이검정							**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96	3.11	3.22	3.28	3.57	3.08	3.32	3.24	3.32
	미혼+종속	3.66	2.89	3.12	3.16	3.43	2.95	3.27	3.06	3.21
	기혼+자녀없음	3.78	3.03	2.96	2.91	3.33	3.12	3.04	3.05	3.18
	기혼+자녀있음	3.90	3.24	3.31	3.42	3.52	3.13	3.54	3.06	3.49
	차이검정		*		**			**		
귀농귀촌 활동 여부별	미활동	3.80	3.05	3.18	3.22	3.48	3.07	3.31	3.10	3.30
	활동	4.37	3.20	3.10	3.29	3.43	2.80	3.42	3.23	3.32
	차이검정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50	3.10	3.12	3.39	3.77	2.89	3.36	2.83	3.13
	제조업/건설업	3.72	3.12	3.28	3.38	3.45	3.04	3.31	3.22	3.36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32	2.93	2.96	3.02	3.27	2.92	3.42	3.01	3.32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24	3.31	3.13	3.12	3.35	2.98	3.28	3.18	3.17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66	2.81	3.30	3.28	3.41	3.27	3.45	3.15	3.28
	보건복지업	3.70	3.11	3.20	3.23	3.68	3.26	3.34	3.02	3.36
	공공행정업	4.32	3.00	3.10	2.96	3.68	3.07	3.05	3.06	3.30
	기타서비스업	3.65	2.87	3.20	3.36	3.58	3.00	3.35	3.05	3.2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차이검정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 고용안정성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고용안정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1%(195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9.5%(29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82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임
- 범주별 「고용안정성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 귀농귀촌 활동여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에 비해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남
 - 「귀농귀촌 활동인」 집단은 「귀농귀촌 미활동인」 집단보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농축수산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공공행정업」 집단은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기타서비스업」 집단에 비해 고용안정성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전북청년의 고용환경에서 고용안정성이 산업·직종 및 삶의 방식(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상당 부분 '분절'되어 있으며, 일부 산업과 집단에 안정적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은 서비스·영세업종에 대한 보완 정책 필요성을 시사함



[그림 3-40] 고용안정성 만족도

② 임금수준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임금수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8.8%(100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22.7%(79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전반적으로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05점으로 ‘보통’ 수준에 그침
- 범주별 「임금수준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과 가구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보다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기혼+자녀있음」 집단은 「미혼+종속」 집단보다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전북청년의 임금 만족도는 ‘극단적 불만족’이나 ‘높은 만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채 낮은 수준의 보통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여성·미혼·종속가구 청년층에서 임금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청년 임금수준 제고와 집단별 임금격차 완화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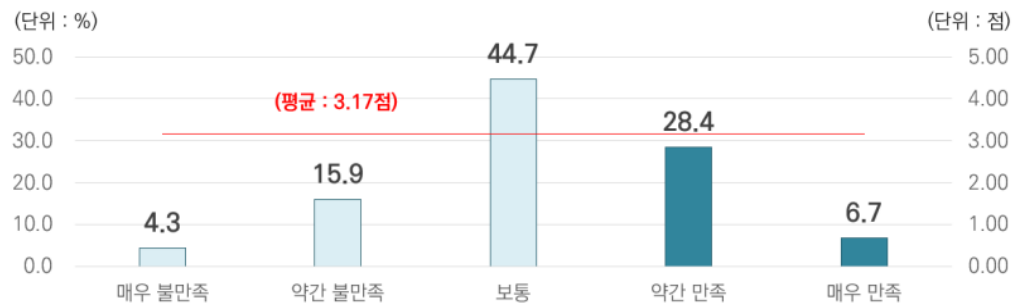


구분	임금수준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21	58	169	82	18	348	3.05
비중(%)	5.9	16.8	48.5	23.5	5.3	100.0	

[그림 3-41] 임금수준 만족도

③ 근로시간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근로시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1%(124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20.2%(72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전반적인 근로시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7점으로, 전북청년이 체감하는 근로시간 수준은 ‘보통 이상’에 해당하나 뚜렷한 ‘만족’ 국면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범주별 「근로시간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여부, 산업분야 등 어느 집단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근로시간에 대한 평가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청년 노동환경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임을 시사함
- 전북청년은 과도한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극단적 불만족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말하기 어려운 애매한 보통 수준의 근로시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일·삶의 균형과 연계된 근로시간 구조 개선이 특정 집단이 아닌 청년층 전반의 공통 과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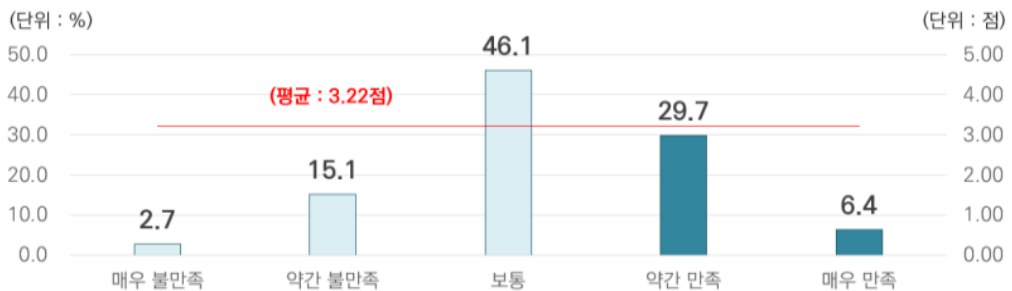


구분	근로시간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15	56	159	101	24	355	3.17
비중(%)	4.3	15.9	44.7	28.4	6.7	100.0	

[그림 3-42] 근로시간 만족도

④ 일-삶 균형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일-삶 균형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1%(128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17.8%(63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전반적인 일-삶 균형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22점으로, 형식상 '보통 이상' 수준이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균형이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완만한 만족 국면에 머물음
- 범주별 「일-삶 균형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가구형태와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기혼+자녀있음」 집단은 「기혼+자녀없음」 집단보다 일-삶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족책임이 있는 청년층이 오히려 현재 일 자리에서의 생활조정·지원 정도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산업별로는 「농축수산업」, 「제조업/건설업」, 「기타서비스업」 집단이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공공행정업」 집단보다 일-삶 균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장시간·불규칙 노동과 감정노동 강도가 높은 업종(도소매·숙박음식점 등)에서 일-삶 균형 저하가 두드러지는 반면, 일부 생산·제조 기반 업종이나 지역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일정한 근로 패턴과 생활 리듬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업종별 노동시간·휴식구조 개선과 지원정책 설계 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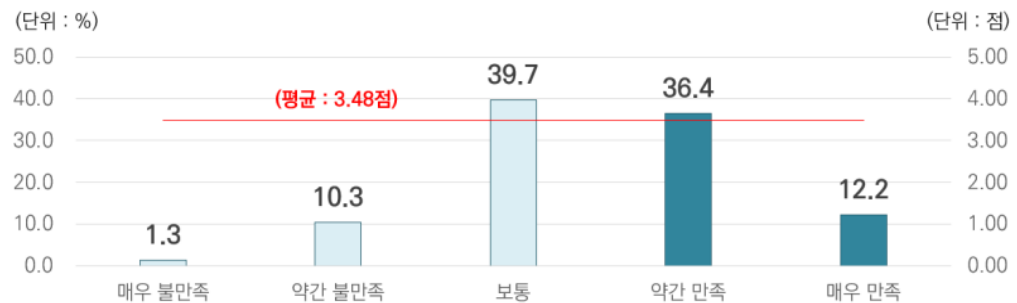


구분	일-삶 균형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9	54	164	106	23	355	3.22
비중(%)	2.7	15.1	46.1	29.7	6.4	100.0	

[그림 3-43] 일-삶 균형 만족도

5]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작업시설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173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11.7%(41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작업시설환경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48점으로, 9개 세부 지표 중 고용안정성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기본적인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통 이상’의 긍정적 평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범주별 「작업시설환경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 성별, 연령, 가구 형태, 귀농귀촌 활동여부, 산업분야 등 어떤 범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작업시설환경에 대한 평가가 특정 집단의 특성보다는 개별 사업장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전반적으로는 ‘지역·산업 간 격차’보다는 ‘사업장 간 편차’가 더 중요한 설명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함



구분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5	37	141	129	43	355	3.48
비중(%)	1.3	10.3	39.7	36.4	12.2	100.0	

[그림 3-44]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⑥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 직장인 전북청년들에게 역량개발·직무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4%(104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26.6%(94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역량개발·직무교육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3.05점으로,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자리 지표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직무 전문성 향상, 경력경로 설계, 직장 내 교육·훈련 기회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 수준이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범주별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권역, 지역, 성별, 연령, 가구형태, 귀농귀촌 활동여부, 산업분야 등 어떤 범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다시 말해, 특정 집단이 두드러지게 만족하거나 불만족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고르게 ‘아쉽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전북청년 직장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역량개발·직무교육 인프라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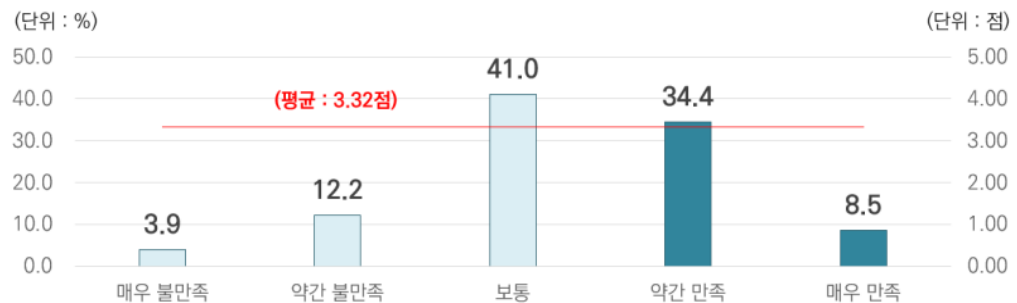


구분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14	80	156	83	22	355	3.05
비중(%)	4.0	22.6	44.0	23.3	6.1	100.0	

[그림 3-45]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7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 직장인 청년들에게 업무내용·방식 만족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9%(152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16.0%(57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평균 만족도는 3.32점으로, 9개 세부 지표 중 상위권(3위)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 이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의 내용 자체나 수행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나, 임금수준·경력향상 등 다른 요인에 비해 “일 자체의 만족”이 청년들의 전반적 일자리 평가를 지탱하는 핵심 축 가운데 하나임을 시사함
- 범주별 「업무내용·방식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가구형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18세~24세」 및 「35세~39세」 집단은 「30세~34세」 집단보다 업무내용·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진입기·안정기 청년에 비해 경력·책임이 집중되는 30대 초반에서 직무 부담이나 기대 불일치가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줌. 또한 「기혼+자녀있음」 집단은 「기혼+자녀없음」 집단보다 업무내용·방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가족부양 책임을 가진 청년일수록 현재 직무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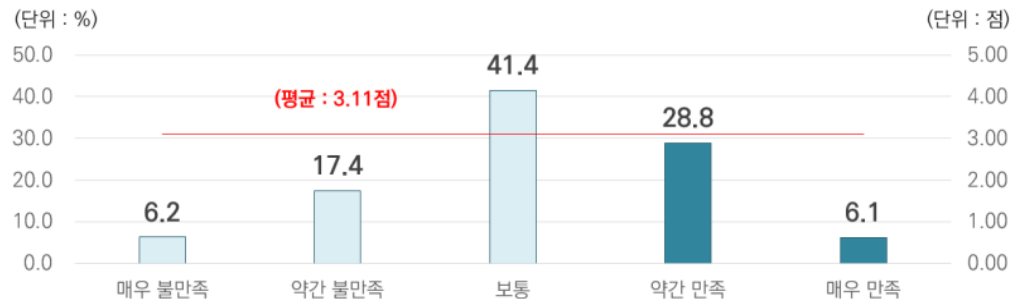


구분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14	43	146	122	30	355	3.32
비중(%)	3.9	12.2	41.0	34.4	8.5	100.0	

[그림 3-46]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⑧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 직장인 전복청년들에게 경력향상·승진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9%(124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23.7%(84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평균 만족도는 3.11점으로, 9개 세부 지표 가운데 하위권(7위)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어, 현재 직무를 통해 얼마나 성장·승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답답함이 공존하는 것으로 해석됨
- 범주별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보다 경력향상·승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동일 지역·유사 연령대 청년층 내부에서도 경력 경로의 전망과 조직 내 승진 구조에 대한 체감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축적되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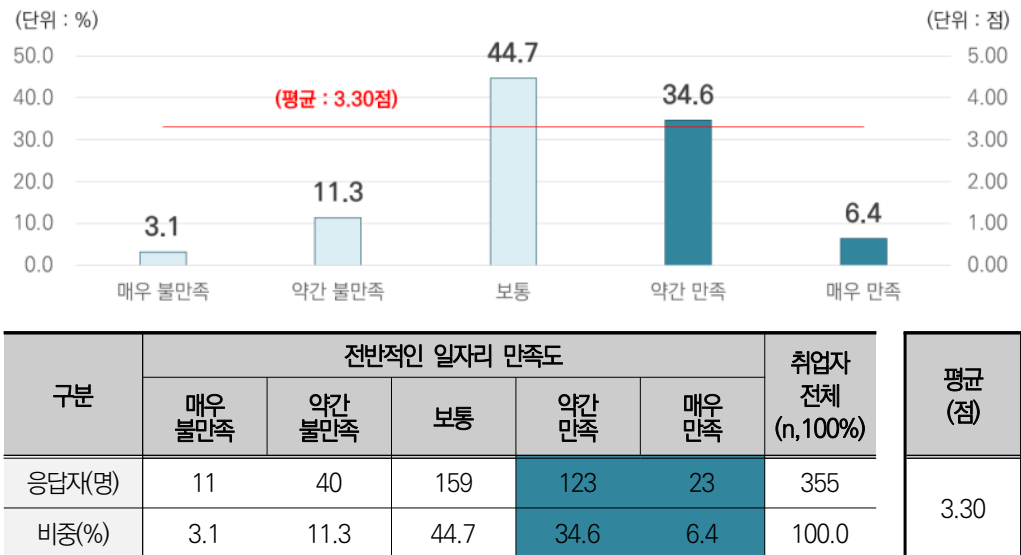


구분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취업자 전체 (n,100%)	평균 (점)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응답자(명)	22	62	147	102	22	355	3.11
비중(%)	6.2	17.4	41.4	28.8	6.1	100.0	

[그림 3-47]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9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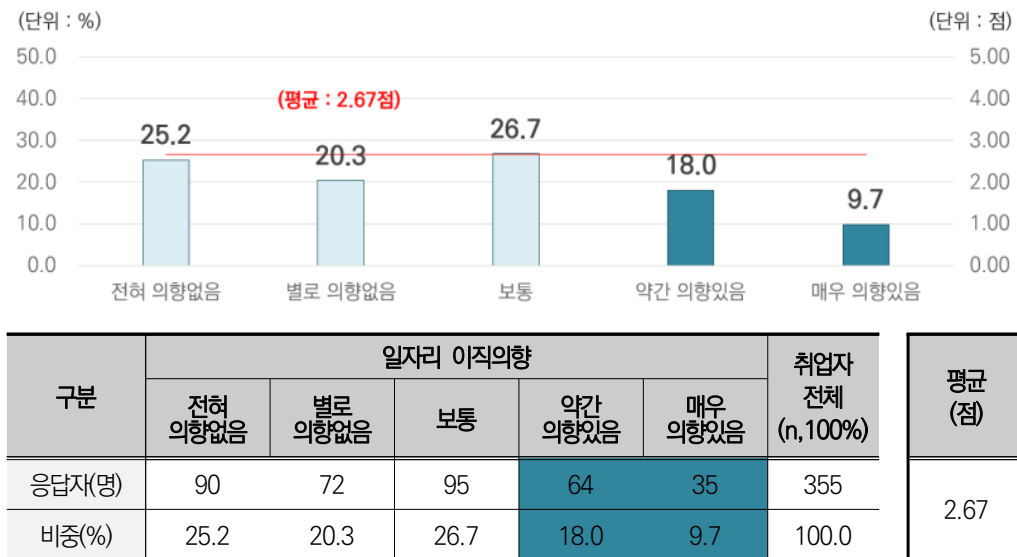
- 직장인 전복청년들에게 현재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0%(145명)가 「만족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14.3%(51명)는 「불만족함」이라고 응답함. 전체 평균은 3.30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며, 임금·근로시간·일·삶 균형 등 개별 지표에 대한 평가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평가는 다소 완충된 형태로 나타나, 세부 조건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도 현재 일자리를 일정 수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줌
- 범주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남성」 집단은 「여성」 집단보다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5세~39세」 집단은 「25세~29세」 집단보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 경력과 연령이 누적될수록 일자리 조건에 대한 기대 수준 조정과 함께 만족도가 다소 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됨



[그림 3-48]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17) 일자리 이직의향

-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7%(98명)가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45.5%(162명)는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함. 전체 평균은 2.6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다수 청년이 현재 일자리에 머무를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약 3명 중 1명은 이직을 고려하는 잠재 이동 집단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범주별 「일자리 이직의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시지역」은 「농촌지역」보다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 기반 청년층의 일자리 이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동일 지역·유사 조건에서도 여성 청년의 직장 지속 가능성이 더 불안정하게 체감되고 있음을 시사함
 - 연령대별로는 「18세~24세」, 「25세~29세」 집단이 「35세~39세」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뚜렷이 높아, 초기·중기 경력 단계에서 일자리 탐색과 이동이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됨
 - 가구형태별로는 「미혼+독립」, 「미혼+종속」 집단이 「기혼+자녀없음」, 「기혼+자녀있음」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높아, 가족책임을 지지 않은 청년일수록 일자리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특성이 나타남
 - 산업분야별로는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보건복지업」, 「기타서비스업」 집단이 「농축수산업」, 「공공행정업」 집단보다 이직 의향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전문직·복지 영역 청년의 일자리 불안 및 상대적 불만이 더 강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림 3-49] 일자리 이직의향

18)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 향후 2년 이내 전북 외 지역으로 이동할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3%(137명)가 「의향 있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47.1%(236명)는 「의향 없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평균 2.63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 다수 청년은 당분간 전북에 머무를 계획을 갖고 있으나, 약 4명 중 1명은 타 지역 이동 가능성을 열어둔 잠재 이동 집단으로 볼 수 있음
- 범주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 성별, 연령대, 가구형태, 산업분야, 집단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도시지역」 청년은 「농촌지역」 청년에 비해 전북 외 지역 이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 거주 청년층에서 외부 기회 탐색이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함
 - 「여성」 집단은 「남성」 집단보다 이동 의향이 높게 나타나, 현재 전북에서의 진로·일자리·삶의 기회 구조를 여성 청년이 더 협소하게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줌

- 연령대별로는 「18세~24세」, 「25세~29세」 초·중기 청년층에서 이동 의향이 평균(2.63점)보다 높게 나타나, 학업·취업 전환기 및 경력 초기 단계에서 수도권·타 지역 이탈 위험이 집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가구형태별로는 「미혼+독립」, 「미혼+종속」 집단에서 이동 의향이 높아, 가족 부양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일수록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이동 여지'를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산업·집단유형별로는 「보건복지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미취업자」 집단에서 전북 외 지역 이동 의향이 평균보다 높아, 고용 기반이 취약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된 청년일수록 지역 바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



구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응답자(명)	134	102	128	89	48	500	2.63
비중(%)	26.8	20.3	25.5	17.8	9.6	100.0	

[그림 3-50]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표 3-58] 집단유형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비교

(단위: %, 명)

구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26.8	20.3	25.5	17.8	9.6	500	2.63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11.7	13.8	31.7	26.2	16.5	145	3.22	46.288
	취업자	33.0	23.1	23.1	14.1	6.8	355	2.39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라. 전북청년 일자리-삶 정책 수요

1)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 전북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5.4%(277명)가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선택했으며, 이어 「직장 등 생업공간(52.8%)」, 「더 나은 주거 여건(32.3%)」, 「가족 및 지인 존재(30.4%)」, 「더 나은 복지혜택(29.8%)」,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29.4%)」, 「교통 인프라(23.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의 지역 정주 결정은 단순히 현재 일자리 존부만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미래 성장성, 안정적인 생업 기반, 주거·복지·문화·교통 여건 등 생활 전반의 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역 패키지 가치’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권역·특성별로는 「전주 권역」, 「무주/진안/장수 권역」, 「임실/순창/남원 권역」, 「남성」, 「미혼+중속」,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업」, 「기타서비스업」 집단에서 ‘지역의 발전가능성’을 꼽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 집단에서 전북에 머무르지 여부는 현재 조건뿐 아니라 “이 지역이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와 신뢰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59]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비중	
[01] 지역의 발전가능성	277	55.4	55.4
[02] 가족 및 지인 존재	152	30.4	30.4
[03] 직장 등 생업공간	264	52.8	52.8
[04] 통학·통근 등 교통 인프라	119	23.7	23.7
[05] 더 나은 주거 여건	162	32.3	32.3
[06] 더 나은 자연·생활 환경	38	7.5	7.5
[07]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	147	29.4	29.4
[08] 더 나은 복지혜택	149	29.8	29.8
[09] 더 나은 자녀교육 여건	75	15.0	15.0
[10] 일·육아 병행가능성	65	12.9	12.9
[11] 기타	4	0.8	0.8
전체	500	100.0	

[표 3-60]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비교(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전체 (n, 1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기타	
전체		55.4	30.4	52.8	23.7	32.3	7.5	29.4	29.8	15.0	12.9	0.8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9.1	25.7	47.9	30.3	35.2	8.4	30.6	27.7	11.5	9.3	-	145
	취업자	53.9	32.3	54.7	21.0	31.1	7.2	28.9	30.6	16.4	14.4	1.2	355

2)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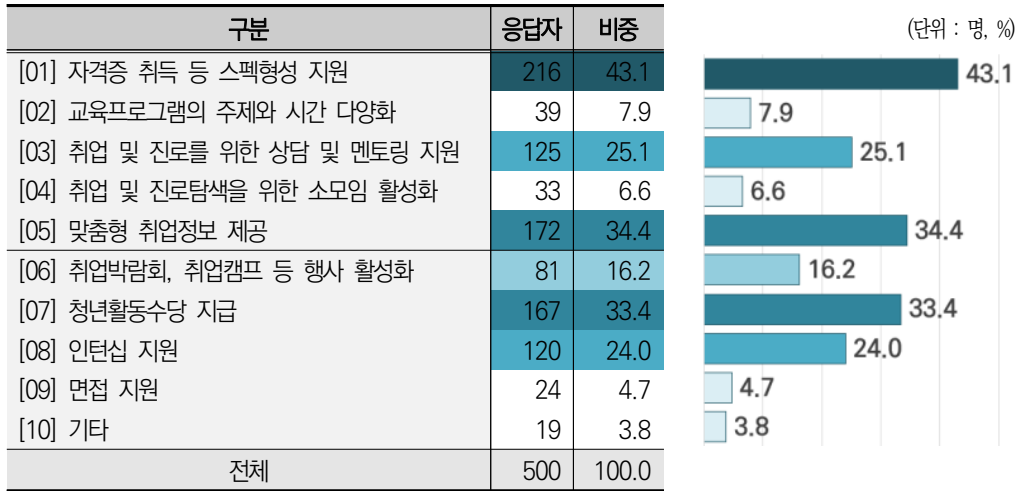
- 전북청년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43.1%(216명)가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 지원」을 선택했으며, 이어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34.4%)」, 「청년활동수당 지급(33.4%)」,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 지원(25.1%)」, 「인턴십 지원(24.0%)」, 「취업박람회 등 행사 활성화(16.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 구직자들이 단순히 '일자리 알선'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스펙 형성, 정보 접근성 제고, 구직 단계의 소득·활동 지원, 경험 축적(인턴십)과 진로 탐색(상담·멘토링)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집단별로는 「군산/김제 권역」, 「임실/순창/남원 권역」, 「남성」, 「18세~24세」, 「미혼+종속」, 「제조업/건설업」, 「교육업/예술스포츠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미취업자」 집단에서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 지원」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특히 초기 진입기·미취업 청년과 일부 산업군 청년일수록 자격 요건과 경쟁력 확보 부담을 크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함

[표 3-61]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기타	
전체		43.1	7.9	25.1	6.6	34.4	16.2	33.4	24.0	4.7	3.8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7.5	5.2	22.4	5.1	25.1	14.4	35.2	33.5	4.7	0.3	145
	취업자	37.2	8.9	26.2	7.2	38.2	17.0	32.7	20.1	4.7	5.2	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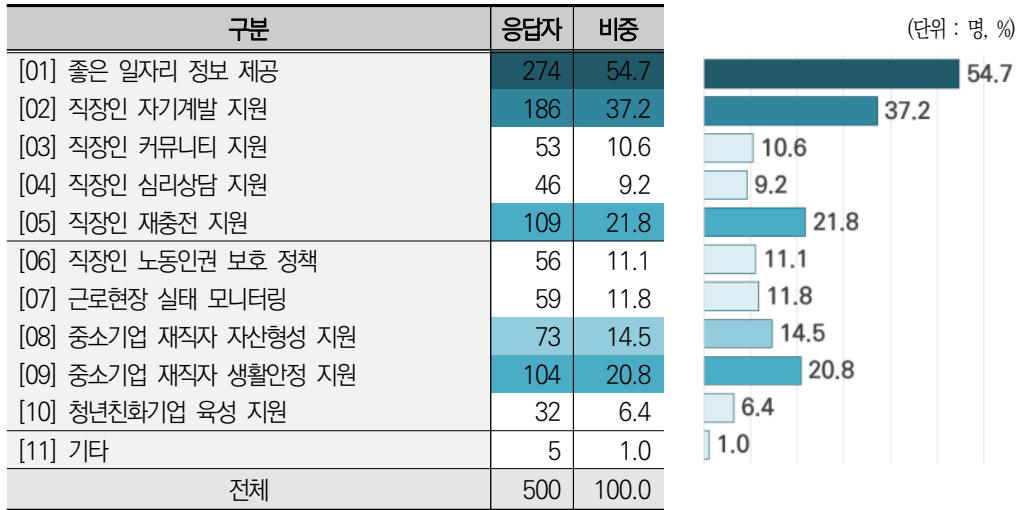
[표 3-62]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3)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 전북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7%(274명)가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을 선택했으며, 이어 「직장인 자기계발 지원(37.2%)」, 「직장인 재충전 지원(21.8%)」,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인정 지원(20.8%)」,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14.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과 경력·역량 개발, 소득·자산 기반 안정, 심리적·신체적 재충전을 포괄하는 ‘질적 개선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집단별로는 「무주/진안/장수 권역」, 「임실/순창/남원 권역」, 「고창/부안/정읍 권역」, 「남성」, 「35세~39세」, 「기혼+자녀있음」, 「제조업/건설업」,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미취업자」 집단에서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특히 가족부양 부담이 큰 연령·가구 집단과 중소·서비스 업종 종사자, 그리고 아직 일자리를 얻지 못한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사다리’에 대한 갈증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함

[표 3-63]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복수응답)



[표 3-64] 집단유형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기타	
전체	54.7	37.2	10.6	9.2	21.8	11.1	11.8	14.5	20.8	6.4	1.0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60.0	43.2	14.1	10.8	12.0	11.8	12.2	12.4	20.9	4.5	1.4	145
취업자	52.6	34.7	9.1	8.6	25.7	10.8	11.6	15.4	20.7	7.2	0.9	355

4)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 전북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4%(322명)가 「목돈대출 지원」을 선택했으며, 이어 「보증금 보호 강화(42.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37.1%)」, 「일자리와 주거 복합 지원(35.8%)」,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24.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북청년들이 ‘월세·전세 보증금 마련’과 임대차 관계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핵심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단순 임대주택 확충보다 초기 주거비 진입장벽 완화 + 보증금 안전성 강화 + 일자리 연계형 주거지원을 결합한 종합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집단별로는 「제조업/건설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목돈대출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소득·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주거이동이 잦은 청년일수록 초기 보증금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함

[표 3-65] 전복청년 주거정책 수요(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비중	(단위 : 명, %)
[01] 목돈대출 지원	322	64.4	64.4
[02] 보증금 보호 강화	212	42.3	42.3
[03] 임차인보호제도 강화	87	17.4	17.4
[04]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123	24.7	24.7
[05] 빈집정비사업 통한 저렴한 주거지 공급 확대	85	17.0	17.0
[0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185	37.1	37.1
[07] 공동 주거지 공급 확대	57	11.4	11.4
[08] 공공 기숙사 확충	41	8.2	8.2
[09] 일자리와 주거 복합 지원	179	35.8	35.8
[10] 주거상담 서비스 제공	43	8.6	8.6
[11] 부동산계약, 금융해택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	63	12.5	12.5
[12] 공공 주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19	3.9	3.9
[13] 기타	4	0.7	0.7
전체	5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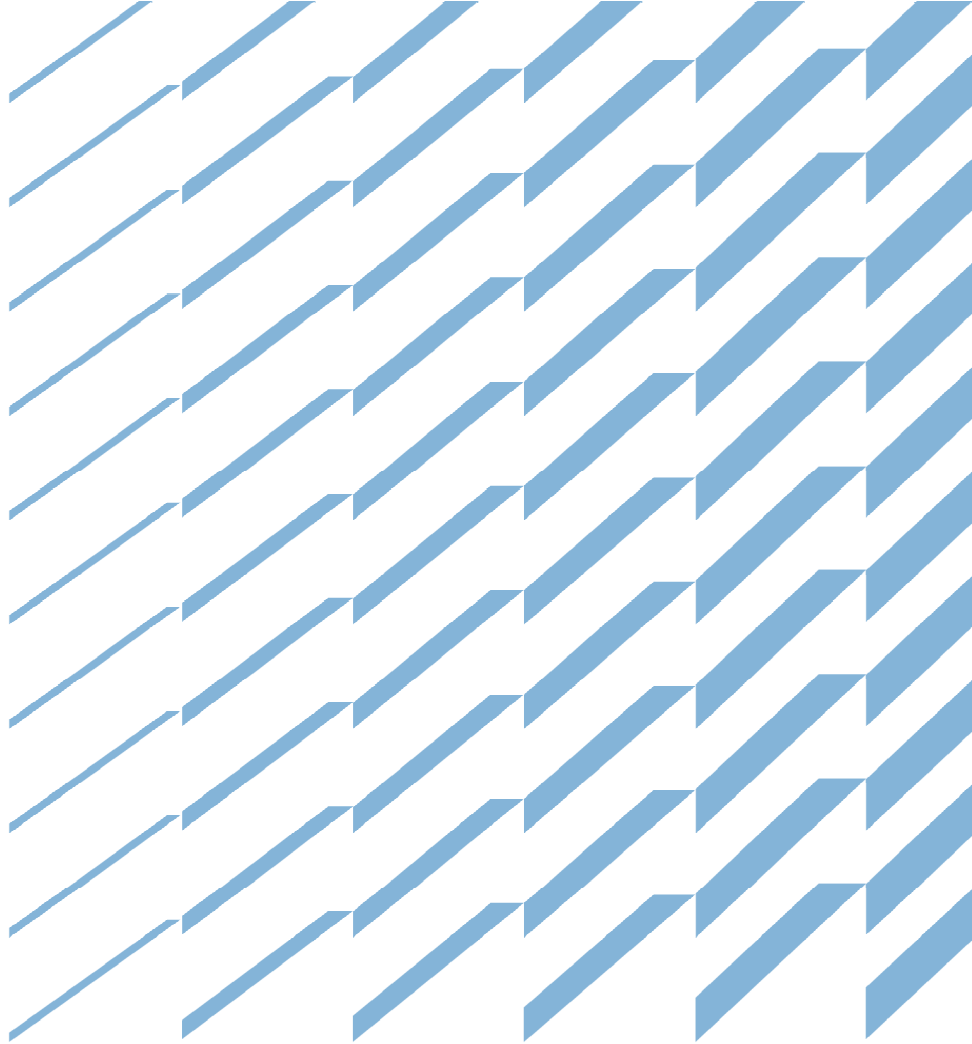
[표 3-66] 집단유형별 전복청년 주거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구분		전복청년 주거정책 수요													전체 (n, 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수요 11	수요 12	기타	
전체		64.4	42.3	17.4	24.7	17.0	37.1	11.4	8.2	35.8	8.6	12.5	3.9	0.7	500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8.7	43.3	18.9	28.9	14.8	31.2	14.8	6.8	41.0	12.6	12.4	3.5	-	145
	취업자	66.7	41.9	16.9	23.0	17.9	39.4	10.0	8.7	33.7	6.9	12.5	4.0	1.0	355

마. 소결: 전북청년 일자리 인식 및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전북청년의 고용 구조는 정규직 중심이지만 임금·기업 규모 측면에서 ‘중·저임금·중소 규모 사업장’ 편중이 뚜렷하게 나타남
 - 응답자의 다수는 정규직·30~99인 규모 기업에 종사하거나 이를 선호하지만, 실제 임금수준은 200만~300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임금(평균 293.8만원)과 희망 임금(평균 369.2만원)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존재함
 - 일자리 선택 시 임금수준과 고용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근로시간·출퇴근거리·복리후생 등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나 ‘안정적 소득·고용’을 전제로 한 일자리 선택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둘째, 근로시간·출퇴근·워라벨·유연근무제에 대한 인식은 전북청년이 일자리에서 기대하는 ‘삶의 질 기준’을 보여줌
 - 현재와 희망 근로시간, 현재와 희망 출퇴근거리 모두에서 평균값 차이가 크지 않지만, 월급여와 워라벨을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는 소득 안정에 약간 더 무게를 두되 워라벨 역시 포기하지 않는 ‘균형 지향적 태도’가 확인됨
 - 유연근무제는 아직 실시 비중이 높지 않으나, 도입 시 참여 의향은 평균 이상이고 ‘시간선택제·시차출퇴근형’에 대한 선호가 크며, 특히 시간선택제를 통해 개인시간 확보·자기계발을 추구하려는 수요가 뚜렷함
 - 시설·환경과 복지 측면에서도 회의실·휴게실·기본휴가·식사비 지원 등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수면실·체력단련실·의료·건강·주거 지원 등 회복·건강·생활안정 기능에 대한 추가 요구가 강하게 나타남
- 셋째, 일자리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나, 임금·경력개발·승진 가능성 등 ‘미래 전망’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역으로 드러남
 - 고용안정성과 작업시설환경, 업무내용·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임금수준·역량개발·경력향상·승진가능성, 근로시간·일·삶 균형은 평균을 하회함
 - 이는 청년들이 현재 일자리의 형식적 안정성에 비해 보상수준과 성장·이동 가능성을 낮게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인식은 향후 1년 내 이직의향과 향후 2년 내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과 맞물려 청년들의 중·장기 정주·경력 설계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넷째, 전북청년의 정책 수요는 구직단계·직장생활·주거·정주를 포괄하는 ‘일자리·삶·공간’ 통합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로 정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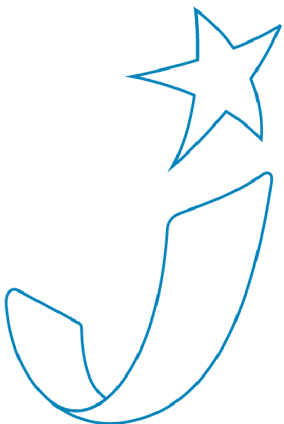
-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는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직장 등 생업공간, 더 나은 주거 여건이 최우선으로 꼽히며, 문화·여가, 복지혜택,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 조건으로 나타남
- 구직자에게는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 지원, 맞춤형 취업정보, 청년활동수당, 멘토링·상담, 인턴십 등 '진입 단계 역량·정보·소득 보완' 정책에 대한 수요가 크고
- 직장인에게는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자기계발·재충전 지원,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안정·자산형성 지원 등 '재직 단계의 경력·삶의 안정성 강화' 정책이 요구됨
- 주거 영역에서는 목돈대출 지원, 보증금 보호 강화, 공공임대 확대, 일자리·주거 복합 지원 등 청년의 초기 자산·주거 불안 해소를 겨냥한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아,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은 고용·소득·시간·복지·주거를 결합한 복합 패키지 설계가 필요함을 보여줌
- 전반적으로 전북청년은 고용안정성과 작업환경,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이지만, 임금수준·역량개발·경력전망·일·삶 균형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적 불만족은 향후 1년 이내 이직 의향(평균 2.67점)과 2년 이내 전북 외 지역 이동 의향(평균 2.63점)으로 연결되고 있음
- 특히 도시지역, 여성, 20대, 미혼(특히 미혼+독립) 집단, 도소매·숙박·음식점업·보건복지업·기타서비스업 종사자 및 미취업자·구직단념자에서 이직·이동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일자리 질의 미흡함이 단순한 직장 만족도 차원을 넘어 전북에서의 중장기 정주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또한 응답 특성을 종합해 보면 전북청년의 일자리 인식·정책 수요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소득·생계 안정 우선형'은 월급여를 워라벨보다 조금 더 중시하고, 임금상승과 인센티브·수당, 목돈대출 등 소득·자산 기반 강화를 요구하는 집단으로, 미취업자와 제조업·건설업, 구직단념·비경제활동 집단에서 두드러짐
- 둘째, '워라벨·생활안정 지향형'은 근로시간·출퇴근거리·유연근무제, 수면실·체력단련실 등 시설과 복리후생, 주거 안정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자리와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는 집단임
- 셋째, '성장·경력개발 지향형'은 역량개발·직무교육, 경력 향상 가능성,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직장인 자기계발 지원 등에 대한 선호가 강한 집단으로, 전문직·공공부문 및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층에서 많이 나타남
- 이러한 유형별 특성은 이후 장에서 제시할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모델 설계 시 임금·주거·워라벨·경력개발을 결합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제4장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

1.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
2.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진단



제4장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

1.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심층면접

가. 심층면접 개요

1) 심층면접의 개요 및 산업군 선정 기준

■ 심층면접 목적

- 본 장의 심층면접은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전북 청년 일자리 인식·수요를 보완하고, ① 주요 산업군에 종사하는 청년들의 실제 입직 경로와 직무 경험, ② 고용형태·임금·근로시간 등 일자리의 질, ③ 생활·정주 조건, ④ 향후 경력전망과 정책 요구를 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 특히 설문조사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프리랜서·귀농창업 등 비정형 노동 영역, 농업·제조업·예술·공공·서비스 등 산업·직종 간 경계가 겹치는 청년들의 실제 경로를 드러내어, 전북 청년 일자리의 질적 향상 방안을 청년들의 실제 삶과 경험에 기초해 모색하고자 함

■ 조사대상 개요

- 조사대상은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을 기반으로 취·창업 경험을 가진 청년 11명(농업·귀농·농창업, 산업단지·제조업,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플랫폼·프리랜서 등 4개 산업군 종사자)과, 공공부문에서 청년정책을 다루는 정책보좌 및 정책지원 직무 종사자 1명(공공·정책 영역 사례)으로 구성함
- 연령은 주로 20대 후반~39세까지이며, 다수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영업·프리랜서·창업 등 전형적인 정규직 이외 형태의 일자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이 가운데 일부는 정규직·공공 일자리 경험과 비정형 노동 경험을 모두 가진 복합 경력 경로를 갖

고 있어, 산업군·고용형태를 가로지르는 청년 일자리 현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기능함

- 산업군별 심층인터뷰 및 FGI 참여 청년을 농업·귀농·농창업(A), 산단·중소제조업(M),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L), 플랫폼·프리랜서(P)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참여자는 A01, M02, L03, P01과 같이 알파벳+번호 조합의 코드로 아이디를 구성함

[표 4-1] 심층면접 대상자 표

연번	아이디	성별	연령대	거주지역	최종학력	분야	현 상태	혼인여부
1	M01	남성	30대 중반	전주/김제(회사)	대졸	산단 관리직	정규직	기혼, 유자녀
2	M02	남성	30대 초반	전주/김제(회사)	대졸	산단 관리직	정규직	결혼 예정
3	L01	여성	30대 초반	익산	석사	문화창작/ 로컬크리에이터/ 로컬편집샵	대표	미혼
4	L02	남성	30대 중반	전주	대졸	사회적기업	대표	미혼
5	M03	남성	30대 중반	전주/원주(직장)	대졸	산단 생산직	정규직	미혼
6	Y01	여성	30대 중반	전주/군산(직장)	대졸	공공분야	정규직	미혼
7	A01	남성	30대 중반	무주	석사	농업(과수), 귀농, 스마트스토어	대표	미혼
8	A02	남성	30대 후반	장수	대졸	농업(축산), 귀농, 스마트스토어	대표	기혼, 유자녀
9	P01	남성	30대 후반	전주	전문대 졸	배달라이더	대표	미혼
10	A03	남성	30대 초반	김제/전주	대졸	농업/스마트팜/스 마트 스토어/귀농	대표	기혼
11	P02	여성	30대 후반	전주	대졸	프리랜서/강사	협회 대표	기혼, 유자녀
12	P03	여성	30대 초반	익산	대졸	프리랜서/ 강사	대표	미혼

출처: 저자 작성

■ 산업군·직종별 구성

- 본 연구는 전북의 지역 산업 구조와 청년 노동시장 특징을 고려하여, 다음 4개 산업군과 공공·정책 영역 보완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구성함
- 농업·귀농·스마트팜 청년농
 - 노지 감자·쌀 재배, 스마트팜(토마토)·임대형 스마트팜, 산양목장 운영 등 농업·축산 분야 청년창업 사례 포함
 - 귀농·청년창업농, 스마트팜 혁신밸리 경험, 온라인 직거래·스마트스토어 운영 등 ‘농업=창업·브랜딩·온라인 판매’가 결합된 경로 포함
- 제조업·산단 노동 및 전환 경로
 - 산업단지 내 제조업 생산·기능·관리직 등 공장 노동 경험을 가진 청년 포함
 - 산단 정규직·비정규직을 거쳐 자영업·플랫폼 노동·프리랜서 등으로 이동한 전환 경로 사례를 함께 포착함
- 로컬 크리에이터·문화·도시재생·사회적경제
 - 지역 문화예술 활동, 로컬 매거진·콘텐츠 기획, 공유공간·편집숍·카페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등 로컬 기반 창업·기획 활동 포함
 - 예술 활동과 생계형 부업(알바, 교육, 기획·용역 등)을 병행하는 다중일자리 경험, 구도심·골목 단위 상권·커뮤니티 조직화 경험을 함께 포함함
- 플랫폼·배달·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
 - 배달대행 지사 운영 및 라이더 관리 경험자, 배달 플랫폼 구조 변화(직고용, 단가 하락 등)와 라이더 청년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관찰해 온 사례 포함
 - SNS·숏폼·재테크·마케팅 등 강의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강사, 온라인 에이전시·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수수하는 강사·마케터·크리에이터 등 N잡형 플랫폼 전문직 사례 포함
- 공공·정책 영역(보완 사례)
 -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등 공공부문에서 청년정책·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청년 1인 사례 포함
 - 별도의 공무원 표본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고, 농업·산단·로컬·플랫폼 4개 산업군과의 비교·준거 사례로 보완적으로 활용함

■ 산업군 선정 기준

- 산업군 선정은 제3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전북 청년 고용 구조에서 비중이 크거나, ②임금·고용안정·근로시간·워라밸·이직 의향 등에서 취약성 또는 변동성이 두드러진 집단, ③전북의 지역정책(농생명, 제조·산단, 문화·관광·도시재생, 플랫폼·디지털 노동 등)과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고려하여 이루어짐
- 공공행정·공공기관·연구직 등 공공영역은 통계와 선행연구가 비교적 축적되어 있으나, 이번 심층면접에서는 정책보좌관 1인 인터뷰와 분야별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의 경험과 정책 수요를 4개 산업군과 비교·보완하는 참고 축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함

2) 조사방법 및 분석 틀

■ 조사방법

- 조사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대면 심층면접 중심으로 필요시 온라인(비대면) 인터뷰 병행
- 면접 기간: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0월 31일
- 면접 시간: 1인당 60분 ~ 90분 내외
- 주요 질문 영역:
 - ① 입직·경로: 전공·이전 직업, 해당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 계기, 전환·이동 경험 등
 - ② 고용형태·임금·근로시간: 계약형태, 수입 수준과 변동성, 노동시간·노동강도, 사회보험·복지여건 등
 - ③ 직무 경험·경력전망: 하는 일의 내용, 숙련·전문성 인식, 승진·확장 가능성, 장기 경력 계획
 - ④ 생활·정주여건: 거주 형태, 가족관계, 지역에 대한 만족도·이주의향, 돌봄·주거·교통 등 생활 인프라
 - ⑤ 정책 인식·수요: 중앙·지방정부 청년정책 경험, 노동·복지·주거·교육·창업 지원에 대한 평가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자리 정책·지원 방향

- 심층면접은 사전에 산업군별 예상 질문지와 공통 질문을 마련하여 진행하였으나, 실제 면접에서는 참여자별 경력·생계 구조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나, 정해진 문항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큰 질문 축을 유지하되 각자의 경험을 최대한 풍부하게 들을 수 있도록 질문 순서와 깊이, 표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진행

[표 4-2] 전북형 청년 일자리 관련 심층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

분류	구체적 질문
배경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거주 또는 최근 3년 내 전북 취·창업/구직 경험 여부 · 만 나이, 성별 · 고용형태: 재직/구직/비경제활동/학업 상태 확인 · 고용형태 세부: 정규직/비정규직/자영·1인자영/프리랜서/플랫폼/무급가족 · 기업규모: 1-4/5-9/10-29/30-99/100-299/300-499/500+ · 산업 (대분류): 농업/제조/전기·가스/건설/도소매/운수/숙박·음식/정보통신/금융·보험/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시설/공공행정/교육/보건·복지/예술·스포츠/기타 · 전북 이탈의향: 향후 2년 기준 리커트 응답 확보 및 사유 기록 · 주거형태·부담: 임차/자가/기숙사/공공임대, 월주거비/보증금 수준 · 최근 1년 이직/이탈 경험
일자리 유입 경로 및 직무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동경로: 전북에서의 성장/유입/재유입 경로 개요 기록 · 직무·숙련: 현재 직무/업무범위/숙련 수준 요약 · 현재 일자리에 들어오게 된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학교→인턴→채용 / 지인 소개 / 공채 / 지원사업 / 창업 / 플랫폼 가입 등 · 현재 또는 최근 일의 주요 업무 내용
희망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란 무엇입니까? · 현재 일자리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일자리는 이 조건 중 어느 정도를 만족시키고 있나요?
고용형태·계약·임금·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형태·계약: 현재 고용형태 및 계약기간 경험 서술(무기 / 1년 이상 / 1년 미만) · 임금구간: 임금 수준(세전 월, 성과급·수당 포함)과 변동 경로 · 근로시간: 주당 실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빈도와 보상 방식 · 근무제도: 유연근무·교대제 운영 형태와 생활 영향 사례
기업규모·승급·노동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규모: 현 직장의 기업규모 인식 및 승급·평가·임금테이블의 명확성 · 노동권리·안전: 노동인권·산업안전(교육/실천/신고체계) 체감 사례

분류	구체적 질문	
통근·정주·생활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 통근시간/교통수단/교통비 부담과 이직/잔류에의 영향 · 주거: 주거형태·주거비·주거환경(치안/소음/편의시설) 만족도 · 생활접근성: 여가·문화·의료·돌봄 접근성에 따른 삶의 질 평가 	
이탈의향(2년)·잔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탈의향: 향후 2년 전복 이탈 의향(리커트)과 그 이유/트리거 이벤트 · 잔류조건: 잔류하기 위한 최소 조건(임금·직무·주거·교통·커뮤니티) 우선순위 	
정책수요 구직자/재직자 분리	구직자(미취업· 전환 희망)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정책: 자격·교육 다양화, 멘토링·소모임, 맞춤형 정보, 취업 박람회, 활동수당, 인턴십, 면접지원 중 상·차선 선택 및 근거
	재직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정책: 정보·자기계발·커뮤니티·심리상담·재충전, 노동인권·현장 모니터링, 자산형성·생활안정, 청년친화기업 중 상·차선 선택 및 근거
주거정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정책: 목돈대출·보증금 보호·임차인 보호·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정책 필요도 및 우선순위 · 정주연계: 주거정책이 잔류·이탈 결정에 미치는 경로 설명 	
마무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대화 중에서 가장 공감되거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다른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일자리 관련 조언이나 메시지가 있을까요? 	

자료: 저자작성

[표 4-3] 산업군별 추가 심층 질문 리스트

분류	구체적 질문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재해·안전 및 보험 적용 경험 · 자본: 농기계/설비 투자·초기자본 조달 경로와 부담 · 판로·전환: 판로·온라인 전환, 로컬푸드/가공 연계 경험 · 계절성: 농한기 소득·복수직업 전략 · 정책경험: 청년농 지원사업(후계농·영농정착·스마트농업) 실효성 · (귀농·귀촌) 관련 정책 만족도 및 요구
산단·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대제: 교대제·야간노동이 건강·가족생활에 미친 영향 · 안전: 산재·사고 위험 인식과 예방·신고 체계 체감 · 복지·교통: 승급·임금테이블·기숙사·통근버스 운영 실태 · 권리: 노동인권 모니터링 체감 및 개선 제안
예술·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소득: 계약 구조·페이 지연·프로젝트 단절 경험 · 지식재산·공간: 저작권·2차 수익, 레지던시·공간 인프라 접근성 · 지원: 공공지원금의 행정부담·지속성 이슈

분류	구체적 질문
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매커니즘: 알고리즘·배차·평점의 소득·안전 영향 · 사회보장: 보험·산재·보호 장치의 적용범위 체감 · 소득안정: 수수료·단가 변동과 멀티호밍 전략

자료: 저자작성

■ 분석 틀 및 자문회의 연계

- 심층면접 자료는 위 5개 축을 중심으로 코딩·범주화한 뒤, 산업군별 공통 특성과 세대·성별·지역·경력 단계에 따른 차별적 경험을 비교 분석함
- 분석 과정에서 청년정책·노동·농업·산단·플랫폼·프리랜서 등 분야별 전문가·실무자 자문회의를 병행하여, 심층면접에서 도출된 청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검증하고, 산업구조·정책제도·지역 일자리 생태계 관점에서 해석과 정책 시사점을 보완함
-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할 때 교수·연구자·행정·중간지원조직 등 비청년 전문가·실무자 자문 참여자를 Y01~Y08 등 Y코드로 표기함
- 일부 청년 참여자가 자문회의에도 함께 참여하였으나, 이들은 농업·산단·로컬·플랫폼 등 속한 산업군에 따라 A/M/L/P 코드로 일관되게 표기함

[표 4-4] 자문회의 분야 및 일정

연번	자문회의 일자	전문/자문 분야	참여자 유형	아이디	주요 논의(키워드)
1	25.9.23	청년창업·일자리, 청년·주거정책	청년·주거정책 전문가	Y02	·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철학, '즐거운 도시'와 삶의 질, 주거·일자리 통합 접근
2	25.9.25	청년 일자리 컨설팅	일자리 컨설턴트	Y03	· 청년 기대와 현실의 괴리, 지역 기업 기피 요인, 진로·경력설계 지원 필요
3	25.9.25	청년농업·귀농·귀촌	농민지도자	Y04	· 청년농 창업의 자본·리스크, 농업 소득 불안정, 지원제도와 현실의 괴리, 농촌 문화 갈등
4	25.9.30	청년정책·청년 활동	청년정책 활동가	Y05	· 청년을 '수혜자'가 아닌 기획 주체로 보는 관점, 도시재생·문화예술사업과 청년 참여

연 번	자문회의 일자	전문/자문 분야	참여자 유형	아이디	주요 논의(키워드)
5	25.10.20	사회적경제·도 시재생	청년활동 지도자	L02	· 지역 공간·공동체 기반 일자리, 사회적 경제·도시재생과 청년 활동의 연계
6	25.10.20	공공분야·청년 정책 참여	청년정책 활동가·정책보 좌관	Y01	·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직접 참 여 확대, 청년 의회·정책보좌 경험의 시 사점
7	25.10.21	플랫폼 노동·이동노동 자 지원	공무원·지원조 직 실무자	Y06	· 지역 플랫폼 노동자 현황, 이동노동자 지원공간 운영 경험, 지역기반 플랫폼 정책 방향
8	25.10.21	청년일자리 정책·공공기관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	Y07	· 청년일자리 사업의 한계, 외국인·이민정 책과 연계 필요, '양질의 일자리' 용어 대신 구체 지표 요구
9	25.10.28	배달·플랫폼 노동	라이더 조직 대표	P01	· 배달라이더의 수입·자유·부채 구조, 직 장 복귀의 어려움, 공영화·프리랜서센터 지원의 한계
10	25.10.31	청년 정책·연구 방법론	학계	Y08	· 청년 구분·유형화의 방법론, 실질적인 사업 모델 제안 필요, 정책지표·성과 설 정 논의

출처: 저자 작성

- 이후 분석에서는 위의 틀에 따라 산업군별로 ① 노동·일자리 구조, ② 청년 개인의 경
험과 인식, ③ 전문가·자문회의에서 도출된 해석·정책 방향을 통합적으로 제시함

3) 산업군 구분의 한계와 해석상 유의점

■ 복수 직업·복합 활동으로 인한 산업군 분류 한계

- 실제 청년들의 일 경험은 하나의 산업·직종 범주로 포착하기 어려운 복수 직업·복합
활동의 양상을 보였음
 - 예를 들어, 청년 농민은 농업 생산과 동시에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운영하고, 교육 콘텐
츠를 기획·강의하면서 강사 플랫폼 대표 역할을 병행하는 등 농업·상업·콘텐츠·플랫폼 노동이 중첩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었음

- 이에 따라 분석에서는 주된 소득원·시간투입·자기정체성 인식을 기준으로 ‘주 산업군’을 분류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단순화한 분석 틀에 가깝다는 점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사례의 제약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영역의 청년들에 대해서는 설문조사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포착되었으나, 심층면접에서는 상대적으로 사례 수가 제한적이었음
- 이는 심층면접 설계 단계에서 농업·제조·예술·플랫폼 등 전북 지역정책과의 연계성이 높고 제도적 지원 논의가 활발한 분야를 우선 구성한 데 따른 결과이며, 서비스업 청년 일자리의 세부 특성은 향후 추가 조사와 별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중간지원조직 인터뷰의 보완적 활용

- 이번 심층면접은 개별 청년의 경험뿐만 아니라, 청년을 폭넓게 만나온 청년정책 전문가·중간지원조직 종사자·정책보좌관의 인터뷰와 10회의 자문회의를 함께 활용하였음
- 이를 통해 특정 산업군에 속한 청년의 경험을 넘어, 전북 청년 일자리·정주 문제의 구조적 특징과 공통된 고민의 흐름을 파악하고, 산업군별 사례 분석을 보완하는 중요한 맥락 정보로 활용함

■ 해석상 유의점

- 따라서 본 장의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은, 산업분류를 엄격한 통계적 구분이라기보다 청년들의 다층적인 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적 틀로 활용한 결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복수 직업·복합 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현실, 산업·고용형태·플랫폼 참여가 교차하는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각 산업군 분석 결과는 전북 청년 일자리가 처한 구조적 조건과 정책 과제를 도식화한 ‘대표 사례’로 읽어야 하며, 개별 청년의 실제 삶은 이들 경계 사이를 오가는 보다 유동적인 스펙트럼 위에 놓여 있음을 전제해야 함

나. 심층면접 참여자 특성 및 공통 경향(안)

■ 참여자 구성 및 기본 특성

- 본 연구의 심층면접은 전북에 거주하거나 전북을 기반으로 취·창업 경험을 가진 청년 11명과, 지방의회에서 정책보좌를 수행 중인 정책지원관 1명으로 구성함
- 면접 참여자들은 농업·축산, 제조업·산단 생산·관리직, 문화·예술·로컬콘텐츠, 플랫폼·배달, 프리랜서 강사·N잡러, 청년정책·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두 개 이상의 직업·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경력 경로를 보임
- 연령대는 주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에 집중되어 있고, 전북 출생·성장 후 지역에 정착한 청년, 대학 진학을 계기로 전북에 유입된 뒤 산단·서비스업 등에 취업한 청년, 수도권·타 지역에서 공부·경력을 쌓은 뒤 로컬 창업·문화활동을 위해 전북으로 돌아온 청년 등이 혼재함
- 거주 형태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결혼·자녀를 둔 가구의 자가·전세 거주 등으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전북은 주거비·생활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나, 일자리·임금·경력 기회 측면에서는 수도권에 대한 기대와 비교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함

집값이랑 생활비는 확실히 전북이 좋은데, 커리어 생각하면 계속 서울이 눈에 밟혀요. (P03)

■ 입직·경력 경로: ‘한 직장’보다 ‘여러 경로를 거치는’ 패턴

- 제조업·산단 분야에서는 회계사무소·중소제조기업 관리직 등으로 경력을 설계해 지역 내에서 장기근속 경로를 구축한 사례(M01)가 있는 반면, 파견·용역 형태로 입직한 후 단기 정착을 거쳐 2~3년 내 수도권 복귀를 계획하는 청년도 존재함(M03)
- 농업·축산 영역 청년은 귀농·귀촌을 ‘농촌 정착’이라기보다는 생산·브랜딩·유통까지 직접 설계하는 고위험 사업 창업 경로로 인식하며, 초기 무소득 기간과 금융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식에 맞는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임(A02)

승계농이 아니기 때문에 0원에서부터 농사를 시작했습니다.(A03)

- 문화·예술·로컬콘텐츠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청년은 도시재생·로컬미디어·투어·편집숍 운영 등을 결합한 복합 창업을 통해 “지역은 일자리는 없지만 일거리는 많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로컬 생태계 안에서 자신이 기획자·생산자·운영자로 서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음(L01)
- 프리랜서 강사·마케터·크리에이터들은 블로그·SNS 활동, 체험단·콘텐츠 제작 경험에서 출발해 에이전시·공공기관·직접 영업을 결합한 형태로 강의·마케팅·재테크 교육 등 여러 일을 병행하는 N잡 경로를 보임(P02, P03)

직장 월급만큼 블로그로 먼저 벌어들였기 때문에, 야근하면서 똑같이 받는 건 못 버티겠더라고요.(P03)

■ 일자리 질 인식: ‘안정성 vs 자율성’, ‘임금 vs 자기계발’의 긴장

- 제조업·산단 정규직 장기근속 사례에서는 “동종 업계 대비 중상급 수준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을 갖추고 있으나, 조직문화·교대제·승진 구조가 청년에게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반복해서 제기됨
- 안정적인 일자리의 조건으로는 적정 임금, 연차와 휴가 사용의 자율성, 폭력적이지 않은 조직문화,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성장 비전 등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환경이 강조(M01)
- 농업·축산 청년들은 높은 노동강도·장시간 노동·대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생산·브랜딩·유통 전 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자신의 가치·윤리와 일의 방식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감을 표현(A02)

(농업은) 정부보조금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래도 연중 생산이 되니까 자금이 계속 돌고, 고용도 훨씬 편해집니다.(A03)

- 문화·로컬콘텐츠 및 프리랜서·플랫폼 영역에서는 시간·공간의 자율성과 자기계발·성장

가능성을 강점으로 인식하는 한편, 수입 변동성, 사회보험 사각지대, 에이전시·플랫폼의 불투명한 수수료 구조 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지적(P02, P03)

■ 생활·정주 조건: 주거·돌봄·도시 인프라와 진로 선택의 결합

- 다수의 면접 참여자는 전북의 낮은 주거비·생활비를 장점으로 꼽으며, 특히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주거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임금 수준의 열위가 어느 정도 상쇄될 수 있다”고 인식 (M01)
- 반면 미혼·1인가구·전문직 프리랜서의 경우, 전북의 문화·기업 인프라 부족, ‘서울 강사’에 대한 선호, 로컬 강의 수요의 한계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이주와 대학원 진학, 브랜드 가치 제고를 결합한 경로를 모색하고 있음(M03, P03)

서울 강사가 더 좋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서울에서 온 선생에게 배워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P03)

-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 프리랜서 강사는 야간/주말 라이브커머스·기업 강의처럼 수익성이 높은 일자리를 선택하기 어렵고, 낮 시간대 지역 강의 중심으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조(P02) 이는 전북 청년 일자리 논의에서 여전히 젠더·돌봄 구조가 중요한 제약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책 경험·요구: ‘일자리 vs 일거리’와 공공 플랫폼의 필요

- 청년정책·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에 몸담고 있는 청년 정책 전문가는, 현재 전북의 청년일자리 정책이 단기적 ‘일거리 나눠주기’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청년을 시혜적 지원 대상이 아닌 정책 형성의 주체로 세우는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함(Y01, Y05)
- 로컬문화·창업·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개별 지원사업은 많지만, 본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정보 파편화’ 문제가 반복해서 언급되었고, 전북 내 청년·창업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하는 DB와, 실험·실패·커뮤니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장기 지원 구조의 필요성이 제기됨(L01)

- 프리랜서 강사·플랫폼 노동 영역에서는 공공이 제시하는 표준 강사 계약서(수수료 상한, 재료비 정산, IP 권리, 대금 지급 시기 등)를 마련하고, 공공·준공공 강의 공고와 강사 프로필·계약조건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공 플랫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옴(P02)
- 또한 프리랜서 강사·크리에이터·배달라이더 등 ‘준-노동자’형 플랫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소득안정 장치, 법률·노무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다. 농업·귀농·농창업 청년 일자리 특성

■ 대상 개요 및 특성

- 본 연구의 농업 분야 심층면접은 장수·무주·김제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농 3인과, 자문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은 전북여성농민회 활동가 1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함
- 면접 참여자는 유산양 목장을 운영하며 산양유·가공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1인 창업농, 무주로 이주해 애플망고를 시설 재배하는 청년 귀농인, 스마트팜을 활용해 토마토를 재배하는 청년창업농으로 구성됨
- 이들은 모두 전북 외 지역에서 성장하거나 다른 직업을 경험한 뒤 전북 농촌으로 이주했으며, 단순히 ‘농촌에 내려와 사는 삶’이 아니라 생산·브랜딩·유통까지 직접 설계하는 고위험 창업 경로로서 농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농업을 전통적인 의미의 ‘농사’라기보다는 토지·시설투자·브랜딩·온라인 판매까지 아우르는 고위험 창업·경영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귀농정착·스마트팜 지원과 같은 정책이 없었다면 현재 규모로 진입하기 어려웠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함
- 동시에, 이러한 정책 지원을 “도시에서는 얻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하면서도,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다중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도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3억을 빌려주진 않죠. 농촌 청년이라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대신 20년 동안 실패하면 안 되는 사업을 떠나는 거라서 플랜 A~E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A02)

- 소득 구조, 노동강도, 시장 리스크 측면에서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라기보다, 가치·자율성·삶의 방식에 대한 만족으로 버티는 일자리에 가깝다고 인식함
- 전북여성농민회 등에서 활동해온 농업·농민운동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현장 청년 농의 경험을 기존 농민운동·농업정책 논의와 연결해 해석함

■ 입직·경로: 귀농·승계·스마트팜, ‘농업=창업’으로의 진입

- 세 청년 모두 대학 전공, 도시 직장 경험, 자영업·장사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과 “보유 자원”을 결합해 농업을 선택한 경로를 보임
- 부모로부터 농지를 승계 받지 않은 상태에서 0원에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한 청년창업 농, 무주로 이주해 애플망고라는 새로운 품목에 도전한 귀농인 등, 농업을 일종의 ‘품목 기반 스타트업’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두드러짐
- 농업·축산·가공·교육·관광·콘텐츠 등을 결합하여, 생산자이자 기획자·사업가로서 다중 역할을 수행하는 복합 경력 경로를 형성하고 있는 점도 공통적임

■ 자본 조달과 부채 구조

- 온실·시설하우스 1동을 짓는 데 수억 원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자금 등 정책자금이 진입의 필수조건으로 작동함

처음부터 승계농이 아니라 0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귀농귀촌 대출이랑 청년창업농 자금 없는 토지랑 온실을 살 수가 없었어요.(A03)

- 토지 구입과 시설, 운영자금에 4억 원 내외를 투입하고, 이 중 3억~3억 5천만 원을 장기 저리융자로 조달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20년 동안 실패하면 안 되는 구조”라는 표현이 반복됨

- 연간 1억 원 안팎의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활비를 제외하고 부채 상환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어서, 침수·병해충·가격 폭락 등 한 번의 큰 리스크로 상환 계획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상존함

천 평 온실 짓는 데 7~9억 든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1억 벌어도 6천 남기고 상환하면 여유가 거의 없어요.(A03)

■ 노동강도·소득 구조와 생활 리듬

- 스마트팜 농장은 연중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농한기가 거의 사라져, 쉬는 날이 거의 없는 상시 노동 구조에 가깝고, 축산을 하는 청년은 농번기 장시간 노동과 농한기 가공·직거래·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복수 소득원을 구성함

성수기에는 새벽 네 시 반에 일어나서 착유하고, 포장·발송하고, 풀 깎고... 하루 다 쓰고 나면 그냥 쓰러져 자는 느낌이에요.(A02)

- 과수 시설재배 농장은 난방·관수·환경제어 등 상시 관리가 필요해, 노동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기보다 작물의 생육 주기에 생활 리듬이 종속되는 경향이 강함(A01)
- 그룹에도, 재배 방식과 브랜딩, 판매 전략을 스스로 설계·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주도권이 매우 큰 일자리로 평가함

농업은 그냥 귀촌이 아니라, 빚을 안고 들어가는 고위험 창업에 가깝다고 봐요. 대신 제가 설계한 방식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A03)

■ 판로·브랜딩·온라인 판매 전략

- 세 청년 모두 로컬푸드 매장·도매시장 출하 등 전통 유통망에 더해, 스마트스토어·SNS·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판매를 적극 활용함
- 스마트팜 청년은 토마토를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면서, “로컬푸드보다 온라인 직판의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다(A03)”는 판단 아래 판로를 선택하고 있으며, 애플망고 귀농인은 지역 관광·체험과 연계한 직거래 모델을 구상하는 등 농업+콘텐츠+관광 복합모형을 모색함

- 축산 목장의 경우도 목장 주변의 대지를 이용해서 관광 아이템으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임
- 농장·팀의 이름을 브랜드화하고, 생산자 개인 스토리를 결합하는 전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청년농이 단순 생산자를 넘어 기획자·마케터·브랜드 운영자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줌

요즘은 로컬푸드 직매장만으로는 안 되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스토리를 보고 찾아오는 단골이 훨씬 중요해졌어요.(A02)

- 목장의 경우도 대량·저가 경쟁 대신 “유기·방목·프리미엄, 소량 정예” 전략을 통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영역 + 품질·스토리로 승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여 본인의 영역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 정주 여건·공동체 경험과 정책 인식

- 주거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족의 삶을 고려해 정주지를 결정하기도 하고, 집은 도시에 두고 농장은 농촌에 운영하는 방식, 농촌 지역 내에 마땅한 주거공간이 없어 농장 근처 숙소를 마련해 거주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나타남

아파트에 있었으면 애들이 놀 공간도 없었을 텐데, 여기선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같이 있고, 밖에서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A02)

- 한편, 농어촌공사의 청년 중심 농지 임대 정책 등으로 기존 고령 농민과의 갈등 가능성, 지자체별 스마트팜·임대형 농장 과잉 공급 시 생산과잉·가격 폭락 우려가 제기됨
- “작년 토마토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생산만 계속 늘리면 언젠가는 다 같이 힘들어질 것(A03)”이라는 지적처럼, 청년 유입과 공급 조절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전북의 미래 농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새만금·혁신밸리 등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의 경우, 물 공급, 수질, 장기 운영비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청년농이 3년 임대 이후 어디로, 어떻게 이동·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후 경로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정책 경험·요구: 청년창업농·스마트팜의 성과와 한계

- 세 청년 모두 “청년창업농·저리대출·경영바우처 없이는 현재의 규모로 농업을 시작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특히 초기 3년 무소득·준비기간을 버티게 해 준 경영바우처에 대해 매우 긍정적 평가

처음 3년 동안은 매출이 거의 없는데도 카드로 매달 80~100만 원씩 쓸 수 있었던 게,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어요.(A02)

- 동시에, “누구에게나 문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실패·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예비농 제도, 선도농가에서 2~3년 사전교육 후 청년창업농 진입 등 단계적 진입 구조에 대한 요구가 제기됨(A03)
- 이러한 관점은 단기 인구유입·청년 수치 확대보다, 소농·중소농의 지속가능성, 여성·청년농의 권리 보장, 건강·돌봄·노동조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여성 농촌지도자의 자문(Y04)과도 맥을 같이 함
- 또한 자문회의에서는 청년창업농·스마트팜이 “규모화·투자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경우, 기존 농가·지역경제와의 갈등·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

새로 들어오는 청년농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오래 버텨온 여성·소농과 같이 설계하지 않으면 정책이 현장에서 갈등을 만들 수 있어요.(Y04)

■ 농업 청년 일자리의 정책적 시사점

- 농업 청년 일자리는 고용안정성·4대보험·정시퇴근이라는 전통적 기준으로 보면 ‘불안정·고위험’ 영역에 가깝지만, 자율성·가치 일치·정주 기반 측면에서는 높은 만족을 주는 ‘삶-일 통합형 일자리’로 기능
- 이에 따라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농업 분야는, ① 자본·리스크 관리(저리대출+상환 구조, 보험·재난 대응), ② 브랜딩·온라인 판로·콘텐츠 결합 지원, ③ 여성·청년농의 경영체 인정과 돌봄 지원(출산·육아·요양 등), ④ 예비농·청년창업농·정착 단계별 맞춤형교육·멘토링 체계를 결합해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기존 농업 방식에 기반을 둔 정형화된 지원이 아닌 귀농·귀촌을 비롯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보고자 하는 청년농에게 그들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해 줄 것을 제안

‘특수한 축종·새로운 시도를 하는 소수 청년’을 위한 소규모 시범·맞춤 지원 포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산양·방목·유기축산, 반려동물용 농축산물 등에서도.. (A02)

라. 산단(제조업) 청년 일자리 특성

■ 대상 개요 및 특성

- 본 연구의 산단 분야 심층면접은 ○○산단 전기·전자 조립 2차 협력업체 생산직 청년 1인, ○○ 소재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리·사무직 1인, ○○ 식품제조업체 인사·노무 담당 관리직 1인 등 3명의 산업단지 재직 청년과, 청년·중소기업·산단 일자리를 다뤄 온 일자리 행정 베테랑·청년 취업컨설턴트·노동정책 전문가 자문 내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임
- 세 청년 모두 전북에서 고등학교·대학을 마치거나 대학 진학을 계기로 유입된 뒤 산단에 취업한 사례로, 전북 로컬 출신이 지역 내에서 경력을 설계한 경우와 수도권 출신이 “일단 전북에서 일하다 다시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가 공존하는 경로 구조를 보여줌
- 직무 측면에서는 산단 내 생산직(전기전자 조립)과 관리·사무직(회계·경영관리, 인사·노무)이 함께 포함되어, 동일 산업단지 안에서도 노동강도·임금 수준·경력 전망이 크게 다른 이중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자문회의에서는 “전북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청년이 가고 싶지 않은 일자리만 있는 상황”(Y07)이라는 진단과 함께, 현재 산단·중소기업 일자리가 편의점·플랫폼 알바보다 매력도가 낮게 인식되는 구조, 청년 경력·성장 경로가 보이지 않는 구조가 핵심 문제로 제기됨

■ 입직·경로: 산단 취업과 관리·생산직의 상이한 경력 경로

- 산단 생산직 청년은 대학 졸업 후 ○○산단 파견직으로 입사해 6개월간 3.3% 원천징수 형태(위장 자영·일용직 유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로를 보이며, 파견제도를 “퇴직금·이직 방지용 방벽”으로 인식하는 등 불안정한 진입구조 경험
- ○○ 자동차부품업 회계·경영관리직 청년은 남원 소재 회계사무소에서 낮은 임금으로 2년간 경험을 쌓은 뒤, 산단 기업 관리직으로 이직하는 ‘경력 설계→이직’ 경로를 택함
- 그는 “경영과 행정을 전공해서 회계사무소에서 회계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이직함.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함. 2년은 급여수준을 포기하고 업무를 배워서 2년 채우고 이직.”(M01)이라고 설명하며, 초기에 낮은 임금·강도 높은 업무를 감수하더라도 ‘경력자 포지션’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 산단에서의 생존전략이라고 인식함
- 식품제조업 인사·노무 담당자는 타 지역 직장 경험 후 전북으로 이주하여 인사업무를 맡게 된 사례로, 인사·관리직은 ‘학력·전공·자격증+대인관계’가 중요한 진입 조건으로 작동하는 반면, 생산직은 고졸·무경력 청년에게도 열려 있지만 경력·승진 경로는 제한적인 이중 구조를 설명함
- 이들의 경로는 전북을 벗어나지 않고도, 또는 짧은 외부 경험 후 복귀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내부에서의 경력 사다리 구축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이는 주로 관리·전문직에 국한되고 생산직·여성 청년에게는 거의 열려 있지 않은 편향적 구조라는 점이 자문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됨

■ 노동시간·임금·조직 구조: 생산직의 ‘변동노동+저시급’ vs 관리직의 ‘장시간+보상·자율성’

- ○○산단 생산직의 경우 기본은 주간 근무이나, 물량에 따라 주40시간에서 주6일·주52시간에 근접하는 구조까지 크게 출렁이며, 특히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토요일·일요일 근무가 임금 보완의 필수 수단으로 작동하는 “낮은 기본시급+추가 노동 의존형 임금 구조”가 나타남

지난달에는 주6일씩 한 달 내내 했고, 이번 달에도 2주 연속 토요일에 일했고, 이번 주도 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3~4월 달은 주 40시간에 맞춰서만 일했는데 그때는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았어요.(M03)

- 일요일 근무 시 2배 임금을 받지만, 기본시급이 낮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일당 16만 원을 벌어야 한다”(M03)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여름휴가는 무급, 상여·성과급 규모는 미미한 편으로 나타남

- ○○ 식품제조업에서는 생산직이 주야 2교대·교대근무를 하는 구조이며, 인사담당자는 “업무 난이도에 비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생산지를 간다든지,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음.”(M02)라고 설명함
- 같은 기업 내에서도 관리·사무직은 주간 고정근무, 시간외수당·특근수당 지급, 회사 성장에 따른 연봉 인상 등이 일부 보장되는 반면, 인사담당자의 직접적인 평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생산직의 이직·순환이 잦은 구조임

근속 연수가 길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3~4년. 청년들은 대부분 1년을 못 버티는 경우가 있고, 1년만 딱 채워서 퇴직금 받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죠.(M02)

- 관리·사무직은 상대적으로 임금·안정성이 높지만, 600명 규모 사업장에서 인사팀 2명이 전사 인사·노무를 담당하는 등 업무량·책임이 과중해 장시간·민원 대응 노동이 일상화된 일자리 구조로 나타남

■ 경력 사다리·승진 구조와 ‘유리천장’

- 관리직 청년들은 회계·ERP 자격증, 인턴·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산단 기업에 입사한 뒤, 성실한 업무 수행·추가 업무 수용을 통해 비교적 빠른 승진과 보직 확대를 경험하고 있음
- 반면 생산직·여성 청년에 대해서는 “생산직에서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사실상 부재한 현실이 공통적으로 지적됨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생산직에 있던 직원을 관리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좀 힘들고… 본인이 일하면서 자격증 땀다고 하더라도 관리직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M02)

- 인사·회계 관리자는 청년들의 일·경력 인식을 “급여와 업무량의 불균형” 문제와 연결해 진단하고, 기업이 기대하는 ‘주인의식·헌신’과 청년들이 인식하는 ‘노동·보상 균형’ 사이의 간극을 보여줌

급여가 가장 크고, 업무량...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요즘 애들은 돈은 쉽게 버는 거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M01)

- 전문가 자문에서는 산단·중소기업에서 장기간 한 분야에 종사해 온 숙련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의 근속·숙련도를 인증하는 장인제도 도입과, 기업 간 이직이 있더라도 지역 일자리에 머무른 기간을 누적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경력·포인트 제도와 같은 사람 중심 보상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 정주·주거·생활 리듬

- ○○산단 생산직 청년은 전주 원룸 전세에 거주하면서 자차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중기청·청년전세대출과 낮은 주거비를 정주 장점으로 인식함. 다만 이자는 “1%대에서 2%대로 오르면서 월 이자도 8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가했다”(M03)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이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 식품제조업 인사담당자는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결혼 후 아파트 매매(대출)를 계획 중이며, ○○에 대해 “○○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M02)라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 전북 정주 의향을 분명히 함
- 자동차부품업 관리직은 ○○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며 “청년을 전북에 잡으려면 주거라고 생각함... 주거를 해결해주면 지방에서의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M01)이라고 강조함. 이는 주거·부동산·대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산단 청년의 장기정주·가족형성에 결정적 변수임을 시사함
- 전문가 자문에서는 산단 청년들이 산단이 위치한 읍·면에 직접 거주하기보다는, 전주와 같은 거점도시에서 거주하면서 통근하는 패턴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함. 즉 ‘일자리 산단, 생활은 도시’라는 욕구를 전제로 하되, 이를 단순히 기정사실로 수용·권장하는 것을 넘어, 산단 인근 지역도 주거·생활·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정주공간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됨. 이에 따라 김제 산단-전주 생활권 사례처럼 산단-도시 간 통근버스·교통 지원과 더불어, 산단 소재지 및 주변

읍·면·소도시의 청년 주거, 생활SOC, 상업·문화공간을 패키지로 확충해 산단 일자리와 인근 생활권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정주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강조됨

■ 정책 인식·요구: 법 준수, 현실적 복지, 사람 중심 지원

- 산단 생산직 청년은 일부 청년정책(정장 지원, 컨설팅 등)을 “정장 입고 가는 회사(공기업·대기업)를 떠올린 정책”으로 인식하며, 본인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낌. 그가 지자체 역할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현재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준수를 요구함

(관리) 주체가 지자체이면.. 아까 말했듯이 법이나 지키게 했으면 좋겠어요. 워크넷에 올라오는 곳들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지키는 곳이라고 메시지를 내달라는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M03)

- 그는 또한 자격증·시험 응시료 지원과 같은 실질적 지원을 제안하며, “내일배움카드는 학원비 지원이지만, 시험응시료를 지원해주면 좋겠다”(M03)고 강조함. 이는 ‘추상적 역량 강화’보다 ‘지금 당장 체감 가능한 비용·자격 관련 지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인사·노무 담당자는 청년 관리직 채용·적응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회사는 80%까지 지원·적응을 도와줄 수 있지만 “100% 회사가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태도”가 적응 실패를 낳는다고 지적함(M02). 동시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대출, 생활밀착형 제휴(MOU), 복지포인트 등 ‘작지만 체감 가능한 복지’를 중시함
- 청년 취업컨설턴트는 청년들의 임금 기대 수준이 너무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처럼 학력·진로에 따라 기대임금이 다르고, 산단·중소기업 임금수준이 이 기대와 괴리되어 있다는 점이 산단 기피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분석함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빨리 돈 벌고 싶어 하고 많이 돈 벌고 싶어 해요. 연봉 3,000 이상 받고 싶어 하는데...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그 돈으로는 어렵도 없어요.(Y03)

- 전문가들은 “임금지원사업이 핵심은 아니며, 임금·복지·경력·생활여건을 묶어 ‘이 회사·이 지역에서 버티면 얻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산단 청년 일자리의 정책적 시사점

- 산단 청년 일자리는 형식적으로는 정규직 비중이 높고, 일부 관리직의 경우 승진·보상·복지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으나, 생산직의 저임금·변동노동 구조, 유리천장, 단기 체류·이직 패턴 등으로 인해 청년에게 “장기 커리어·정주 기반으로 보기 어려운 일자리”로 인식되는 한계가 존재함
- 전북형 산단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전략은 ① 파견 남용·노동시간 위반 등 기본 노동권 침해를 막는 근로기준법 준수·감독 강화, ② 생산직·여성 청년까지 포함한 직무간 이동·승진 경로 설계(생산→품질·관리, 기능공→엔지니어·현장관리자), ③ 사내대출·생활제휴·복지포인트·통근버스·주거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 패키지, ④ 장기근속·지역거주 기간에 따라 혜택이 누적되는 ‘사람 중심 정주 인센티브(지역·근속 포인트, 장인 인증 등)’로 구성할 필요성이 큼
-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청년을 환영하고, 열려 있고, 키우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전북이 환대하고 붙잡고 싶은 산단 청년의 상(象)”을 분명히 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
- 자문회의에서는 다층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갈고리. 한 번 들어오면 갈고리가 점점 두꺼워져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지원 정책”(Y08)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단기 인건비·사업 지원이 아니라, 주거·교통·복지·경력·지역포인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되어 청년에게 남는 것이 큰 구조를 만들자는 제안으로 해석할 수 있음

마.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기반 청년 일자리 특성

■ 대상 개요 및 특성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분야 심층면접은 익산 원도심에서 로컬 매거진·편집샵·로컬 투어를 운영하는 청년 창업가, 전주 원도심에서 커뮤니티·공유공간 및 로컬 행사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지역 청년정책·사회혁신 활동을 거쳐 ○○시의 회 정책지원관으로 일하는 정책 활동가 등 3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함
- 자문회의에서는 지역에서 공유오피스 및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도시연구자, 지역 구도심에서 청년주거·도시재생·마을상권 조직화를 수행해 온 활동가의 의견을 포함해, 로컬 창업·공간 운영·도시재생·청년정책을 연결하는 관점을 함께 반영함
- 이들은 카페·공유공간·서점·거점시설 등 물리적 공간 운영, 골목·상권 조직화, 도시정책·도시재생 용역, 로컬 콘텐츠 기획·축제·플리마켓, 청년정책·거버넌스 자문 등을 결합해 ‘하나의 직장’이 아니라 복수의 프로젝트·조직에 걸친 일자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 공통적으로 도시재생, 청년·도시정책, 마을·상권 조직과 같은 공익·사회문제 해결 영역을 일의 시작점으로 삼고 있으며, “도시문제를 고민하며 창업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진단처럼, 로컬 일자리를 ‘지역 문제 해결형 창업·기획’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 동시에, 활동가·기획자 정체성과 생계유지를 위해 F&B, 숙박, 굿즈, 서점 임대칸, 용역 수입 등 다양한 수익원을 결합하고 있어, 소득·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매우 취약하나, 자율성·관계망·지역 정체성 측면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특성을 보임

■ 입직·경로: 도시재생·청년활동에서 로컬 비즈니스·정책 영역으로 확장

- 주요 인터뷰 대상자는 도시공학·도시계획 전공 후, 대형 민간 컨설팅회사·중간지원조직을 거쳐 도시재생 현장으로 진입하거나, 청년활동·청년정책 운동에서 출발해 사회적

신센터·정책지원관 등 제도권을 경험한 뒤 로컬 현장으로 이동한 경로를 가짐

- ○○ 사례의 경우, 도시재생·마을재생을 전공하며 “지역에는 일자리는 없지만 일거리는 많다”, “지역이 나를 표현할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뒤, 대학원 졸업 직후 ○○으로 귀환하여 원도심을 ‘저평가 우량주 동네’로 인식하고 창업하는 경로를 보임

이 동네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평가 우량주처럼… 역사는 많지만 덜 알려진 동네라,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볼 것 같았죠.(L01)

- 반복되는 보고서 작성, 형식화된 컨설팅 업무에 대한 회의 속에서 부담이 누적되는 경험 이후, 도시재생·원도심 활동을 통해 ‘여기서 계속 해봐도 좋겠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전환점이 작동함

(전 직장은) 새로운 고민을 할 기회가 적고 몸만 축나는 구조였어요… 그래도 이 동네에서라면 계속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L02)

- 청년 커뮤니티·마을활동을 하던 중 상인회 조직, 청년·예술가 유입, 책·플리마켓 기획 등의 실험이 축적되면서, 낙후된 생활권을 ‘청년 유입이 시작된 공간’으로 재인식하고 더 많은 유입을 돕는 역할로 전환되는 경향이 나타남

낙후된 생활권이지만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를 캐치해서,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Y05)

- 도시·주거 문제를 연구하던 연구자가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1인 기업·개인들을 위한 공유오피스를 만들고, 이후 도시정책 용역회사·사회적 협동조합·로컬 서점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등, 개인 커리어와 로컬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형성함

도시문제 해결을 하는 1인 기업, 개인들이 모여 일하는 공유오피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중에는 용역회사, 협동조합, 서점까지 같이 있는 플랫폼이 됐죠.(Y02)

■ 소득 구조와 투잡·멀티잡 현실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의 수익 구조는 로컬 매거진·콘텐츠 제작, 지자체·공공기관 프로젝트(홍보영상·로컬콘텐츠·축제 마케팅), 로컬투어, 편집샵 운영, 공간 대관·임

대, 공공·민간 용역 수입, 행사·축제 기획비, 강의·자문료 등 다원적인 구조로, 계절성과 공공예산 집행 일정(4분기 집중)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

- 로컬미디어 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출발해 매출 증가와 함께 법인전환·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고,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샵 위탁운영을 수주하여 로컬 기반 물품 편집샵을 운영하는 등, 공공 위탁·사회적경제 제도와 결합한 수익 구조를 형성함(정규직 마케터 1인, 프로젝트 단위 영상 PD 등 4인 팀)
- 로컬 공간 운영만으로는 상시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표·기획자가 개인 프리랜서 일감·투잡으로 생계를 보완하는 구조가 일반적임

대관 수입이 1년 중 4분기에만 활발하고 나머지 분기는 운영이 어렵죠.(L02)

- 서점·로컬숍의 경우, 책과 상품 판매마진이 아니라 ‘칸 임대료’를 통해 임대료·인건비를 충당하고, 판매수익은 입점자가 가져가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버티도록 하는 운영 방식을 지향함

공간에 남는 이익을 최소화하고, 여러 사람이 버티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판매 수익은 입점자가 가져가고, 우리는 칸 임대료로 최소한만 유지하는 방식으로.(Y02)

-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 급여·4대보험·명확한 경력계단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프로젝트·네트워크가 축적되면서 향후 도시정책·상권관리·로컬콘텐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축적하는 경력 경로로 기능함

■ 노동강도·삶의 리듬과 ‘라이프스타일 일자리’

- 공간 운영·기획·상권 조직·행정 협의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간·주말 노동이 빈번하며, 일·생활의 경계가 흐릿한 노동 구조를 보임

주말에 일할 수 있고 야근도 많다는 전제를 깔고 같이 일하자고 말해요.(Y02)

- 특히 축제·행사 시즌(하반기)에는 “눈 뜨면 일하고 노트북 닫고 눈 감는” 수준의 고강도 노동을 경험하며, 농촌 마을에서 로컬 셀러를 모아 플리마켓을 기획·운영하는 등 야외 노동·이동노동이 결합된 형태가 나타남(L01)

- 그럼에도, 기존 회사·공공기관에 비해 업무 자유도가 크고, 시간당 시급이 오른 느낌을 경험하며, 경제적 보상보다 일의 의미·자기효능감·네트워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업무 자유도는 확실히 크고, 시급 자체는 예전보다 오른 느낌이에요.(L02)

- 로컬에서 설계하는 일자리는 급여가 낮아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삶으로 이해되며, 20대 후반 이후 지역에 남는 청년들은 중장기 라이프스타일 상을 공유하는 경향이 나타남

급여가 높지는 않지만,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40~50대가 되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살고 싶다는 그림을 같이 그리면서 남는 친구들이 있어요.(Y02)

- 워라벨에 대해서도 ‘온·오프 완전 분리’보다는 “일상에 일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24시간의 흐름을 내가 설계하는 삶”을 선호하는 인식이 강하며, 바쁠 때는 매우 바쁘지만 한가할 때는 2주 이상 쉬기도 하는 ‘고강도-고자율성’ 혼합 구조로 설명됨(L01)
- 이러한 특성은 로컬 크리에이터 일자리가 전통적 ‘좋은 일자리’ 기준(임금·안정성)에서는 열악하지만, 삶의 질·관계망·지역 정체성 측면에서는 높은 만족을 주는 ‘라이프스타일 기반 좋은 일자리’로 기능함을 시사함

■ 공간·커뮤니티·정주 경험과 로컬 생태계

- 로컬 크리에이터 일자리는 ‘일터=생활공간=커뮤니티 플랫폼’이 겹쳐진 구조를 가지며, 코워킹스페이스·공유오피스·마을공간·골목상권이 청년의 일·주거·관계를 묶어내는 거점 역할을 수행함
- ○○사례에서 원도심은 “저평가 우량주 동네”,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문장을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며, 동네를 여행자의 시선으로 탐방하는 과정에서 ‘동네-나-일’이 연결되는 정주 경험이 형성됨(L01)
- 공유오피스 사례의 경우 느슨하지만, 나름 탄탄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음

같이 밥을 먹고, 매달 한 번씩 한 달을 돌아보는 어반컨퍼런스를 40회 이상 이어온 (규칙을 통해, 각자 다른 회사지만) 같은 회사 같은 식구처럼 느껴요.(Y02)

- 등근숲과 풍납문 사람들, 남문살길 등 골목 단위 상인·청년 조직은 골목의 이름과 이미지를 함께 만들어가며, 상권·마을 브랜드를 공동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 중임

젊은 상인 14개가 모여 골목지도·로고를 만들고, 골목의 이름과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L02)

- 이러한 커뮤니티 기반 일자리는, 전주 원도심·완산동 등 구도심을 ‘전주스러운 삶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로 재구성하며, 로컬에 남고 들어오는 청년들에게 정서적 안전망과 정주 동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전주스러운 삶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가 구도심이라고 생각합니다.(Y05)

■ 정책 인식·요구: 비기술창업·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의 재설계 필요

- 인터뷰·자문에서는 지역의 창업·보조금 정책이 F&B 중심, 단기성과 중심, ‘힙한 청년몰’ 이미지에 치우쳐 있으며, 비기술창업·콘텐츠 창업·커뮤니티 기획 등은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 비기술·콘텐츠·커뮤니티 창업은 지원이 훨씬 적어요.(L02)

- 특히 정책이 민간에서 이미 로컬로 인정받고 있는 공간·가게·기획자를 포괄하지 못하고, 청년몰 입점자 등 협소한 대상만 로컬 크리에이터로 규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됨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 힙해야 된다는 공식이 너무 별로예요.(Y01)

- 보조금 중심 사업은 ‘좋은 일이니까 돈을 조금 도와주는 시혜의 개념’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아, 청년·로컬 기획자의 노동을 정식 일로 인정하지 않고, 운영 인건비와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좋은 일이니까 조금 도와준다는 식으로 설계돼 있어서,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느낌이 없죠.(L02)

- 이에 대해 커뮤니티 활동과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일로 봐야 하고, 일을 하면 책임과 평가가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실험적 시도(경험·실패 허용)와 일자리화(임금·책임 부여)를 분리해 설계하는 투트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됨

커뮤니티 활동, 콘텐츠 만드는 것도 일로 봐야 해요... 실험·경험 단계랑, 책임과 임금을 주는 단계는 분리해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L02)

- ○○ 사례에서는 로컬 문화·콘텐츠 창업도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이므로, 기술창업과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투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로컬 문화·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투자 문화 확산, 복지포인트·육아휴직 등 복지 강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됨(L01)
- 한편, 지역 행정·사회적경제 조직이 청년노동을 값싼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계약·근로 조건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관행 속에서, 로컬 일자리 생태계 내부의 노동권 개선이 선행 과제로 제시됨

페이백, 성추행, 잡무 전가 같은 일들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는 것이 현실이죠.(Y05)

■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 일자리의 정책적 시사점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 일자리는 임금·고용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정하나, ① 도시·마을 문제 해결, ② 로컬 문화·콘텐츠 생산, ③ 커뮤니티 형성, ④ 지역 브랜드 구축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결합된 ‘사회적 창업·기획형 일자리’로서 의미를 가짐
- 인터뷰에서는 “바람직한 일자리는 그 사람이 가진 지향점을 해소할 수 있고, 좋은 동료·좋은 프로젝트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정의와 함께,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과 본인의 생계가 동시에 유지되는 구조, 공익성과 소득(“돈도 많이 벌어야 한다”)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제시됨(L01)
- 전북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는, ① 비기술·콘텐츠·커뮤니티 창업에 대한 정의와 범주 정립, ② 실험·경험 지원과 일자리화(임금·지위) 지원의 단계적 구조 설계, ③ 로컬 공간·커뮤니티 운영 인력의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④ 공정한 노동조건·거버넌스 기준 마련이 핵심 과제로 도출됨
- 전북형 로컬 청년 일자리는 “서울적인 일자리를 전주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완산·농촌·소도시 등 각 공간의 특성을 살린 라이프스타일, 관계 중심의 일·삶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장기적 롤모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됨(Y02)

-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힙한 소수 청년’의 이벤트 사업이 아니라, 농업·산단·플랫폼·공공영역 등 다른 청년 일자리와 연결되어, 복지포인트·지역화폐·협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바.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청년 일자리 특성

■ 플랫폼 노동의 횡단적 성격

-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배달·온라인 강의·디지털 프리랜서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프리랜서군을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플랫폼이 특정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농업·로컬 크리에이터·예술·서비스 등 여러 분야를 가로지르는 공통 인프라로 작동함
- 농업·귀농·농창업 청년들은 대부분 스마트스토어·SNS·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농산물·가공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로컬 크리에이터 역시 인스타그램·유튜브·라이브커머스·숙박·예약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고객과 만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따라서 플랫폼·프리랜서군은 ‘플랫폼만으로 생계·경력을 설계하는 청년’에 초점을 둔 분석일 뿐이며, 앞서 살펴본 농업·로컬·산단 영역에서도 플랫폼이 소득·마케팅·브랜드·부업의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대상 개요 및 특성

- 플랫폼·프리랜서군 심층면접은 지역에서 배달대행업체 지사를 운영하며 지역 배달라이더 노동시장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주, 전북을 거점으로 SNS·숏폼 강의를 수행하는 프리랜서 강사이자 강사협회 운영자, 전북 ○○에서 N잡 프리랜서(강사·마케터·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청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함
- 자문회의에서는 지역 플랫폼 노동자 지원 담당 공무원과 전북 고용행정·지역 일자리

사업을 장기간 담당해 온 실무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달·대리운전 등 지역 기반 이동노동과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함께 조망하는 관점을 포함함

-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달대행, 교육·강의, 마케팅·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 기반 일감을 중심으로 ‘사업자이자 노동자’에 가까운 경계적 위치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관계와 다른 방식의 소득·노동·사회보장 구조를 경험하고 있음
- 플랫폼·프리랜서 일자리는 공식 통계상 ‘정규직 취업’으로 잘 포착되지 않지만, 전주 기준 배달라이더만 수백~1천 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등 이미 전북 청년·청년 인근 세대의 중요한 생계·보완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입직·경로: 임금노동·경력단절에서 플랫폼·프리랜서로의 전환

- 배달대행 지사 운영자의 경우 대학 비전임 계약직·버스회사 등 저임금·승진 정체를 경험한 뒤 편의점 자영업을 거쳐 배달 아르바이트에 진입했고, 이후 소규모 배달업에서 플랫폼 대행사 지사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침

버스회사에서 부장이 240만원 받는 구조를 보고 ‘답이 없다’고 느꼈어요... 편의점보다 남는 정사를 찾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지금은 지사까지 맡게 됐어요.(P01)

- 한 프리랜서 강사는 결혼 전 자영업을 운영하다 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을 겪은 뒤, 솜품 공모전 수상 이력을 계기로 평생학습관 강사로 비교적 ‘운 좋게’ 진입했으며, 이후 강사 커뮤니티·협회 운영자로 역할을 확장함
- 또 다른 프리랜서 강사·크리에이터는 대학 시절 블로그로 직장인 수준 수익을 경험한 뒤 마케팅 회사에 취업했다가, 비슷한 급여에 더 높은 노동강도에 대한 불만으로 약 4개월 만에 퇴사하고, 블로그·강의·마케팅 대행을 결합한 N잡 프리랜서 경로를 선택함
- 자문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진입이 “좋아서라기보다, 다른 선택지에서 밀려나거나, 일단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제시되며, 특히 부채·신용제한 등으로 정규직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중년에게 특정 분야의 플랫폼 노동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함

(배달라이더는) 대부분 빗이 있어서 시작해요. 통장 막혀 있거나, 정상적인 월급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P01)

■ 소득 구조·노동조건·자율성

- 배달라이더의 경우 전주 기준 평균 연 4,000만 원 안팎, “주 5일 기준 월 300~400은 거의 한다”고 체감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주 7일 일하면 월 700~800만 원도 가능하다고 인식함

월 250 받고 공장 다니느니 눈치 안 보고 300 벌겠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말로는 12시간이지만 피크 타임 위주로 뛰고, 콜 없을 때는 쉬어요.(P01)

- 소득은 점심·저녁 피크 타임에 집중되며, 비피크 시간에는 소득이 거의 없어 장시간 대기·이동 노동이 포함되는 구조임. 출퇴근·근무시간·일하는 구역을 스스로 정하는 ‘자율성’이 가장 큰 매력 요인으로 작동함
- 프리랜서 강사는 공공기관 기준 시간당 10만 원 안팎, 기업 강의는 30만~1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인식하며, 주 3~4회 강의 기준 월 500만 원 내외의 소득을 형성하는 사례가 확인됨
- 다만 강의 준비·커리큘럼 개발·신규 도구 학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표면적인 ‘시간당 강의료’와 실제 노동시간을 고려한 시급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함
- 이들은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자영업자이자 노동자’로 인식하며, 일감 규모·일정·휴일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규직과 다른 높은 자율성을 경험하면서도, 소득 변동성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동시에 안고 있음

법적으로는 대표지만, 사실상 강사 노동자에 가깝다고 느끼죠.(P03)

■ 위험·불안정성과 부채·젠더 요인

- 배달라이더는 교통사고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리스 상품 형태의 보험료를 개인이 부담함에도 산재보상·고용보험에 대한 신뢰가 낮은 편임

한 달 200만원 별다가 다치면 (보험에서) 하루 1만 5천 원 주는 수준이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죠.(P01)

- 과거 배달플랫폼 본사가 수익을 가상코인으로 전환해 출금이 막히는 ‘떡튀’ 경험은, 플랫폼 사업 구조 자체의 불투명성과 규제 부재가 라이더·지사 모두에게 큰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라이더 집단은 20~30대 청년과 40대 이상이 절반씩 섞여 있고, 상당수가 빚·신용문제·기초생활수급 등으로 인해 월급제 일자리 접근이 어렵다고 인식되며, 건당 수입이 곧바로 현금화되는 구조가 부채 상환과 즉시소비를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작동함
- 프리랜서 강사의 경우, 에이전시·민간자격증 구조에서 강의료의 50~70%까지 수수료를 떼이거나, 수강료 수백만 원짜리 자격증을 먼저 구매해야 강의 기회를 주는 식의 불공정·불투명 관행을 경험함

시간당 10만 원이 시장가인데, 실제로는 3만원 받는 느낌이거나... 300만원 자격증을 먼저 사야 강의를 한 번 출까 말까 하는 구조도 있거든요.(P02)

- 강사가 직접 개발한 PPT·워크시트에 대한 저작권·원고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료비를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을 에이전시가 가져가는 사례, 기업 강의 대가가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 등, 노동권·계약권 측면에서의 취약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 특히 자녀돌봄 책임이 있는 여성 프리랜서의 경우, 수익성이 더 높은 야간 라이브커머스·기업 강의를 포기하고 낮 시간대 지역 강의를 중심으로 일감을 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플랫폼·프리랜서 일자리가 한편으로는 ‘시간 자율성을 통한 돌봄 양립 수단’이지만, 동시에 저소득·저보호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함

■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에 대한 인식·정책 요구

- 배달플랫폼 측면에서 인터뷰이는 배달시장을 “이미 대기업 플랫폼이 장악했고, 기존 대행업체 구조는 길어야 1~2년이면 끝난다”고 진단하면서도, 완전 공영화 대신 최소한 플랫폼 ‘떡튀’·단가 덤핑을 막는 규제·감독, 재난 시 공공 보조를 통한 단가 상향 등 공공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함
- 자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없애야 할 일자리’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현실로 인정하고, ① 이동노동자(배달·대리·택배 등)에 대해서는 쉼터·노무·건강·금융 상담, 안전·서비스 교육, 고용·산재 실질 적용을 강화하고, ② 온라인 기반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네트워크·창업 연계 중심의 ‘성장형 지원’으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 필요성이 제기됨
- 프리랜서 강사 인터뷰에서는 민간 플랫폼의 수수료·계약 구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표준 강사 계약서(수수료 상한, 저작권·IP, 재료비 정산 방식, 지급 시기 등) 마련, 공공이 제시하는 수수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강조됨
- 강의·플랫폼 일감 정보가 관공서 홈페이지, 밴드, 개인 블로그 등으로 파편화되어 “공고를 찾는 것 자체가 노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프리랜서·강사 프로필·포트폴리오, 공공·준공공 강의 공고, 계약조건을 한데 모은 공공 플랫폼 구축 요구가 제기됨
- 프리랜서·플랫폼 노동공제회 사례에서 보듯, 건강검진·소액 적금 지원·교육비 할인·역량강화 교육 등을 결합한 ‘준-노동자형 사회안전망’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전북에서도 전담 센터·공제회·법률·노무 상담 지원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됨

■ 플랫폼·프리랜서 청년 일자리의 정책적 시사점

-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청년 일자리는 임금·고용안정·사회보험 측면에서 ‘좋은 일자리’ 지표가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지만, 청년·경력단절 여성·부채를 가진 중장년에게는 시간 자율성, 즉시 소득, 지역 제한이 적은 접근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생계·보완 소득원으로 기능함

-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을 단순히 ‘불안정 일자리’로 배제하기보다, ① 최소한의 안전망·공정한 거래 조건(단가 기준, 수수료 상한, 표준계약)을 확보하고, ② 부채·신용·건강·관계망 문제를 함께 다루는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덜 위험하고, 덜 고립된 일자리”로 만드는 방향이 필요함
- 동시에 플랫폼·프리랜서 일자리가 중장기적으로 다른 경력·창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콘텐츠 기획·노무·세무·재테크 교육을 결합한 경력전환·업그레이드 트랙을 설계하고, 청년이 스스로 정규직만이 유일한 경로가 아닌 다양한 경력 경로를 상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마지막으로,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은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와 마찬가지로 “전북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북형 청년 일자리 논의에서 위험 관리와 자율성 보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핵심 영역으로 위치 지을 수 있음

2.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진단

가. 청년 일자리 특성 분석 틀과 진단 지표

1) 분석 관점

- 제4장 1절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청년 일자리의 구조·경험·전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다차원 분석 틀 구성
- 산업별·고용형태별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7개 축을 중심으로 산업군별 특성 진단

① 고용형태·소득 구조

- 임금노동(정규·비정규) / 자영업·창업 / 플랫폼·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구분
- 기본급·성과급·매출 기반 수입 여부, 가족경영 여부, 사업자·노동자 경계 등 소득 구조 특성

② 임금·소득 수준 및 안정성

- 월·연 단위 소득 수준, 최저임금 대비 수준, 생활임금 충족 여부
- 계절·경기·물량에 따른 변동성 정도, 고정급·변동급 비중, 소득 쇼크 가능성

③ 노동시간·노동강도·자율성

- 일일·주당 노동시간, 야간·주말 노동 여부, 성수기·비수기 편차
- 작업환경(실내·실외·위험노동 등)과 노동 강도, 휴게·휴가 사용 가능성
- 출퇴근·근무시간·업무량·업무 내용에 대한 본인의 통제력 수준(자율성)

④ 정주성·지역 정체성

- 일자리와 주거지의 공간적 일치 여부(직주근접 / 통근형 구조)
- 지역사회·마을·골목·원도심 등과의 관계망, 지역 정체성 형성 정도
- 가족동반 정주 가능성, 장기거주·이주의향, “이곳에서 살아도 되겠다”는 이미지 형성 정도

⑤ 플랫폼·디지털 활용 정도

- 스마트스토어·SNS·유튜브·라이브커머스·온라인 예약·배달앱 등 플랫폼 활용 여부
- 플랫폼이 주요 소득원 / 보조 소득원 / 마케팅 채널로 작동하는 정도
- 플랫폼 종속·수수료·알고리즘 리스크 등 디지털 구조에 따른 위험 노출 정도

⑥ 사회보장·노동권 보장 수준

- 4대보험 적용 여부,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실질 이용 가능성
- 근로계약서·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수당·수수료·저작권·재료비 등 계약조건의 투명성
- 부당 대우·페이백·성희롱·잡무 전가 등 노동권 침해 경험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조직 유무

⑦ 성장·경력전환 가능성

- 직무 내 숙련 축적과 임금·지위 상승 경로(승진·경력계단) 존재 여부
- 다른 산업·직종·창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스킬전이 가능성, 네트워크, 포트폴리오 축적)
- 청년기 이후(30·40대 이후)의 지속가능성, 노후·가족 형성 이후에도 유지 가능한 경력 경로 여부
- 위 7개 지표를 중심으로,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네 산업군을 상대적으로 비교·진단하고,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설계를 위한 핵심 취약지점·강점 도출을 목표로 함

나. 산업군별 청년 일자리 특성 진단 매트릭스

■ 고용형태·소득·노동시간·자율성 비교

[표 4-5] 산업군별 고용형태·소득·노동시장·자율성 비교

산업군	고용형태·소득 구조	임금·소득 수준·안정성	노동시간·노동강도·자율성
농업·귀농· 농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동업 중심의 자영·창업형 구조 · 토지·시설·가축·스마트팜 등에 투자한 사업자 지위 · 매출·시장가격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3~5년은 저소득·무소득 가능성이 큼 · 이후 연 6천만~1억 원 수준 사례가 있으나 재해·가격 변동에 따라 소득 변동성이 큼 · 장기 부채 상환 부담이 상시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수기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집중되는 편 · 농번기·가공·체험·온라인 판매가 겹치는 복합 노동 구조 · 작물·축산 생육 주기에 생활 리듬이 종속되는 경향
산단· 중소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 제조업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노동 구조 · 생산직·기능직·관리직으로 역할이 구분되고, 월급제·연봉제 중심의 단순한 소득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임은 타 지역과 유사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 · 상여·수당 포함 시 연 3천 후반~4천 중반 수준 사례가 많음 · 고정급 비중이 높아 월별 소득 안정성은 비교적 높은 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교대와 잔업·특근 등 장시간·야간 노동 비중이 큼 · 안전·소음·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으며, 출퇴근·휴가 사용 자율성은 낮은 편 · 다만 근무 패턴의 예측 가능성은 높은 구조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법인·개인사업자·협동조합이 혼재한 창업·자영 구조 · 공간 운영, 행사·옹역, 강의·콘텐츠 수입이 결합된 프로젝트형 소득 · 대표·기획자·프리랜서 역할이 동시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소득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중위임금 사이에 분포 · 시즌·프로젝트 유무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고, 4분기 예산 집종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인건비·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대표가 저임금·무급에 가까운 경우도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축제·플리마켓 시즌에 야간·주말 노동이 집중 · 일·생활의 경계가 흐릿하고 상시 대기·기획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대신 프로젝트와 일정에 대한 재량이 커, 고강도 이면서도 고자율성 구조를 보임

산업군	고용형태·소득 구조	임금·소득 수준·안정성	노동시간·노동강도·자율성
플랫폼·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대리 등은 플랫폼에 종속된 개인사업자 형태 · 온라인 강사·크리에이터·디지털 마케터는 프리랜서·사업자 지위를 가지며, 건당·시간당 수수료·매출에 따라 소득이 결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5일 기준 월 300만~400만 원 수준 · 과로 시 600만 원 이상도 가능하나 변동성이 큼 · 라이더의 경우 사고·날씨·수요·플랫폼 정책에 따라 즉시 소득이 줄어들 위험이 큼 · 강사·크리에이터는 일감 유무에 따라 평균 소득 편차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라이더) 피크 타임에 노동이 집중되고 비피크 타임에는 대기·이동 시간이 많음 · (배달라이더) 야간·주말 노동 비율이 높지만, 스스로 노동시간·일감을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은 매우 큼 · 과로·자기착취와 생활 리듬 불규칙성이 주요 위험 요인

출처: 저자작성

■ 정주성·플랫폼 활용·사회보장·경력전환 비교

[표 4-6] 산업군별 정주성·플랫폼 활용·사회보장·경력전환 비교

산업군	정주성·지역 정체성	플랫폼·디지털 활용	사회보장·노동권	성장·경력전환 가능성·위험/부채
농업·귀농· 농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으로 농장과 주거지가 인접한 농촌·소도시 정주형 구조를 형성함 · 산업과 유사하게 직장은 농촌, 주거는 인근 도시의 경우도 볼 수 있음 · 가족 단위 이주·생활이 많고, 마을·농민조직과의 관계망이 강한 편임 · 지역에 뿌리내린 삶과 일의 통합 경향이 두드러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스토어·SNS·온라인 직거래를 통한 판로 개척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 스마트팜·재배 데이터 관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 · 플랫폼은 주로 판매·홍보 채널로 작동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중심으로 가입하고, 산재·고용보험은 사각지대가 많음 · 농업재해보험·정책자금 등 제한적인 안전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시설·대출 규모에 따라 부채 위험이 크며 실패 시 회복이 어려운 구조임 · 반면 가공·관광·교육 결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경영체로 성장하거나 지역 농업리더·멘토로 전환할 가능성도 존재함
산단· 중소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은 산단, 주거는 인근 도시 아파트에 두는 통근형 정주 구조가 일반적임 · 결혼·자녀 교육을 고려한 도시 생활 선호가 강하고, 지역사회 참여는 제한적인 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업에서는 ERP·스마트팩토리 등 내부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 활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개인 차원에서 유튜브·온라인 강의·N잡 등 부업용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일부 존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기준으로 4대보험·퇴직금·연차 등 법정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됨 · 다만 하청·비정규·파견의 경우 계약·안전·휴식 등에서 노동권 침해 위험이 상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련 축적에 따른 기능·관리직 승진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 임금·직급 상승 한계가 존재함 · 구조조정·자동화·외주화 리스크에 노출되며, 타 산업으로 전환할 때 경력 인정의 한계가 나타남

산업군	정주성·지역 정체성	플랫폼·디지털 활용	사회보장·노동권	성장·경력전환 가능성·위험/부채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도심·골목·마을이 일터이자 생활공간·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작동함 구도심을 '○○스러운 삶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로 재해석하며, 정서적 정주성과 지역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스타그램·유튜브·블로그·온라인 예약·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필수적으로 활용함 로컬 매거진·영상·브랜딩 작업을 통해 지역 자체가 미디어가 되는 구조를 지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스태프의 4대보험 적용은 제한적이며, 프로젝트·프리랜서 계약에서 수수료·지급 조건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보조금 사업에서의 시혜적 인식·페이백·성폭력·잡무 전가 등 노동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문화·콘텐츠 경험이 축적되며 도시정책·상권관리·로컬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함 그러나 소득 불안·번아웃·조직 갈등 위험이 크고, 개인·팀 해체 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플랫폼·프리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사업장에 묶이지 않고 도시 전역·온라인을 무대로 이동·분산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함 지역 커뮤니티와의 결속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정주보다는 당장의 소득·시간 자율성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달앱·중개플랫폼·온라인 강의·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알고리즘·평점·리뷰·수수료 체계에 따라 일감과 소득이 좌우되는 구조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대보험 가입은 선택적·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며, 산재·고용보험 보호 수준이 매우 낮음 표준계약 부재와 수수료·대금지급 지연·저작권 미보장 등 불공정 관행 위험이 상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적으로는 부채 상환·생계 보완 수단이 되지만, 사고·건강 문제나 플랫폼 정책 변화 시 즉각적 소득 상실 위험이 큼 디지털 역량이 높을수록 다른 프리랜서·창업·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될 가능성도 병존함

출처: 저자작성

다. 청년 일자리 4유형(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의 공통점과 차이

■ 고용형태와 소득 구조의 차이

- 농업·귀농·농창업 청년은 고용관계라기보다 ‘자본집약적 1인(또는 가족) 창업자’에 가깝고, 산단 청년은 정규직·비정규직 고용관계 안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급여·4대보험을 확보하되 교대·장시간 노동과 조직문화의 제약이 큰 구조임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는 공간 운영·용역·행사·강의 등을 결합한 프로젝트형 수입 구조를 가지며, 플랫폼·프리랜서 청년은 배달·디지털 강의·콘텐츠 등 건당·시간당 수입을 기반으로 한 변동성이 높은 소득 구조를 형성함
- 즉, 네 영역은 “임금 노동(산단) - 자영업·창업(농업·로컬) - 플랫폼·프리랜서(경제적 자영업)”라는 스펙트럼 위에 위치하며,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험과 자율성, 소득 변동성을 조합하고 있음

■ 자율성과 안정성의 조합

- 산단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임금·복지·고용안정성이 높지만, 공정·라인·사무실이라는 물리적·조직적 구속, 승진·평가구조, 교대근무 등으로 인해 “시간과 삶의 통제권”을 낮게 체감하는 특징이 있음
- 반대로 농업·로컬·플랫폼 영역은 시간·장소·업무 구성 측면의 자율성이 크고, 본인이 기획·설계한 만큼 일한다는 만족이 높지만, 소득 변동성과 부채·사고·플랫폼 구조에 따른 리스크를 개인이 떠안는 비중이 큼
- 네 유형 모두에서 “조금 덜 벌더라도, 내가 설계한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노동권은 필요하다”는 요구가 동시에 확인되며, 전북형 청년 일자리는 자율성과 안정성의 새로운 조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로 수렴됨

■ 정주성과 지역성의 양상

- 농업·귀농·농창업은 토지·시설·가축 등 고정자산 투자와 가족단위 생활이 결합되면서, 정주성과 지역 결속이 가장 높은 일자리 유형으로 나타남
- 산단 청년은 직장은 산업단지에, 생활은 전주·익산·김제 등 도시 아파트에 두는 ‘직장-주거 분리형’이 주를 이루며, 통근 교통·주거비·여가공간의 입지에 따라 정주 의사가 크게 달라짐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와 플랫폼·프리랜서의 경우, 도시(전주·익산 등) 구도심과 동네 커뮤니티가 일과 삶, 관계가 겹쳐지는 거점으로 작동하며,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미지가 정주 의지와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전북 청년 일자리가 단순히 ‘어디에 취업했는가’를 넘어,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정주 모델)’와 함께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함

■ 산업군을 가로지르는 플랫폼·디지털 노동의 중첩

- 산업군별로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을 구분해 분석했지만, 실제 청년들의 일 경험에서는 이 네 영역이 분리되기보다 플랫폼·디지털 노동을 매개로 서로 겹쳐지는 양상이 도드라짐
- 농업·귀농·농창업 청년은 스마트스토어·SNS·콘텐츠 제작을 통해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오프라인 공간·골목상권 운영과 동시에 인스타그램·유튜브·라이브커머스 등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모으며, 산단·사무직 청년 또한 부업·퇴사 이후 경로로 유튜브·온라인 강의·디지털 프리랜서를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남
- 플랫폼 노동은 이렇게 주직업·부업·마케팅 채널·커리어 전환 경로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생태계에 스며들어 있으며,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도 특정 산업군의 ‘플랫폼 일자리’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플랫폼을 활용하는 청년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네 유형이 보여주는 ‘전북형 청년 일자리’의 방향

- 농업·산단·로컬·플랫폼 네 유형을 종합하면, 전북 청년들은 ① 임금·고용안정, ② 자율성·가치·관계, ③ 정주·삶의 방식, ④ 플랫폼·디지털 역량이라는 네 축 사이에서 각자 다른 조합을 선택하며 일하고 있음
-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규직·대기업·공공기관’ 중심 좋은 일자리 상만으로는 이 다양한 경로를 포착하기 어렵고, 동시에 농업·로컬·플랫폼 영역의 높은 자율성과 의미에도 불구하고, 리스크와 불안정성을 개인이 과도하게 감당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됨
-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의 지향·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자율성”과 “최소한의 소득·사회보험·노동권을 보장하는 안전망”을 결합하여, 농업·산단·로컬·플랫폼 각 영역에서 청년이 덜 위험하게, 덜 고립된 상태로 자신의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음

라. 소결: 전북형 청년 일자리 생태계와 정책 대상의 재구성

■ 정규직/비정규직 이분법을 넘어선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지형

- 본 연구의 심층면접·특성 진단 결과, 전북 청년 일자리는 전통적으로 상정해 온 정규직/비정규직 이분법으로는 포착되기 어려운,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창업·프리랜서가 뒤섞인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귀농·농창업,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은 형식상 자영업·창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부채·위험을 동반하는 ‘고위험 자기고용’에 가깝고, 플랫폼·프리랜서 영역은 사업자 지위를 가지면서도 노동권·사회보장 측면에서는 노동자에 가까운 경계적 일자리로 나타남
- 산단·중소제조업 정규직 역시 단일한 안정 일자리가 아니라, 교대·장시간 노동·위험노동·승진 정체 등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다른 산업·지역으로의 이행 가능성과 결합된 상대적 안정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전북형 청년 일자리 논의에서, '정규직=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자영업·플랫폼=나쁜 일자리'라는 이분법을 넘어, 고용형태·소득구조·자율성·정주성·플랫폼 활용·사회보장·경력전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다차원적 생태계 관점이 필요함을 시사함

■ 하나의 '동일 청년'이 아닌, 상이한 청년 집단·범주에 대한 인식 전환

- 분석 결과, 전북의 청년들은 동일한 '청년' 범주가 아니라, ① 농업·귀농·농창업 청년, ② 산단·제조업 청년,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청년, ④ 플랫폼·프리랜서 청년 등 서로 다른 일자리 구조·위험·지향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
- 농업 청년은 토지·시설 투자와 가족 정주를 전제로 한 장기 경로를 고민하는 반면, 산단 청년은 산단·도시 간 통근 구조 속에서 주거·여가·승진·이직을 함께 고려하고,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은 구도심·골목을 매개로 라이프스타일·관계·공익성을 중시하며, 플랫폼·프리랜서 청년은 부채·시간 자율성·즉시 소득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등 생애전략과 좋은 일자의 기준 자체가 상이하게 나타남
- 그럼에도 현재 청년 정책은 "만 15~39세"와 같이 연령을 중심으로 청년을 하나의 단일 집단으로 상정하거나, 취업·창업·주거·복지 등의 기능별 사업으로 쪼개어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 각 집단이 처한 구체적 맥락·위험 구조·경력 경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 본 연구는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하나의 동일 청년'이 아닌, 서로 다른 일자리 유형·생애전략을 가진 청년 범주별 접근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며, 향후 정책 설계에서 산업군·고용형태·정주 형태를 고려한 세분화된 대상 정의와 지원 전략이 요구됨을 시사함

■ 산업군별 맞춤 지원과 공통 기반 정책의 이중 구조 필요성

- 네 산업군에 대한 진단 결과, 위험 요인과 정책 수요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반 역시 존재함
- 농업·귀농·농창업: 자본·부채·재난 리스크 관리, 예비농·창업·정착 단계별 교육·멘토링, 가족·돌봄 지원 필요성

- 산단·중소제조업: 안전·보건·교대제 개선, 숙련·경력 단계 인정, 산단·도시 연계 정주·교통·복지 패키지 필요성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비기술·콘텐츠·커뮤니티 창업 인정,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공정한 거버넌스·노동조건 기준 필요성
- 플랫폼·프리랜서: 표준계약·수수료 상한·저작권 보호, 공제회·안전망·채무·건강 지원, 경력전환·업그레이드 경로 설계 필요성
- 동시에, 네 영역 모두에서 플랫폼 활용·사회보험 사각지대·정주와 삶의 질·정신건강·부채 문제가 공통 과제로 드러났으며, 이는 산업군별 맞춤 정책 위에, 기본 소득·사회보장, 노동권·표준계약, 정주·주거·교통, 플랫폼·디지털 역량을 가로지르는 공통 기반 정책층을 설계해야 함을 의미함

■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한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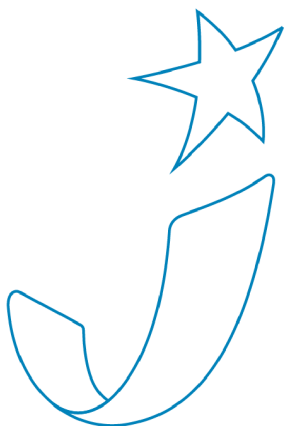
- 종합하면,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규직 일자리 몇 개를 더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산단·로컬·플랫폼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청년이 자신의 지향과 삶의 방식을 살리면서도, 위험과 불안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로 재구성되어야 함
- 이를 위해, ① 산업군·일자리 유형별로 청년을 세분화하여 대상·지원을 설계하는 맞춤형 정책 축과, ② 네 영역을 가로지르는 사회안전망·노동권·정주·플랫폼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보편적 기반 정책 축을 결합하는 이중 구조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 청년 일자리 현실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네 유형을 동시에 고려하는 전북형 청년 일자리 생태계 모델 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제5장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유형과 정책 실행 전략

1. 산업군별 청년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일자리 유형화
2. 산업군별 정책 패키지와 전북형 시범사업 설계
3. 정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및 단계별 실행 전략



제5장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유형과 정책 실행 전략

1. 산업군별 청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모델 유형화

1) 전북형 청년 일자리 유형화의 기본 방향

- 제3장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와 제4장 심층면접 결과를 종합할 때, 전북 청년 일자리의 핵심 특징은 ① 전통적 안정형 공공·정규직에 대한 선호, ② 농업·산단·로컬·플랫폼 등 비전형 영역에서의 높은 비중과 질적 취약성, ③ 정주·삶의 질과 결합된 라이프스타일형 일자리 수요 등으로 정리됨
- 본 장에서는 농업·산단·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4개 산업군을 고용형태·정주성·자율성·사회보장·경력전환 가능성이라는 공통 분석 틀로 재구성하고, 전북형 청년 일자리 유형을 도출함
- 전북 청년의 일자리·정주 경험을 ① 일자리의 질(임금·고용안정·근로시간), ② 삶의 질(건강·관계·정서), ③ 정주 기반(주거·교통·지역자원) 세 축으로 구조화한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모델 제시
- 세 축의 조합에 따라 청년의 일·삶·정주 경로가 ① 농업·귀농·농창업 기반 ‘정주형 고위험 창업 일자리’, ② 산단·중소제조업 기반 ‘숙련·안전 보장형 임금 일자리’,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기반 ‘사회적 창업·로컬 생태계 일자리’, ④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자율·전환형 경계 일자리’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 구조
- 전북형 청년 일자리 유형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을 넘어, ① 자영·창업형, ② 임금·숙련형, ③ 사회적 창업·로컬형, ④ 플랫폼·프리랜서형 등 청년의 일·삶·정주 방식이 결합된 유형으로 정의할 필요성
- 이를 통해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일하며, 어디에 정주하고, 어떤 위험·안전망 속에 놓여 있는 청년인가”를 정책 설계 단위로 삼는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유형 체계 구축 지향

- 네 가지 유형별로 정주형 고위험 창업 안전망 패키지, 지역근로가점 누적제, 청년농업 벤처 플랫폼(농수산업 샌드박스) 등 전복형 정책 모듈을 결합한 시범사업 설계 지향

2) 유형 ① 농업·귀농·농창업 기반 ‘정주형 고위험 창업 일자리’

- 토지·시설·스마트팜 등에 대한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수이며, 장기 부채와 기후·가격 변동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고위험 자영·창업형 일자리 유형
- 농촌·소도시 정착, 가족 단위 이주·양육, 마을공동체 참여 등 정주 중심 삶의 방식과 강하게 결합된 일자리 특성
- 생산·가공·브랜드·온라인 직판·체험·관광·교육을 결합한 다기능 경영체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재해·가격 폭락·건강 문제 시 회복이 어려운 구조
- 정책적으로는 예비농·창업·정착 단계별 진입 구조, 부채·재난 리스크 관리, 농촌 정주·돌봄·건강 지원을 결합한 정주형 창업 안전망 패키지 설계 필요

■ 유형 ①에 대한 정책 인식과 과제

- 현재 청년농·스마트팜 정책은 창업자금·임대형 스마트팜·경영바우처 등 물적 지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단일 품목·생산 중심·규모화를 전제로 한 전형적 ‘전업농 모델’에 청년을 편입시키는 관점이 강한 한계 존재
- 현장 청년들은 유산양, 반려동물용 농축산물, 농업+콘텐츠+교육+관광 결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하는 창업가로 스스로를 상정하며, 농업을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일을 엮어 삶을 설계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음
- 청년 정책 관점에서는 농업을 단순히 ‘농촌에 청년을 채워 넣는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업종·직무·라이프스타일을 실험하는 고위험 창업 분야로 재정의하고, 기존 농민 양성 틀에 끼워 맞추기보다 청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조합·모델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성

- 전북이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얼마를 빌려줄 수 있는가”뿐 아니라, 특수 품목·소규모 실험·비정형 경영모델에 대한 시범·맞춤 지원, 실패 허용, 관광·콘텐츠·돌봄 등 다른 산업과의 교차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상상력 있는 정책 포트폴리오 마련 필요
- 농수산업 분야의 청년 고위험 창업에 대해서는 ‘청년농업 벤처 플랫폼(농수산업 샌드박스)’과 같은 실증·보육·공간 인프라를 결합해, 특수 품목·스마트팜·스마트 아쿠아·스마트 축사 등 고위험 실험을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전북형 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

3) 유형 ② 산단·중소제조업 기반 ‘숙련·안전 보장형 임금 일자리’

- 월급제·연봉제·4대보험·퇴직금 등 형식적 안정성이 높은 임금노동형 일자리이나, 2·3 교대·잔업·특근·안전위험 등 구조적 한계를 동반하는 유형
- 직장은 산단, 생활은 인근 도시 아파트에 두는 통근형 정주 패턴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결혼·자녀 교육 등 이유로 도시 생활 선호가 강한 집단이 다수인 일자리 유형
- 숙련 축적에 따른 기능·관리직 전환 가능성은 존재하나, 장기 임금상승·직급상승의 한계, 자동화·외주화에 따른 중장기 고용불안으로 인해 “장기 경력 경로”로 인식되기 어려운 구조
- 정책적으로는 산단·도 공동 숙련인증·임금체계 연계, 안전·보건·교대제 개선, 산단·도시 교통·주거·복지 연계를 결합한 숙련·안전·생활친화형 산단 패키지 도입 필요성

■ 유형 ②에 대한 정책 인식과 과제

- 지금까지 산단 청년 정책은 청년채용 장려금·근로장려금 등 단기 고용 확대와 임금보조에 치우쳐, 장기근속·숙련 축적에 대한 보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통한 질적 향상 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
- 심층면접에서는 산단 일자리가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40~50대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일자리”로 인식되고, 몇 년 경력을 쌓은 뒤 다른 지역·다른 업종·플랫폼 노동으로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 확인됨

- 정책적으로는 산단을 값싼 청년 인력 공급지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연령을 불문하고 한 사업장·한 지역 산업에서 오래 버틴 노동자를 인정하는 장기 경력 경로로 재구성하고, 숙련인증·임금체계·교육·승급 구조를 일관되게 설계할 필요성
- ‘지역근로가점 누적제(정주 ‘갈고리’ 크레딧·복지포인트 통합형)’는 청년만을 별도로 지원하기보다, 근속기간·숙련도·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임금·복지·교육·주거 인센티브와 연계함으로써 “같은 산업·같은 지역에서 오래 일할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장치로 설계할 수 있음
- 산단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근·정주 패키지(셔틀+월 소멸성 교통바우처+근로자형 기숙사·청년주거), ‘산단 상시 현장케어(노동권·심리·생활 컨시어지 묶음 서비스)’ 등을 결합할 경우, 임금·숙련 인정·작업환경·생활기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숙련·안전·정주 보장형 산단 정책 패키지로 확장될 가능성

4) 유형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기반 ‘사회적 창업·로컬 생태계 일자리’

- 로컬 매거진·편집숍·카페·공유공간·축제·도시재생 용역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결합한 프로젝트형·포트폴리오형 일자리 유형
- 원도심·골목·마을공간이 일터이자 생활공간·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구도심을 ‘전주스러운 삶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로 재구성하는 역할 수행
- 소득·고용안정성·사회보험 측면에서는 취약하나, 도시·마을 문제 해결, 로컬 문화·콘텐츠 생산, 커뮤니티 형성 등 공익성과 라이프스타일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 특성
- 정책적으로는 비기술·콘텐츠·커뮤니티 창업을 독립된 정책 범주로 인정하고,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공정한 거버넌스·노동권 기준을 결합한 로컬 커뮤니티·콘텐츠 일자리 패키지 구축 필요

■ 유형 ③에 대한 정책 인식과 과제

- 현행 로컬 크리에이터·청년창업 정책은 F&B·청년몰·단기 이벤트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강하고, 로컬 콘텐츠·커뮤니티 기획·공간 운영과 같은 비가시적·과정 중심 노동은 지원과 인정에서 소외되는 한계
- 보조금 사업 또한 “좋은 일을 하니 조금 도와주는” 시혜적 관점이 강해, 인건비·운영비·상근 인력을 정식 일자리로 설계하기보다, 청년 기획자의 열정·자기착취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는 위험 존재
- 전북형 로컬 크리에이터 정책은 비기술·콘텐츠·커뮤니티 창업을 독립된 정책 영역으로 인정하고,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표준계약·노동권 보호를 결합한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
- 구도심·읍면소재지를 “살기 위해 남는 곳”이 아니라 “전주스러운 삶과 기억이 쌓이는 장소”로 만드는 로컬 생태계를, 청년 일자리·정주 정책의 핵심 축으로 격상할 필요성

5) 유형 ④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자율·전환형 경계 일자리’

- 배달·모빌리티 플랫폼 노동, 온라인 강의·디지털 마케팅·콘텐츠 제작 등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N잡형 일자리 유형
- 시간·장소·일감 선택 자율성이 크고 단기 소득 확대가 가능하지만, 알고리즘·수수료·사고·건강 문제에 직접 노출되는 고위험 경계 일자리
- 단기적으로는 부채 상환·생계 보완 수단,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역량·콘텐츠 경험을 쌓는 경로로 기능하나, 사회보험·표준계약·경력 인정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큼
- 정책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쉼터·건강·노무·법률지원, 표준계약·수수료 구조개선, 경력 전환·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결합한 안전망·표준계약·경력전환 패키지 설계 필요

■ 유형 ④에 대한 정책 인식과 과제

- 플랫폼·프리랜서 일자리는 고용정책·노동정책·자영업 정책의 경계에 위치해, 제도적으로는 ‘특수고용·개인사업자’로 처리되지만 실제로는 임금노동·자영업·프리랜서 특성이 혼재된 영역으로, 정책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은 안전모·장비 지원, 보험료 일부 지원 등 산발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으며, 알고리즘·단가·수수료·평점 체계 등 플랫폼 구조 자체의 영향력을 고려한 정책 논의는 미흡한 수준
- 배달·모빌리티 영역을 넘어, 농업(스마트스토어·라이브커머스), 로컬 크리에이터(온라인 홍보·굿즈 판매), 프리랜서 강의·콘텐츠 제작 등 거의 모든 산업군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동·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플랫폼 영역의 확장성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북형 플랫폼 청년 정책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를 단기 생계 노동+장기 경력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집단으로 정의하고, 안전망·표준계약·경력전환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할 필요성
- 디지털 역량·세무·재무·경력 설계 지원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강사·프리랜서 표준계약을 도입해 민간 확산을 유도할 경우, 플랫폼·프리랜서 일자리의 질 개선과 전업·전환 경로 마련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할 가능성

[표 5-1] 유형별 청년 일자리 대상·일자리 특성·정책 고민 및 정책과제

유형	대상	일자리 특성	정책 고민	정책 과제	대표 시범사업(안)
① 농업·귀농·농창업 기반 '정주형 고위험 창업 일자리'	· 청년창업농, 귀농·귀촌 청년, 스마트팜·임대형 농장 청년 등	· 대규모 초기투자·장기 부채, 기후·가격 변동 리스크가 큰 자영·창업형 일자리 · 가족 단위 농촌 정주와 생산·가공·브랜드·체험 결합형 경영체 특성	· 부채 상환 실패·재해 발생 시 붕괴 위험 · 청년을 전통 전업농 모델에 맞추는 제도 · 청년 유입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기존 농가와의 갈등 가능성	· 예비농·창업·정착 단계형 진입 구조 설계 · 저리대출·보험·재난 대응을 포함한 리스크 관리 패키지 구축 · 특수 품목·복합모델을 인정하는 유연한 청년농 지원체계 마련	· 전북형 청년 농업 벤처 플랫폼(교육·실증·사업화·금융· 유통·데이터를 연계한 원스톱 지원 모델/농수산업 창업 샌드박스 기반 실증·보육 인프라 구축)
② 산단·중소제조업 기반 '숙련·안전 보장형 임금 일자리'	· 산업단지 생산직·기술직·관리직 청년 · 중소기업 종사 청년 등	· 정규·장기 고용과 4대보험이 보장 · 2·3교대·장시간·안전위험을 수반하는 임금노동 · 산단 근무+도시 거주 통근형 정주 패턴 · 숙련 축적 구조 특성	· 안전·건강 위험 · 임금·승급 정체 · 산단 노동과 도시 생활 간 괴리로 인한 삶의 질 저하 · 장시간 근속 숙련공에 대한 사회적 인정·보상 부족	· 도·산단공·기업 공동 장기근속·숙련인증 및 임금·복지 인센티브 체계 도입 · 작업환경·안전·교대제 개선을 통한 현장 노동강도·건강 위험 완화 체계 구축 · 산단·도시 교통·주거·복지 연계를 통한 산단 노동자 생활권 지원 패키지 설계 · 근속기간·숙련도 기반 지역근로가점(갈고리 크레딧) 제도화 및 주거·교육·복지 포인트와의 연계	· 「지역근로가점 누적제 기반 숙련·안전·생활친화형 산단 패키지」 · 근속·숙련 정도에 따라 갈고리 크레딧을 부여하고, 임금·복지·주거·교육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통합 시범사업

유형	대상	일자리 특징	정책 고민	정책 과제	대표 시범사업(안)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기반 '사회적 창업·로컬 생태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 매거진·편집숍·카페·공유 공간 운영 청년 · 도시재생·커뮤니티 기획자 · 사회적경제·로컬 활동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멀티잡 구조 · 낮은 임금·고용 불안정 · 구도심·골목을 기반으로 커뮤니티·콘텐츠·축제를 생산하는 라이프스타일 · 공익 지향형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임대료 부담과 보조금 중심 “좋은 일 조금 도와주기” 인식 · 노동권·성폭력·페이백·잡무 전가 등 취약한 노동환경 · 로컬·비기술 창업의 제도상 위치 불명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커뮤니티·콘텐츠 창업을 독립 정책 범주로 인정 ·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체계 구축 · 표준계약·공정거래·노동권 기준 마련 · 주거·공간이용권·로컬화페를 결합한 로컬 라이프 패키지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형 비기술·로컬 크리에이터 창업 지원 사업(인건비+운영비+커뮤니티·콘텐츠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로컬 패키지)
④ 플랫폼·프리랜서 기반 '자율·전환형 경계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 · 온라인 강사·디지털마케터·콘텐츠 크리에이터 · 플랫폼 기반 N잡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 자율성과 단기 소득 확대 가능성이 크나, 사고·건강·알고리즘·단가 변동 리스크가 높은 경계 일자리, 생계 노동이자 경력 자산이라는 이중적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안전망 사각지대 · 수수료·단가·평점 구조의 불투명성과 교섭력 부재 · 경력 인정·전환 지원 부족 · 배달 외 농업·로컬·프리랜서 등으로 확장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노동자 쉼터·건강·노무·법률 지원체계 구축 · 수수료·지급 시기·저작권을 포함한 표준계약·가이드라인 마련 · 디지털·세무·경력 설계 교육 제공 · 플랫폼 경력의 다른 산업·공공영역 전환 프로그램 및 전북형 공제회·지원센터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노동 전환·안전망 + 공영형 지역 플랫폼 시범사업(전환교육·수수료 상한·노무상담·공제회 기능을 결합한 지역 기반 플랫폼 모델)

출처: 저자작성

2. 산업군별 정책 패키지와 전북형 시범사업 설계

- 제5.2절에서는 제5.1절에서 도출한 네 가지 전북형 청년 일자리 유형을 토대로, 산업군별 정책 패키지와 전북형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나아가 도내 14개 시군의 산업·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시범사업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및 시군 청년정책에 연계 가능한 모듈형 정책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자 함

1) 공통 기반 정책 패키지 방향

- 네 가지 산업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소득·사회보험 사각지대, 부채·건강·정신적 번아웃, 정주·주거·교통 문제를 전북형 청년 일자리 정책의 공통 기반 축으로 설정할 필요성
- 산업군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 위에, ① 기본 소득·사회보험 보조(두루누리·지역 고용보험료 지원 등과 연계), ② 정신건강·상담·휴식 지원, ③ 청년주거·교통·생활SOC 지원, ④ 경력관리·역량 강화 지원 등을 모든 청년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반 정책으로 설계할 필요성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북특별법 특례, 청년정책·인구정책 예산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합·조정하여, 산업군별 시범사업과 공통 기반 정책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패키지”로 인식되도록 하는 재정·거버넌스 설계 필요
- 제5장의 정책 패키지는 ① 농업·귀농·농창업, ② 산단·중소제조업,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④ 플랫폼·프리랜서 네 유형을 중심으로, 각 산업군별 맞춤형 정책 묶음과 시범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이후 시·군 투자계획에 반영 가능한 모듈형 정책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농업·귀농·농창업: '정주형 고위험 창업 안전망 패키지' 시범사업

■ 정책 목표

- 청년농·귀농·스마트팜 창업을 단순한 농가 양성이 아닌 고위험 창업·벤처 생태계로 재정의하고, 부채·재해·가격 변동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농촌 정주와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하는 정주형 창업 안전망 구축

■ 핵심 구성 요소

- 예비농·창업·정착 단계별로 교육·실습·멘토링·자본 지원을 분리 설계하는 단계형 진입 구조 구축
- 스마트팜·온실·축사 등 대규모 시설투자에 대한 저리대출+재해·가격 하락 대비 보험·손실보전 결합 리스크 관리 모형 도입
- 유산양·반려동물용 농축산물·농업+콘텐츠+교육+관광 결합 등 비정형·신품목 경영체를 포괄하는 「청년 농업 벤처 플랫폼」(교육·실증·사업화·금융·유통·데이터 원스톱) 설계
- 농촌 정주를 위한 주거(농촌형 공공임대·빈집 리모델링), 돌봄(육아·노인), 교육(학교·방과후), 의료·교통(공공버스·수요응답형 교통) 패키지와 여성·청년 공동경영체 인정·생활지원 제도 결합

■ 전복형 시범사업 방향

- 「전복형 청년 예비농·창업·정착 아카데미」를 통해 예비 단계에서 2~3년간 실습·멘토링·생활비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청년창업농·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는 경로 설계
- 「고위험 창업농 리스크 관리 패키지」를 통해 농업재해보험·가격보험·소득안정자금과 연계한 전복형 통합 리스크 관리 모델 시범 적용
- 「청년 농업 벤처 연계 패키지」를 김제·익산·완주 등 시범 시·군에서 우선 도입하여, 특수 품목·복합 경영체에 대한 실증·사업화·유통 연계 지원 모델 구축

- 농수축산업 분야 청년창업의 실증·보육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팜·스마트아쿠아(Aqua)·스마트축사 등 특화 인프라를 갖춘 「농수축산업 창업 샌드박스」를 단계적으로 연계·도입

[표 5-2] 전북형 청년 농업 벤처 연계 패키지(안)

■ 사업 개요

- 청년농·귀농·농창업 희망자를 위해, 전북에 이미 존재하는 교육·실습·정착자금·스마트팜·유통 지원 사업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 주는 “경로 설계·연계 패키지” 구축 사업
-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도·시군·농업기술원·스마트팜 혁신밸리·농협·보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전담 코디네이터를 두어, 청년이 “어디서 무엇을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내용

- 경로 설계·상담 허브
 - 예비농·창업·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교육·실습·자금·주거 정보를 정리한 ‘경로 지도’ 제공
 - 청년 1인당 전담 코디네이터를 지정해, 2~3년 간 주요 제도·사업 연계 지원
- 기존 사업 연계 패키지
 - 청년창업농, 귀농정착지원, 스마트팜 임대형 농장, 농업기술원 교육과정, 농협·보증기금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로 묶어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 보완 모듈(소규모 신규 기능)
 - 온라인 판매·브랜딩·콘텐츠 교육, 특수 품목·소규모 실험에 대한 소액 시범지원 등 기존 제도가 취약한 부분을 소규모로 보완

■ 추진 방식

- 1단계(시범): 김제·익산·완주 등 1~2개 지역에서 ‘연계 패키지+코디네이터’ 시범 운영
- 2단계(확산): 시범 성과 평가 후, 전북 전체로 경로 지도·컨설팅 모델 확산

■ 기대 효과

- 청년농이 제도·사업을 제때 활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초기 실패·과도한 부채 리스크 완화
- 전북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농업·정착 지원 사업을 “보이는 경로”로 재구성함으로써, 농업 기반 정주형 청년 일자리의 실질적 진입장벽 완화

출처: 저자작성

[표 5-3] 농수축산업 창업 샌드박스 사업 설계(안)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국 창업기업수는 최근 감소하는 반면 전북 농업·임업·어업·광업 창업기업 비중은 지속 감소 추세 (2021년 8.12% → 2024년 7.36%)
- 전북은 농생명 중심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나 기술·도시형 창업공간은 전주·군산·익산 등 도시에 집중되어, 9개 시군은 농수산업 분야 창업공간이 전무
- 농업·수산 창업은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5년 생존율이 낮아 실증·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고위험 업종이나, 기존 샌드박스·메이커스페이스는 IT·기술 중심이며, 농수산업의 실외·습식·생물 기반 실증 환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 존재
- 농수산 특화 창업 실증 인프라의 필요성 대두

■ 정부정책과 부합성

-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희망을 실천하는 농산어촌』(국정 68)을 통해 스마트농업, (국정 71)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국정 89)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에서 청년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등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정조정실 등을 통해 농수산업과 창업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당위성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하에 농생명산업을 5대 핵심 산업을 규정하고 농생명분야의 특화사업을 추진 중임
-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 등의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농업에 비해 수산업의 경우 별도의 청년창업과 관련한 지원사업이 없는 실정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6~
- 사업비 : 500억(국비 250, 도비 250)
 - 청년농업 벤처 플랫폼(농수산 창업 샌드박스) 부지 : 30억 원
 -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스마트 Farm, 스마트 Aqua, 스마트 축사 등) : 400억 원
 - 창업교육 및 보육공간 : 50억 원
 - 행정지원 및 교육시설 : 20억 원
- 사업주체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기초지자체

■ 주요내용

- 농수산업 창업 희망자들이 맘껏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교육과 보육, 기술 및 행정/마케팅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스마트 공간을 조성함
- 단순 창업이 아닌 시설 내 플랫폼 시설(스마트 Farm, 스마트 Aqua, 스마트 축사,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농수축산업과 식품산업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

■ 기대효과

- 전북특별자치도내 농수축산업 분야 창업희망자들에게 창업을 위한 교육 및 보육지원이 가능함과 동시에 스마트 Farm, 스마트 Aqua, 스마트 축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지원이 가능한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을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하고 실패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창업지원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9개 시군(주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청년창업 플랫폼(농수축산 샌드박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 내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타광역지로의 전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의 수혜를 위해 전북지역으로의 창업희망자 전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출 억제효과 : 창업공간 및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이용을 위해 수도권 등 지역으로 이탈하는 청년 농업인의 지역 내 정착을 도모함
 - 전입 유도효과 : 타광역지사체에서 해당 정책 수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 창업지역을 변경하여 인구유입이 촉진됨

■ 한계점

- 전북특별자치도내 현재 전주, 군산, 익산 등 32개의 창업보육공간이 운영 중이며, 김제시에 스마트팜 단지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기존 농업분야 청년창업 지원정책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고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협업이 필요할 것임
- 다른 산업분야와는 달리 농수축산업의 경우 창업을 위한 실내외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창업과 보육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확보가 쉽지 않을 것임
 - 창업공간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9개 시군(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Farm 샌드박스, 스마트 Aqua 샌드박스, 스마트 축사 샌드박스 등으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지역 내 창업지원공간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단지를 선정·조성하고 각 시군별로 중복을 최소화하는 플랫폼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출처: 자문위원(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님) 작성내용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창업 사무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창업 사무공간

- 농산업 및 수산업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지원

기술지원 공간

- 농산어업 분야 창업자들의 시제품 제작, 디자인, 3D 프린터 등을 지원하는 공간
- 공구 및 산업기계, 절삭/연마공구, 측정공구, 실험장비, 시험장비, 제작장비 등

작업공간

스마트 Farm & Aqua

스마트 제조시설

- 스마트 Farm : 실내 농업 및 원예, 축사공간
- 스마트 Aqua : 실내외 수족관
- 스마트 농수식품/화장품 제조시설

농산어업 수행을 위한 실외공간

- 농업 : 실외 농지 및 원예공간
- 축산업 : 실외 축사공간
- 수산업 : 실외 양식장 및 수족관
- 식품가공업 : 농산물 및 수산물 가공에 필요한 제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

행정지원

창업보육 및 지원공간

종합 행정지원

- 농산어업 창업희망자 및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

법률적 지원

- 농산어업 창업에 따른 창업자 등록, 창업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지원 수행

재무적/마케팅 지원

- 창업자 및 창업희망자에 대한 Fund 조성 및 창업안정화 시기까지의 금전적, 재정적 지원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

출처: 자문위원(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님) 작성

[그림 5-1] (가칭) 농수산업 벤처 플랫폼(샌드박스)의 구성

3) 산단·중소제조업: ‘숙련·안전·정주 보장형 산단 패키지’ 시범사업

■ 정책 목표

- 산단·중소제조업 일자리를, 특히 청년을 포함한 현장 노동자의 장기근속·숙련 축적을 인정하는 장기 경력 경로로 전환하고, 작업환경·안전·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산단에서 일해도 계속 버틸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산단형 패키지 구축
- 단기채용 확대나 일시적 임금보조를 넘어, 근속·숙련 인정+안전·건강+생활·정주 기반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구조 설계

■ 핵심 구성 요소

- 도·산단공·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장기근속·숙련인증·승급제 도입과 임금·복지 체계 연계 방안 설계
- 안전·보건·교대제 개선을 위한 산단형 건강·심리지원 패키지, 작업환경 개선 사업 도입
- 산단·도시 통근 셔틀·환승 지원과 인근 도시 근로자 주거(공공임대, 행복주택, 근로자형 기숙사 등)를 결합한 직주·직주근접 생활권 모델 설계

■ 전북형 갈고리 정책·시범사업 방향

- 「산단 근로자 통근·생활 패키지」를 통해 산단·도시 간 셔틀버스, 월 소멸성 교통바우처, 근로자형 기숙사·공공임대주택을 묶어 제공하는 통근·생활 지원 모델 시범 도입
- 「지역근로가점 누적제」를 통해 전북 내 산단·중소기업 근속기간·숙련도·직무 특성에 따라 주거·복지·교육·의료 바우처·포인트를 누적 부여하는 갈고리 크레딧·복지포인트 통합제 설계
- 「산단 상시 현장케어 센터」를 설치하여 노동권 상담, 산재·노무 지원, 심리지원·상담, 생활 컨시어지(주거·금융·복지 안내)를 통합 제공하는 현장케어 모델 시범 운영

■ 전북형 시범사업 적용 방향

- 군산·완주 등 주요 산단 밀집지역을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업종·사업장 규모·교대제 등 산단별 특성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모델 설계
- 지방소멸대응기금·산단공 출연·기업 매칭을 결합한 자원 구조를 통해, 갈고리 크레딧·통근·현장케어를 최소 3년 이상 지속 운영하는 패키지로 구성하고, 성과 평가 후 단계적 확대 추진

[표 5-4] 지역근로가점 누적제(안) (정주 '갈고리' 크레딧·복지포인트 통합형)

■ 사업 개요

- 전북 내 산업단지·중소제조업에서 낮은 임금 수준과 경력 축적에 따른 보상 부재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이탈하는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근속 기간·숙련 수준에 비례하여 '지역근로가점(갈고리 크레딧)'을 누적 부여하고 이를 임금·복지·교육·주거 지원과 연계하는 인센티브제도
- 1차 목표를 산단 내 장기근속·숙련 축적에 대한 추가 보상과 경력 인정 강화에 두고, 그 결과로 도내 장기 정주·지역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구조 지향

■ 주요 대상

- **기본 대상:** 전북 소재 산업단지·중소제조업 사업장에서 동일 사업장 또는 동일 지역 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노동자 전반
- **정책 초점:** 그 중에서도 생산직·현장직·교대제 노동자 등 임금·경력 인정 취약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설계
 - 연령이 아니라 근속기간·숙련도·직무 특성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구조 지향
- 청년 집단과의 연계
 - 청년만을 별도의 수혜 집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중년을 포함한 장기근속·숙련 노동자 전체를 인정하는 제도로 설계
 - 그 안에서 청년·청년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교육·자기계발 영역에서 추가 인센티브(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검토

■ 제도 설계(예시)

○ 가점·크레딧 적립 구조

- 전북 내 동일 사업장·동일 업종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 단위로 지역근로가점(갈고리 크레딧) 적립
- 위험직무, 야간·교대근무, 산단 내 전직(회사 변경 시에도 동일 지역 산업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가점 부여
- 일정 상한을 설정하여 장기 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재정 지속가능성의 균형 확보

○ 사용처·혜택 구조

- 주거: 청년·장기근속 노동자 대상 공공임대·기숙사·행복주택 우선순위, 보증금·이자 지원 등과 연계
- 복지: 교통·문화·여가·돌봄 바우처, 자기계발·자격증·교육비, 건강검진·심리상담 지원 등으로 포인트 사용
- 사회적 인정: 일정 점수 이상 시 도·시군 포상, 장기근속·숙련공 인증, 지역 우수 근로자 표창 등 상징적 보상 결합

○ 운영 방식

- 도·시군·산단공·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 기업 복지포인트·인사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구조 설계
- 재원은 도비·시군비·관련 기금과 기업 분담을 결합하는 매칭 방식 검토

■ 운영 및 연계 방안

- 1단계로 특정 산단·업종(예: 자동차부품·기계·전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효과 평가를 거쳐 점진적 확대
- 「숙련·안전·정주 보장형 산단 패키지」, 산단 작업환경·건강지원 센터, 산단 청년·근로자 주거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임금·안전·정주를 묶는 종합 패키지로 발전

■ 기대 효과

- 한 직장·한 지역 산업에서 오래 버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인정을 통해, 산단 내 이직률·퇴사율 완화 및 숙련 인력 유지 효과 기대
- 기본임금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단·중소제조업 일자리에 추가 임금·복지·경력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청년·중년 모두에게 “여기 오래 있을수록 손해가 아니다”라는 신호 제공
- 장기적으로는 도내 근로자의 정주 기간과 생활권의 안정성을 높여, 산단 중심 지역의 인구·생활 기반 유지에 기여하는 효과 기대

출처: 저자작성

[표 5-5] 전북형 지역근로자점 누적제 세부 설계(안)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전북 도민의 타광역지자체로의 전출 사유 중 ‘직업(일자리)’ 비중이 38~46%로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도 42.41% 수준을 기록하는 구조적 문제 확인
- 전북 내 일자리 수요·공급은 전국 대비 안정적이나(충원율 90.34%), 청년층이 선호하는 직종 부족과 산단·중소제조업의 낮은 임금·비가시적 숙련구조로 인해, 숙련 노동자의 반복적 이탈과 청년층 유입 저조가 나타나는 한계 존재
- 단기 장려금 중심의 정책으로는 장기근속·숙련인력 유지가 어려우며, 산단 노동자의 ‘정주 안정성’과 ‘직장·지역 연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인센티브 장치가 필요
- 중앙정부의 국정과제(고용안정망 확대·지역주도 일자리)와 향후 제정 예정인 「지역고용활성화법」 등이 근속·정주 기반 지역고용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어 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되는 중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26~
- 사업비 : 연간 1,200억(국비50%, 지방비50%: 국비(600억), 도비(300억), 시군비(300억))
- 사업주체 : 기획재정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기초지자체

■ 주요내용

- 전북특별자치도내 6개월 이상 지역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지역근로자들에게 지역 내 근로유지에 따른 근로가점방식이 적용되는 일종의 지역근로포인트 제도
 - 단위 : 전북지역 내 지역근로 기간 1개월당 1만원
 - 방식 :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를 기준으로 근로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근로가 점을 일종의 포인트처럼 지급함
 - 기준 : 최소 6개월 이상 전북지역 내 산업체에 근로유지를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차례 근로가점을 누적하여 지급함
 - 비용분담 : 국비 50% + 도비 25% + 기초지자체 25%
 - 비용 추산 : 약 100만 1천명(전북특별자치도 취업자 수 기준) × 12만원 = 약 1,200억 원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초지자체에 등록된 지역사랑상품권(디지털 방식)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누적하여 지급
 - 1년 단위로 전북지역에 근무지를 유지할 경우, 월 0.1만원의 가산제도를 적용하며, 2개월 이상 전북지역 내 근로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역근로가점의 적용에서 제외함
 - 2개월 이상 전북지역 내 근로지 유지를 못하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다시 6개월 이상 전북지역 근로지를 유지하는 경우 대상으로 복귀함

[표 5-6] 지역근로가점제 적용방식(안)

구분	내용	비고
6개월 미만		- 2개월 이상 전북지역근로지 미유지시 가점산정방식에서 제외됨
6개월 이상 1년 미만	월 1만원 × 근무개월수	
1년 이상 ~ 2년 미만	월 1.1만원 × 근무개월수	
2년 이상 ~ 3년 미만	월 1.2만원 × 근무개월수	
3년 이상 ~ 4년 미만	월 1.3만원 × 근무개월수	
4년 이상 ~ 5년 미만	월 1.4만원 × 근무개월수	
5년 이상 ~ 10년 미만	월 1.5만원 × 근무개월수	
10년 이상 ~	월 2만원 × 근무개월수	

■ 기대효과

- 전북특별자치도내 근무하는 취업자(근로자) 약 100만 1천명(전북특별자치도 취업자 수 기준)이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변동하더라도 전북지역을 벗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전북지역 이외 광역지자체로의 전출을 억제함과 동시에 해당 정책의 수혜를 위해 전북지역으로의 근로자 전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출 억제효과 : 매년 25천명의 타광역지자체로 직업(일자리) 사유로 인한 인구유출을 억제함으로써 인구감소율을 완화함
- 전입 유도효과 : 타광역지자체에서 해당 정책 수혜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로 근무지역을 변경하여 인구유입이 촉진됨

■ 한계점

- 전북특별자치도내 전체 취업자(근로자) 약 100만 1천명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최대 1,200억 원으로 재정 부담이 높은 수준
- 정책 대상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내 근무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
- 매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매 6개월 지급시점 기준으로 하여 근무소재지 기준으로 하여 시군별 부담액이 변경될 수 있음
- 중앙정부와의 자원배분 및 지자체별 자원부담으로 인해 사업시행 초기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 연계가 필요할 것임
-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지역기업체 등과의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내 일자리 선순환 구조정착을 위해 시행착오를 격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자문위원(군산대학교 이국용 교수님) 작성내용 기반으로 수정·보완한 내용임

4)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로컬 커뮤니티·콘텐츠 일자리 패키지’ 시범사업

■ 정책 목표

- 구도심·읍면소재지에서 활동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를 “지역 문제 해결·문화·커뮤니티 인프라를 담당하는 핵심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의 노동을 정식 일자리로 제도화하는 로컬 생태계 일자리 모델 구축

■ 핵심 구성 요소

- 구도심·원도심·읍면소재지의 로컬 공간·서점·공유오피스·마을공간에 대한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과 공정거래·거버넌스 기준을 결합한 지원체계 구축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 기획자의 노동을 보조금 중심 “좋은 일 조금 도와주기”가 아니라, 상근 인력·직무 기준·성과평가를 갖춘 일자리로 설계하는 전환
- 표준계약서·수수료 기준·페이백·성폭력·잡무 전가 방지 규범을 포함한 로컬 일자리 윤리·규범 마련과, 로컬 활동가·청년·행정·중간지원조직이 함께 만드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

■ 전북형 시범사업 방향

- 「구도심 로컬 크리에이터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전주 원도심·익산·군산 등에서 활동하는 로컬 공간·기획자에게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표준계약 준수 조건을 부여하는 시범모델 도입
- 「로컬 커뮤니티·콘텐츠 표준계약·공정거래 모델」을 통해 행사·축제·용역·콘텐츠 기획에 로컬 청년이 참여할 때 적용되는 표준단가·계약서·정산 규범을 만들고, 도·시군 공모사업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 설계
- 「전북형 청년 로컬 라이프 패키지(주거+공간이용권+로컬화페)」를 통해 구도심·읍면소재지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지원과 함께 로컬 공간 이용권·지역화페를 묶어 제공함으로써 로컬 상권·공간과의 일상적 접점을 확대하는 시범사업 도입

[표 5-7] 전북형 비기술·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일자리 지원사업(안)

■ 사업 개요

- F&B·제조기술 중심 창업 지원에서 벗어나, 로컬 콘텐츠·커뮤니티·도시재생·문화기획 등 비기술·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을 독립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고, 인건비·운영비·콘텐츠 제작·노동권 보호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
- “보조금으로 좋은 일 조금 도와주는 사업”이 아니라, 로컬 크리에이터를 정식 일자리·상근 인력으로 위치시키는 전환을 목표로 함

■ 주요 대상·공간

- 전주·익산·군산 원도심, 시·군 읍면소재지 구도심 등에서 공간 운영·커뮤니티 형성·로컬 콘텐츠 기획을 수행하는 청년·팀·사회적경제 조직
- 서점·공유공간·카페·로컬숍·마을공간·골목상권 조직 등

■ 세부 구성

- 상시 인건비·운영비 지원
 - 로컬 공간·커뮤니티·콘텐츠 운영 인력에 대한 최소 인건비·운영비(임대료 일부 포함) 지원
- 비기술·로컬 창업 인정 기준 마련
 - 비기술·커뮤니티 기반 사업의 정의·범주·심사 기준 수립, “협함”이 아닌 지역성·공익성·지속성을 중심으로 평가
- 표준계약·노동권 보호
 - 페이백·성추행·잡무 전가 방지 규정, 공정한 출연료·기획비·저작권 기준을 담은 표준계약서 보급
- 주거·공간·로컬화페 연계
 - 구도심 청년주거, 공간이용권, 로컬화페를 결합한 로컬 라이프 패키지 설계

■ 기대 효과

- 로컬 크리에이터·도시활동가의 노동을 정식 일자리로 인정하고, 장기적인 로컬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
- 전주 원도심·읍면 구도심 등을 “전북 청년이 남고 싶은 생활권”으로 재구성하는 효과

출처: 저자작성

5) 플랫폼·프리랜서: '안전망·표준계약·경력전환 패키지' 시범사업

■ 정책 목표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N잡러를 고용·자영업·프리랜서 경계에 놓인 핵심 청년 노동 집단으로 인정하고, 안전망·표준계약·경력전환 세 축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북형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체계 구축

■ 핵심 구성 요소

-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휴게시설, 건강검진·정신건강 상담, 금융·노무·법률 상담 기능을 갖춘 플랫폼 노동자 지원 거점 구축
-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강사·프리랜서·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수수료, 저작권, 지급 시기, 위약금 등)를 도입하고, 민간 확산을 유도하는 공정계약 모델 설계
- 디지털 역량·세무·재무·경력 설계 교육을 포함한 플랫폼·프리랜서 경력전환·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내 공영형 플랫폼을 통한 수수료 상한·표준계약·노무상담 제공

■ 전북형 시범사업 방향

- 「전북형 플랫폼·프리랜서 공제회·지원센터」를 통해 배달·모빌리티 플랫폼 노동자, 온라인 강사·마케터·크리에이터가 가입할 수 있는 공제회+상담·교육·휴식 지원센터 시범 도입
- 「공공 강사·프리랜서 표준계약 시범 도입 사업」을 통해 도·시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강사·프리랜서 계약을 전북형 표준계약으로 전환하고, 성과를 민간 플랫폼·에이전시와 공유하는 확산 전략 추진
- 「공영형 지역 플랫폼+전환교육 통합 모델」을 통해 수수료 상한·노무상담·분쟁조정 기능을 가진 공영형 지역 플랫폼과 디지털 역량·세무·커리어 설계 교육을 결합한 통합 시범사업 추진

[표 5-8] 플랫폼 노동 전환·안전망 + 공영형 지역 플랫폼 시범사업(안)

■ 사업 개요

- 배달·모빌리티·프리랜서·디지털콘텐츠 등 플랫폼 기반 청년 노동을 대상으로, 안전망·표준계약·경력전환을 지원하는 센터와, 수수료 상한·공정 규칙을 갖춘 공영형 지역 플랫폼을 결합한 시범사업
- 플랫폼 노동을 단순 생계수단이 아닌 경력 자산·다음 단계로의 경유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대상

- 전북 내 배달·퀵·이동 노동자, 플랫폼 기반 강사·마케터·크리에이터, N잡형 프리랜서 청년 등

■ 세부 구성

-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
 - 쉼터·건강검진·심리지원, 노무·법률·세무 상담, 사고·보험 상담 제공
- 공영형 지역 플랫폼
 - 배달·생활서비스·로컬콘텐츠 등 일부 영역에서 수수료 상한·투명한 정산 기준·노동시간·안전 규칙을 갖춘 공공·공영형 플랫폼 구축
- 표준계약·가이드라인
 - 출연료·단가·수수료·지급 시기·저작권·평점 등 핵심 조건을 담은 플랫폼·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마련 및 공공부문 선도 도입
- 경력전환·업그레이드 프로그램
 - 디지털 역량·브랜딩·재무·사업설계 교육, 플랫폼 경력을 활용한 공공·로컬·기업 분야 전환 경로(인턴·채용 연계 등) 설계
- 공제회·상호부조 기금
 - 사고·질병·소득 공백에 대비한 지역 단위 공제회 또는 상호부조 기금 시범 운영

■ 기대 효과

- 플랫폼·프리랜서 청년의 안전망 강화와 불공정 관행 완화
- 플랫폼을 기반으로 축적한 경험·네트워크·기술이, 로컬·공공·기업 영역으로 이어지는 경력 전환 사다리로 기능할 가능성

출처: 저자작성

- 다음 [표 5-6]과 같이 전북형 청년 일자리 유형별 정책 패키지와 시군별 적용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도 차원의 전략과 시군 단위 실행모델 간의 연결고리를 마련하고자 함

[표 5-9] 전북특별자치도 시군별 적정 사업 제안

시군	① 농업·농촌·농창업형	② 산단·중소제조형	③ 로컬 크리에이터·도시재생형	④ 플랫폼·프리랜서형	우선 추진 방향(요약)
전주	○	○	●	●	· 로컬·플랫폼 중심 도시형 청년 일자리 전략
군산	○	●	●	○	· 산단+군산형 로컬 결합형 청년 일자리 전략
익산	○	●	●	○	· 산단·식품·주얼리+원도심 로컬 복합 청년 일자리 전략
정읍	●	○	●	○	· 농업·관광·로컬 결합 농촌도시형 청년 일자리 전략
남원	●	△	●	○	· 지리산 관광·한방농업 결합 치유·문화 청년 일자리 전략
김제	●	●	○	○	· 농업 벤처+산단 숙련 임금형 복합 청년 일자리 전략
완주	●	○	●	○	· 도농복합 농업·사회적경제·로컬 연계 청년 일자리 전략
진안	●	△	○	△	· 고령지 농업 중심 정주형 창업관광 연계 청년 일자리 전략
무주	●	△	●	○	· 관광·레저 중심 로컬 크리에이터형 청년 일자리 전략
장수	●	△	○	△	· 농축산 중심 청년 정주형 농업 일자리 강화 전략
임실	●	△	●	△	· 치즈·발효 농식품+로컬 관광 특화 청년 일자리 전략
순창	●	△	●	○	· 장류·발효+로컬 관광·콘텐츠 결합 청년 일자리 전략
고창	●	△	●	○	· 친환경농업·생태·문화유산 결합 로컬 청년 일자리 전략
부안	●	○	●	○	· 변산해안 관광·새마을 연계 복합 서비스 청년 일자리 전략

출처: 저자작성

-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시범사업이 청년 삶의 질과 정주에 미칠 기대효과를 정리하고, 재원조달·거버넌스·단계별 추진전략 등 실행 체계를 제안함

3. 정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단계별 실행 전략

1) 정책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 청년 정주·유입 효과

- 농업·산단·로컬·플랫폼 각 유형에 맞는 정주·일자리 패키지 제시를 통해, 전북 내에서 다양한 삶·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 확장
- “서울적인 일자리만이 답이 아니다, 전북에서도 나다운 삶을 꾸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구체적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청년 순유출 완화 및 역유입 가능성 제고
- 농촌·소도시·구도심·산단 배후도시 등 공간 유형별로 특화된 청년 일자리·정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시·군별 청년 정착 전략의 구체화 유도

■ 일자리 질 향상·위험 완화 효과

- 농업·로컬·플랫폼 영역에서 부채·소득 변동·사회보장 사각지대 등 고위험 구조를 완화하는 안전망 형성을 통해, “버티는 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경력 경로”로 전환하는 효과
- 산단 영역에서 숙련·안전·정주 패키지를 통해 단순 임금 일자리를 “숙련·안전·생활친화형 임금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장기근속·숙련 축적을 유인하는 효과
- 플랫폼·로컬 영역에서 표준계약·노동권 보호·윤리 규범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무급노동·페이백·성폭력·잡무 전가 등으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이탈을 줄이는 효과
- 네 유형 모두에서 청년의 경력 전환 가능성(플랫폼→로컬·공공, 산단→숙련·전문직, 농업→콘텐츠·관광 등)을 높여, “막다른 일자리”가 아닌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경유지형 일자리”로 재구성하는 효과

■ 산업·지역 생태계 측면 효과

- 농업-로컬-산단-플랫폼 간 연계를 통해, 농산물·제조업·관광·콘텐츠·플랫폼 서비스가 연결되는 지역 내 분업·협업 구조 형성 가능성
- 전북특별법,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인구·산단·농업·도시재생 등 기존 정책 수단과 연계하여, 시·군 투자계획 속에 청년 일자리·정주 전략을 유형별·공간별로 내재화하는 효과
- 청년을 “정책 대상”이 아니라 농업·산단·도시재생·플랫폼 생태계의 “공동 설계자·실행 주체”로 위치시킴으로써, 지역정책 거버넌스의 세대교체·재구성에 기여하는 효과

2) 단계별 실행 전략

■ 1단계(1~2년): 기초 설계 및 시범사업 단계

- 네 개 산업군별로 대표 시·군을 1~2곳 선정하여, 유형별 정책 패키지를 축약한 시범 사업(파일럿)을 설계·시행하는 단계 설정
- 시범사업 기획-집행-평가 전 과정에 청년 당사자·현장 조직·전문가·행정을 포함하는 산업군별 거버넌스(자문단·운영협의체 등) 구축
- 성과지표를 단순 고용규모·참여 인원 중심이 아니라, 정주 지속기간, 소득 안정도, 사회보험 가입률, 삶의 만족도, 관계망·커뮤니티 형성 등 질적 지표 중심으로 설정
- 시범사업 과정에서 산업군별·시·군별로 효과가 높은 요소와 실행상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전북형 표준 패키지 설계를 위한 기준·매뉴얼 초안 마련

■ 2단계(3~5년): 시·군 확산 및 제도화 단계

- 1단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정책 패키지를 「전북형 청년 일자리 표준

사업모델』로 정리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청년정책 예산·산단·농업·도시재생 예산과 연계한 시·군 확산 추진

- 시·군 유형(농촌형·산단형·구도심형·도농복합형 등)에 따라 4개 유형 패키지를 조합해 적용할 수 있는 ‘메뉴판식 사업 구조’를 도입하여, 각 시·군이 자체 투자계획·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도 차원의 청년정책·인구정책·종합계획에 농업·산단·로컬·플랫폼 4개 일자리 유형을 공식 축으로 반영하고, 시·군별 우선 추진 유형과 연계한 KPI·모니터링 지표 제도와
- 관련 조례·시행규칙·지침 개정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플랫폼 노동·청년 농업 벤처 등 기존 제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새로운 일자리 유형을 제도권 지원 범주에 포함시키는 작업 병행

■ 3단계(5년 이상):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생태계 구축 단계

- 산업군별 패키지와 공통 기반 정책을 통합한 「전북형 청년 일자리·정주 생태계 로드맵」 수립
- 전북특별법 특례, 국가 청년·고용·농업·산단·도시재생·플랫폼 정책과 연계하여, 전북형 모델을 국가 차원의 지역 청년 일자리 유형·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확장하는 전략 추진
- 전북 청년 일자리 지표(고용률·임금수준·정주율·자영업 생존율·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보장 수준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기초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하고, 시범 지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평가·피드백 시스템 마련
- 시·군별로 축적된 사례·데이터·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청년 당사자·지자체·지역 대학·기업·중간지원조직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 간담회·포럼 형태의 협의·학습 자리를 마련하고 필요 시 ‘전북 청년 일자리·정주 포럼(가칭)’ 등 상설 플랫폼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

참 고 문 헌

REFERENCE

- Eurofound. (2007). Flexicurity: Issues and challenges (EF0721EN).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Retrieved from
- Hori Yukie. (2023). Youth Employment and Employment Policies in Japan, Japan Labor Issues, 7(41), 1-10.
- Visser, J. (2002). The first part-time economy in the world: a model to be followed?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2(1), 23-4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1).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개시
- 곽미선 외. (2023). 대학생이 인식하는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와 좋은 일자리(good work)에 대한 특성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55권 제 1호, 79-102.
- 김건식. (2024). 일자리 질 범주의 기준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나쁜 일자리의 노동자는 실업자보다 행복한가? 한국사회정책 제31권 제2호, 3-57.
- 김민선. (2022). 청년층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경험, 경제적 어려움과 직무소진의 관계, 보건사회연구, 42(2), 243-261.
- 김민정. (2023). OECD 국가의 유연안정성 및 유형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조합과 이행기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비교연구: 한시적 근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30권 제1호, 111-158
- 김수현 외. (2014).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인가? 서울시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과 과제 연구(2)
- 김지영. (2024). 유연근무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여성 관리자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학노. (2004). ‘네덜란드 모델’의 성과와 한계. 한국정치학회보, 제38권 3호, 411-434.
- 마상진 외. (2023). 농촌과 청년: 청년 세대를 통한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KREI
- 문종인. (2022). 지역일자리정책으로서 ‘일자리보장제’, 보다 정의 제3호
- 박비곤. (2023). 괜찮은 일자리는 줄었는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브리프

- 박재환·이일한. (2018). 청년들의 사회적 경제 인식 분석을 통한 청년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포토보이스(Photovoice) 방법론 활용. 벤처창업연구 제13호 제4권, 83-98
- 박준식. (2016). 네덜란드의 적응적 조합주의와 노동시장 개혁의 함의. 노동연구, 제33집, 51-128.
- 서울특별시. (2025). 「2025년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및 기업 모집 공고
https://youth.seoul.go.kr/bbs/view.do?key=2303300002&pstSn=2505020003&sc_bbsCtgrYn=2304110001
- 송영남. (2011). ‘좋은 일자리’의 분포의 지역별 변화와 이행과정의 결정요인, 지방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313-342.
- 안수지. (2022).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윤상용·정현우. (2020). 광주형일자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연구. 제정정책논집 제22권 제1호, 37-68
- 윤성원·양재진. (2022).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실업. 한국정치학회보, 56(3), 5-36.
- 이규민·지수호. (2024). 서울시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4권 제3호
- 이나경. (2022). 사회적 자본과 자아존중감이 청년 미취업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2호, 220-242
- 이상호 외. (2021).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례와 모델, 한국고용정보원
- 이성균. (2011). ‘좋은’ 일자리의 지역별 비교 및 요인분석: 고용안정성과 임금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12권 제2호, 5-29.
- 이승진 외. (2024). 대졸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잠재계층 유형과 영향 요인: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4(3), 359-382.
- 전용석. (2024). 사회적 파트너와 지역노동시장 위기극복: 네덜란드의 지역이동팀의 사례. 지역산업과 고용, 제11호, 122-136
- 정보영. (2025). 지역 청년의 괜찮은 일자리 상상: 광주형 일자리 참여자의 일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3권, 제2호, 597-623.
- 조돈문. (2014). 유연안정성 모델의 두 유형: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연안정성 모델 비교.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5호, 31-62
- 조성호. (2024). 일본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사례. 국제사회보장리뷰 제31호 101-113
- 지병근. (2021). ‘광주형 일자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1권 제1호, 1-33

- 지혜순 외. (2022).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한 청년 일자리의 질 유형분류 및 영향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5권 제3호, 97-125.
- 최희경. (2021). 덴마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의 실용교육 기저 탐색: 유연안전성 모형의 변환 사례. 스칸디나비아연구 제27호, 41-94
- 황광훈 외. (2021). 지역별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의 질 분석. 지역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SUMMARY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Youth Employment in Jeonbuk State

Heejin Jun · Juyeon Lee · Ahram Jeon

Amid growing concerns over youth outmigration and the instability of job and settlement conditions in Jeonbuk State, enhancing the employment environment for young adults requires an integrated understanding of labor realities across major industrial sectors.

This research analyzes youth experiences in agriculture, manufacturing complexes, local creative industries, and platform-based work, highlighting structural challenges such as limited job stability, sector-specific risks, and insufficient housing, transportation, and everyday-life infrastructure.

A mixed-methods approach was adopted, incorporating literature and policy reviews, statistical analysis, a face-to-face survey of 500 youths aged 19-39, sector-specific in-depth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and expert consultations. This process identified four youth employment-settlement types and revealed differentiated needs according to industrial and spatial con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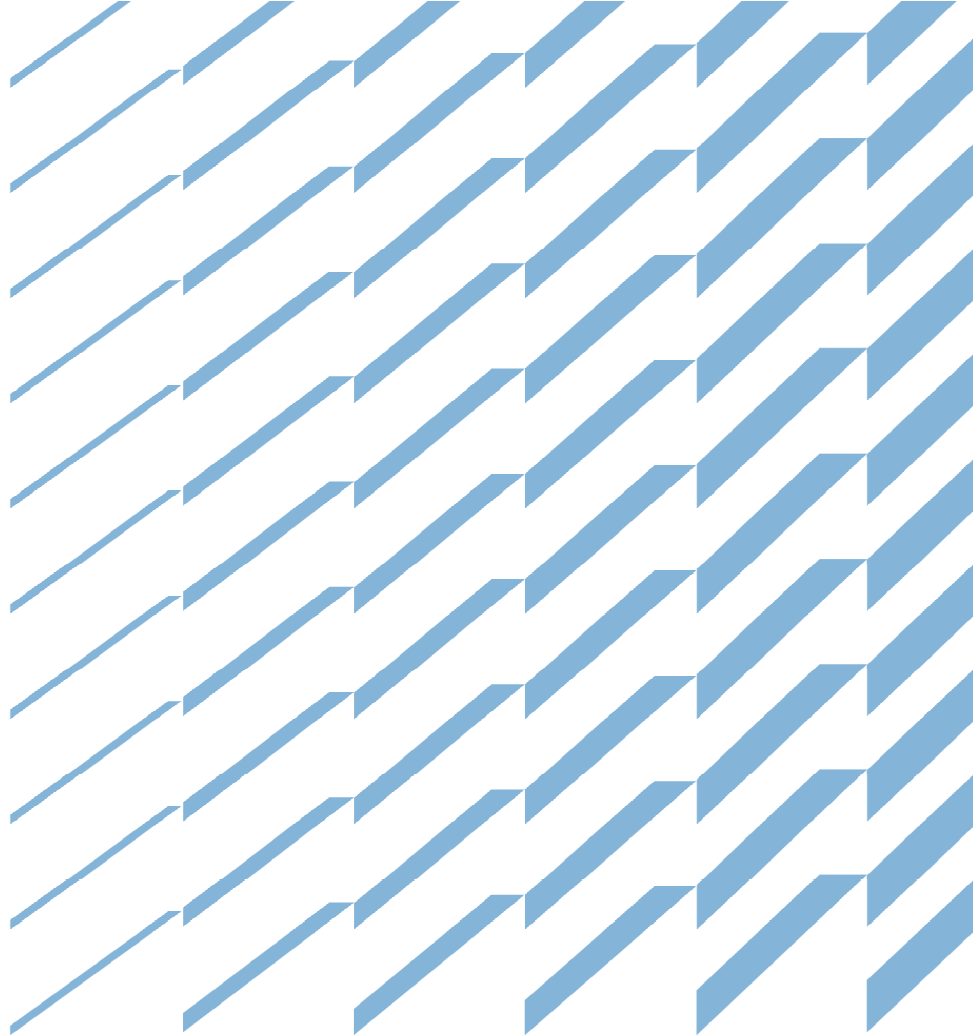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modular policy framework and pilot projects tailored to Jeonbuk's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recommendations emphasize strengthening foundational supports—including social insurance assistance, housing and mobility measures, mental health and counseling services, and career development systems—while advancing sector-specific strategies: a staged high-risk rural entrepreneurship and settlement package for agricultural youth; a skills-safety-settlement model for manufacturing complexes; sustainable ecosystem support for local creative occupations; and safety, fair contracting, and career transition

programs for platform workers.

To ensure actionable implementation,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ounty-level customization, coordinated fiscal strategies utilizing local revitalization funds and special-autonomy provisions, and establishing a governance and monitoring system involving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industries,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youth. The resulting framework seeks to support Jeonbuk in building a sustainable youth employment-settlement environment aligned with demographic and industrial transitions.

Key Words

Youth labor markets, Employment-settlement dynamics, Sectoral typology, Regional policy design, Work-life conditions, Local governance



부록

1.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설문지
2. 범주별 분석 결과표



1.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설문지

ID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정책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전북지역 청년의 고용 경험, 일자리 인식,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북에 거주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전북에서 취업 또는 구직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전북지역의 산업·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틈을 내시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 조사 주관기관 : 전북연구원 사회변화대응팀 전아람 연구원 (☎ 063-280-7144)

※ 조사 수행업체 : 지식창고협동조합 신동훈 기획이사 (☎ 010-4189-1480)

거주지역 (or생활지역)	①전주 권역 ②군산·김제 권역 ③익산·완주 권역 ④무주·진안·장수 권역 ⑤임실·순창·남원 권역 ⑥고창·부안·정읍 권역
읍면동별	①읍 지역 ②면 지역 ③동 지역
성 별	①남성 ②여성
연 령 대	①18~24세 ②25~29세 ③30~34세 ④35~39세
최종학력	①고졸이하 ②대학교(재학 포함) ③석사(과정 포함) ④박사(과정 포함)
혼인상태	①미혼 ②기혼 ③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가구원수	①1명 ②2명 ③3명 ④4명 ⑤5명 이상
(2인 이상) 동거 구성원	① 조부모 ② 부모 ③ 형제·자매 ④ 친척 ⑤ 배우자 ⑥ 자녀(____명) ⑦ 친구·애인 ⑧ 기타(____)
거주형태	①무상(부모님 댁 거주) ②자가(본인·배우자 명의) ③전세 ④월세(보증금 ○) ⑤월세(보증금 ×) ⑥기타(____)
귀농·귀촌 활동여부	①활동하지 않음(해당없음) ②준비단계(교육·체험·탐색) ③귀농 중(영농개시or사업자등록) ④귀촌 중(비영농 거주or농촌 취·창업)
집단유형	①미취업상태(전업주부, 대학생, 휴학생, 군인, 취업준비중) ②취업상태

I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

1. 귀하의 현재 고용 상태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임금 근로자	
① 정규직	- 상용직 / 계약기간 정함 없음 또는 1년 이상 계약
② 비정규직	- 임시직·일용직 / 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단기·일용
■ 비임금 근로자	
③ 자영업자	- 고용인원 있음 / 법인 대표 포함
④ 1인자영업자	- 고용인원 없음 / 1인 법인 대표 포함
⑤ 프리랜서	- 개별 계약·프로젝트·용역 중심, 본인 이름·포트폴리오로 수주
⑥ 플랫폼 노동자	- 앱·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차·주문·의뢰 수주
⑦ 무급가족 종사자	- 급여 없이 가족사업에 종사
■ 미취업상태	
⑧ 구직 중	- 대학생, 대학원생, 취·창업 준비자
⑨ 구직 단념	
⑩ 비경제활동	- 학업, 가사, 여행, 질병, 은퇴 등으로 당분간 취업 의사 없음(군인 포함)

2.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는(구직활동 중: 희망하는) 산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③ 건설업 ④ 도매 및 소매업
 ⑤ 운수 및 창고업 ⑥ 숙박 및 음식점업 ⑦ 정보통신업 ⑧ 금융 및 보험업
 ⑨ 부동산업 ⑩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⑪ 교육 서비스업
 ⑫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⑭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⑮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⑯ 기타 서비스업() ⑰ 해당없음(구직 단념자, 비경제활동)

3.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는(구직활동 중: 희망하는) 기업 규모(종사자 기준)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1~4인 규모 ② 5~9인 규모 ③ 10~29인 규모 ④ 30~99인 규모
 ⑤ 100~299인 규모 ⑥ 300~499인 규모 ⑦ 500인 이상 규모 ⑧ 해당없음(구직 단념자 등)

4. 귀하께서 취업을 준비한다는 가정 하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5개 이내 선택

- ① 기업규모 ② 고용안정성(정규직·비정규직) ③ 임금수준(세전 월급여)
 ④ 출퇴근거리 ⑤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 근로) ⑥ 근무제도(유연근무제 등)
 ⑦ 시설환경(사무실, 공장 내) ⑧ 복리후생 ⑨ 업무내용
 ⑩ 퇴직후안전(퇴직연금 등) ⑪ 미래비전 ⑫ 전공·경력
 ⑬ 적성·흥미 ⑭ 자율·권한 ⑮ 사회적평판

5. 귀하께서 ①현재 수령하는 월급여(세전)가 어느 정도 되는지, ②희망하는 월급여(세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고정 월급여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구분	해당 없음	200 만원	250 만원	300 만원	350 만원	400 만원	450 만원	500 만원	550 만원	600 만원	650 만원	700 만원	750 만원	800 만원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6. 귀하께서 ①현재 직장까지의 출퇴근거리(차량 편도 기준)가 어느 정도 되는지, ②희망하는 출퇴근거리(최대 마지노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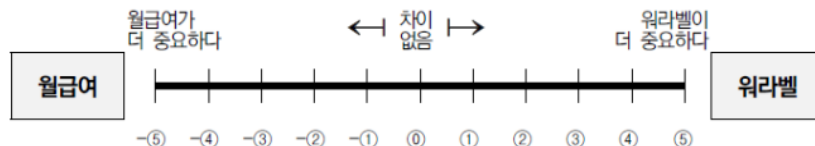
구분	해당 없음	0 분	10 분	20 분	30 분	40 분	50 분	60 분	70 분	80 분	90 분	100 분	110 분	120 분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7. 귀하께서 ①최근 1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②희망하는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해당 구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임금 근로자] 초과·야간·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 / [비임금 근로자] 수입활동을 위해 일한 시간

구분	해당 없음	16 시간	20 시간	24 시간	28 시간	32 시간	40 시간	44 시간	48 시간	52 시간	56 시간	60 시간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8. 귀하께서 취업을 했다는 가정 하에, 월급여와 워라벨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귀하께서는 ①현재 기업 내에서 어떠한 업무내용을 수행하고 있는지, ②희망하는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 없음	경영지원	사무·행정	R&D 연구개발	기술개발	품질관리	생산·제작	판매·영업	홍보·마케팅	기타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희망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10.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는 직장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

- ① 실시하지 않고 있음 ② 시간선택제 실시 ③ 시차출퇴근형 실시 ④ 근무시간선택형 실시
 ⑤ 집약근무형 실시 ⑥ 재량근무형 실시 ⑦ 재택근무형 실시 ⑧ 스마트워크근무형 실시
 ⑨ 해당없음(자영업자, 구직 단념자, 비경제활동)

11. 귀하께서는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의향없음 ② 별로 의향없음 ③ 보통 ④ 약간 의향있음 ⑤ 매우 의향있음

11-1. (문11 ③, ④, ⑤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희망하는 유연근무제 유형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시간선택제 근무제	
① 시간선택제	- 주40시간보다 짧은 근무(주15~30시간 근무)
■ 탄력 근무제	
② 시차출퇴근형	- 1일 8시간 근무하면서, 출퇴근시간 자율조정
③ 근무시간선택형	- 1일 근무시간 조정(4~12시간) / 다만, 주5일(주40시간) 근무 유지
④ 집약근무형	- 1일 근무시간 조정(10~12시간) / 다만, 주3.5일~4일(주40시간) 근무 유지
⑤ 재량근무형	- 출퇴근 의무 없이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40시간 근무
■ 원격 근무제	
⑥ 재택근무형	-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근무
⑦ 스마트워크근무형	-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 근무

11-2. (문11-1 ①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시간선택제로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하루 몇 시간입니까? 1개 선택

- ① 1일 2시간 ② 1일 3시간 ③ 1일 4시간 ④ 1일 5시간 ⑤ 1일 6시간 ⑥ 1일 7시간

11-3. (문11-1 ① 응답자 대상) 귀하께서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근로시간 단축 ② 개인시간 확보 ③ 자기계발 ④ 본인건강
 ⑤ 자녀보육 ⑥ 자녀돌봄 ⑦ 기타()

12. 귀하께서는 ①현재 기업이 사업장(사무실/공장) 내에 어떠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지, ②어떠한 시설이 추가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해당 없음	교육실	회의실	흡연실	휴게실	여성전용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실	수면실	숙직실 당직실
현재	<input type="checkbox"/>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추가 희망	3개 이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3. 귀하께서는 ①현재 기업이 어떠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는지, ②어떠한 복리후생이 추가로 제공되기를 희망하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 기업은 대부분 「4대보험」, 「퇴직연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복리후생을 기본적으로 제공함

복리후생 내용	현재	추가희망
■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3개 이내
■ 식사비용 지급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등	①	①
■ 특수수당 지급 연차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등	②	②
■ 인센티브 지급 정기보너스, 장기근속자포상 등	③	③
■ 기본휴가 제공 노동절휴무, 연차 or 월차	④	④
■ 특수휴가 제공 창립일휴무, 경조휴가, 위로휴가 등	⑤	⑤
■ 교육·훈련 지원 신입사원교육, 도서구입비, 자기개발비 등	⑥	⑥
■ 교통 지원 차량유류비 지급, 통근버스 운행 등	⑦	⑦
■ 주거 지원 사택·사원아파트·기숙사 운영 등	⑧	⑧
■ 의료·건강 지원 건강검진, 진료비, 운동비(건강유지비) 등	⑨	⑨
■ 출산·육아 지원 휴직, 휴가, 어린이집 운영 등	⑩	⑩
■ 명절·기념일 선물	⑪	⑪
■ 경조사 운영 및 지원 경조사비, 조화/화환, 과일바구니 등	⑫	⑫
■ 사내동호회 운영 및 지원	⑬	⑬
■ 노조·노사협의회 운영 및 지원	⑭	⑭
■ 기타()	⑮	⑮

14. 다음은 일자리 및 삶과 관련된 동의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

질문내용	동의 정도					해당 없음
	전혀 아니다	별로 아니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2년 이내에 전복 외 지역으로 이동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고용이 안정적이다(계약 연장·해고 가능성이 낮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임금수준이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근로시간이 적정하며, 휴식·여가시간이 충분히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일과 삶의 균형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작업 시설환경이 안전하고 충분히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직무에 필요한 역량개발·교육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업무 내용 및 방식이 나의 가치·흥미에 부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경력 향상 및 승진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현재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향후 1년 이내에 이직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II

전북청년 일자리-삶 정책수요

15. 귀하께서는 전북청년들이 전북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이내 선택

- | | | |
|------------------|--------------|-----------------|
| ① 지역의 발전가능성 | ② 가족 및 지인 존재 | ③ 직장 등 생업공간 |
| ④ 통학·통근 등 교통 인프라 | ⑤ 더 나은 주거 여건 | ⑥ 더 나은 자연·생활 환경 |
| ⑦ 다양한 문화·여가 기회 | ⑧ 더 나은 복지혜택 | ⑨ 더 나은 자녀교육 여건 |
| ⑩ 일-육아 병행가능성 | ⑪ 기타() | |

16. 귀하께서는 전북청년 구직자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선택

- | | |
|----------------------------|-------------------------|
| ① 자격증 취득 등 스펙형성 지원 | ②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시간 다양화 |
| ③ 취업 및 진로를 위한 상담 및 멘토링 지원 | ④ 취업 및 진로탐색을 위한 소모임 활성화 |
| ⑤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 ⑥ 취업박람회, 취업캠프 등 행사 활성화 |
| ⑦ 청년활동수당 지급(자기계발, 구직준비 활용) | ⑧ 인턴십 지원(정보 제공, 실습비 지급) |
| ⑨ 면접 지원(장장 무료대여, 면접수당 지급) | ⑩ 기타() |

17. 귀하께서는 전북청년 직장인에게 필요한 일자리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이내 선택

- | | |
|--------------------|--------------------|
| ① 좋은 일자리 정보 제공 | ② 직장인 자기계발 지원 |
| ③ 직장인 커뮤니티 지원 | ④ 직장인 심리상담 지원 |
| ⑤ 직장인 재충전 지원 | ⑥ 직장인 노동인권 보호 정책 |
| ⑦ 근로현장 실태 모니터링 | ⑧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형성 지원 |
| ⑨ 중소기업 재직자 생활안정 지원 | ⑩ 청년친화기업 육성 지원 |
| ⑪ 기타() | |

18. 귀하께서는 전북청년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이내 선택

- | | |
|-----------------------------|-----------------------------|
| ① 목돈대출 지원(매입비, 보증금 등) | ② 보증금 보호 강화(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
| ③ 임차인보호제도 강화(일반적 비용인상 방지 등) | ④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집수리, 인테리어 등) |
| ⑤ 빈집정비사업 통한 저렴한 주거지 공급 확대 | ⑥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⑦ 공동 주거지 공급 확대(쉐어하우스 등) | ⑧ 공공 기숙사 확충 |
| ⑨ 일자리와 주거 복합 지원 | ⑩ 주거상담 서비스 제공 |
| ⑪ 부동산계약, 금융해택방법 등 관련 정보 제공 | ⑫ 공공 주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 ⑬ 기타 () | |

2. 범주별 분석 결과표

가. 응답자 특성

1) 산업분야

[부록표 1] |전체| 범주별 산업분야 비교

(단위: 명, %)

구분		산업분야									전체 (n100%)	χ^2 검정
		농축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업/ 예술 스포츠업	보건 복지업	공공 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해당 없음 (구직단념, 비경제활동)		
전체		3.5	24.5	12.7	13.0	10.5	10.5	10.9	5.5	8.9	500	-
권역별	전주 권역	3.2	21.3	11.3	15.4	10.4	9.5	14.9	5.4	8.6	221	61.951
	군산/김제 권역	2.2	23.1	12.1	13.2	11.0	6.6	13.2	2.2	16.5	91	**
	익산/완주 권역	2.8	30.3	13.8	12.8	11.0	11.9	7.3	8.3	1.8	109	.
	무주/진안/장수 권역	18.2	18.2	27.3	-	-	18.2	-	-	18.2	11	.
	임실/순창/남원 권역	3.8	23.1	19.2	3.8	15.4	11.5	3.8	11.5	7.7	26	.
	고창/부안/정읍 권역	7.3	31.7	9.8	4.9	9.8	19.5	-	2.4	14.6	41	.
지역별	농촌지역	10.0	23.0	17.0	8.0	12.0	14.0	3.0	6.0	7.0	100	27.794
	도시지역	2.0	24.7	11.7	14.2	10.0	9.7	12.7	5.5	9.5	401	***
성별	남성	5.3	29.4	10.9	15.5	4.2	7.9	12.5	4.9	9.4	265	41.920
	여성	1.3	19.0	14.7	10.3	17.7	13.4	9.1	6.0	8.6	232	***
연령대 별	18세~24세	0.8	12.4	12.4	9.9	12.4	14.0	7.4	8.3	22.3	121	84.569
	25세~29세	1.5	22.1	16.8	13.7	9.9	13.0	13.0	0.8	9.2	131	***
	30세~34세	7.7	35.4	11.5	11.5	7.7	6.9	10.8	6.2	2.3	130	.
	35세~39세	3.4	27.7	10.1	17.6	11.8	8.4	12.6	6.7	1.7	119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29.9	9.5	19.7	4.4	12.4	16.8	4.4	2.9	137	82.359
	미혼+중속	4.9	17.7	14.6	8.8	13.7	12.4	5.8	5.3	16.8	226	***
	기혼+자녀없음	5.7	32.1	11.3	11.3	11.3	1.9	18.9	3.8	3.8	53	.
	기혼+자녀있음	4.8	30.1	13.3	13.3	10.8	7.2	9.6	9.6	1.2	8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5	25.4	12.7	12.9	11.0	10.8	11.2	5.7	8.7	472	114.658
	활동	39.3	7.1	10.7	14.3	-	7.1	3.6	3.6	14.3	28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1	6.9	4.2	16.7	15.3	11.8	9.7	2.1	31.3	144	160.986
	취업자	4.2	31.5	16.3	11.3	8.5	10.1	11.3	6.8	-	35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2] |미취업자| 범주별 산업분야 비교

(단위: 명, %)

구분		산업분야									전체 (n,100%)	χ^2 검정
		농축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업/ 예술 스포츠업	보건 복지업	공공 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해당 없음 (구직단념, 비경제활동)		
전체		2.1	6.9	4.2	16.7	15.3	11.8	9.7	2.1	31.3	144	-
지역별	전주 권역	2.7	10.7	5.3	14.7	17.3	12.0	9.3	2.7	25.3	75	48.314
	군산/김제 권역	-	4.2	-	20.8	12.5	-	-	-	62.5	24	.
	익산/완주 권역	3.8	3.8	7.7	30.8	11.5	7.7	23.1	3.8	7.7	26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100.0	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	-	28.6	28.6	14.3	-	28.6	7	.
	고창/부안/정읍 권역	-	7.7	7.7	7.7	7.7	23.1	-	-	46.2	13	.
지역별	농촌지역	5.0	5.0	10.0	15.0	10.0	10.0	10.0	-	35.0	20	4.254
	도시지역	1.6	7.9	3.2	17.5	15.9	11.9	9.5	2.4	30.2	126	.
성별	남성	3.9	6.6	3.9	22.4	5.3	10.5	10.5	3.9	32.9	76	19.592
	여성	-	7.4	4.4	10.3	26.5	13.2	8.8	-	29.4	68	**
연령대 별	18세~24세	1.2	9.8	3.7	13.4	15.9	12.2	7.3	3.7	32.9	82	32.693
	25세~29세	-	2.3	6.8	25.0	11.4	13.6	13.6	-	27.3	44	.
	30세~34세	16.7	16.7	-	25.0	16.7	-	-	-	25.0	12	.
	35세~39세	-	-	-	-	40.0	-	20.0	-	40.0	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18.8	-	21.9	9.4	12.5	25.0	-	12.5	32	60.276
	미혼+중속	1.0	4.8	4.8	14.4	18.3	12.5	4.8	2.9	36.5	104	***
	기혼+자녀없음	28.6	-	14.3	28.6	-	-	-	-	28.6	7	.
	기혼+자녀있음	-	-	-	-	25.0	25.0	25.0	-	25.0	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2	7.2	4.3	17.4	15.9	10.9	10.1	2.2	29.7	138	8.536
	활동	-	-	-	-	-	33.3	-	-	66.7	6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3] |취업자| 범주별 산업분야 비교

(단위: 명, %)

구분		산업분야									전체 (n,100%)	χ^2 검정
		농축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정보 통신업/ 금융 보험업	교육업/ 예술 스포츠업	보건 복지업	공공 행정업	기타 서비스업	해당 없음 (구직단념, 비경제활동)		
전체		4.2	31.6	16.4	11.3	8.5	9.9	11.3	6.8	-	354	-
지역별	전주 권역	3.4	27.2	14.3	15.6	6.8	8.2	17.7	6.8	-	147	53.417
	군산/김제 권역	3.0	29.9	16.4	10.4	10.4	9.0	17.9	3.0	-	67	**
	익산/완주 권역	2.4	38.6	16.9	8.4	9.6	12.0	2.4	9.6	-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22.2	22.2	33.3	-	-	22.2	-	-	-	9	.
	임실/순창/남원 권역	5.3	31.6	26.3	5.3	10.5	5.3	-	15.8	-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10.3	41.4	13.8	6.9	10.3	13.8	-	3.4	-	29	.
지역별	농촌지역	10.0	27.5	18.8	6.3	12.5	15.0	2.5	7.5	-	80	24.632
	도시지역	2.2	32.7	15.6	12.7	7.3	8.7	14.2	6.5	-	275	***
성별	남성	5.8	38.4	14.2	12.6	3.7	6.8	13.2	5.3	-	190	28.623
	여성	1.8	23.8	18.9	10.4	14.0	13.4	9.1	8.5	-	164	***
연령대 별	18세~24세	-	18.9	32.4	2.7	5.4	16.2	5.4	18.9	-	37	46.317
	25세~29세	2.3	33.0	21.6	8.0	10.2	12.5	11.4	1.1	-	88	***
	30세~34세	7.6	37.0	12.6	10.1	6.7	7.6	11.8	6.7	-	119	.
	35세~39세	3.5	28.9	10.5	18.4	10.5	8.8	12.3	7.0	-	114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33.0	12.3	18.9	3.8	12.3	14.2	5.7	-	106	44.285
	미혼+중속	7.4	28.7	23.0	4.1	9.8	12.3	7.4	7.4	-	122	***
	기혼+자녀없음	2.2	37.0	10.9	8.7	13.0	2.2	21.7	4.3	-	46	.
	기혼+자녀있음	5.0	31.3	13.8	13.8	10.0	7.5	8.8	10.0	-	80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2	32.9	16.2	11.1	9.0	10.8	11.7	7.2	-	334	126.873
	활동	50.0	9.1	13.6	18.2	-	-	4.5	4.5	-	22	***

주. * $p < 0.1$, ** $p < 0.05$, *** $p < 0.01$

2) 2인 이상 가구구성원

[부록표 4] |전체| 범주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전체 (n,100%)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 자	자녀	친구· 애인	기타	
전체		4.3	59.3	37.1	0.2	35.2	22.6	1.4	0.2	367
권역별	전주 권역	5.9	58.8	40.5	-	35.6	20.5	-	-	163
	군산/김제 권역	4.5	58.8	41.1	-	32.8	25.8	2.5	-	63
	익산/완주 권역	2.5	57.3	29.7	-	36.8	20.5	4.3	0.7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3.5	47.9	28.6	3.5	52.1	34.5	-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2.6	72.3	30.3	2.4	22.8	16.8	-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1.5	63.5	38.5	-	36.0	32.4	-	-	30
지역별	농촌지역	3.0	59.0	27.7	0.4	40.4	28.6	0.6	0.7	82
	도시지역	4.7	59.3	39.8	0.2	33.7	20.8	1.6	-	285
성별	남성	5.4	61.4	36.4	-	33.3	18.9	1.3	0.3	188
	여성	3.2	57.0	37.9	0.5	37.2	26.4	1.5	-	179
연령대 별	18세~24세	11.3	91.3	69.4	-	0.4	0.4	-	-	93
	25세~29세	4.4	81.2	51.0	0.9	13.9	2.5	0.5	0.6	95
	30세~34세	0.4	41.3	18.8	-	50.6	27.4	4.1	-	87
	35세~39세	0.8	21.1	7.5	-	77.9	61.1	1.1	-	92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	-	-	-	-	87.1	12.9	5
	미혼+중속	6.7	93.5	60.0	0.4	-	-	-	-	226
	기혼+자녀없음	-	4.3	0.7	-	94.4	-	2.0	-	53
	기혼+자녀있음	0.9	4.3	-	-	95.4	100.0	-	-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4.1	59.6	37.8	0.2	34.9	22.3	1.1	0.2	344
	활동	7.4	54.7	27.2	-	40.2	26.0	5.1	-	24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60.6	38.4	-	39.4	22.7	-	-	18
	제조업/건설업	2.9	47.8	20.7	-	48.0	30.6	1.4	-	83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8	55.2	37.1	-	30.1	21.5	-	1.2	51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3	58.1	33.9	-	40.6	28.5	3.1	-	39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7	65.6	42.7	-	32.0	19.2	1.1	-	46
	보건복지업	11.1	72.6	43.5	1.0	19.4	17.1	3.3	-	37
	공공행정업	5.8	37.7	32.6	-	57.1	24.7	-	-	31
	기타서비스업	-	54.2	13.2	2.1	43.6	35.1	-	-	22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9	87.9	76.9	-	5.4	2.3	2.6	-	41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10.6	85.4	61.2	-	7.8	3.1	0.9	-	114
	취업자	1.5	47.5	26.3	0.3	47.6	31.4	1.6	0.2	253

[부록표 5] |미취업자| 범주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전체 (n,100%)
		조 부모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 자	자녀	친구· 애인	기타	
전체		10.6	85.4	61.2	-	7.8	3.1	0.9	-	114
권역별	전주 권역	12.5	88.1	67.7	-	2.7	-	-	-	61
	군산/김제 권역	10.1	89.7	62.9	-	2.0	2.0	5.6	-	19
	익산/완주 권역	12.8	69.5	45.0	-	30.5	12.0	-	-	16
	무주/진안/장수 권역	-	100.0	79.8	-	-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	90.7	21.7	-	9.3	9.3	-	-	6
	고창/부안/정읍 권역	4.5	81.4	66.1	-	12.4	6.2	-	-	10
지역별	농촌지역	12.3	76.7	47.4	-	20.4	9.9	-	-	17
	도시지역	10.3	86.9	63.7	-	5.5	1.9	1.1	-	97
성별	남성	10.5	94.5	62.8	-	4.7	-	-	-	61
	여성	10.7	74.9	59.4	-	11.3	6.7	2.0	-	53
연령대 별	18세~24세	12.7	93.8	79.6	-	-	-	-	-	64
	25세~29세	8.9	85.1	43.0	-	11.8	1.7	-	-	36
	30세~34세	-	57.9	37.8	-	23.2	4.3	-	-	9
	35세~39세	15.3	28.9	-	-	50.3	50.3	20.8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	-	-	-	-	-	-	-
	미혼+종속	10.9	94.1	67.4	-	-	-	-	-	104
	기혼+자녀없음	-	-	-	-	85.0	-	15.0	-	7
	기혼+자녀있음	21.7	-	-	-	82.2	100.0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9.5	84.6	61.1	-	8.2	3.3	1.0	-	108
	활동	29.7	100.0	63.2	-	-	-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41.1	41.1	-	58.9	-	-	-	3
	제조업/건설업	8.7	100.0	41.3	-	-	-	-	-	5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2.6	57.3	43.0	-	10.1	-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86.3	56.7	-	13.7	-	-	-	18
	교육업/예술스포츠업	8.9	96.0	49.2	-	4.0	4.0	-	-	19
	보건복지업	28.2	80.3	58.9	-	-	4.8	-	-	13
	공공행정업	29.8	72.2	66.9	-	19.6	19.6	-	-	6
	기타서비스업	-	100.0	39.9	-	-	-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9	87.9	76.9	-	5.4	2.3	2.6	-	41

[부록표 6] |취업자| 범주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2인 이상 가구구성원								전체 (n,100%)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친척	배우 자	자녀	친구· 애인	기타	
전체		1.5	47.5	26.3	0.3	47.6	31.4	1.6	0.2	253
권역별	전주 권역	1.9	41.1	24.0	-	55.5	33.0	-	-	101
	군산/김제 권역	2.2	45.7	31.9	-	45.8	35.9	1.1	-	44
	익산/완주 권역	-	54.3	25.9	-	38.3	22.6	5.4	0.9	66
	무주/진안/장수 권역	4.1	38.4	19.2	4.2	61.7	40.8	-	-	9
	임실/순창/남원 권역	3.8	63.5	34.4	3.5	29.1	20.4	-	-	13
	고창/부안/정읍 권역	-	54.3	24.3	-	48.2	45.9	-	-	20
지역별	농촌지역	0.5	54.2	22.4	0.5	45.8	33.6	0.8	0.9	65
	도시지역	1.8	45.1	27.6	0.2	48.2	30.6	1.9	-	188
성별	남성	3.0	45.4	23.7	-	47.1	28.1	1.9	0.5	127
	여성	-	49.5	28.8	0.7	48.1	34.7	1.3	-	126
연령대 별	18세~24세	8.4	85.8	47.2	-	1.4	1.4	-	-	29
	25세~29세	1.6	78.8	55.9	1.4	15.2	2.9	0.9	1.0	59
	30세~34세	0.5	39.4	16.6	-	53.7	30.1	4.6	-	78
	35세~39세	-	20.6	7.9	-	79.5	61.7	-	-	87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	-	-	-	-	87.1	12.9	5
	미혼+종속	3.1	93.1	53.8	0.7	-	-	-	-	123
	기혼+자녀없음	-	4.9	0.8	-	95.9	-	-	-	46
	기혼+자녀있음	-	4.5	-	-	95.9	100.0	-	-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6	48.1	27.1	0.3	47.1	31.1	1.2	0.3	235
	활동	-	39.5	15.2	-	53.7	34.7	6.8	-	18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64.4	37.9	-	35.6	27.2	-	-	15
	제조업/건설업	2.5	44.6	19.5	-	50.9	32.5	1.5	-	78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2	54.9	36.3	-	32.8	24.5	-	1.4	45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3	34.9	15.3	-	62.8	51.9	5.6	-	21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43.7	38.0	-	52.2	30.2	1.8	-	27
	보건복지업	1.5	68.4	34.9	1.5	30.3	24.1	5.1	-	24
	공공행정업	-	29.3	24.3	-	66.1	26.0	-	-	25
	기타서비스업	-	46.1	8.5	2.5	51.4	41.3	-	-	1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나. 전북청년 일자리 실태 및 수요

1) 고용상태

[부록표 7] |전체| 범주별 고용상태 비교

(단위: 명, %)

구분		취업자				미취업자			전체 (n,100%)	χ^2 검정
		정규직	비 정규직	자영업 자	무급가족 종사자	구직 준비자	구직 단념자	비경제 활동인		
전체		51.0	10.9	7.6	1.5	20.1	1.1	7.8	500	-
지역별	전주 권역	53.4	6.3	4.1	2.3	25.3	0.9	7.7	221	79.809
	군산/김제 권역	55.9	7.7	9.9	-	9.9	-	16.4	91	***
	익산/완주 권역	43.8	19.1	10.9	-	22.8	0.9	0.9	110	.
	무주/진안/장수 권역	34.2	25.7	17.1	8.6	-	-	8.6	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47.0	19.6	7.8	-	19.6	7.8	-	26	.
	고창/부안/정읍 권역	53.9	12.3	7.4	-	14.7	-	12.3	41	.
지역별	농촌지역	50.6	14.2	13.2	2.0	13.2	2.0	5.1	99	11.532
	도시지역	51.1	10.0	6.2	1.2	21.9	1.0	8.5	401	*
성별	남성	54.3	7.5	7.9	1.5	19.5	1.1	8.2	267	8.050
	여성	47.2	15.0	7.3	1.3	21.0	1.3	7.3	233	.
연령대 별	18세~24세	12.5	16.7	-	0.8	47.5	1.7	20.8	120	197.310
	25세~29세	49.3	10.6	5.3	1.5	24.3	2.3	7.6	132	***
	30세~34세	69.3	8.5	10.8	2.3	6.2	-	2.3	130	.
	35세~39세	71.8	8.5	14.4	1.7	2.5	0.8	0.8	11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0.3	10.2	6.5	-	19.6	0.7	1.5	138	99.338
	미혼+종속	33.6	13.7	4.9	1.8	29.2	1.8	15.0	226	***
	기혼+자녀없음	65.8	3.8	13.2	3.8	9.4	-	3.8	53	.
	기혼+자녀있음	73.6	7.2	13.3	1.2	3.6	1.2	-	8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2.1	11.4	6.6	0.4	20.7	1.3	7.4	473	77.160
	활동	32.8	3.6	25.5	18.2	7.3	-	14.6	27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8.5	-	39.9	17.1	17.1	-	-	18	774.435
	제조업/건설업	85.7	4.1	0.8	-	8.2	-	-	12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0.4	31.4	33.0	6.3	9.4	-	-	64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0.2	-	1.5	-	37.0	-	-	65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8.2	11.5	7.6	-	42.0	-	-	52	.
	보건복지업	40.0	24.8	1.9	-	32.4	-	-	52	.
	공공행정업	66.1	9.2	-	-	25.7	-	-	54	.
	기타서비스업	58.1	18.2	10.9	-	10.9	-	-	28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13.4	87.3	4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2) 기업규모

[부록표 8] |전체| 범주별 기업규모 비교

(단위: 명, %)

구분		기업규모(인)								전체 (n,100%)	χ^2 검정
		1~4 규모	5~9 규모	10~29 규모	30~99 규모	100~299 규모	300~499 규모	500 규모	해당 없음		
전체		16.5	9.1	18.5	26.5	10.9	3.0	6.6	8.9	500	-
권역별	전주 권역	12.2	10.0	22.2	28.5	9.0	0.9	8.6	8.6	221	75.505
	군산/김제 권역	14.3	4.4	12.1	15.3	17.5	8.8	12.1	16.4	91	***
	익산/완주 권역	22.8	11.9	17.3	31.0	9.1	1.8	3.6	1.8	110	.
	무주/진안/장수 권역	34.2	8.6	25.7	8.6	-	-	-	17.1	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23.5	7.8	11.7	39.1	7.8	-	-	7.8	26	.
	고창/부안/정읍 권역	14.7	7.4	17.2	24.5	14.7	7.4	-	14.7	41	.
지역별	농촌지역	27.3	10.1	14.2	23.3	12.1	6.1	-	7.1	99	22.427
	도시지역	14.0	8.7	19.4	27.4	10.5	2.5	8.2	9.5	401	***
성별	남성	15.7	7.1	15.0	29.6	12.4	3.7	7.1	9.4	267	11.090
	여성	17.2	11.6	22.3	23.2	9.0	2.1	6.0	8.6	233	.
연령대 별	18세~24세	11.7	14.2	19.2	20.0	7.5	0.8	3.3	22.5	120	79.946
	25세~29세	9.1	10.6	18.2	25.0	12.9	3.0	11.4	9.1	132	***
	30세~34세	21.6	8.5	15.4	27.7	13.1	5.4	6.2	2.3	130	.
	35세~39세	24.5	2.5	21.1	33.0	9.3	2.5	5.1	1.7	11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2.4	7.3	18.9	36.3	12.4	4.4	5.8	2.9	138	64.175
	미혼+중속	14.1	12.4	21.2	20.8	7.1	1.8	6.2	16.8	226	***
	기혼+자녀없음	24.4	5.6	11.3	24.4	15.0	3.8	13.2	3.8	53	.
	기혼+자녀있음	25.3	6.0	14.5	27.7	15.7	3.6	4.8	1.2	8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4.4	8.9	19.5	27.7	10.6	3.2	7.0	8.7	473	35.389
	활동	51.0	10.9	-	7.3	14.6	-	-	14.6	27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8.4	5.7	5.7	11.4	-	-	11.4	-	18	842.102
	제조업/건설업	5.7	2.4	26.9	31.8	22.0	9.0	1.6	-	12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4.4	20.4	7.9	6.3	-	-	-	-	64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2	13.9	24.7	40.1	12.3	1.5	1.5	-	65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9.1	19.1	21.0	30.6	5.7	-	3.8	-	52	.
	보건복지업	1.9	1.9	28.6	28.6	21.0	5.7	11.4	-	52	.
	공공행정업	-	5.5	14.7	42.2	3.7	-	33.0	-	54	.
	기타서비스업	21.8	21.8	14.5	25.4	10.9	-	3.6	-	28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100.0	45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4.1	7.6	16.5	27.6	7.6	0.7	4.1	31.0	145	137.907
	취업자	21.4	9.6	19.2	25.9	12.4	3.9	7.6	-	35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9] |미취업자| 범주별 기업규모 비교

(단위: 명, %)

구분		기업규모(인)								전체 (n100%)	χ^2 검정
		1~4 규모	5~9 규모	10~29 규모	30~99 규모	100~299 규모	300~499 규모	500 규모	해당 없음		
전체		4.1	7.6	16.5	27.6	7.6	0.7	4.1	31.0	145	-
지역별	전주 권역	1.4	12.2	25.7	24.3	5.4	-	5.4	25.7	74	61.557
	군산/김제 권역	-	-	4.2	20.8	8.3	4.2	4.2	62.5	24	***
	익산/완주 권역	18.5	3.7	14.8	40.7	11.1	-	3.7	7.4	2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100.0	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	57.1	14.3	-	-	28.6	7	.
	고창/부안/정읍 권역	-	9.1	9.1	27.3	9.1	9.1	-	54.5	11	.
지역별	농촌지역	21.1	-	10.5	15.8	10.5	5.3	-	36.8	19	19.116
	도시지역	2.4	8.7	17.5	29.4	6.3	0.8	4.8	30.2	126	***
성별	남성	6.5	6.5	9.1	28.6	10.4	1.3	3.9	32.5	77	9.838
	여성	1.5	8.8	25.0	26.5	4.4	1.5	4.4	29.4	68	.
연령대 별	18세~24세	4.8	8.3	19.0	22.6	8.3	1.2	3.6	32.1	84	27.416
	25세~29세	2.3	9.1	18.2	29.5	6.8	-	6.8	27.3	44	.
	30세~34세	-	-	-	58.3	8.3	-	-	25.0	12	.
	35세~39세	40.0	-	-	20.0	-	-	-	40.0	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2	9.7	16.1	45.2	12.9	-	-	12.9	31	22.761
	미혼+종속	3.8	7.7	17.3	21.2	6.7	1.0	5.8	36.5	104	.
	기혼+자녀없음	14.3	-	14.3	42.9	-	-	-	28.6	7	.
	기혼+자녀있음	25.0	-	-	25.0	25.0	-	-	25.0	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4.3	7.9	17.3	28.8	6.5	0.7	4.3	29.5	139	11.750
	활동	-	-	-	-	33.3	-	-	66.7	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33.3	-	-	66.7	-	-	-	-	3	236.391
	제조업/건설업	-	10.0	-	50.0	20.0	-	20.0	-	1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3.3	16.7	66.7	-	-	-	-	-	6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6.7	20.8	50.0	12.5	-	-	-	2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8.2	18.2	36.4	27.3	-	-	4.5	-	22	.
	보건복지업	-	-	11.8	47.1	23.5	5.9	17.6	-	17	.
	공공행정업	-	14.3	35.7	50.0	-	-	-	-	14	.
	기타서비스업	-	-	-	66.7	33.3	-	-	-	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100.0	4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10] |취업자| 범주별 기업규모 비교

(단위: 명, %)

구분		기업규모(인)								전체 (n,100%)	χ^2 검정
		1~4 규모	5~9 규모	10~29 규모	30~99 규모	100~299 규모	300~499 규모	500 규모	해당 기업 비율		
전체		21.4	9.6	19.2	25.9	12.4	3.9	7.6	-	355	-
지역별	전주 권역	17.7	8.2	20.4	30.6	11.6	1.4	10.2	-	147	50.950
	군산/김제 권역	19.4	6.0	14.9	13.4	20.9	10.4	14.9	-	67	**
	익산/완주 권역	24.1	13.3	19.3	28.9	8.4	2.4	2.4	-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40.0	10.0	30.0	10.0	-	-	-	-	10	.
	임실/순창/남원 권역	31.6	10.5	15.8	36.8	5.3	-	-	-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20.0	10.0	23.3	23.3	16.7	10.0	-	-	30	.
지역별	농촌지역	28.8	12.5	15.0	23.8	12.5	6.3	-	-	80	13.996
	도시지역	19.3	8.7	20.4	26.5	12.4	3.3	9.8	-	275	**
성별	남성	19.5	6.8	17.4	30.0	13.2	4.7	8.4	-	190	8.224
	여성	23.6	12.7	21.2	21.8	10.9	3.0	6.7	-	165	.
연령대 별	18세~24세	27.8	27.8	19.4	13.9	5.6	-	2.8	-	36	41.685
	25세~29세	12.5	11.4	18.2	22.7	17.0	4.5	13.6	-	88	***
	30세~34세	23.7	9.3	16.9	24.6	12.7	5.9	6.8	-	118	.
	35세~39세	23.9	2.7	22.1	32.7	9.7	2.7	5.3	-	1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4.0	6.5	18.7	33.6	13.1	5.6	7.5	-	107	31.258
	미혼+종속	22.8	16.3	25.2	19.5	8.1	1.6	6.5	-	123	**
	기혼+자녀없음	26.1	6.5	10.9	21.7	17.4	4.3	15.2	-	46	.
	기혼+자녀있음	25.3	6.3	15.2	27.8	15.2	3.8	5.1	-	7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8.6	9.3	20.4	27.3	12.3	4.2	8.1	-	333	34.098
	활동	63.6	13.6	-	4.5	9.1	-	-	-	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73.3	6.7	6.7	-	-	-	13.3	-	15	311.474
	제조업/건설업	6.3	1.8	29.5	30.4	22.3	8.9	-	-	1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7.2	20.7	3.4	6.9	-	-	-	-	5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12.5	25.0	35.0	12.5	-	2.5	-	4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20.0	20.0	13.3	33.3	10.0	-	3.3	-	30	.
	보건복지업	2.8	2.8	36.1	22.2	19.4	8.3	8.3	-	36	.
	공공행정업	-	2.5	7.5	40.0	5.0	-	45.0	-	40	.
	기타서비스업	25.0	25.0	16.7	20.8	4.2	-	4.2	-	2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3)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부록표 11] |전체|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전체 (n100%)
		기업 규모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출퇴근 거리	근로 시간	근로 제도	시설 환경	복리 후생	업무 내용	퇴직후 안전	미래 발전	전문 경력	적성· 흥미	자율 권한	사회적 평판	
전체		13.5	74.6	86.9	50.7	52.1	18.9	19.6	35.2	25.3	14.0	20.8	17.5	28.1	4.5	1.7	500
지역별	전주 권역	12.0	76.4	88.4	52.3	47.3	16.8	19.4	31.1	19.2	11.2	21.2	16.5	29.1	3.2	3.0	221
	군산/김제 권역	18.2	68.9	91.8	54.2	53.2	21.9	19.7	49.6	25.9	13.0	25.3	11.0	25.6	1.3	1.6	91
	익산/원주 권역	14.3	75.8	79.1	46.1	55.6	19.0	23.9	26.5	33.2	17.1	16.9	26.2	30.1	9.6	-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5.2	73.8	91.7	54.3	56.2	28.1	20.5	41.9	35.2	10.5	31.6	18.4	17.4	6.2	3.1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13.2	79.3	86.6	29.4	58.5	33.9	10.0	30.6	23.2	19.7	21.3	15.2	29.5	2.6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11.6	72.1	87.7	59.2	60.5	11.1	15.0	49.6	34.6	20.2	16.2	15.7	24.1	6.1	-	41
지역별	농촌지역	11.9	73.7	85.1	46.3	57.2	22.4	14.1	38.0	29.9	18.1	20.4	17.5	31.2	6.1	0.7	99
	도시지역	13.9	74.9	87.3	51.8	50.8	18.0	21.0	34.5	24.2	12.9	20.9	17.6	27.3	4.1	1.9	401
성별	남성	15.3	77.7	89.5	47.7	49.3	14.4	17.9	34.1	30.1	14.7	22.8	19.2	22.3	5.3	0.8	267
	여성	11.5	71.2	84.0	54.3	55.2	24.0	21.6	36.5	19.9	13.1	18.6	15.7	34.6	3.7	2.7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15.4	63.0	85.9	51.6	51.2	21.6	33.8	27.4	24.4	15.7	22.2	18.6	37.0	4.0	-	120
	25세~29세	15.3	77.2	83.8	47.0	53.1	17.9	17.8	34.2	21.3	14.1	20.6	22.1	31.5	3.3	2.7	132
	30세~34세	16.1	84.1	89.2	51.0	49.9	20.8	17.8	36.2	26.7	12.0	21.5	13.8	21.9	6.4	1.6	130
	35세~39세	6.6	73.3	88.9	53.7	54.2	15.1	9.2	43.1	29.4	14.1	18.9	15.5	22.0	4.4	2.4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4.5	76.4	86.5	48.5	52.3	20.6	21.7	32.8	26.4	11.3	21.1	17.7	25.7	7.1	1.3	138
	미혼+종속	14.6	70.7	85.5	51.9	50.5	17.3	23.8	31.2	24.3	16.3	21.5	19.6	33.2	3.7	1.5	226
	기혼+자녀없음	17.3	79.4	84.2	47.5	53.6	24.4	11.0	36.5	25.1	6.3	18.2	19.9	22.7	4.1	3.2	53
	기혼+자녀있음	6.4	79.4	93.1	53.3	55.2	16.7	10.4	49.2	26.4	16.8	20.0	10.1	21.4	2.7	1.7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3.7	74.8	86.6	51.0	51.4	19.3	19.3	35.8	25.7	14.3	19.6	17.7	28.1	4.1	1.8	473
	활동	9.6	72.1	92.7	47.0	63.9	12.1	25.1	25.0	19.6	8.7	42.4	14.7	27.7	11.2	-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5.2	83.1	91.1	40.5	49.2	-	6.6	14.2	20.2	11.3	48.5	20.9	35.6	21.0	-	18
	제조업/건설업	24.3	75.6	89.5	53.9	53.6	18.9	21.7	45.8	22.5	12.5	17.2	12.4	16.6	0.8	1.4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5	76.1	96.0	36.8	51.9	9.1	10.0	29.8	32.9	8.2	24.1	17.5	38.7	1.7	-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3.6	74.3	89.0	56.9	52.6	17.4	18.4	37.9	28.9	14.1	13.7	16.9	29.4	3.6	2.2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7	74.3	89.9	53.7	49.7	32.4	12.2	28.8	24.4	22.6	21.5	15.8	38.7	5.5	-	52
	보건복지업	2.9	61.5	85.8	66.3	58.5	25.2	27.1	29.1	22.1	14.2	19.1	24.9	23.6	3.1	4.0	52
	공공행정업	8.9	84.4	73.8	45.5	55.1	21.6	22.2	34.9	27.2	18.4	15.8	22.8	22.4	5.5	5.1	54
	기타서비스업	8.6	69.7	84.2	36.5	42.7	24.0	20.2	32.3	27.7	12.8	27.4	19.6	30.1	16.8	1.4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23.1	74.1	77.7	50.4	45.9	12.5	31.1	35.0	20.5	11.8	28.8	17.2	37.6	5.5	-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13.8	72.4	79.3	52.4	44.6	21.5	28.1	28.7	20.2	19.3	24.6	20.1	36.3	4.2	1.2	145
	취업자	13.4	75.6	90.0	50.1	55.1	17.8	16.2	37.9	27.4	11.8	19.3	16.5	24.7	4.7	1.9	355

[부록표 12] |미취업자|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전체 (n100%)
		기업 규모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출퇴근 거리	근로 시간	근로 제도	시설 환경	복리 후생	업무 내용	퇴직 보장	미래 비전	전공 경력	적성 흥미	자율 권한	사회적 평판	
전체		13.8	72.4	79.3	52.4	44.6	21.5	28.1	28.7	20.2	19.3	24.6	20.1	36.3	4.2	1.2	145
권역별	전주 권역	14.9	71.7	81.0	57.1	40.7	20.9	28.6	17.7	15.2	9.6	27.3	21.6	37.1	2.7	2.4	74
	군산/김제 권역	16.8	61.4	93.8	60.8	49.0	17.3	30.4	55.1	34.7	10.0	27.4	7.7	31.0	-	-	24
	익산/완주 권역	9.2	76.1	68.5	39.5	46.8	23.4	31.9	25.7	22.8	38.8	15.4	24.2	42.8	13.6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20.2	60.2	60.2	59.9	79.8	19.9	39.8	79.8	20.2	39.8	20.2	-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5.1	96.3	76.4	8.6	79.9	47.2	-	8.6	17.1	53.1	31.9	25.0	23.8	-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14.6	78.8	67.4	59.0	29.9	14.7	24.8	56.2	17.9	33.5	19.3	27.0	38.8	4.2	-	11
지역별	농촌지역	13.9	74.5	67.0	37.5	46.8	17.0	22.2	47.2	19.8	35.0	35.2	26.5	39.2	8.7	-	19
	도시지역	13.7	72.0	81.2	54.7	44.2	22.2	28.9	25.8	20.3	16.9	23.0	19.2	35.8	3.6	1.4	126
성별	남성	19.7	76.5	85.4	49.9	38.0	15.1	19.6	26.8	20.7	19.8	27.1	30.8	25.5	4.9	-	77
	여성	7.1	67.8	72.6	55.2	51.9	28.7	37.5	30.7	19.7	18.7	21.8	8.2	48.4	3.5	2.6	68
연령대 별	18세~24세	17.5	62.4	83.0	56.9	45.0	24.4	37.2	32.4	20.0	16.0	24.5	17.4	36.3	5.2	-	84
	25세~29세	7.9	85.9	77.5	43.4	44.3	13.7	18.7	27.0	16.9	26.7	30.9	25.0	34.7	1.4	4.0	44
	30세~34세	14.3	87.8	73.5	44.9	30.7	27.9	9.7	5.3	26.5	23.2	-	17.5	40.3	10.1	-	12
	35세~39세	-	84.7	47.5	73.3	71.1	26.7	-	36.0	38.9	-	28.9	28.9	40.3	-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4	84.2	73.1	44.9	46.2	8.1	29.1	31.4	26.5	28.1	21.9	18.4	32.0	8.1	-	31
	미혼+종속	18.5	66.8	81.5	54.4	41.3	26.4	30.6	26.3	18.5	17.5	25.5	21.2	38.3	2.9	1.7	104
	기혼+자녀없음	-	100.0	82.0	57.1	57.9	-	-	50.3	-	16.9	35.4	16.9	26.7	8.7	-	7
	기혼+자녀있음	-	78.3	66.4	51.4	100.0	37.9	-	32.4	55.3	-	-	10.7	34.0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3.1	72.7	78.8	53.1	43.8	22.4	26.3	29.9	21.1	19.8	24.1	21.0	36.6	3.0	1.3	139
	활동	29.7	63.2	92.9	36.8	63.2	-	70.3	-	-	7.1	36.8	-	29.7	33.5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1.1	100.0	58.9	58.9	-	-	-	-	-	-	-	41.1	41.1	20.5	-	3
	제조업/건설업	19.0	64.3	79.7	81.0	35.7	19.0	16.7	23.0	16.2	22.7	4.0	-	25.1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9.0	67.4	100.0	17.9	20.5	10.4	32.6	32.6	19.4	-	-	29.0	60.6	10.1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2.5	64.6	87.1	47.3	33.3	21.3	31.3	41.7	30.7	15.8	32.1	28.5	31.7	4.9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80.3	83.0	48.3	48.2	38.0	22.5	17.8	28.8	32.4	25.5	6.5	46.3	-	-	22
	보건복지업	2.0	69.2	70.8	61.1	48.4	15.0	22.9	8.7	10.6	20.5	27.1	42.2	43.0	-	10.4	17
	공공행정업	-	90.8	65.8	59.0	76.3	33.8	23.2	28.0	11.3	40.8	16.5	21.6	21.4	9.2	-	14
	기타서비스업	39.9	-	100.0	39.9	39.9	60.1	100.0	60.1	-	-	60.1	-	-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23.1	74.1	77.7	50.4	45.9	12.5	31.1	35.0	20.5	11.8	28.8	17.2	37.6	5.5	-	45

[부록표 13] |취업자|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전체 (n100%)
		기업 규모	고용 안정성	임금 수준	출퇴근 거리	근로 시간	근로 제도	시설 환경	복리 후생	업무 내용	퇴직 보장	미래 비전	전문 경력	적성 흥미	자율 권한	사회적 평판	
전체		13.4	75.6	90.0	50.1	55.1	17.8	16.2	37.9	27.4	11.8	19.3	16.5	24.7	4.7	1.9	355
권역별	전주 권역	10.5	78.8	92.1	49.9	50.7	14.6	14.8	37.9	21.3	11.9	18.1	13.9	25.1	3.5	3.3	147
	군산/김제 권역	18.7	71.6	91.0	51.8	54.7	23.5	15.9	47.6	22.8	14.1	24.5	12.1	23.7	1.7	2.1	67
	익산/완주 권역	16.0	75.7	82.6	48.3	58.5	17.6	21.2	26.8	36.6	9.9	17.4	26.9	26.0	8.3	-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2.9	75.9	96.5	53.4	52.6	29.4	17.5	36.0	37.6	6.0	33.4	21.2	20.1	7.1	3.6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15.9	73.5	90.1	36.5	51.1	29.4	13.4	38.2	25.3	8.2	17.7	11.9	31.5	3.4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10.4	69.6	95.4	59.2	72.2	9.8	11.2	47.2	40.9	15.2	15.0	11.4	18.5	6.9	-	30
지역별	농촌지역	11.4	73.5	89.5	48.4	59.7	23.7	12.1	35.8	32.4	14.1	16.8	15.4	29.3	5.5	0.9	80
	도시지역	14.0	76.2	90.1	50.5	53.8	16.1	17.4	38.5	26.0	11.1	20.0	16.8	23.4	4.4	2.2	275
성별	남성	13.5	78.2	91.1	46.8	53.9	14.1	17.3	37.0	33.9	12.7	21.0	14.5	21.0	5.4	1.1	190
	여성	13.3	72.6	88.7	53.9	56.6	22.1	15.0	38.8	20.0	10.7	17.2	18.8	28.9	3.8	2.8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10.5	64.4	92.5	39.1	65.6	15.0	25.9	15.7	34.6	15.1	16.7	21.5	38.5	1.3	-	36
	25세~29세	19.0	72.8	86.9	48.9	57.6	20.0	17.4	37.8	23.5	7.8	15.4	20.7	29.9	4.3	2.0	88
	30세~34세	16.3	83.7	90.8	51.6	51.8	20.1	18.6	39.3	26.7	10.9	23.7	13.4	20.0	6.0	1.7	118
	35세~39세	6.9	72.7	90.8	52.8	53.5	14.6	9.7	43.4	29.0	14.7	18.5	14.9	21.2	4.6	2.5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8.0	74.1	90.4	49.6	54.0	24.2	19.6	33.3	26.4	6.4	20.9	17.4	23.9	6.8	1.7	107
	미혼+종속	11.3	74.0	88.9	49.8	58.2	9.7	18.0	35.4	29.3	15.3	18.2	18.3	28.8	4.4	1.4	123
	기혼+자녀없음	19.9	76.3	84.6	46.0	53.0	28.1	12.6	34.4	28.9	4.7	15.5	20.4	22.1	3.4	3.6	46
	기혼+자녀있음	6.6	79.5	94.3	53.3	53.2	15.7	10.9	49.9	25.1	17.6	20.9	10.1	20.8	2.9	1.8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4.0	75.6	89.8	50.1	54.6	18.0	16.4	38.3	27.6	11.9	17.7	16.4	24.5	4.6	2.0	333
	활동	4.1	74.5	92.7	49.8	64.0	15.4	12.7	31.8	25.0	9.2	43.9	18.8	27.2	5.1	-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0.2	79.8	97.4	36.9	58.8	-	7.9	16.9	24.2	13.5	57.9	17.0	34.5	21.1	-	15
	제조업/건설업	24.7	76.6	90.4	51.4	55.2	18.9	22.1	47.9	23.1	11.6	18.4	13.5	15.9	0.9	1.5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3	77.0	95.6	38.8	55.2	9.0	7.7	29.5	34.3	9.0	26.6	16.3	36.4	0.8	-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4.3	80.2	90.1	62.8	64.4	15.0	10.5	35.7	27.8	13.1	2.6	9.9	28.1	2.8	3.6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8.2	69.8	95.0	57.6	50.8	28.2	4.6	37.0	21.1	15.3	18.6	22.6	33.0	9.6	-	30
	보건복지업	3.3	57.9	92.9	68.8	63.3	30.1	29.1	38.7	27.6	11.3	15.3	16.8	14.4	4.5	1.0	36
	공공행정업	12.0	82.2	76.6	40.7	47.6	17.3	21.8	37.3	32.7	10.5	15.6	23.2	22.7	4.2	6.9	40
	기타서비스업	4.3	79.1	82.0	36.0	43.1	19.1	9.4	28.5	31.5	14.5	23.0	22.3	34.2	19.1	1.6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4-1) 임금수준(현재)

[부록표 14] | 취업자 | 범주별 현재 임금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현재 임금수준(만원)															전체 (n, 100%)	평균 (만원)	t/F 검정
		무급	200 미만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400 ~450	450 ~500	500 ~550	550 ~600	600 ~650	650 ~700	700 ~750	750 ~800	800 이상			
전체		2.0	11.8	25.7	23.5	17.8	8.8	4.7	2.6	1.3	0.7	0.1	-	-	0.3	0.5	355	293.8	-
권역별	전주 권역	3.4	8.2	21.8	23.1	20.4	9.5	6.1	3.4	2.0	0.7	-	-	-	-	0.7	147	308.0	1.907
	군산/김제 권역	-	9.0	20.9	26.9	22.4	13.4	6.0	1.5	-	-	-	-	-	-	-	67	296.1	*
	익산/완주 권역	-	15.7	32.5	22.9	15.7	4.8	2.4	2.4	2.4	-	-	-	-	1.2	-	83	285.0	.
	무주/진안/장수 권역	10.0	20.0	40.0	20.0	-	-	-	-	-	-	-	-	-	-	-	10	254.9	.
	임실/순창/남원 권역	-	26.3	36.8	26.3	10.5	-	-	5.3	-	-	-	-	-	-	-	19	257.1	.
	고창/부안/정읍 권역	-	16.7	30.0	16.7	10.0	16.7	3.3	3.3	-	-	-	-	-	-	-	30	280.6	.
지역별	농촌지역	2.5	13.8	35.0	17.5	16.3	5.0	3.8	1.3	1.3	1.3	-	-	-	-	-	80	277.9	3.036
	도시지역	1.8	10.9	22.9	25.1	18.2	9.8	5.1	2.9	1.5	0.4	-	-	-	0.4	0.4	275	298.4	*
성별	남성	2.1	7.4	24.7	20.0	21.6	11.1	6.3	4.2	-	1.1	-	-	-	-	1.1	190	306.9	8.339
	여성	1.8	17.0	26.7	27.3	13.3	6.7	2.4	0.6	2.4	-	-	-	-	0.6	-	165	278.7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44.4	41.7	8.3	2.8	-	-	-	-	-	-	-	-	-	-	36	219.2	25.689
	25세~29세	2.3	14.8	33.0	30.7	13.6	-	2.3	2.3	-	-	-	-	-	1.1	-	88	269.7	***
	30세~34세	2.5	5.1	28.0	30.5	18.6	6.8	5.1	2.5	-	-	-	-	-	-	-	118	285.9	.
	35세~39세	1.8	5.3	12.4	15.0	25.7	20.4	8.0	3.5	3.5	1.8	-	-	-	-	1.8	113	344.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7.5	26.2	23.4	24.3	7.5	1.9	4.7	2.8	-	-	-	-	0.9	-	107	302.6	20.908
	미혼+중숙	3.3	21.1	40.7	22.0	7.3	1.6	1.6	0.8	-	-	-	-	-	-	-	123	246.8	***
	기혼+자녀없음	4.3	2.2	17.4	23.9	23.9	10.9	10.9	4.3	4.3	-	-	-	-	-	-	46	321.8	.
	기혼+자녀있음	1.3	7.6	7.6	25.3	21.5	20.3	8.9	1.3	-	2.5	-	-	-	-	2.5	79	337.1	.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0.6	12.3	26.4	23.4	18.0	8.4	4.8	2.7	1.2	0.6	-	-	-	0.3	0.6	333	292.9	0.700
	활동	22.7	-	13.6	22.7	18.2	13.6	4.5	-	-	-	-	-	-	-	-	22	31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0.0	-	26.7	20.0	13.3	6.7	6.7	6.7	-	-	-	-	-	-	-	15	296.8	3.685
	제조업/건설업	-	7.1	26.8	32.1	18.8	7.1	3.6	3.6	-	0.9	-	-	-	-	-	112	289.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9	32.8	15.5	15.5	13.8	1.7	5.2	-	-	-	-	-	-	1.7	1.7	58	288.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10.0	20.0	30.0	15.0	10.0	2.5	7.5	-	-	-	-	-	-	40	349.8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10.0	23.3	40.0	-	20.0	6.7	-	-	-	-	-	-	-	-	30	284.1	.
	보건복지업	-	11.1	58.3	11.1	11.1	-	-	8.3	-	-	-	-	-	-	-	36	255.9	.
	공공행정업	-	2.5	20.0	22.5	30.0	17.5	7.5	-	-	-	-	-	-	-	-	40	310.3	.
	기타서비스업	-	20.8	29.2	12.5	20.8	8.3	-	-	4.2	-	-	-	-	-	-	24	272.6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4-2) 임금수준(희망)

[부록표 15] |전체| 범주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임금수준(만원)																	전체 (n, 100%)	평균 (만원)	t/F 검정
		무급	200 미만	200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500 ~ 550	550 ~ 600	600 ~ 650	650 ~ 700	700 ~ 750	750 ~ 800	800 이상					
전체		-	0.5	5.5	24.5	25.4	16.6	9.7	7.1	4.2	0.8	1.7	0.4	0.3	0.3	3.0	500	369.2	-		
지역별	전주 권역	-	-	1.4	28.5	25.8	16.3	9.0	6.8	4.5	0.5	2.7	0.5	-	-	3.6	221	374.6	1.715		
	군산/김제 권역	-	-	3.3	15.3	25.2	20.8	14.3	6.6	4.4	2.2	1.1	-	1.1	-	4.4	91	391.4			
	익산/원주 권역	-	0.9	10.0	21.9	27.3	16.4	9.1	8.2	0.9	-	0.9	-	-	1.8	1.8	110	353.9			
	무주/진안/장수 권역	-	-	34.2	34.2	17.1	-	-	17.1	-	-	-	-	-	-	-	12	318.7			
	임실/순창/남원 권역	-	-	7.8	27.4	19.6	23.5	3.9	-	3.9	-	-	-	-	-	3.9	26	347.0			
	고창/부안/정읍 권역	-	-	9.8	24.5	22.1	9.8	9.8	7.4	12.3	2.5	-	-	-	-	-	41	359.7			
지역별	농촌지역	-	1.0	12.1	27.3	25.3	12.1	9.1	6.1	3.0	-	-	1.0	-	-	2.0	99	344.7	5.163		
	도시지역	-	0.5	3.7	23.7	25.4	17.7	9.7	7.5	4.5	1.0	2.0	0.2	0.2	0.2	3.2	401	375.2	**		
성별	남성	-	0.4	4.9	21.7	25.1	15.0	11.6	7.1	6.4	1.1	1.5	0.7	-	-	3.7	267	380.7	5.324		
	여성	-	0.4	6.0	27.5	25.7	18.4	7.3	6.9	1.7	0.4	1.7	-	0.4	0.4	2.1	233	356.0	**		
연령대 별	18세~24세	-	0.8	12.5	34.2	25.8	10.0	7.5	3.3	1.7	-	-	-	0.8	-	2.5	120	331.7	25.818		
	25세~29세	-	-	3.0	35.6	33.4	15.2	6.8	1.5	3.0	-	-	-	-	0.8	0.8	132	335.4	***		
	30세~34세	-	1.5	2.3	19.3	24.6	26.2	13.1	7.7	2.3	0.8	1.5	-	-	-	2.3	130	370.3			
	35세~39세	-	-	5.1	8.5	17.7	13.5	11.8	16.9	10.1	2.5	5.9	1.7	-	-	6.8	118	443.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0.7	2.2	19.6	21.8	25.4	13.1	5.1	4.4	-	2.2	-	-	0.7	2.9	138	380.7	19.649		
	미혼+종속	-	0.4	8.4	35.8	30.5	11.0	5.7	2.2	2.7	-	0.4	-	0.4	-	1.8	226	330.5	***		
	기혼+자녀없음	-	-	1.9	9.4	30.1	20.7	9.4	15.0	1.9	-	1.9	3.8	-	-	3.8	53	403.8			
	기혼+자녀있음	-	-	4.8	10.9	13.3	13.3	15.7	19.3	8.4	4.8	3.6	-	-	-	4.8	83	433.6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	0.6	5.1	25.2	24.8	17.4	9.7	7.2	3.6	0.8	1.7	0.4	0.2	0.2	3.2	473	369.2	0.000		
	활동	-	-	10.9	14.6	36.4	3.6	10.9	7.3	14.6	-	-	-	-	-	-	27	368.8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11.4	28.5	5.7	22.8	5.7	5.7	11.4	-	-	-	-	-	5.7	18	371.1	2.355		
	제조업/건설업	-	0.8	3.3	16.3	31.0	25.3	9.8	4.9	3.3	-	0.8	-	-	-	3.3	122	368.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6.3	29.9	22.0	14.1	11.0	1.6	3.1	3.1	-	1.6	-	1.6	3.1	64	371.7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1.5	24.7	20.1	17.0	12.3	7.7	4.6	4.6	-	-	-	-	4.6	65	402.7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	-	30.6	28.7	11.5	3.8	19.1	1.9	-	1.9	-	1.9	-	-	52	368.0			
	보건복지업	-	-	17.1	36.2	22.9	9.5	9.5	-	5.7	-	-	-	-	-	-	52	316.4			
	공공행정업	-	-	3.7	16.5	27.5	18.4	12.8	12.8	1.8	-	3.7	-	-	-	1.8	54	384.0			
	기타서비스업	-	-	3.6	47.2	7.3	14.5	7.3	10.9	-	-	3.6	-	-	-	-	28	338.2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6.7	11.2	40.3	8.9	8.9	4.5	8.9	-	-	-	-	-	6.7	45	382.8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	-	8.3	35.2	26.2	13.8	6.2	4.1	3.4	-	-	-	0.7	-	2.1	145	338.3	13.872		
	취업자	-	0.6	4.2	20.3	25.1	17.7	11.0	8.5	4.5	1.1	2.5	0.6	-	0.6	3.4	355	381.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16] |미취업자 범주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임금수준(만원)																전체 (n, 100%)	평균 (만원)	t/F 검정
		무급	200 미만	200 ~250	250 ~300	300 ~350	350 ~400	400 ~450	450 ~500	500 ~550	550 ~600	600 ~650	650 ~700	700 ~750	750 ~800	800 이상				
전체		-	-	8.3	35.2	26.2	13.8	6.2	4.1	3.4	-	-	-	0.7	-	2.1	145	338.3	-	
권역별	전주 권역	-	-	2.7	44.6	29.7	12.2	2.7	-	5.4	-	-	-	-	-	2.7	74	332.0	1.235	
	군산/김제 권역	-	-	8.3	16.7	33.3	16.7	16.7	4.2	-	-	-	-	4.2	-	4.2	24	375.8		
	익산/완주 권역	-	-	14.8	37.0	22.2	11.1	3.7	14.8	-	-	-	-	-	-	-	27	323.2		
	무주/진안/장수 권역	-	-	50.0	50.0	-	-	-	-	-	-	-	-	-	-	-	2	245.0		
	임실/순창/남원 권역	-	-	14.3	28.6	-	42.9	-	-	-	-	-	-	-	-	-	7	314.6		
	고창/부안/정읍 권역	-	-	18.2	18.2	9.1	18.2	18.2	9.1	18.2	-	-	-	-	-	-	11	362.2		
지역별	농촌지역	-	-	31.6	36.8	10.5	10.5	5.3	-	-	-	-	-	-	-	-	19	290.6	4.714	
	도시지역	-	-	4.8	34.9	27.8	14.3	6.3	4.8	4.0	-	-	-	0.8	-	2.4	126	345.5	**	
성별	남성	-	-	10.4	32.5	27.3	13.0	7.8	3.9	5.2	-	-	-	-	-	-	77	328.3	1.468	
	여성	-	-	5.9	38.2	25.0	14.7	4.4	2.9	2.9	-	-	-	1.5	-	4.4	68	349.4		
연령대 별	18세~24세	-	-	8.3	29.8	25.0	13.1	9.5	4.8	2.4	-	-	-	1.2	-	3.6	84	352.9	1.393	
	25세~29세	-	-	6.8	43.2	31.8	6.8	2.3	2.3	6.8	-	-	-	-	-	-	44	316.6		
	30세~34세	-	-	-	25.0	25.0	41.7	-	-	-	-	-	-	-	-	-	12	329.6		
	35세~39세	-	-	20.0	60.0	-	-	-	20.0	-	-	-	-	-	-	-	5	304.7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	3.2	32.3	19.4	29.0	6.5	9.7	-	-	-	-	-	-	-	31	342.8	0.253	
	미혼+종속	-	-	8.7	34.6	27.9	11.5	6.7	1.0	4.8	-	-	-	1.0	-	2.9	104	339.4		
	기혼+자녀없음	-	-	-	42.9	28.6	-	-	14.3	-	-	-	-	-	-	-	7	322.6		
	기혼+자녀있음	-	-	50.0	25.0	-	-	-	-	25.0	-	-	-	-	-	-	4	297.3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	-	7.2	36.7	25.9	14.4	6.5	4.3	2.2	-	-	-	0.7	-	2.2	139	337.6	0.159	
	활동	-	-	33.3	-	33.3	-	-	-	33.3	-	-	-	-	-	-	6	355.1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33.3	66.7	-	-	-	-	-	-	-	-	-	-	-	3	254.5	2.143	
	제조업/건설업	-	-	-	-	20.0	70.0	-	10.0	-	-	-	-	-	-	-	10	363.5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	66.7	-	33.3	-	-	16.7	-	-	-	-	-	-	6	330.0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4.2	54.2	25.0	16.7	-	-	-	-	-	-	-	-	-	24	305.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	-	50.0	27.3	9.1	-	4.5	-	-	-	-	4.5	-	-	22	333.8		
	보건복지업	-	-	23.5	47.1	-	5.9	17.6	-	5.9	-	-	-	-	-	-	17	305.9		
	공공행정업	-	-	14.3	42.9	21.4	-	7.1	7.1	-	-	-	-	-	-	-	14	312.7		
	기타서비스업	-	-	-	66.7	33.3	-	-	-	-	-	-	-	-	-	-	3	295.0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6.7	11.1	40.0	8.9	8.9	4.4	8.9	-	-	-	-	-	6.7	45	382.8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17] |취업자| 범주별 희망 임금수준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임금수준(만원)																전체 (n, 100%)	평균 (만원)	t/F 검정
		무급	200 미만	200 ~ 250	250 ~ 300	300 ~ 350	350 ~ 400	400 ~ 450	450 ~ 500	500 ~ 550	550 ~ 600	600 ~ 650	650 ~ 700	700 ~ 750	750 ~ 800	800 이상				
전체		-	0.6	4.2	20.3	25.1	17.7	11.0	8.5	4.5	1.1	2.5	0.6	-	0.6	3.4	355	381.8	-	
권역별	전주 권역	-	-	0.7	20.4	23.8	17.7	12.2	10.2	4.1	0.7	4.1	0.7	-	-	4.1	147	396.2	1.648	
	군산/김제 권역	-	-	1.5	16.4	23.9	22.4	13.4	7.5	6.0	3.0	1.5	-	-	-	4.5	67	397.0		
	익산/완주 권역	-	1.2	8.4	16.9	30.1	19.3	9.6	6.0	1.2	-	1.2	-	-	2.4	2.4	83	364.0		
	무주/진안/장수 권역	-	-	30.0	30.0	20.0	-	-	20.0	-	-	-	-	-	-	-	10	330.0		
	임실/순창/남원 권역	-	-	5.3	31.6	26.3	15.8	5.3	-	5.3	-	-	-	-	-	5.3	19	358.1		
	고창/부안/정읍 권역	-	-	6.7	26.7	26.7	6.7	6.7	6.7	13.3	3.3	-	-	-	-	-	30	358.8		
지역별	농촌지역	-	-	7.5	25.0	28.8	12.5	10.0	7.5	2.5	-	-	1.3	-	-	2.5	80	357.7	3.922	
	도시지역	-	0.7	3.3	18.5	24.0	19.3	11.6	8.7	4.7	1.5	2.9	0.4	-	0.4	3.6	275	388.8	**	
성별	남성	-	0.5	2.6	17.4	24.2	15.8	13.2	8.4	6.8	1.6	2.1	1.1	-	-	5.3	190	401.8	10.983	
	여성	-	0.6	6.1	23.6	26.1	20.0	8.5	8.5	1.2	0.6	2.4	-	-	0.6	0.6	165	358.7	***	
연령대 별	18세~24세	-	-	22.2	44.4	27.8	2.8	2.8	-	-	-	-	-	-	-	-	36	282.1	26.542	
	25세~29세	-	-	-	30.7	34.1	19.3	9.1	1.1	1.1	-	-	-	-	1.1	1.1	88	344.9	***	
	30세~34세	-	1.7	1.7	17.8	24.6	24.6	14.4	8.5	2.5	0.8	1.7	-	-	-	2.5	118	374.4		
	35세~39세	-	-	4.4	6.2	18.6	14.2	12.4	16.8	10.6	2.7	6.2	1.8	-	-	7.1	113	449.7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0.9	1.9	15.9	22.4	25.2	15.0	3.7	5.6	-	2.8	-	-	0.9	3.7	107	391.7	18.903	
	미혼+종속	-	0.8	8.1	36.6	32.5	11.4	4.9	3.3	0.8	-	0.8	-	-	-	0.8	123	322.9	***	
	기혼+자녀없음	-	-	2.2	4.3	30.4	23.9	10.9	15.2	2.2	-	2.2	4.3	-	-	4.3	46	416.1		
	기혼+자녀있음	-	-	3.8	10.1	13.9	13.9	16.5	20.3	8.9	5.1	3.8	-	-	-	5.1	79	439.7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	0.6	4.2	20.4	24.3	18.6	11.1	8.4	4.2	1.2	2.4	0.6	-	0.3	3.6	333	382.4	0.127	
	활동	-	-	4.5	18.2	36.4	4.5	13.6	9.1	9.1	-	-	-	-	-	-	22	372.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6.7	20.0	6.7	26.7	6.7	6.7	13.3	-	-	-	-	-	6.7	15	393.8	4.812	
	제조업/건설업	-	0.9	3.6	17.9	32.1	21.4	10.7	4.5	3.6	-	0.9	-	-	-	3.6	112	368.9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6.9	25.9	24.1	12.1	12.1	1.7	1.7	3.4	-	1.7	-	1.7	3.4	58	376.1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	7.5	17.5	15.0	20.0	12.5	7.5	7.5	7.5	-	-	-	7.5	40	462.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	-	16.7	26.7	13.3	6.7	30.0	3.3	-	3.3	-	-	-	-	30	393.3		
	보건복지업	-	-	13.9	30.6	30.6	11.1	2.8	-	8.3	-	-	-	-	-	-	36	321.3		
	공공행정업	-	-	-	7.5	27.5	25.0	15.0	15.0	2.5	-	5.0	-	-	-	2.5	40	409.0		
	기타서비스업	-	-	4.2	45.8	4.2	16.7	8.3	12.5	-	-	4.2	-	-	-	-	24	344.0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4-3) 임금수준(미스매칭)

[부록표 18] |취업자| 범주별 임금수준 미스매칭 정도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임금수준 미스매칭 정도		t/F 검정
		응답자 수	미스매칭 임금 (희망-현재)	
전체		348	89.1	-
권역별	전주 권역	142	90.2	0.943
	군산/김제 권역	67	100.9	.
	익산/완주 권역	82	79.2	.
	무주/진안/장수 권역	9	83.7	.
	임실/순창/남원 권역	19	101.0	.
	고창/부안/정읍 권역	29	78.8	.
지역별	농촌지역	78	81.6	1.119
	도시지역	270	91.3	.
성별	남성	186	96.1	3.908
	여성	161	81.1	**
연령대 별	18세~24세	35	62.1	5.628
	25세~29세	86	75.6	***
	30세~34세	115	89.2	.
	35세~39세	112	108.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07	89.0	3.126
	미혼+종속	118	75.3	**
	기혼+자녀없음	44	97.9	.
	기혼+자녀있음	78	105.2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31	89.4	0.097
	활동	17	83.8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1	129.6	2.789
	제조업/건설업	112	79.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4	88.6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40	112.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0	109.2	.
	보건복지업	36	65.4	.
	공공행정업	40	98.7	.
	기타서비스업	24	71.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5-1) 출퇴근거리(현재)

[부록표 19] | 취업자 범주별 현재 출퇴근거리 비교

(단위: 명, %)

구분		현재 출퇴근거리										전체 (n 100%)	평균 (분)	t/F 검정
		10분 미만	10분 ~ 20분	20분 ~ 30분	30분 ~ 40분	40분 ~ 50분	50분 ~ 60분	60분 ~ 70분	70분 ~ 80분	80분 ~ 90분				
전체		10.9	35.9	25.3	18.8	5.4	2.7	0.9	-	-	355	23.9	-	
권역별	전주 권역	5.4	30.6	27.9	21.8	8.8	3.4	2.0	-	-	147	26.9	3.653	
	군산/김제 권역	14.9	35.8	20.9	22.4	3.0	3.0	-	-	-	67	23.0	***	
	익산/완주 권역	15.7	38.6	22.9	19.3	2.4	1.2	-	-	-	83	21.4	.	
	무주/진안/장수 권역	10.0	50.0	30.0	-	-	-	-	-	-	10	20.5	.	
	임실/순창/남원 권역	15.8	57.9	15.8	-	-	5.3	-	-	-	19	19.4	.	
	고창/부안/정읍 권역	13.3	33.3	30.0	13.3	6.7	-	-	-	-	30	22.3	.	
지역별	농촌지역	15.0	41.3	26.3	12.5	2.5	1.3	-	-	-	80	21.0	6.469	
	도시지역	9.5	34.5	25.1	20.7	6.2	2.9	1.1	-	-	275	24.8	**	
성별	남성	9.5	34.2	26.3	17.4	6.8	4.2	1.6	-	-	190	25.3	5.649	
	여성	12.7	38.2	24.2	20.0	3.6	1.2	-	-	-	165	22.3	**	
연령대 별	18세~24세	5.6	44.4	22.2	16.7	2.8	5.6	-	-	-	36	23.0	0.192	
	25세~29세	12.5	33.0	25.0	21.6	8.0	-	-	-	-	88	23.7	.	
	30세~34세	9.3	36.4	27.1	18.6	5.1	1.7	2.5	-	-	118	24.5	.	
	35세~39세	12.4	35.4	24.8	17.7	5.3	4.4	-	-	-	113	23.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5.9	43.9	19.6	12.1	4.7	2.8	-	-	-	107	21.1	3.486	
	미혼+중속	8.9	30.1	30.9	23.6	3.3	1.6	1.6	-	-	123	24.8	**	
	기혼+자녀없음	10.9	23.9	26.1	21.7	15.2	2.2	-	-	-	46	27.1	.	
	기혼+자녀있음	7.6	40.5	22.8	17.7	5.1	3.8	2.5	-	-	79	24.6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1.1	36.6	24.6	19.2	5.7	2.7	-	-	-	333	23.6	4.475	
	활동	9.1	27.3	36.4	9.1	-	-	13.6	-	-	22	29.1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7	40.0	26.7	13.3	-	-	13.3	-	-	15	26.1	2.854	
	제조업/건설업	4.5	32.1	19.6	30.4	9.8	2.7	1.8	-	-	112	27.3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9	39.7	36.2	13.8	1.7	-	-	-	-	58	21.9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37.5	25.0	12.5	10.0	2.5	-	-	-	40	24.3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23.3	46.7	10.0	3.3	3.3	-	-	-	30	23.8	.	
	보건복지업	30.6	41.7	11.1	13.9	-	2.8	-	-	-	36	19.2	.	
	공공행정업	20.0	37.5	20.0	12.5	2.5	7.5	-	-	-	40	22.1	.	
	기타서비스업	8.3	41.7	33.3	16.7	-	-	-	-	-	24	21.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5-2) 출퇴근거리(희망)

[부록표 20] |전체| 범주별 희망 출퇴근거리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출퇴근거리									전체 (n 100%)	평균 (분)	t/F 검정
		10분 미만	10분 ~ 20분	20분 ~ 30분	30분 ~ 40분	40분 ~ 50분	50분 ~ 60분	60분 ~ 70분	70분 ~ 80분	80분 ~ 90분			
전체		8.2	34.6	34.6	13.6	2.2	4.9	1.4	0.4	0.2	500	24.5	-
권역별	전주 권역	4.5	29.4	38.0	15.8	3.2	6.3	1.8	0.9	-	221	26.6	3.422
	군산/김제 권역	12.1	31.8	30.7	17.5	-	6.6	1.1	-	1.1	91	25.0	***
	익산/완주 권역	10.0	42.8	31.9	9.1	-	3.6	0.9	-	-	110	21.8	.
	무주/진안/장수 권역	17.1	51.4	25.7	8.6	-	-	-	-	-	12	19.3	.
	임실/순창/남원 권역	19.6	47.0	23.5	7.8	-	-	3.9	-	-	26	20.4	.
	고창/부안/정읍 권역	7.4	36.8	39.2	9.8	7.4	-	-	-	-	41	22.7	.
지역별	농촌지역	14.2	41.5	32.4	9.1	1.0	1.0	-	-	-	99	20.3	13.550
	도시지역	6.7	32.7	35.1	14.7	2.5	5.7	1.7	0.5	0.2	401	25.5	***
성별	남성	5.6	34.5	36.0	15.0	2.2	3.7	1.9	0.7	-	267	24.9	0.738
	여성	11.2	34.3	33.0	12.0	1.7	6.4	0.9	-	0.4	233	23.9	.
연령대 별	18세~24세	4.2	25.0	42.5	12.5	1.7	12.5	1.7	-	0.8	120	28.3	8.328
	25세~29세	9.1	32.6	28.8	17.4	3.8	3.8	3.0	1.5	-	132	25.9	***
	30세~34세	10.8	37.7	35.4	10.8	3.1	2.3	-	-	-	130	22.1	.
	35세~39세	9.3	43.1	31.3	13.5	-	1.7	0.8	-	-	118	21.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9.5	37.8	30.5	13.8	0.7	5.1	2.9	-	-	138	23.9	5.855
	미혼+중속	8.0	26.9	38.0	15.9	2.2	6.6	1.3	0.9	0.4	226	26.3	***
	기혼+자녀없음	5.6	30.1	35.7	16.9	9.4	3.8	-	-	-	53	25.5	.
	기혼+자녀있음	8.4	53.1	31.4	6.0	-	1.2	-	-	-	83	19.7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8.3	34.3	34.3	13.8	2.1	5.3	1.5	0.4	0.2	473	24.6	1.840
	활동	10.9	36.4	40.1	10.9	-	-	-	-	-	27	21.3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2.8	28.5	39.9	5.7	-	-	-	-	-	18	19.5	3.902
	제조업/건설업	6.5	37.6	38.4	11.4	2.4	2.4	0.8	-	-	122	23.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9	44.0	33.0	11.0	1.6	-	3.1	-	-	64	21.7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2	30.9	30.9	17.0	-	10.8	1.5	3.1	-	65	27.9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7.6	21.0	51.6	15.3	-	5.7	-	-	-	52	25.0	.
	보건복지업	11.4	38.1	26.7	19.0	3.8	3.8	-	-	-	52	23.1	.
	공공행정업	9.2	36.7	25.7	11.0	3.7	9.2	5.5	-	-	54	26.5	.
	기타서비스업	10.9	58.1	21.8	3.6	7.3	-	-	-	-	28	19.6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7	15.7	38.0	22.4	2.2	11.2	-	-	2.2	45	30.8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8	15.2	41.4	18.6	4.1	11.0	4.1	1.4	0.7	145	31.9	81.909
	취업자	10.4	42.5	31.8	11.6	1.4	2.3	0.3	-	-	355	21.4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21] |미취업자| 범주별 희망 출퇴근거리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출퇴근거리									전체 (n 100%)	평균 (분)	t/F 검정
		10분 미만	10분 ~ 20분	20분 ~ 30분	30분 ~ 40분	40분 ~ 50분	50분 ~ 60분	60분 ~ 70분	70분 ~ 80분	80분 ~ 90분			
전체		2.8	15.2	41.4	18.6	4.1	11.0	4.1	1.4	0.7	145	31.9	-
지역별	전주 권역	2.7	12.2	43.2	18.9	5.4	10.8	5.4	2.7	-	74	32.5	1.400
	군산/김제 권역	-	8.3	41.7	25.0	-	20.8	4.2	-	4.2	24	37.1	.
	익산/원주 권역	3.7	25.9	37.0	14.8	-	14.8	3.7	-	-	27	29.3	.
	무주/진안/장수 권역	50.0	-	50.0	-	-	-	-	-	-	2	19.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14.3	57.1	14.3	-	-	-	-	-	7	23.7	.
	고창/부안/정읍 권역	-	27.3	36.4	18.2	27.3	-	-	-	-	11	29.1	.
지역별	농촌지역	10.5	36.8	31.6	10.5	-	-	-	-	-	19	22.2	9.062
	도시지역	1.6	11.9	42.9	19.0	4.8	12.7	4.8	1.6	0.8	126	33.3	***
성별	남성	2.6	18.2	37.7	20.8	3.9	9.1	5.2	2.6	-	77	31.7	0.030
	여성	2.9	11.8	45.6	16.2	5.9	14.7	2.9	-	1.5	68	32.1	.
연령대 별	18세~24세	4.8	10.7	45.2	16.7	2.4	16.7	2.4	-	1.2	84	32.0	1.630
	25세~29세	-	20.5	31.8	20.5	9.1	4.5	9.1	4.5	-	44	34.2	.
	30세~34세	-	-	75.0	25.0	-	-	-	-	-	12	27.0	.
	35세~39세	-	80.0	-	20.0	-	-	-	-	-	5	20.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12.9	41.9	22.6	3.2	9.7	9.7	-	-	31	33.3	1.628
	미혼+종속	3.8	11.5	43.3	18.3	3.8	12.5	2.9	1.9	1.0	104	32.4	.
	기혼+자녀없음	-	42.9	42.9	-	14.3	-	-	-	-	7	24.6	.
	기혼+자녀있음	-	75.0	-	25.0	-	-	-	-	-	4	18.0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9	14.4	41.7	18.0	4.3	11.5	4.3	1.4	0.7	139	32.2	1.637
	활동	-	33.3	33.3	33.3	-	-	-	-	-	6	23.9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33.3	66.7	-	-	-	-	-	-	3	20.9	0.652
	제조업/건설업	-	-	60.0	20.0	10.0	20.0	-	-	-	10	33.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6.7	16.7	33.3	-	16.7	-	33.3	-	-	6	35.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2.5	41.7	20.8	-	20.8	4.2	8.3	-	24	36.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4.5	50.0	31.8	-	13.6	-	-	-	22	31.5	.
	보건복지업	-	23.5	41.2	17.6	11.8	5.9	-	-	-	17	28.8	.
	공공행정업	-	35.7	42.9	-	-	-	21.4	-	-	14	30.3	.
	기타서비스업	-	-	33.3	-	66.7	-	-	-	-	3	37.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7	15.6	37.8	22.2	2.2	11.1	-	-	2.2	45	30.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22] |취업자| 범주별 희망 출퇴근거리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출퇴근거리										전체 (n 100%)	평균 (분)	t/F 검정
		10분 미만	10분 ~ 20분	20분 ~ 30분	30분 ~ 40분	40분 ~ 50분	50분 ~ 60분	60분 ~ 70분	70분 ~ 80분	80분 ~ 90분				
전체		10.4	42.5	31.8	11.6	1.4	2.3	0.3	-	-	355	21.4	-	
권역별	전주 권역	5.4	38.1	35.4	14.3	2.0	4.8	-	-	-	147	23.6	2.690	
	군산/김제 권역	14.9	40.3	28.4	14.9	-	1.5	-	-	-	67	20.6	**	
	익산/원주 권역	12.0	48.2	30.1	7.2	-	1.2	-	-	-	83	19.4	.	
	무주/진안/장수 권역	10.0	60.0	30.0	10.0	-	-	-	-	-	10	19.3	.	
	임실/순창/남원 권역	21.1	52.6	10.5	5.3	-	-	5.3	-	-	19	19.2	.	
	고창/부안/정읍 권역	10.0	40.0	40.0	6.7	-	-	-	-	-	30	20.3	.	
지역별	농촌지역	15.0	42.5	32.5	7.5	1.3	1.3	-	-	-	80	19.9	2.650	
	도시지역	9.1	42.2	31.6	12.7	1.1	2.9	0.4	-	-	275	21.9	.	
성별	남성	6.8	41.6	35.3	12.1	2.1	1.6	0.5	-	-	190	22.2	2.514	
	여성	14.5	43.6	27.9	10.3	0.6	3.0	-	-	-	165	20.5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55.6	36.1	2.8	-	2.8	-	-	-	36	19.8	0.380	
	25세~29세	13.6	38.6	28.4	15.9	-	3.4	-	-	-	88	21.7	.	
	30세~34세	11.0	41.5	32.2	9.3	3.4	2.5	-	-	-	118	21.6	.	
	35세~39세	9.7	41.6	32.7	13.3	-	1.8	0.9	-	-	113	21.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2.1	44.9	27.1	10.3	-	3.7	0.9	-	-	107	21.2	3.718	
	미혼+중속	11.4	39.0	34.1	13.8	-	1.6	-	-	-	123	21.1	**	
	기혼+자녀없음	6.5	28.3	34.8	19.6	6.5	4.3	-	-	-	46	25.6	.	
	기혼+자녀있음	7.6	51.9	32.9	5.1	-	1.3	-	-	-	79	19.8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0.2	42.9	31.2	11.7	1.2	2.4	0.3	-	-	333	21.5	0.179	
	활동	13.6	36.4	40.9	4.5	-	-	-	-	-	22	20.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6.7	26.7	40.0	6.7	-	-	-	-	-	15	19.2	2.025	
	제조업/건설업	7.1	41.1	36.6	10.7	1.8	0.9	0.9	-	-	112	22.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9	48.3	32.8	12.1	-	-	-	-	-	58	20.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42.5	27.5	15.0	-	5.0	-	-	-	40	22.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3.3	30.0	53.3	3.3	-	-	-	-	-	30	20.2	.	
	보건복지업	16.7	44.4	19.4	19.4	-	2.8	-	-	-	36	20.5	.	
	공공행정업	12.5	40.0	20.0	15.0	5.0	12.5	-	-	-	40	25.2	.	
	기타서비스업	12.5	66.7	20.8	4.2	-	-	-	-	-	24	17.2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5-3) 출퇴근거리(미스매칭)

[부록표 23] | 취업자 범주별 출퇴근거리 미스매칭 정도 비교

(단위: 명, 분)

구분		출퇴근거리 미스매칭 정도		t/F 검정
		응답자 수	미스매칭 분 (희망-현재)	
전체		355	-2.5	-
권역별	전주 권역	147	-3.3	0.353
	군산/김제 권역	67	-2.4	.
	익산/완주 권역	83	-2.1	.
	무주/진안/장수 권역	10	-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19	-0.1	.
	고창/부안/정읍 권역	30	-1.9	.
지역별	농촌지역	80	-1.1	1.422
	도시지역	275	-2.9	.
성별	남성	190	-3.1	1.129
	여성	165	-1.8	.
연령대 별	18세~24세	36	-3.2	0.156
	25세~29세	88	-2.0	.
	30세~34세	118	-2.9	.
	35세~39세	113	-2.2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07	0.1	3.403
	미혼+종속	123	-3.7	**
	기혼+자녀없음	46	-1.4	.
	기혼+자녀있음	79	-4.8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33	-2.1	6.237
	활동	22	-8.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5	-6.9	3.375
	제조업/건설업	112	-5.3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8	-1.6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40	-1.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0	-3.6	.
	보건복지업	36	1.3	.
	공공행정업	40	3.1	.
	기타서비스업	24	-4.1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6-1) 근로시간(현재)

[부록표 24] | 취업자 범주별 현재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현재 근로시간(시간)														전체 (n, 100%)	평균 (시간)	t/F 검정
		16 미만	16 ~ 20	20 ~ 24	24 ~ 28	28 ~ 32	32 ~ 40	40 시간	40 ~ 44	44 ~ 48	48 ~ 52	52 ~ 56	56 ~ 60	60 이상				
전체		1.8	1.4	0.7	0.9	3.4	6.8	42.1	9.8	11.0	9.5	7.1	1.1	4.3	355	42.3	-	
권역별	전주 권역	2.0	1.4	0.7	1.4	-	6.8	38.8	12.2	13.6	9.5	5.4	-	7.5	147	42.9	2.031	
	군산/김제 권역	-	-	-	-	3.0	7.5	47.8	10.4	4.5	7.5	13.4	1.5	1.5	67	43.4	*	
	익산/완주 권역	3.6	2.4	1.2	1.2	10.8	4.8	44.6	3.6	10.8	6.0	6.0	2.4	1.2	83	39.9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10.0	30.0	-	20.0	20.0	10.0	-	-	10	43.9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3	-	-	-	10.5	42.1	10.5	10.5	5.3	-	-	5.3	19	41.0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	-	3.3	3.3	36.7	13.3	13.3	20.0	6.7	-	-	30	43.5	.	
지역별	농촌지역	3.8	3.8	-	-	3.8	7.5	36.3	7.5	13.8	10.0	7.5	2.5	2.5	80	41.8	0.400	
	도시지역	1.5	0.7	1.1	1.1	3.3	6.5	44.0	10.5	10.2	9.1	6.9	0.7	4.7	275	42.4	.	
성별	남성	1.6	-	0.5	0.5	2.6	5.3	40.0	12.6	12.1	11.1	7.4	1.1	5.8	190	43.4	7.873	
	여성	2.4	3.0	0.6	1.2	4.2	8.5	44.2	6.7	9.7	7.9	7.3	1.2	3.0	165	41.0	***	
연령대 별	18세~24세	5.6	2.8	-	8.3	13.9	5.6	44.4	5.6	5.6	2.8	2.8	-	2.8	36	36.6	7.096	
	25세~29세	1.1	2.3	-	-	3.4	10.2	39.8	11.4	13.6	9.1	3.4	1.1	4.5	88	42.0	***	
	30세~34세	1.7	-	-	-	1.7	5.1	44.1	9.3	11.9	10.2	12.7	0.8	2.5	118	43.5	.	
	35세~39세	1.8	0.9	2.7	-	1.8	6.2	40.7	9.7	10.6	11.5	6.2	1.8	6.2	113	42.9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0.9	-	0.9	-	4.7	9.3	44.9	10.3	7.5	9.3	4.7	1.9	3.7	107	41.9	1.386	
	미혼+종속	2.4	2.4	-	2.4	4.1	6.5	40.7	8.1	8.9	10.6	7.3	-	4.1	123	41.5	.	
	기혼+자녀없음	-	-	-	-	2.2	4.3	34.8	17.4	17.4	8.7	6.5	2.2	6.5	46	44.3	.	
	기혼+자녀있음	2.5	1.3	1.3	-	1.3	3.8	45.6	7.6	16.5	7.6	10.1	1.3	3.8	79	42.7	.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1.8	1.5	0.9	0.9	3.6	7.2	43.8	9.9	10.2	9.0	6.0	1.2	4.2	333	41.9	9.439	
	활동	-	-	-	-	-	-	18.2	9.1	22.7	18.2	22.7	-	4.5	22	47.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6.7	13.3	-	20.0	33.3	20.0	-	-	15	47.7	6.074	
	제조업/건설업	-	-	0.9	-	0.9	8.9	58.0	6.3	12.5	5.4	6.3	-	0.9	112	41.8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4	5.2	-	1.7	8.6	3.4	6.9	12.1	10.3	19.0	17.2	3.4	8.6	58	44.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5	-	-	-	-	5.0	50.0	10.0	5.0	10.0	10.0	-	10.0	40	43.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3.3	3.3	-	10.0	3.3	60.0	3.3	-	-	-	-	-	30	35.2	.	
	보건복지업	-	2.8	-	-	8.3	16.7	50.0	11.1	5.6	2.8	-	-	2.8	36	39.9	.	
	공공행정업	-	-	-	-	-	7.5	30.0	22.5	15.0	17.5	2.5	-	7.5	40	44.6	.	
	기타서비스업	-	-	-	8.3	-	-	50.0	8.3	16.7	-	4.2	8.3	4.2	24	42.8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6-2) 근로시간(희망)

[부록표 25] |전체| 범주별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근로시간(시간)														전체 (n, 100%)	평균 (시간)	t/F 검정
		16 미만	16 ~ 20	20 ~ 24	24 ~ 28	28 ~ 32	32 ~ 40	40 시간	40 ~ 44	44 ~ 48	48 ~ 52	52 ~ 56	56 ~ 60	60 이상				
전체		0.6	1.0	0.6	0.9	5.2	21.2	50.1	7.7	5.0	4.0	1.4	0.9	1.2	500	39.5	-	
권역별	전주 권역	0.9	0.9	-	-	4.5	19.9	50.7	10.0	4.5	5.0	0.9	1.4	1.4	221	40.1	1.230	
	군산/김제 권역	-	1.1	-	1.1	6.6	26.3	44.9	6.6	5.5	4.4	2.2	-	1.1	91	39.5		
	익산/원주 권역	0.9	0.9	1.8	2.7	6.4	21.9	51.0	4.6	4.6	1.8	2.7	0.9	-	110	38.3		
	무주/진안/장수 권역	-	-	8.6	-	-	17.1	34.2	8.6	17.1	8.6	-	-	-	12	39.9		
	임실/순창/남원 권역	-	3.9	-	-	3.9	27.4	47.0	11.7	-	-	-	-	3.9	26	39.0		
	고창/부안/정읍 권역	-	-	-	-	4.9	12.3	63.7	4.9	7.4	4.9	-	-	-	41	39.4		
지역별	농촌지역	1.0	2.0	2.0	2.0	4.0	21.2	44.5	6.1	9.1	4.0	1.0	1.0	-	99	38.6	2.354	
	도시지역	0.5	0.7	0.2	0.5	5.5	21.2	51.4	8.2	4.0	4.0	1.7	0.7	1.2	401	39.7		
성별	남성	-	0.4	0.4	1.1	3.7	18.4	52.5	7.5	6.4	5.6	1.1	1.5	1.9	267	40.5	16.900	
	여성	1.3	2.1	1.3	0.4	6.9	24.4	47.6	8.1	3.4	2.6	1.7	-	0.4	233	38.3	***	
연령대 별	18세~24세	-	2.5	1.7	0.8	2.5	20.8	56.7	5.0	2.5	4.2	1.7	-	2.5	120	39.3	0.644	
	25세~29세	0.8	-	-	-	9.9	14.4	50.8	13.6	5.3	2.3	0.8	1.5	0.8	132	39.6		
	30세~34세	1.5	1.5	-	0.8	4.6	28.5	46.2	6.2	4.6	3.9	0.8	1.5	-	130	39.0		
	35세~39세	-	-	0.8	1.7	4.2	22.0	47.3	5.9	7.6	5.9	2.5	-	1.7	118	40.0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0.7	-	-	6.5	24.0	50.9	9.5	1.5	5.1	-	1.5	-	138	39.2	0.520	
	미혼+종속	0.4	0.9	0.9	1.3	5.7	17.2	53.0	9.3	4.4	3.1	1.3	0.4	1.3	226	39.4		
	기혼+자녀없음	3.8	-	-	-	-	20.7	47.0	3.8	13.2	5.6	1.9	3.8	-	53	40.4		
	기혼+자녀있음	-	2.4	1.2	1.2	3.6	26.5	43.4	3.6	7.2	3.6	3.6	-	2.4	83	39.5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0.6	1.1	0.6	0.8	5.1	21.2	51.4	7.2	4.4	3.8	1.5	0.8	1.3	473	39.4	1.484	
	활동	-	-	-	-	7.3	21.9	29.2	18.2	14.6	7.3	-	-	-	27	40.8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5.7	11.4	-	39.9	5.7	22.8	11.4	-	-	-	18	41.2	5.398	
	제조업/건설업	-	-	-	-	5.7	26.9	53.9	4.9	3.3	2.4	0.8	1.6	0.8	122	39.5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6	1.6	1.6	1.6	4.7	48.7	14.1	11.0	6.3	1.6	1.6	3.1	64	41.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5	-	-	4.6	15.4	50.9	15.4	3.1	4.6	6.2	-	-	65	40.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7	3.8	1.9	3.8	5.7	34.4	45.8	-	-	-	-	-	-	52	35.2		
	보건복지업	-	1.9	-	-	11.4	26.7	53.3	3.8	1.9	1.9	-	-	-	52	37.9		
	공공행정업	-	-	-	-	3.7	22.0	47.7	9.2	3.7	9.2	-	3.7	-	54	40.6		
	기타서비스업	-	-	-	-	-	36.3	50.9	-	3.6	3.6	3.6	-	-	28	40.2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2.2	-	6.7	15.7	47.0	11.2	6.7	4.5	-	-	4.5	45	39.8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	1.4	0.7	-	3.4	15.9	57.9	8.3	4.8	4.1	2.1	-	1.4	145	40.0	1.548	
	취업자	0.8	1.1	0.6	1.1	5.9	23.4	46.8	7.6	5.1	3.9	1.1	1.1	1.1	355	39.2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26] |미취업자| 범주별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근로시간(시간)													전체 (n, 100%)	평균 (시간)	t/F 검정
		16 미만	16 ~ 20	20 ~ 24	24 ~ 28	28 ~ 32	32 ~ 40	40 시간	40 ~ 44	44 ~ 48	48 ~ 52	52 ~ 56	56 ~ 60	60 이상			
전체		-	1.4	0.7	-	3.4	15.9	57.9	8.3	4.8	4.1	2.1	-	1.4	145	40.0	-
권역별	전주 권역	-	-	-	2.7	-	17.6	62.2	5.4	2.7	5.4	2.7	-	2.7	74	40.7	1.370
	군산/김제 권역	-	4.2	-	4.2	-	20.8	33.3	20.8	8.3	4.2	-	-	-	24	39.0	.
	익산/원주 권역	-	-	-	3.7	-	11.1	63.0	7.4	7.4	-	3.7	-	-	27	40.2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50.0	-	-	50.0	-	-	-	-	-	-	-	2	3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	-	-	14.3	71.4	14.3	-	-	-	-	-	7	39.9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	9.1	-	-	63.6	-	9.1	9.1	-	-	-	11	38.3	.
지역별	농촌지역	-	-	5.3	-	-	15.8	57.9	5.3	10.5	-	-	-	-	19	37.9	3.118
	도시지역	-	0.8	-	4.0	-	15.9	57.9	8.7	4.0	4.0	2.4	-	1.6	126	40.3	*
성별	남성	-	-	1.3	2.6	-	11.7	58.4	9.1	6.5	6.5	1.3	-	2.6	77	41.0	4.996
	여성	-	2.9	-	4.4	-	20.6	58.8	7.4	2.9	1.5	2.9	-	-	68	38.9	**
연령대 별	18세~24세	-	2.4	1.2	1.2	-	19.0	57.1	6.0	3.6	4.8	2.4	-	2.4	84	39.9	0.166
	25세~29세	-	-	-	9.1	-	9.1	50.0	15.9	9.1	4.5	2.3	-	-	44	40.4	.
	30세~34세	-	-	-	-	-	16.7	83.3	-	-	-	-	-	-	12	39.5	.
	35세~39세	-	-	-	-	-	20.0	80.0	-	-	-	-	-	-	5	38.9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3.2	-	3.2	-	12.9	67.7	6.5	-	6.5	-	-	-	31	38.8	1.355
	미혼+종속	-	-	1.0	2.9	-	17.3	54.8	9.6	4.8	3.8	2.9	-	1.9	104	40.4	.
	기혼+자녀없음	-	-	-	-	-	-	71.4	-	28.6	-	-	-	-	7	41.6	.
	기혼+자녀있음	-	-	-	25.0	-	50.0	25.0	-	-	-	-	-	-	4	36.3	.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	1.4	0.7	2.2	-	13.7	60.4	8.6	5.0	4.3	2.2	-	1.4	139	40.2	6.107
	활동	-	-	-	33.3	-	66.7	-	-	-	-	-	-	-	6	34.5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	100.0	-	-	-	-	-	-	3	40.0	1.129
	제조업/건설업	-	-	-	-	-	40.0	70.0	-	-	-	-	-	-	10	38.6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	-	-	-	66.7	-	33.3	-	-	-	-	6	41.7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4.2	-	-	-	-	45.8	20.8	8.3	8.3	12.5	-	-	24	42.3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	-	-	-	31.8	68.2	-	-	-	-	-	-	22	38.8	.
	보건복지업	-	-	-	11.8	-	23.5	58.8	5.9	-	5.9	-	-	-	17	38.6	.
	공공행정업	-	-	-	-	-	-	85.7	-	-	14.3	-	-	-	14	41.3	.
	기타서비스업	-	-	-	-	-	66.7	33.3	-	-	-	-	-	-	3	37.6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2.2	6.7	-	15.6	46.7	11.1	6.7	4.4	-	-	4.4	45	39.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27] |취업자| 범주별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근로시간(시간)													전체 (n, 100%)	평균 (시간)	t/F 검정
		16 미만	16 ~ 20	20 ~ 24	24 ~ 28	28 ~ 32	32 ~ 40	40 시간	40 ~ 44	44 ~ 48	48 ~ 52	52 ~ 56	56 ~ 60	60 이상			
전체		0.8	1.1	0.6	1.1	5.9	23.4	46.8	7.6	5.1	3.9	1.1	1.1	1.1	355	39.2	-
권역별	전주 권역	1.4	1.4	-	-	5.4	21.1	44.2	12.2	5.4	5.4	-	2.0	0.7	147	39.8	1.498
	군산/김제 권역	-	-	-	1.5	6.0	28.4	49.3	-	4.5	4.5	3.0	-	1.5	67	39.6	.
	익산/원주 권역	1.2	1.2	2.4	3.6	7.2	24.1	47.0	2.4	3.6	2.4	2.4	1.2	-	83	37.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20.0	30.0	10.0	20.0	10.0	-	-	-	10	4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3	-	-	5.3	31.6	36.8	10.5	-	-	-	-	5.3	19	38.6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	-	3.3	16.7	63.3	6.7	6.7	-	-	-	-	30	39.8	.
지역별	농촌지역	1.3	2.5	1.3	2.5	5.0	22.5	41.3	6.3	8.8	5.0	1.3	1.3	-	80	38.8	0.533
	도시지역	0.7	0.7	0.4	0.7	6.2	23.6	48.4	7.6	4.0	4.0	1.1	1.1	1.1	275	39.4	.
성별	남성	-	0.5	-	1.6	4.2	21.1	50.0	6.3	6.3	5.3	1.1	2.1	1.6	190	40.3	12.024
	여성	1.8	1.8	1.2	0.6	7.9	26.1	43.0	8.5	3.6	3.0	1.2	-	0.6	165	38.0	***
연령대 별	18세~24세	-	5.6	2.8	2.8	2.8	25.0	55.6	2.8	-	2.8	-	-	2.8	36	37.7	1.465
	25세~29세	1.1	-	-	-	11.4	15.9	50.0	12.5	3.4	2.3	-	2.3	1.1	88	39.2	.
	30세~34세	1.7	1.7	-	0.8	5.1	29.7	42.4	6.8	5.1	4.2	0.8	1.7	-	118	39.0	.
	35세~39세	-	-	0.9	1.8	4.4	22.1	46.9	6.2	8.0	6.2	2.7	-	1.8	113	40.1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	-	-	7.5	27.1	45.8	9.3	1.9	4.7	-	1.9	-	107	39.4	1.021
	미혼+종속	0.8	1.6	0.8	2.4	8.1	17.9	51.2	8.9	4.1	2.4	-	0.8	0.8	123	38.5	.
	기혼+자녀없음	4.3	-	-	-	-	23.9	43.5	4.3	10.9	6.5	2.2	4.3	-	46	40.3	.
	기혼+자녀있음	-	2.5	1.3	1.3	3.8	26.6	44.3	3.8	7.6	3.8	3.8	-	2.5	79	39.6	.
귀농귀촌 여부별	미활동	0.9	1.2	0.6	1.2	6.3	24.3	47.7	6.6	4.2	3.6	1.2	1.2	1.2	333	39.0	6.512
	활동	-	-	-	-	-	9.1	31.8	22.7	18.2	9.1	-	-	-	22	42.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6.7	13.3	-	33.3	6.7	26.7	13.3	-	-	-	15	41.5	7.582
	제조업/건설업	-	-	-	-	6.3	25.9	53.6	5.4	3.6	2.7	0.9	1.8	0.9	112	39.5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7	1.7	1.7	1.7	5.2	44.8	15.5	10.3	6.9	1.7	1.7	3.4	58	41.4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	-	5.0	25.0	52.5	12.5	-	2.5	-	-	-	40	39.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6.7	3.3	6.7	10.0	36.7	30.0	-	-	-	-	-	-	30	32.6	.
	보건복지업	-	2.8	-	-	11.1	27.8	50.0	2.8	2.8	-	-	-	-	36	37.6	.
	공공행정업	-	-	-	-	5.0	30.0	35.0	12.5	5.0	7.5	-	5.0	-	40	40.3	.
	기타서비스업	-	-	-	-	-	33.3	54.2	-	4.2	4.2	4.2	-	-	24	40.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6-3) 근로시간(미스매칭)

[부록표 28] |취업자| 범주별 근로시간 미스매칭 정도 비교

(단위: 명, 시간)

구분		근로시간 미스매칭 정도		t/F 검정
		응답자 수	미스매칭 시간 (희망-현재)	
전체		355	-3.0	-
권역별	전주 권역	147	-3.1	0.613
	군산/김제 권역	67	-3.7	.
	익산/완주 권역	83	-2.2	.
	무주/진안/장수 권역	10	-2.8	.
	임실/순창/남원 권역	19	-2.3	.
	고창/부안/정읍 권역	30	-3.7	.
지역별	농촌지역	80	-3.0	0.012
	도시지역	275	-3.0	.
성별	남성	190	-3.1	0.072
	여성	165	-2.9	.
연령대 별	18세~24세	36	1.1	8.875
	25세~29세	88	-2.9	***
	30세~34세	118	-4.6	.
	35세~39세	113	-2.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07	-2.6	0.634
	미혼+종속	123	-3.0	.
	기혼+자녀없음	46	-4.0	.
	기혼+자녀있음	79	-3.1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33	-2.9	2.384
	활동	22	-5.0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5	-6.2	1.462
	제조업/건설업	112	-2.3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8	-2.9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40	-4.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0	-2.6	.
	보건복지업	36	-2.3	.
	공공행정업	40	-4.3	.
	기타서비스업	24	-2.2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7)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부록표 29] |전체|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월급여 매우 중요 (-5점~-4점)	월급여 약간 더 중요 (-3점~-1점)	월급여vs 워라벨 비슷 (0점)	워라벨 약간 더 중요 (1점~3점)	워라벨 매우 중요 (4점~5점)			
전체		11.2	30.7	19.5	32.4	6.2	500	-0.23	-
권역별	전주 권역	10.0	27.1	22.6	33.5	6.8	221	-0.03	1.575
	군산/김제 권역	14.3	36.2	15.3	25.2	7.7	91	-0.61	.
	익산/완주 권역	7.3	29.2	20.1	39.2	4.6	110	0.05	.
	무주/진안/장수 권역	25.7	25.7	-	34.2	8.6	12	-0.78	.
	임실/순창/남원 권역	15.7	23.5	27.4	27.4	3.9	26	-0.46	.
	고창/부안/정읍 권역	12.3	44.1	12.3	27.0	2.5	41	-0.93	.
지역별	농촌지역	12.1	32.4	15.2	32.4	7.1	99	-0.27	0.032
	도시지역	11.0	30.2	20.7	32.4	5.7	401	-0.22	.
성별	남성	8.2	35.6	15.7	33.7	6.4	267	-0.21	0.030
	여성	14.6	24.9	23.6	30.9	6.0	233	-0.25	.
연령대 별	18세~24세	10.0	38.3	17.5	29.2	4.2	120	-0.42	0.637
	25세~29세	14.4	26.5	21.2	31.1	6.8	132	-0.35	.
	30세~34세	7.7	33.1	21.6	30.0	6.9	130	-0.14	.
	35세~39세	12.7	24.5	17.7	39.7	5.9	118	0.0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9.5	31.3	22.5	31.3	5.8	138	-0.26	0.309
	미혼+종속	11.9	30.5	18.6	34.9	4.9	226	-0.22	.
	기혼+자녀없음	7.5	35.7	16.9	26.3	15.0	53	0.06	.
	기혼+자녀있음	15.7	27.7	19.3	32.6	6.0	83	-0.3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1.2	30.3	19.7	33.2	5.7	473	-0.22	0.189
	활동	10.9	40.1	18.2	18.2	14.6	27	-0.44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1.4	62.7	5.7	17.1	5.7	18	-1.46	2.424
	제조업/건설업	9.8	31.0	17.1	35.1	7.3	122	0.0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3.6	26.7	25.1	23.6	1.6	64	-1.1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7.7	34.0	15.4	32.4	9.3	65	-0.1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9.1	17.2	19.1	38.2	5.7	52	-0.04	.
	보건복지업	9.5	22.9	17.1	43.8	7.6	52	0.32	.
	공공행정업	5.5	38.5	18.4	31.2	5.5	54	-0.15	.
	기타서비스업	3.6	18.2	25.4	47.2	3.6	28	0.6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7	42.5	29.1	15.7	6.7	45	-0.76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9.7	33.1	24.1	27.6	4.8	145	-0.36	0.505
	취업자	11.8	29.6	17.5	34.1	6.8	355	-0.17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30] |미취업자|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월급여 매우 중요 (-5점~4점)	월급여 약간 더 중요 (-3점~1점)	월급여vs 워라벨 비슷 (0점)	워라벨 약간 더 중요 (1점~3점)	워라벨 매우 중요 (4점~5점)			
전체		9.7	33.1	24.1	27.6	4.8	145	-0.36	-
권역별	전주 권역	8.1	31.1	27.0	29.7	5.4	74	-0.18	0.799
	군산/김제 권역	12.5	45.8	20.8	16.7	4.2	24	-1.03	.
	익산/완주 권역	7.4	33.3	14.8	40.7	3.7	27	-0.08	.
	무주/진안/장수 권역	50.0	-	-	-	50.0	2	0.37	.
	임실/순창/남원 권역	-	14.3	42.9	28.6	-	7	0.20	.
	고창/부안/정읍 권역	18.2	36.4	27.3	27.3	-	11	-1.18	.
지역별	농촌지역	5.3	31.6	21.1	31.6	10.5	19	0.24	1.246
	도시지역	10.3	33.3	25.4	27.0	4.0	126	-0.45	.
성별	남성	6.5	37.7	16.9	36.4	3.9	77	-0.16	1.066
	여성	13.2	27.9	33.8	19.1	5.9	68	-0.59	.
연령대 별	18세~24세	10.7	40.5	19.0	23.8	4.8	84	-0.58	0.916
	25세~29세	9.1	25.0	27.3	31.8	6.8	44	0.00	.
	30세~34세	8.3	16.7	41.7	25.0	-	12	-0.63	.
	35세~39세	-	20.0	20.0	60.0	-	5	0.82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5	25.8	22.6	41.9	-	31	-0.03	0.387
	미혼+중속	11.5	34.6	25.0	23.1	4.8	104	-0.49	.
	기혼+자녀없음	-	42.9	14.3	28.6	14.3	7	-0.39	.
	기혼+자녀있음	-	-	50.0	25.0	-	4	0.4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0.1	33.1	24.5	28.8	3.6	139	-0.39	0.466
	활동	-	33.3	33.3	-	33.3	6	0.34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33.3	-	66.7	-	3	0.18	1.009
	제조업/건설업	-	60.0	40.0	-	-	10	-1.1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6.7	-	66.7	16.7	-	6	0.1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2.5	37.5	12.5	29.2	8.3	24	-0.4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22.7	18.2	22.7	40.9	-	22	-0.46	.
	보건복지업	5.9	35.3	11.8	35.3	11.8	17	0.46	.
	공공행정업	7.1	28.6	28.6	35.7	-	14	-0.21	.
	기타서비스업	-	-	-	100.0	-	3	2.4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7	42.2	28.9	15.6	6.7	45	-0.76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31] |취업자| 범주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선택시 월급여vs워라벨 상대적 중요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월급여 매우 중요 (-5점~4점)	월급여 약간 더 중요 (-3점~1점)	월급여vs 워라벨 비슷 (0점)	워라벨 약간 더 중요 (1점~3점)	워라벨 매우 중요 (4점~5점)			
전체		11.8	29.6	17.5	34.1	6.8	355	-0.17	-
권역별	전주 권역	10.9	25.9	20.4	35.4	7.5	147	0.05	1.158
	군산/김제 권역	14.9	34.3	13.4	28.4	9.0	67	-0.46	.
	익산/완주 권역	7.2	26.5	21.7	38.6	4.8	83	0.10	.
	무주/진안/장수 권역	20.0	30.0	-	40.0	-	10	-0.96	.
	임실/순창/남원 권역	21.1	26.3	21.1	26.3	5.3	19	-0.68	.
	고창/부안/정읍 권역	10.0	46.7	10.0	30.0	3.3	30	-0.83	.
지역별	농촌지역	13.8	32.5	13.8	32.5	6.3	80	-0.39	0.675
	도시지역	11.3	28.7	18.5	34.5	6.9	275	-0.11	.
성별	남성	9.5	34.7	15.8	32.6	7.9	190	-0.23	0.177
	여성	14.5	23.6	20.0	35.8	5.5	165	-0.11	.
연령대 별	18세~24세	8.3	33.3	13.9	41.7	2.8	36	-0.04	0.648
	25세~29세	17.0	27.3	18.2	30.7	6.8	88	-0.52	.
	30세~34세	7.6	34.7	18.6	30.5	7.6	118	-0.09	.
	35세~39세	13.3	23.9	17.7	38.9	6.2	113	-0.04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0.3	32.7	21.5	27.1	7.5	107	-0.33	0.711
	미혼+중속	12.2	26.8	13.0	43.9	4.1	123	0.01	.
	기혼+자녀없음	8.7	32.6	19.6	26.1	15.2	46	0.13	.
	기혼+자녀있음	16.5	27.8	17.7	32.9	6.3	79	-0.4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1.7	29.1	18.0	34.8	6.6	333	-0.14	0.724
	활동	13.6	36.4	13.6	22.7	9.1	22	-0.6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3	66.7	6.7	13.3	6.7	15	-1.77	2.700
	제조업/건설업	10.7	28.6	15.2	37.5	8.0	112	0.11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4.1	29.3	20.7	24.1	1.7	58	-1.25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0	32.5	20.0	35.0	7.5	40	0.0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6.7	20.0	16.7	36.7	10.0	30	0.27	.
	보건복지업	11.1	16.7	19.4	47.2	5.6	36	0.25	.
	공공행정업	5.0	42.5	15.0	30.0	7.5	40	-0.12	.
	기타서비스업	4.2	20.8	29.2	41.7	4.2	24	0.4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8-1) 주업무내용(현재)

[부록표 32] | 취업자 범주별 현재 주업무내용 비교

(단위: 명, %)

구분		현재 주업무내용									전체 (n,100%)	χ^2 검정
		경영 지원	사무· 행정	R&D 연구개발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제작·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타		
전체		6.6	30.5	7.1	4.2	4.8	13.5	16.5	4.3	12.5	355	-
권역별	전주 권역	3.4	34.7	9.5	5.4	1.4	13.6	15.6	8.2	8.8	147	68.394
	군산/김제 권역	6.0	38.8	7.5	7.5	6.0	9.0	10.4	-	14.9	67	***
	익산/완주 권역	14.5	20.5	6.0	2.4	8.4	12.0	20.5	2.4	12.0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	20.0	-	-	-	10.0	20.0	10.0	40.0	1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26.3	-	-	10.5	21.1	31.6	-	5.3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3.3	23.3	3.3	-	10.0	20.0	13.3	-	20.0	30	.
지역별	농촌지역	5.0	25.0	2.5	1.3	6.3	13.8	21.3	2.5	22.5	80	17.210
	도시지역	7.3	32.4	8.4	5.1	4.4	13.5	15.3	4.7	9.8	275	**
성별	남성	6.8	24.7	7.9	4.7	6.8	20.5	16.8	0.5	11.6	190	37.584
	여성	6.1	37.6	6.1	3.6	2.4	5.5	16.4	8.5	13.9	165	***
연령대 별	18세~24세	5.6	33.3	-	-	-	13.9	38.9	-	5.6	36	47.447
	25세~29세	3.4	36.4	5.7	4.5	5.7	11.4	21.6	2.3	9.1	88	***
	30세~34세	9.3	29.7	6.8	2.5	5.1	16.1	11.0	8.5	10.2	118	.
	35세~39세	7.1	26.5	10.6	5.3	5.3	12.4	10.6	2.7	19.5	1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5	32.7	9.3	3.7	8.4	13.1	15.0	1.9	9.3	107	28.583
	미혼+중속	4.9	33.3	3.3	2.4	3.3	12.2	23.6	5.7	12.2	123	.
	기혼+자녀없음	10.9	26.1	13.0	4.3	4.3	15.2	15.2	4.3	10.9	46	.
	기혼+자녀있음	7.6	25.3	7.6	7.6	3.8	15.2	8.9	6.3	19.0	7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9	31.5	7.5	4.5	4.5	14.4	16.8	4.5	9.3	333	54.949
	활동	-	13.6	-	-	9.1	-	13.6	-	59.1	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20.0	-	-	-	-	6.7	-	73.3	15	536.548
	제조업/건설업	9.8	16.1	3.6	8.9	14.3	41.1	3.6	1.8	-	1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7	3.4	-	-	1.7	-	75.9	3.4	12.1	5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0	22.5	35.0	10.0	-	2.5	10.0	7.5	12.5	4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33.3	-	-	-	-	3.3	20.0	36.7	30	.
	보건복지업	2.8	61.1	-	-	-	2.8	8.3	-	22.2	36	.
	공공행정업	2.5	75.0	17.5	-	-	-	-	2.5	-	40	.
	기타서비스업	20.8	58.3	-	4.2	-	4.2	8.3	-	8.3	2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8-2) 주업무내용(희망)

[부록표 33] |전체| 범주별 희망 주업무내용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주업무내용									전체 (n,100%)	χ^2 검정
		경영 지원	사무· 행정	R&D 연구개발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제작·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타		
전체		6.4	33.3	9.6	4.0	7.2	10.5	10.7	7.4	11.1	500	-
권역별	전주 권역	4.5	37.1	8.1	3.6	6.8	10.9	10.9	9.0	9.0	221	50.996
	군산/김제 권역	5.5	29.6	16.4	5.5	9.9	6.6	8.8	4.4	13.2	91	.
	익산/완주 권역	14.6	26.4	10.9	2.7	7.3	11.9	7.3	9.1	10.0	110	.
	무주/진안/장수 권역	-	25.7	-	-	-	8.6	17.1	8.6	25.7	1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47.0	-	3.9	7.8	15.7	19.6	-	7.8	26	.
	고창/부안/정읍 권역	2.5	31.9	4.9	7.4	7.4	9.8	12.3	7.4	17.2	41	.
지역별	농촌지역	6.1	30.3	5.1	2.0	6.1	10.1	16.2	6.1	19.2	99	15.321
	도시지역	6.5	34.2	10.7	4.5	7.5	10.5	9.2	7.7	9.2	401	*
성별	남성	5.6	30.7	10.1	5.6	9.0	16.1	9.7	3.7	9.4	267	37.229
	여성	7.3	36.5	8.6	2.1	5.1	4.3	11.6	11.6	13.3	233	***
연령대 별	18세~24세	5.8	29.2	11.7	4.2	10.8	5.0	11.7	12.5	7.5	120	37.402
	25세~29세	6.8	38.7	6.1	4.5	8.3	9.9	12.9	5.3	8.3	132	**
	30세~34세	6.2	33.1	9.2	3.1	5.4	16.2	8.5	8.5	10.0	130	.
	35세~39세	6.8	31.3	11.0	4.2	4.2	10.1	10.1	2.5	19.4	11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8.7	37.8	13.8	3.6	9.5	8.7	5.8	4.4	6.5	138	39.286
	미혼+종속	5.7	32.7	6.6	3.5	8.4	9.3	12.4	10.6	10.6	226	**
	기혼+자녀없음	1.9	32.0	13.2	3.8	1.9	13.2	18.8	3.8	11.3	53	.
	기혼+자녀있음	7.2	29.0	7.2	6.0	3.6	14.5	9.7	6.0	19.3	8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8	33.0	10.2	4.2	7.2	11.0	10.8	7.8	9.1	473	45.980
	활동	-	36.4	-	-	7.3	-	7.3	-	47.4	27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7	-	5.7	-	-	17.1	-	5.7	62.7	18	586.750
	제조업/건설업	9.8	17.1	6.5	9.0	17.1	33.5	2.4	4.1	-	12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9	11.0	-	-	1.6	3.1	61.3	4.7	9.4	64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2	34.0	29.3	7.7	9.3	3.1	-	3.1	7.7	65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9	38.2	-	-	3.8	-	-	28.7	26.7	52	.
	보건복지업	-	62.9	3.8	-	-	1.9	1.9	9.5	19.0	52	.
	공공행정업	9.2	73.4	14.7	-	-	-	-	1.8	-	54	.
	기타서비스업	14.5	50.9	3.6	3.6	-	-	14.5	-	14.5	28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20.1	17.9	6.7	15.7	6.7	11.2	8.9	11.2	45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3.4	33.8	11.7	4.1	13.8	3.4	9.0	13.1	7.6	145	36.636
	취업자	7.6	33.0	8.5	3.7	4.8	13.2	11.3	5.1	12.7	35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34] |미취업자| 범주별 희망 주업무내용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주업무내용									전체 (n100%)	χ^2 검정
		경영 자원	사무· 행정	R&D 연구개발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제작·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타		
전체		3.4	33.8	11.7	4.1	13.8	3.4	9.0	13.1	7.6	145	-
지역별	전주 권역	2.7	37.8	5.4	2.7	17.6	2.7	10.8	14.9	8.1	74	45.457
	군산/김제 권역	-	16.7	37.5	4.2	16.7	4.2	4.2	4.2	8.3	24	.
	익산/완주 권역	7.4	33.3	14.8	3.7	3.7	7.4	7.4	18.5	3.7	2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50.0	-	-	-	-	-	-	-	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71.4	-	-	-	-	14.3	-	14.3	7	.
	고창/부안/정읍 권역	-	27.3	9.1	18.2	9.1	-	18.2	18.2	9.1	11	.
지역별	농촌지역	-	42.1	10.5	-	5.3	-	15.8	10.5	10.5	19	5.343
	도시지역	3.2	32.5	12.7	4.8	14.3	4.0	8.7	13.5	6.3	126	.
성별	남성	2.6	33.8	13.0	7.8	15.6	5.2	7.8	7.8	6.5	77	8.913
	여성	2.9	33.8	11.8	1.5	11.8	1.5	10.3	19.1	8.8	68	.
연령대 별	18세~24세	4.8	26.2	16.7	6.0	15.5	1.2	9.5	14.3	6.0	84	42.303
	25세~29세	2.3	50.0	4.5	2.3	11.4	2.3	9.1	9.1	9.1	44	**
	30세~34세	-	33.3	8.3	-	16.7	25.0	-	16.7	-	12	.
	35세~39세	-	20.0	-	-	-	-	20.0	20.0	40.0	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54.8	16.1	3.2	12.9	3.2	-	9.7	-	31	35.506
	미혼+중속	4.8	27.9	11.5	4.8	15.4	2.9	10.6	14.4	7.7	104	*
	기혼+자녀없음	-	14.3	-	-	-	28.6	28.6	14.3	14.3	7	.
	기혼+자녀있음	-	25.0	25.0	-	-	-	25.0	-	25.0	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6	30.9	12.2	4.3	13.7	3.6	9.4	13.7	7.9	139	10.254
	활동	-	83.3	-	-	-	-	-	-	-	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33.3	-	-	66.7	-	-	-	3	205.739
	제조업/건설업	-	20.0	-	20.0	50.0	-	-	10.0	-	10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	-	-	-	100.0	-	-	6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2.5	29.2	20.8	8.3	25.0	4.2	-	4.2	-	2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40.9	-	-	9.1	-	-	36.4	13.6	22	.
	보건복지업	-	58.8	11.8	-	-	-	-	11.8	11.8	17	.
	공공행정업	-	85.7	7.1	-	-	-	-	7.1	-	14	.
	기타서비스업	33.3	-	-	-	-	-	66.7	-	-	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20.0	17.8	6.7	15.6	6.7	11.1	8.9	11.1	45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35] |취업자| 범주별 희망 주업무내용 비교

(단위: 명, %)

구분		희망 주업무내용									전체 (n100%)	χ^2 검정
		경영 자원	사무· 행정	R&D 연구개발	기술 개발	품질 관리	제작· 생산	판매· 영업	홍보· 마케팅	기타		
전체		7.6	33.0	8.5	3.7	4.8	13.2	11.3	5.1	12.7	355	-
지역별	전주 권역	5.4	37.4	9.5	4.1	1.4	15.0	10.9	6.1	10.2	147	47.295
	군산/김제 권역	7.5	34.3	9.0	4.5	6.0	7.5	10.4	4.5	14.9	67	.
	익산/완주 권역	15.7	24.1	10.8	2.4	8.4	13.3	7.2	6.0	12.0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	30.0	-	-	-	10.0	20.0	10.0	30.0	1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36.8	-	5.3	10.5	21.1	26.3	-	5.3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	33.3	3.3	-	10.0	13.3	10.0	3.3	20.0	30	.
지역별	농촌지역	6.3	27.5	5.0	2.5	5.0	12.5	17.5	5.0	20.0	80	11.092
	도시지역	8.0	34.9	9.8	4.4	4.4	13.5	9.8	5.5	10.5	275	.
성별	남성	6.8	29.5	9.5	4.7	6.8	20.0	10.5	2.1	10.5	190	31.253
	여성	8.5	37.6	7.3	3.0	2.4	4.8	12.1	8.5	15.2	165	***
연령대 별	18세~24세	8.3	38.9	-	-	-	13.9	16.7	11.1	11.1	36	26.738
	25세~29세	9.1	33.0	6.8	4.5	6.8	13.6	13.6	3.4	8.0	88	.
	30세~34세	6.8	33.1	9.3	3.4	5.1	15.3	9.3	8.5	10.2	118	.
	35세~39세	7.1	31.9	11.5	4.4	4.4	10.6	9.7	1.8	19.5	1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1.2	32.7	13.1	3.7	8.4	10.3	7.5	3.7	8.4	107	32.784
	미혼+중속	6.5	35.8	3.3	2.4	3.3	15.4	13.8	7.3	13.0	123	.
	기혼+자녀없음	2.2	34.8	15.2	4.3	2.2	10.9	17.4	2.2	10.9	46	.
	기혼+자녀있음	7.6	27.8	6.3	6.3	3.8	15.2	8.9	6.3	19.0	7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8.1	33.9	9.0	3.9	4.5	14.1	11.4	5.4	9.6	333	50.564
	활동	-	22.7	-	-	9.1	-	9.1	-	59.1	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7	-	-	-	-	13.3	-	6.7	73.3	15	471.868
	제조업/건설업	10.7	17.0	7.1	8.0	14.3	36.6	2.7	3.6	-	1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8.6	12.1	-	-	1.7	3.4	56.9	5.2	10.3	5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35.0	37.5	7.5	-	2.5	-	2.5	12.5	4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3	36.7	-	-	-	-	-	23.3	36.7	30	.
	보건복지업	-	63.9	-	-	-	2.8	2.8	8.3	22.2	36	.
	공공행정업	12.5	70.0	17.5	-	-	-	-	-	-	40	.
	기타서비스업	12.5	58.3	4.2	4.2	-	-	8.3	-	16.7	2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8-3) 주업무내용(미스매칭)

[부록표 36] |취업자| 범주별 주업무내용 미스매칭 정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주업무내용 미스매칭 정도		전체 (n,100%)	χ^2 검정
		불일치	일치		
전체		18.0	82.0	355	-
권역별	전주 권역	19.7	80.3	147	5.577
	군산/김제 권역	9.0	91.0	67	.
	익산/완주 권역	22.9	75.9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20.0	80.0	10	.
	임실/순창/남원 권역	15.8	84.2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16.7	80.0	30	.
지역별	농촌지역	15.0	85.0	80	0.620
	도시지역	18.9	81.5	275	.
성별	남성	20.0	80.0	190	1.076
	여성	15.8	84.2	165	.
연령대 별	18세~24세	38.9	58.3	36	16.977
	25세~29세	19.3	79.5	88	***
	30세~34세	18.6	81.4	118	.
	35세~39세	9.7	91.2	1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1.5	78.5	107	10.067
	미혼+종속	22.8	77.2	123	**
	기혼+자녀없음	17.4	82.6	46	.
	기혼+자녀있음	6.3	93.7	7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8.6	81.4	333	2.593
	활동	4.5	90.9	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6.7	73.3	15	3.243
	제조업/건설업	16.1	83.9	1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2.4	75.9	5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17.5	82.5	4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6.7	83.3	30	.
	보건복지업	13.9	86.1	36	.
	공공행정업	15.0	85.0	40	.
	기타서비스업	25.0	79.2	2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9-1)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부록표 37] |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실시여부		전체 (n,100%)	χ^2 검정
		미실시	실시		
전체		73.0	27.0	355	-
권역별	전주 권역	61.9	38.1	147	19.973
	군산/김제 권역	73.1	26.9	67	***
	익산/완주 권역	83.1	15.7	83	.
	무주/진안/장수 권역	90.0	10.0	10	.
	임실/순창/남원 권역	84.2	15.8	19	.
	고창/부안/정읍 권역	86.7	13.3	30	.
지역별	농촌지역	80.0	18.8	80	3.191
	도시지역	70.9	29.1	275	*
성별	남성	71.1	28.9	190	0.931
	여성	75.2	24.2	165	.
연령대 별	18세~24세	86.1	13.9	36	9.173
	25세~29세	76.1	22.7	88	**
	30세~34세	75.4	24.6	118	.
	35세~39세	63.7	36.3	1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6.4	33.6	107	11.685
	미혼+종속	83.7	16.3	123	***
	기혼+자녀없음	71.7	28.3	46	.
	기혼+자녀있음	65.8	34.2	7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72.1	28.2	333	3.804
	활동	90.9	9.1	2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86.7	13.3	15	76.938
	제조업/건설업	80.4	19.6	1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87.9	12.1	5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전문과학기술업	57.5	42.5	4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86.7	13.3	30	.
	보건복지업	75.0	25.0	36	.
	공공행정업	20.0	80.0	40	.
	기타서비스업	87.5	16.7	2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9-2) 유연근무제 실시유형

[부록표 38] |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실시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실시유형							전체 (n,100%)
		시간 선택제	시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재택 근무형	스마트워크 근무형	
전체		31.3	55.9	26.1	5.5	8.6	7.0	-	96
권역별	전주 권역	26.8	64.2	29.4	3.1	3.0	6.3	-	56
	군산/김제 권역	40.2	46.6	29.1	17.2	11.9	5.2	-	18
	익산/완주 권역	43.0	33.4	16.7	-	29.6	16.7	-	13
	무주/진안/장수 권역	35.3	29.6	-	-	35.1	-	-	1
	임실/순창/남원 권역	26.2	48.1	16.4	9.3	-	-	-	3
	고창/부안/정읍 권역	16.0	71.9	12.1	-	-	-	-	4
지역별	농촌지역	27.2	49.0	21.3	2.0	4.8	6.9	-	15
	도시지역	32.0	57.2	27.0	6.1	9.3	7.0	-	80
성별	남성	36.6	61.6	24.2	5.2	7.1	9.2	-	55
	여성	24.0	48.0	28.7	5.7	10.5	4.0	-	40
연령대 별	18세~24세	53.5	29.1	38.4	-	-	-	-	5
	25세~29세	48.0	67.0	33.4	13.3	-	21.9	-	20
	30세~34세	30.3	36.0	23.2	5.0	23.1	4.1	-	29
	35세~39세	20.8	67.9	23.0	2.6	3.5	2.6	-	41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5.4	55.5	25.8	9.0	-	4.9	-	36
	미혼+종속	42.3	55.4	33.8	4.8	11.9	13.5	-	20
	기혼+자녀없음	42.5	45.5	5.1	-	12.0	14.4	-	13
	기혼+자녀있음	12.2	61.7	30.9	3.9	15.9	1.4	-	27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2.0	55.5	26.4	5.2	8.8	7.2	-	94
	활동	-	72.5	12.0	15.5	-	-	-	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100.0	-	-	-	-	-	2
	제조업/건설업	24.7	45.1	19.8	4.9	15.9	-	-	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9.7	-	39.3	-	31.0	-	-	7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72.1	18.9	6.6	9.1	6.9	-	17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38.6	82.5	-	-	17.5	-	4
	보건복지업	11.1	41.5	47.4	-	-	-	-	9
	공공행정업	53.8	68.2	20.5	8.4	3.5	15.0	-	32
	기타서비스업	71.4	63.5	27.6	8.9	-	-	-	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10)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부록표 39] |전체| 범주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8.0	16.6	18.0	31.8	25.6	500	3.50	-
권역별	전주 권역	6.3	19.5	18.5	31.7	24.0	221	3.47	6.028 ***
	군산/김제 권역	4.4	9.9	16.4	27.4	41.7	91	3.93	
	익산/완주 권역	10.0	17.3	19.1	33.7	20.1	110	3.37	
	무주/진안/장수 권역	34.2	17.1	17.1	25.7	-	12	2.39	
	임실/순창/남원 권역	7.8	-	7.8	50.9	31.3	26	3.99	
	고창/부안/정읍 권역	12.3	24.5	19.6	27.0	14.7	41	3.11	
지역별	농촌지역	17.2	15.2	14.2	32.4	21.2	99	3.25	5.192 **
	도시지역	5.7	16.7	18.9	31.7	26.7	401	3.57	
성별	남성	10.1	16.5	21.0	31.9	20.2	267	3.35	8.348 ***
	여성	5.6	16.7	14.6	31.7	31.7	233	3.68	
연령대 별	18세~24세	4.2	17.5	16.7	40.8	20.0	120	3.56	0.424
	25세~29세	4.5	15.9	20.5	36.4	22.7	132	3.57	
	30세~34세	13.1	13.9	16.9	28.5	27.7	130	3.45	
	35세~39세	11.0	19.4	16.9	20.3	32.1	118	3.4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8.0	16.0	16.7	26.2	32.7	138	3.60	0.581
	미혼+종속	4.9	19.0	18.6	38.4	19.4	226	3.48	
	기혼+자녀없음	11.3	7.5	22.6	30.1	26.3	53	3.55	
	기혼+자녀있음	14.5	16.9	16.9	24.1	29.0	83	3.38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7.0	16.3	18.0	32.8	26.0	473	3.54	8.843 ***
	활동	25.5	21.9	18.2	14.6	18.2	27	2.8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1.3	22.8	5.7	11.4	5.7	18	1.91	11.867 ***
	제조업/건설업	4.9	18.8	18.8	31.0	27.8	122	3.58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2.0	28.3	18.9	18.9	14.1	64	2.7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5	7.7	21.6	35.5	34.0	65	3.93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8	7.6	19.1	30.6	36.3	52	3.88	
	보건복지업	-	24.8	21.0	32.4	22.9	52	3.53	
	공공행정업	3.7	3.7	7.3	53.2	33.0	54	4.09	
	기타서비스업	18.2	29.1	10.9	18.2	21.8	28	2.9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2.2	15.7	26.8	38.0	15.7	45	3.52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5	13.8	22.1	37.9	20.7	145	3.55	0.247
	취업자	9.0	17.7	16.3	29.3	27.6	355	3.49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0] |미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5.5	13.8	22.1	37.9	20.7	145	3.55	-
권역별	전주 권역	4.1	16.2	24.3	36.5	18.9	74	3.49	3.464
	군산/김제 권역	-	4.2	16.7	37.5	45.8	24	4.20	***
	익산/완주 권역	14.8	18.5	18.5	37.0	11.1	27	3.19	.
	무주/진안/장수 권역	50.0	-	-	50.0	-	2	2.61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	57.1	28.6	7	4.23	.
	고창/부안/정읍 권역	-	27.3	45.5	27.3	9.1	11	3.15	.
지역별	농촌지역	15.8	15.8	15.8	47.4	10.5	19	3.20	2.153
	도시지역	4.0	14.3	23.0	36.5	22.2	126	3.60	.
성별	남성	9.1	13.0	28.6	37.7	11.7	77	3.32	6.915
	여성	1.5	16.2	14.7	38.2	30.9	68	3.80	***
연령대 별	18세~24세	2.4	20.2	19.0	36.9	21.4	84	3.55	1.040
	25세~29세	4.5	9.1	27.3	40.9	18.2	44	3.60	.
	30세~34세	25.0	-	25.0	25.0	16.7	12	3.11	.
	35세~39세	-	-	20.0	40.0	40.0	5	4.1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9.7	9.7	16.1	38.7	25.8	31	3.61	0.453
	미혼+중속	2.9	15.4	24.0	38.5	19.2	104	3.56	.
	기혼+자녀없음	28.6	14.3	-	28.6	28.6	7	3.07	.
	기혼+자녀있음	-	-	50.0	25.0	25.0	4	3.68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8	12.9	21.6	38.1	21.6	139	3.57	1.274
	활동	-	33.3	33.3	33.3	-	6	3.03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6.7	33.3	-	-	-	3	1.21	4.989
	제조업/건설업	-	-	30.0	40.0	40.0	10	4.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6.7	50.0	33.3	-	-	6	2.2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2	4.2	20.8	45.8	25.0	24	3.80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5	9.1	4.5	40.9	40.9	22	4.10	.
	보건복지업	-	35.3	35.3	17.6	11.8	17	3.12	.
	공공행정업	14.3	-	21.4	57.1	14.3	14	3.56	.
	기타서비스업	-	33.3	-	66.7	-	3	3.2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2.2	15.6	26.7	37.8	15.6	45	3.52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1] |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참여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9.0	17.7	16.3	29.3	27.6	355	3.49	-
권역별	전주 권역	7.5	21.1	15.6	28.6	26.5	147	3.46	3.508
	군산/김제 권역	6.0	11.9	16.4	23.9	41.8	67	3.83	***
	익산/완주 권역	8.4	16.9	19.3	32.5	21.7	83	3.43	.
	무주/진안/장수 권역	40.0	20.0	20.0	20.0	-	10	2.36	.
	임실/순창/남원 권역	10.5	-	10.5	47.4	31.6	19	3.91	.
	고창/부안/정읍 권역	16.7	23.3	10.0	26.7	20.0	30	3.09	.
지역별	농촌지역	16.3	16.3	15.0	28.8	23.8	80	3.26	3.117
	도시지역	6.9	18.2	16.7	29.8	28.7	275	3.55	*
성별	남성	11.1	18.4	17.9	29.5	23.7	190	3.37	3.431
	여성	7.3	17.0	14.5	29.1	32.1	165	3.62	*
연령대 별	18세~24세	5.6	13.9	11.1	50.0	16.7	36	3.58	0.318
	25세~29세	3.4	19.3	18.2	34.1	25.0	88	3.56	.
	30세~34세	11.9	15.3	16.1	28.8	28.8	118	3.48	.
	35세~39세	11.5	20.4	16.8	19.5	31.9	113	3.4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7.5	17.8	16.8	23.4	34.6	107	3.60	0.740
	미혼+중속	6.5	22.0	13.0	38.2	19.5	123	3.42	.
	기혼+자녀없음	8.7	6.5	26.1	30.4	28.3	46	3.62	.
	기혼+자녀있음	15.2	17.7	15.2	24.1	30.4	79	3.36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7.5	17.7	16.5	30.6	27.6	333	3.53	7.289
	활동	31.8	18.2	13.6	9.1	22.7	22	2.7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6.7	26.7	6.7	13.3	6.7	15	2.05	10.418
	제조업/건설업	5.4	20.5	17.9	30.4	26.8	112	3.53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2.4	25.9	15.5	20.7	15.5	58	2.8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7.5	22.5	30.0	40.0	40	4.01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6.7	30.0	23.3	33.3	30	3.72	.
	보건복지업	-	19.4	13.9	36.1	27.8	36	3.73	.
	공공행정업	-	5.0	2.5	52.5	40.0	40	4.28	.
	기타서비스업	20.8	29.2	12.5	12.5	25.0	24	2.9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1)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부록표 42] |전체| 범주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전체 (n,100%)	χ^2 검정
		시간 선택제	사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자택 근무형	소트워킹 근무형		
전체		30.6	23.8	19.6	8.7	6.6	10.2	0.5	377	-
지역별	전주 권역	23.6	24.8	19.4	9.1	8.5	13.3	1.2	165	38.789
	군산/김제 권역	29.1	25.3	16.5	10.1	7.6	11.4	-	79	.
	익산/완주 권역	46.3	23.8	16.3	6.3	3.8	3.8	-	80	.
	무주/진안/장수 권역	-	50.0	50.0	-	-	-	-	4	.
	임실/순창/남원 권역	47.8	17.4	17.4	13.0	-	4.3	-	23	.
	고창/부안/정읍 권역	20.0	16.0	40.0	4.0	8.0	12.0	-	25	.
지역별	농촌지역	26.9	26.9	22.4	10.4	4.5	9.0	-	67	2.498
	도시지역	31.6	23.2	19.0	8.1	7.1	10.3	0.6	310	.
성별	남성	29.7	25.6	24.1	11.3	5.1	4.1	-	195	26.588
	여성	31.3	21.4	14.8	6.0	8.2	17.0	1.1	182	***
연령대 별	18세~24세	28.7	20.2	18.1	5.3	9.6	18.1	-	94	28.848
	25세~29세	25.5	29.2	17.9	10.4	3.8	11.3	1.9	106	*
	30세~34세	31.6	20.0	24.2	12.6	6.3	5.3	-	95	.
	35세~39세	39.0	24.4	18.3	6.1	7.3	4.9	-	82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9.8	21.2	23.1	9.6	7.7	8.7	-	104	16.454
	미혼+종속	28.3	25.4	17.3	10.4	5.8	11.6	1.2	173	.
	기혼+자녀없음	30.2	34.9	11.6	4.7	4.7	14.0	-	43	.
	기혼+자녀있음	38.6	15.8	26.3	5.3	7.0	7.0	-	57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1.5	23.5	19.9	8.3	6.6	9.7	0.6	362	9.178
	활동	12.5	31.3	12.5	18.8	-	25.0	-	16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0.0	-	25.0	-	-	25.0	-	4	85.071
	제조업/건설업	34.0	26.6	24.5	7.4	3.2	4.3	-	9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40.6	15.6	28.1	9.4	-	6.3	-	3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5.4	22.0	25.4	6.8	10.2	10.2	-	59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8.9	11.1	8.9	8.9	8.9	13.3	-	45	.
	보건복지업	25.0	37.5	20.0	-	5.0	7.5	5.0	40	.
	공공행정업	17.6	33.3	5.9	21.6	9.8	11.8	-	51	.
	기타서비스업	40.0	13.3	26.7	-	6.7	13.3	-	1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8.4	21.1	18.4	10.5	10.5	21.1	-	38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9.1	21.4	17.1	7.7	7.7	15.4	1.7	117	10.200
	취업자	31.4	24.9	20.7	8.8	6.1	8.0	-	261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3] |미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전체 (n,100%)	χ^2 검정
		시간 선택제	사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재량 근무형	자택 근무형	선택유무 근무형		
전체		29.1	21.4	17.1	7.7	7.7	15.4	1.7	117	-
권역별	전주 권역	18.3	18.3	18.3	8.3	10.0	23.3	3.3	60	36.945
	군산/김제 권역	21.7	39.1	17.4	8.7	8.7	4.3	-	23	.
	익산/완주 권역	61.1	22.2	5.6	5.6	-	5.6	-	18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
	임실/순창/남원 권역	83.3	-	16.7	-	-	-	-	6	.
	고창/부안/정읍 권역	25.0	-	37.5	12.5	12.5	12.5	-	8	.
지역별	농촌지역	30.8	23.1	15.4	7.7	-	23.1	-	13	2.001
	도시지역	27.9	22.1	17.3	7.7	8.7	14.4	1.9	104	.
성별	남성	31.7	21.7	21.7	10.0	6.7	8.3	-	60	8.336
	여성	25.9	20.7	13.8	5.2	8.6	22.4	3.4	58	.
연령대 별	18세~24세	21.9	20.3	18.8	4.7	10.9	23.4	-	64	27.688
	25세~29세	33.3	25.6	12.8	15.4	2.6	5.1	5.1	39	*
	30세~34세	50.0	-	37.5	-	12.5	-	-	8	.
	35세~39세	60.0	20.0	-	-	-	20.0	-	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4.2	16.7	16.7	-	-	12.5	-	24	21.781
	미혼+종속	20.0	22.4	18.8	10.6	9.4	16.5	2.4	85	.
	기혼+자녀없음	60.0	20.0	-	-	20.0	-	-	5	.
	기혼+자녀있음	25.0	50.0	-	-	-	25.0	-	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0.1	20.4	17.7	8.0	8.0	14.2	1.8	113	7.434
	활동	-	50.0	-	-	-	50.0	-	4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	-	-	65.472
	제조업/건설업	45.5	9.1	45.5	-	-	-	-	11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3.3	-	66.7	-	-	-	-	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2.7	31.8	9.1	18.2	-	18.2	-	2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5.0	15.0	10.0	10.0	15.0	15.0	-	20	.
	보건복지업	33.3	16.7	8.3	-	16.7	8.3	16.7	12	.
	공공행정업	41.7	33.3	-	-	-	25.0	-	12	.
	기타서비스업	-	-	100.0	-	-	-	-	2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8.4	21.1	18.4	10.5	10.5	21.1	-	3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4] |취업자| 범주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비교

(단위: 명, %)

구분		유연근무제 희망유형							전체 (n,100%)	χ^2 검정
		시간 선택제	사차 출퇴근형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 근무형	자량 근무형	자택 근무형	선택유무 근무형		
전체		31.4	24.9	20.7	8.8	6.1	8.0	-	261	-
지역별	전주 권역	26.7	28.6	20.0	9.5	7.6	7.6	-	105	25.109
	군산/김제 권역	32.1	19.6	16.1	10.7	7.1	14.3	-	56	.
	익산/완주 권역	43.5	24.2	19.4	6.5	4.8	1.6	-	62	.
	무주/진안/장수 권역	-	33.3	66.7	-	-	-	-	3	.
	임실/순창/남원 권역	35.3	23.5	17.6	17.6	-	5.9	-	17	.
	고창/부안/정읍 권역	16.7	22.2	38.9	5.6	5.6	11.1	-	18	.
지역별	농촌지역	25.0	28.8	23.1	11.5	5.8	5.8	-	52	2.250
	도시지역	33.0	24.3	19.9	8.3	6.3	8.3	-	206	.
성별	남성	29.6	27.4	25.2	11.1	4.4	2.2	-	135	19.028
	여성	33.6	22.4	15.2	6.4	8.0	14.4	-	125	***
연령대 별	18세~24세	44.8	20.7	17.2	3.4	6.9	6.9	-	29	18.114
	25세~29세	20.3	30.4	20.3	7.2	5.8	15.9	-	69	.
	30세~34세	29.9	21.8	23.0	13.8	5.7	5.7	-	87	.
	35세~39세	37.2	24.4	19.2	6.4	7.7	5.1	-	7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2.8	22.8	25.3	11.4	10.1	7.6	-	79	23.792
	미혼+종속	37.1	28.1	15.7	10.1	2.2	6.7	-	89	*
	기혼+자녀없음	25.6	35.9	12.8	5.1	5.1	15.4	-	39	.
	기혼+자녀있음	39.6	13.2	28.3	5.7	7.5	5.7	-	5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2.0	24.8	20.8	8.4	6.4	7.6	-	250	7.115
	활동	18.2	18.2	18.2	27.3	-	18.2	-	11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0.0	-	25.0	-	-	25.0	-	4	79.935
	제조업/건설업	32.1	28.6	22.6	8.3	3.6	4.8	-	8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40.0	16.7	26.7	10.0	-	6.7	-	3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7.0	16.2	35.1	-	16.2	5.4	-	3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0.0	8.0	8.0	8.0	4.0	12.0	-	25	.
	보건복지업	21.4	46.4	25.0	-	-	7.1	-	28	.
	공공행정업	10.0	32.5	7.5	27.5	12.5	10.0	-	40	.
	기타서비스업	46.2	15.4	15.4	-	7.7	15.4	-	1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2)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부록표 45] |전체|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전체 (n,100%)	평균 (시간)	t/F 검정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전체		1.1	11.5	16.9	46.0	24.5	115	5.8	-
권역별	전주 권역	-	23.7	13.2	50.0	13.2	38	5.5	1.547
	군산/김제 권역	-	4.3	21.7	39.1	34.8	23	6.0	.
	익산/완주 권역	2.7	8.1	16.2	48.6	24.3	37	5.8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7.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18.2	45.5	36.4	11	6.2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16.7	50.0	33.3	6	6.2	.
지역별	농촌지역	-	11.1	16.7	27.8	44.4	18	6.1	1.600
	도시지역	1.0	11.5	16.7	50.0	20.8	96	5.8	.
성별	남성	-	8.6	12.1	48.3	31.0	58	6.0	6.099
	여성	1.8	14.3	21.4	44.6	17.9	56	5.6	**
연령대 별	18세~24세	3.8	-	23.1	42.3	30.8	26	6.0	1.767
	25세~29세	-	-	14.8	66.7	18.5	27	6.0	.
	30세~34세	-	12.9	12.9	51.6	22.6	31	5.8	.
	35세~39세	-	29.0	19.4	25.8	25.8	31	5.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2	16.1	19.4	38.7	22.6	31	5.6	2.024
	미혼+종속	-	4.0	14.0	54.0	28.0	50	6.1	.
	기혼+자녀없음	-	23.1	15.4	38.5	23.1	13	5.7	.
	기혼+자녀있음	-	18.2	22.7	40.9	18.2	22	5.6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0.9	11.5	16.8	46.0	24.8	113	5.8	0.145
	활동	-	-	-	100.0	-	1	5.5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100.0	-	2	6.0	1.812
	제조업/건설업	3.1	15.6	6.3	40.6	34.4	32	5.9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30.8	53.8	15.4	13	5.9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2.5	12.5	75.0	-	16	5.6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27.3	31.8	22.7	18.2	22	5.3	.
	보건복지업	-	-	10.0	40.0	50.0	10	6.4	.
	공공행정업	-	-	12.5	87.5	-	8	5.8	.
	기타서비스업	-	-	-	60.0	40.0	5	6.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33.3	-	66.7	6	6.3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9	8.8	17.6	44.1	26.5	34	5.8	0.081
	취업자	-	12.2	17.1	46.3	24.4	82	5.8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6] |미취업자|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전체 (n,100%)	평균 (시간)	t/F 검정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전체		2.9	8.8	17.6	44.1	26.5	34	5.8	-
권역별	전주 권역	-	27.3	18.2	36.4	18.2	11	5.4	0.706
	군산/김제 권역	-	-	40.0	-	60.0	5	6.2	.
	익산/완주 권역	10.0	-	10.0	70.0	10.0	10	5.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16.7	50.0	33.3	6	6.2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50.0	50.0	-	2	5.9	.
지역별	농촌지역	-	-	25.0	50.0	25.0	4	6.0	0.252
	도시지역	3.4	10.3	17.2	44.8	24.1	29	5.7	.
성별	남성	-	5.3	21.1	42.1	31.6	19	5.9	1.030
	여성	6.7	13.3	13.3	46.7	20.0	15	5.6	.
연령대 별	18세~24세	7.1	-	21.4	28.6	42.9	14	5.9	2.404
	25세~29세	-	-	14.3	64.3	21.4	14	6.1	*
	30세~34세	-	50.0	-	50.0	-	4	5.1	.
	35세~39세	-	50.0	50.0	-	-	2	4.6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7.7	15.4	23.1	30.8	23.1	13	5.5	0.582
	미혼+종속	-	6.3	12.5	50.0	31.3	16	6.0	.
	기혼+자녀없음	-	-	33.3	66.7	-	3	5.6	.
	기혼+자녀있음	-	-	-	100.0	-	1	5.8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9	8.8	17.6	44.1	26.5	34	5.8	-
	활동	-	-	-	-	-	-	-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	-	1.053
	제조업/건설업	20.0	40.0	-	-	40.0	5	4.9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100.0	-	-	1	5.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	33.3	66.7	-	6	5.6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14.3	14.3	57.1	14.3	7	5.6	.
	보건복지업	-	-	-	66.7	33.3	3	6.4	.
	공공행정업	-	-	-	100.0	-	5	5.9	.
	기타서비스업	-	-	-	-	-	-	-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33.3	-	66.7	6	6.3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7] |취업자|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근로시간					전체 (n,100%)	평균 (시간)	t/F 검정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전체		-	12.2	17.1	46.3	24.4	82	5.8	-
지역별	전주 권역	-	22.2	11.1	55.6	11.1	27	5.6	1.079
	군산/김제 권역	-	5.6	16.7	50.0	27.8	18	5.9	.
	익산/완주 권역	-	10.7	21.4	39.3	28.6	28	5.9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7.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16.7	33.3	50.0	6	6.2	.
	고창/부안/정읍 권역	-	-	-	50.0	50.0	2	6.5	.
지역별	농촌지역	-	14.3	14.3	21.4	50.0	14	6.1	1.345
	도시지역	-	11.8	17.6	51.5	19.1	68	5.8	.
성별	남성	-	7.7	7.7	51.3	33.3	39	6.1	5.348
	여성	-	16.7	23.8	42.9	16.7	42	5.6	**
연령대 별	18세~24세	-	-	21.4	57.1	21.4	14	6.0	0.986
	25세~29세	-	-	21.4	64.3	14.3	14	5.9	.
	30세~34세	-	7.4	14.8	51.9	25.9	27	5.9	.
	35세~39세	-	28.6	14.3	28.6	28.6	28	5.6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16.7	16.7	44.4	22.2	18	5.7	1.460
	미혼+종속	-	-	15.6	59.4	25.0	32	6.1	.
	기혼+자녀없음	-	30.0	10.0	30.0	30.0	10	5.7	.
	기혼+자녀있음	-	19.0	23.8	38.1	19.0	21	5.6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	12.3	17.3	45.7	24.7	81	5.8	0.173
	활동	-	-	-	100.0	-	1	5.5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100.0	-	2	6.0	2.393
	제조업/건설업	-	11.1	7.4	48.1	33.3	27	6.1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25.0	58.3	16.7	12	5.9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20.0	-	80.0	-	10	5.6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33.3	40.0	6.7	20.0	15	5.1	.
	보건복지업	-	-	20.0	20.0	60.0	5	6.4	.
	공공행정업	-	-	33.3	66.7	-	3	5.5	.
	기타서비스업	-	-	-	60.0	40.0	5	6.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3)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부록표 48] |전체|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전체 (n,100%)	χ^2 검정
		근로시간 단축	개인시간 확보	자기 계발	본인 건강	자녀 보육	자녀 돌봄	기타		
전체		10.8	52.0	19.8	3.3	4.9	8.3	1.0	115	-
권역별	전주 권역	15.8	47.4	23.7	2.6	-	7.9	-	38	25.879
	군산/김제 권역	8.7	47.8	17.4	-	8.7	8.7	4.3	23	.
	익산/완주 권역	5.4	56.8	21.6	-	5.4	8.1	-	3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
	임실/순창/남원 권역	18.2	54.5	9.1	18.2	9.1	-	-	11	.
	고창/부안/정읍 권역	-	33.3	16.7	-	16.7	16.7	-	6	.
지역별	농촌지역	5.6	38.9	33.3	-	16.7	5.6	-	18	9.487
	도시지역	12.5	55.2	17.7	3.1	3.1	8.3	1.0	96	.
성별	남성	17.2	48.3	20.7	3.4	1.7	5.2	1.7	58	8.343
	여성	5.4	57.1	17.9	1.8	7.1	10.7	-	56	.
연령대 별	18세~24세	-	57.7	42.3	3.8	-	-	-	26	31.402
	25세~29세	14.8	55.6	18.5	-	3.7	3.7	-	27	**
	30세~34세	12.9	54.8	12.9	-	-	12.9	3.2	31	.
	35세~39세	12.9	41.9	9.7	6.5	12.9	12.9	-	31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6.1	54.8	29.0	-	-	-	-	31	59.719
	미혼+중속	10.0	58.0	24.0	2.0	-	-	2.0	50	***
	기혼+자녀없음	23.1	30.8	15.4	7.7	15.4	7.7	-	13	.
	기혼+자녀있음	-	40.9	-	4.5	18.2	36.4	-	22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0.6	53.1	19.5	2.7	5.3	8.8	0.9	113	4.035
	활동	-	-	100.0	-	-	-	-	1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00.0	-	-	-	-	-	-	2	66.539
	제조업/건설업	3.1	50.0	25.0	-	6.3	15.6	-	3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69.2	7.7	7.7	-	15.4	-	1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5.0	37.5	18.8	-	6.3	12.5	-	16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9.1	72.7	13.6	-	4.5	-	-	22	.
	보건복지업	20.0	40.0	10.0	10.0	10.0	-	-	10	.
	공공행정업	-	37.5	25.0	-	12.5	12.5	12.5	8	.
	기타서비스업	-	40.0	60.0	-	-	20.0	-	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6.7	66.7	16.7	-	16.7	-	-	6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2.9	61.8	23.5	-	5.9	2.9	-	34	7.449
	취업자	13.4	47.6	18.3	4.9	4.9	9.8	1.2	82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49] |미취업자|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전체 (n,100%)	χ^2 검정
		근로시간 단축	개인시간 확보	자기 계발	본인 건강	자녀 보육	자녀 돌봄	기타		
전체		2.9	61.8	23.5	-	5.9	2.9	-	34	-
권역별	전주 권역	-	45.5	54.5	-	-	-	-	11	24.403
	군산/김제 권역	-	60.0	40.0	-	-	-	-	5	*
	익산/완주 권역	-	81.8	-	-	9.1	9.1	-	11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
	임실/순창/남원 권역	20.0	60.0	-	-	20.0	-	-	5	.
	고창/부안/정읍 권역	-	50.0	-	-	50.0	-	-	2	.
지역별	농촌지역	-	66.7	-	-	33.3	-	-	3	5.055
	도시지역	3.3	63.3	26.7	-	3.3	3.3	-	30	.
성별	남성	5.3	47.4	42.1	-	-	5.3	-	19	12.429
	여성	-	86.7	-	-	13.3	-	-	15	**
연령대 별	18세~24세	-	61.5	38.5	-	-	-	-	13	10.997
	25세~29세	7.7	53.8	23.1	-	7.7	7.7	-	13	.
	30세~34세	-	100.0	-	-	-	-	-	4	.
	35세~39세	-	75.0	-	-	25.0	-	-	4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	61.5	38.5	-	-	-	-	13	35.045
	미혼+종속	5.9	70.6	23.5	-	-	-	-	17	***
	기혼+자녀없음	-	33.3	-	-	33.3	33.3	-	3	.
	기혼+자녀있음	-	-	-	-	100.0	-	-	1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0	63.6	24.2	-	6.1	3.0	-	33	-
	활동	-	-	-	-	-	-	-	-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	-	-	17.304
	제조업/건설업	-	60.0	40.0	-	-	-	-	5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00.0	-	-	-	-	-	1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33.3	33.3	-	16.7	16.7	-	6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85.7	14.3	-	-	-	-	7	.
	보건복지업	-	75.0	-	-	25.0	-	-	4	.
	공공행정업	-	60.0	40.0	-	-	-	-	5	.
	기타서비스업	-	-	-	-	-	-	-	-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4.3	57.1	14.3	-	14.3	-	-	7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50] |취업자| 범주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시간선택제 희망 이유							전체 (n,100%)	χ^2 검정
		근로시간 단축	개인시간 확보	자기 계발	본인 건강	자녀 보육	자녀 돌봄	기타		
전체		13.4	47.6	18.3	4.9	4.9	9.8	1.2	82	-
지역별	전주 권역	22.2	51.9	11.1	3.7	-	11.1	-	27	33.224
	군산/김제 권역	11.8	47.1	11.8	-	11.8	11.8	5.9	17	.
	익산/완주 권역	7.7	50.0	30.8	-	3.8	7.7	-	26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	-	-	-	-	-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0.0	16.7	33.3	-	-	-	6	.
	고창/부안/정읍 권역	-	33.3	33.3	-	-	33.3	-	3	.
지역별	농촌지역	-	33.3	41.7	-	16.7	8.3	-	12	11.713
	도시지역	16.4	50.7	13.4	4.5	3.0	10.4	1.5	67	*
성별	남성	23.1	48.7	12.8	5.1	2.6	5.1	2.6	39	8.289
	여성	7.3	46.3	24.4	2.4	4.9	14.6	-	41	.
연령대 별	18세~24세	-	50.0	41.7	8.3	-	-	-	12	24.822
	25세~29세	21.4	64.3	14.3	-	-	-	-	14	.
	30세~34세	15.4	50.0	15.4	-	-	15.4	3.8	26	.
	35세~39세	14.3	39.3	10.7	7.1	14.3	14.3	-	2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7.8	50.0	22.2	-	-	-	-	18	46.947
	미혼+종속	12.1	54.5	27.3	3.0	-	-	3.0	33	***
	기혼+자녀없음	30.0	30.0	20.0	10.0	10.0	-	-	10	.
	기혼+자녀있음	-	42.9	-	4.8	14.3	38.1	-	21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3.9	49.4	16.5	3.8	5.1	10.1	1.3	79	4.774
	활동	-	-	100.0	-	-	-	-	1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00.0	-	-	-	-	-	-	2	83.028
	제조업/건설업	3.7	48.1	22.2	-	7.4	18.5	-	27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66.7	8.3	8.3	-	16.7	-	1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4.4	44.4	11.1	-	-	-	-	9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3.3	66.7	13.3	-	6.7	-	-	15	.
	보건복지업	40.0	20.0	20.0	20.0	-	-	-	5	.
	공공행정업	-	-	-	-	33.3	33.3	33.3	3	.
	기타서비스업	-	33.3	50.0	-	-	16.7	-	6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4-1) 시설환경(현재)

[부록표 51] | 취업자 범주별 현재 제공받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현재 제공받는 시설환경												전체 (n100%)
		교육 실	회의 실	흡연 실	휴게 실	여성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 실	수면 실	숙직실 당직실	없음	
전체		22.4	60.3	29.3	54.4	18.8	5.4	16.4	49.5	24.0	7.1	10.6	13.9	355
지역별	전주 권역	19.1	65.4	29.8	53.6	23.9	3.5	24.8	63.2	28.8	10.0	16.0	8.8	147
	군산/김제 권역	31.2	66.7	43.3	60.1	23.0	9.1	12.7	54.0	16.7	7.7	10.8	8.7	67
	익산/완주 권역	24.9	54.0	22.6	49.3	12.0	5.6	6.3	17.2	22.6	2.2	6.5	29.0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12.5	19.4	7.0	38.8	30.9	3.6	3.6	53.0	20.9	3.6	3.6	20.0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23.6	39.8	13.3	64.7	6.6	3.3	5.2	54.2	14.7	1.3	3.5	13.9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14.8	65.1	31.2	58.7	6.8	8.0	22.3	57.5	28.3	10.5	1.5	6.7	30
지역별	농촌지역	21.0	46.7	15.9	50.6	15.1	5.1	8.7	39.8	23.3	6.0	5.3	20.1	80
	도시지역	22.9	64.2	33.1	55.5	19.9	5.5	18.6	52.3	24.2	7.5	12.1	12.1	275
성별	남성	24.4	65.0	37.2	56.7	22.4	6.2	21.1	52.0	35.0	8.1	12.6	13.3	190
	여성	20.2	54.8	20.1	51.8	14.7	4.5	10.9	46.6	11.4	6.0	8.3	14.6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17.0	40.5	21.2	59.2	6.0	3.0	3.7	36.2	7.1	3.0	4.9	31.3	36
	25세~29세	24.9	66.5	33.3	59.0	16.5	10.2	16.6	54.6	24.2	5.2	15.4	4.5	88
	30세~34세	22.2	59.7	28.4	52.6	20.0	4.0	12.9	44.4	25.2	7.3	13.8	13.5	118
	35세~39세	22.5	62.3	29.7	51.3	23.5	4.0	23.8	55.0	28.0	9.8	5.3	16.1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5.8	73.5	36.8	56.4	25.7	6.8	16.7	50.3	28.2	3.5	10.0	10.3	107
	미혼+중속	18.9	50.9	21.9	56.6	10.2	4.0	10.5	42.0	19.4	4.3	9.5	14.9	123
	기혼+자녀없음	28.0	64.0	38.7	44.2	26.9	8.2	21.9	53.6	25.7	13.2	21.3	23.6	46
	기혼+자녀있음	20.2	54.9	25.1	54.4	18.2	4.1	21.8	57.7	24.7	12.9	6.8	11.4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3.8	62.5	30.6	54.4	19.5	5.7	16.5	49.7	23.3	6.1	10.1	13.3	333
	활동	1.8	25.8	8.4	55.5	8.4	1.8	14.6	46.8	35.4	23.8	17.4	23.3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31.2	11.9	55.9	11.9	-	11.9	43.9	51.6	22.9	34.9	19.4	15
	제조업/건설업	19.0	75.8	53.6	69.0	17.4	3.0	10.9	45.1	36.5	15.4	5.0	5.9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9	-	7.5	29.0	2.9	-	-	39.0	4.8	3.9	-	41.0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7.6	68.3	16.5	57.0	19.6	0.9	22.4	58.6	19.5	-	13.3	12.7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1.7	69.5	6.7	48.9	9.0	7.6	1.7	47.0	4.5	-	3.9	9.4	30
	보건복지업	46.9	75.2	18.5	64.4	17.8	11.0	24.0	33.9	5.7	1.0	9.2	8.5	36
	공공행정업	45.7	91.2	49.9	44.9	60.6	21.5	62.3	83.8	53.2	5.3	37.0	-	40
	기타서비스업	20.6	51.2	9.6	50.5	10.1	2.7	3.6	52.1	5.7	-	8.7	21.5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14-2) 시설환경(추가희망)

[부록표 52] |전체|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전체 (n100%)
		교육 실	회의 실	흡연 실	휴게 실	여성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 실	수면 실	숙직실 당직실	없음	
전체		6.0	7.6	7.0	41.8	24.3	4.0	44.8	25.9	27.2	48.5	4.6	1.8	500
권역별	전주 권역	5.3	8.3	7.7	45.0	22.8	6.4	37.0	22.2	23.2	41.9	2.4	1.3	221
	군산/김제 권역	3.4	3.1	6.8	29.6	31.6	2.2	60.3	18.0	34.1	56.8	8.1	5.7	91
	익산/완주 권역	6.7	10.0	4.3	47.9	17.0	2.2	47.5	42.5	29.0	52.3	4.8	0.4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5.7	8.9	10.5	48.0	18.8	-	55.5	32.0	33.4	50.9	-	3.1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11.9	11.9	2.4	33.4	15.3	4.1	47.5	11.7	20.8	55.0	12.3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10.3	3.8	12.8	39.2	43.2	1.2	40.0	26.2	30.9	50.8	4.8	-	41
지역별	농촌지역	5.1	6.2	7.6	42.9	26.1	0.5	48.8	30.8	34.5	53.3	5.0	0.8	99
	도시지역	6.2	7.9	6.9	41.6	23.9	4.9	43.7	24.7	25.4	47.3	4.5	2.0	401
성별	남성	6.1	5.1	9.9	45.6	7.8	4.7	45.6	21.0	37.1	46.7	4.8	1.8	267
	여성	5.9	10.4	3.8	37.5	43.1	3.2	43.8	31.5	15.8	50.6	4.4	1.7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2.4	11.7	4.5	56.8	21.3	-	49.9	31.6	29.8	49.3	8.5	0.9	120
	25세~29세	6.8	8.6	7.0	40.4	32.2	3.8	43.1	26.7	30.0	45.8	5.8	1.5	132
	30세~34세	7.1	5.4	11.3	35.7	19.9	4.3	45.5	30.0	24.0	55.7	1.8	0.9	130
	35세~39세	7.7	4.4	5.0	35.0	23.4	8.0	40.5	14.7	24.8	42.9	2.6	4.0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4	3.0	8.6	44.7	19.7	5.9	43.5	24.0	30.3	58.2	3.9	1.6	138
	미혼+종속	6.6	11.8	6.5	47.1	25.5	1.0	47.0	28.9	27.8	46.9	7.0	0.4	226
	기혼+자녀없음	6.5	7.4	4.0	28.8	23.8	8.2	36.0	31.9	20.2	47.5	3.1	3.8	53
	기혼+자녀있음	6.9	3.5	7.7	31.1	29.1	6.5	46.1	17.0	25.1	37.6	0.5	4.4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2	7.4	6.9	41.5	24.9	4.3	45.2	25.9	26.7	48.7	4.5	1.9	473
	활동	2.2	10.5	8.8	48.3	14.1	-	36.5	25.6	35.2	45.0	6.4	-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5	7.5	2.6	26.3	-	10.0	50.5	29.7	48.4	47.3	-	-	18
	제조업/건설업	10.0	2.2	6.9	29.1	20.0	6.6	51.0	23.9	29.6	50.0	4.3	-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0.9	8.7	12.4	60.5	19.3	-	34.3	34.9	34.2	38.7	-	-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8.1	14.1	14.0	36.8	23.0	4.5	41.0	20.4	27.4	45.1	0.8	-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5	12.3	-	43.7	47.9	2.8	44.1	34.9	19.0	59.0	5.0	-	52
	보건복지업	8.3	8.1	4.0	47.5	31.1	2.8	48.6	22.2	22.2	57.1	2.3	0.7	52
	공공행정업	2.2	-	6.3	40.5	8.6	4.1	29.4	15.8	17.9	39.0	3.7	15.6	54
	기타서비스업	1.7	6.0	8.3	52.0	13.6	4.3	52.3	17.5	23.6	67.0	4.8	-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0.7	15.1	3.4	50.2	44.6	2.2	56.1	36.3	30.9	41.7	23.1	-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6.6	14.2	7.3	57.9	26.0	1.8	50.3	31.7	29.1	44.3	8.9	-	145
	취업자	5.8	4.8	6.9	35.3	23.6	4.9	42.5	23.5	26.4	50.3	2.9	2.5	355

[부록표 53] |미취업자|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전체 (n100%)
		교육 실	회의 실	흡연 실	휴게 실	여성 전용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 실	수면 실	숙직실 당직실	없음	
전체		6.6	14.2	7.3	57.9	26.0	1.8	50.3	31.7	29.1	44.3	8.9	-	145
권역별	전주 권역	7.3	18.0	9.6	65.5	19.6	2.3	47.8	32.8	25.0	32.5	2.4	-	74
	군산/김제 권역	-	10.0	4.5	33.0	48.9	4.0	57.9	22.0	36.2	64.2	27.1	-	24
	익산/완주 권역	4.4	4.4	-	58.6	21.3	-	56.4	43.1	37.5	54.7	9.2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20.2	-	59.9	60.2	19.9	-	40.4	19.9	39.8	59.6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32.0	32.0	5.1	54.2	13.8	-	55.9	-	10.0	52.9	9.9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5.6	13.8	9.1	60.6	38.0	-	34.1	37.1	30.6	46.5	13.3	-	11
지역별	농촌지역	1.6	4.4	9.7	57.8	33.2	-	56.4	26.3	37.5	47.1	9.0	-	19
	도시지역	7.4	15.7	6.9	57.9	24.9	2.1	49.4	32.5	27.8	43.8	8.9	-	126
성별	남성	2.8	10.8	10.1	70.3	2.3	-	56.9	29.3	41.7	37.6	7.7	-	77
	여성	11.0	18.0	4.1	43.9	52.6	3.9	43.0	34.4	15.0	51.7	10.2	-	68
연령대 별	18세~24세	2.7	14.8	5.1	63.7	22.0	-	53.2	34.0	28.8	48.2	9.7	-	84
	25세~29세	8.1	12.8	10.4	55.8	33.2	2.2	42.2	26.5	36.3	35.4	8.4	-	44
	30세~34세	32.0	21.0	14.3	26.5	27.2	14.3	39.4	38.3	16.3	42.2	-	-	12
	35세~39세	-	-	-	52.5	26.7	-	100.0	23.7	-	61.1	20.8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4	-	6.5	62.5	26.3	8.6	52.3	27.2	39.9	47.1	3.5	-	31
	미혼+종속	7.7	19.5	8.2	59.5	24.5	-	49.3	30.5	26.1	42.3	10.4	-	104
	기혼+자녀없음	-	-	-	25.6	35.4	-	31.9	68.1	41.0	74.4	15.0	-	7
	기혼+자녀있음	-	10.7	-	33.6	48.6	-	100.0	33.6	-	16.2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9	14.8	7.6	56.1	25.8	1.9	50.8	31.6	30.0	44.9	8.0	-	139
	활동	-	-	-	100.0	29.7	-	40.6	33.5	7.1	29.7	29.7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	-	41.1	58.9	100.0	100.0	-	-	3
	제조업/건설업	16.2	-	16.2	64.8	12.6	16.2	48.1	-	14.1	54.7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	29.0	89.6	10.4	-	32.6	28.0	57.3	10.4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8	24.0	21.4	50.9	15.5	-	47.8	29.8	31.0	32.3	0.5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9.4	27.1	-	54.8	33.2	-	36.3	48.0	18.5	60.0	1.4	-	22
	보건복지업	25.9	11.7	2.0	80.4	15.8	-	50.9	8.7	18.7	45.1	3.3	-	17
	공공행정업	-	-	-	55.2	13.9	-	66.9	48.5	40.4	29.6	2.3	-	14
	기타서비스업	-	-	-	100.0	-	-	60.1	-	-	100.0	39.9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0.7	15.1	3.4	50.2	44.6	2.2	56.1	36.3	30.9	41.7	23.1	-	45

[부록표 54] |취업자|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시설환경												전체 (n100%)
		교육 실	회의 실	출연 실	휴게 실	여성 전용 휴게실	장애인 편의시설	체력 단련실	화장실 비데	샤워 실	수면 실	숙직실 당직실	없음	
전체		5.8	4.8	6.9	35.3	23.6	4.9	42.5	23.5	26.4	50.3	2.9	2.5	355
권역별	전주 권역	4.4	3.4	6.8	34.6	24.3	8.5	31.5	16.8	22.3	46.7	2.5	2.0	147
	군산/김제 권역	4.6	0.6	7.7	28.4	25.4	1.6	61.2	16.6	33.4	54.1	1.3	7.7	67
	익산/완주 권역	7.4	11.9	5.7	44.4	15.5	2.9	44.5	42.3	26.3	51.5	3.3	0.5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3.5	10.3	2.9	46.2	18.6	-	57.8	33.8	32.5	49.6	-	3.6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5.0	5.0	1.5	26.2	15.8	5.5	44.6	15.7	24.5	55.8	13.1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12.1	-	14.3	31.0	45.2	1.7	42.3	22.0	31.0	52.4	1.5	-	30
지역별	농촌지역	5.9	6.6	7.1	39.4	24.4	0.6	47.0	31.8	33.8	54.9	4.0	0.9	80
	도시지역	5.7	4.3	6.9	34.1	23.4	6.2	41.2	21.1	24.3	48.9	2.5	2.9	275
성별	남성	7.5	2.8	9.8	35.7	10.1	6.6	41.1	17.7	35.3	50.3	3.6	2.6	190
	여성	3.8	7.2	3.6	34.9	39.2	3.0	44.1	30.3	16.2	50.2	2.0	2.4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1.5	4.4	3.0	40.8	19.5	-	42.3	26.1	32.2	51.9	5.5	3.0	36
	25세~29세	6.1	6.6	5.3	32.7	31.7	4.6	43.6	26.8	26.8	51.0	4.5	2.2	88
	30세~34세	4.6	3.9	11.0	36.7	19.2	3.3	46.1	29.2	24.8	57.1	2.0	1.0	118
	35세~39세	8.1	4.6	5.2	34.2	23.3	8.4	37.9	14.3	26.0	42.1	1.8	4.2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1	3.9	9.2	39.5	17.8	5.1	41.0	23.1	27.5	61.4	4.0	2.1	107
	미혼+중속	5.7	5.4	5.1	36.7	26.3	1.8	45.1	27.6	29.2	50.7	4.1	0.8	123
	기혼+자녀없음	7.5	8.6	4.6	29.3	22.0	9.4	36.6	26.4	17.1	43.4	1.4	4.4	46
	기혼+자녀있음	7.2	3.1	8.1	31.0	28.2	6.8	43.7	16.2	26.2	38.6	0.5	4.6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0	4.3	6.7	35.4	24.5	5.2	42.9	23.5	25.4	50.3	3.1	2.7	333
	활동	2.9	13.4	11.2	34.2	9.9	-	35.4	23.5	42.8	49.2	-	-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6.1	8.9	3.1	31.5	-	11.9	52.3	24.0	38.4	37.0	-	-	15
	제조업/건설업	9.4	2.4	6.0	25.8	20.7	5.7	51.2	26.1	31.1	49.6	4.7	-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0	9.6	10.7	57.5	20.2	-	34.5	35.6	31.7	41.6	-	-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8.1	9.5	28.2	27.6	7.2	37.0	14.7	25.3	52.9	1.0	-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4	1.3	-	35.5	58.7	4.8	49.9	25.2	19.4	58.3	7.7	-	30
	보건복지업	-	6.4	4.9	32.0	38.3	4.1	47.5	28.5	23.8	62.7	1.8	1.0	36
	공공행정업	3.0	-	8.5	35.3	6.8	5.6	16.2	4.3	9.9	42.3	4.2	21.1	40
	기타서비스업	1.9	6.8	9.4	45.5	15.5	4.9	51.2	19.8	26.8	62.5	-	-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15-1) 복리후생(현재)

[부록표 55] |취업자| 범주별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현재 제공받는 복리후생																전체 (n100%)
		식사 비용	특수 수당	인센 티브	기본 휴가	특수 휴가	교육 훈련	교통	주거	의료· 건강	출산· 육아	명절· 기념일	경 조사	사내 동호회	노조· 협회	기타	없음	
전체		64.8	51.5	35.6	71.0	43.0	23.6	24.9	18.5	36.6	37.1	35.8	40.0	21.8	22.2	-	12.3	355
지역별	전주 권역	70.5	61.8	35.6	78.1	48.4	27.4	31.1	17.8	44.5	49.6	40.5	46.7	29.4	30.7	-	8.6	147
	군산/김제 권역	75.0	49.6	40.4	78.5	43.8	29.5	23.0	24.7	41.6	37.0	36.1	49.3	26.5	27.8	-	6.3	67
	익산/완주 권역	53.0	36.8	34.6	58.7	40.0	17.0	21.1	15.4	27.7	22.0	30.1	27.5	12.9	12.1	-	22.6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55.4	22.8	29.8	39.9	8.8	16.0	19.2	-	2.9	9.5	33.2	13.4	3.6	2.9	-	17.1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49.1	42.1	29.4	56.7	18.6	11.8	9.8	12.2	18.0	23.4	24.1	23.2	6.7	3.2	-	22.7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59.4	61.5	33.8	73.5	50.7	19.6	20.9	27.4	34.7	35.7	36.2	40.1	13.5	14.0	-	6.7	30
지역별	농촌지역	52.4	45.6	32.8	60.8	35.7	19.6	20.3	16.4	27.4	31.6	35.5	32.4	13.7	14.9	-	19.4	80
	도시지역	68.4	53.1	36.4	74.0	45.2	24.7	26.3	19.1	39.3	38.7	35.9	42.2	24.1	24.3	-	10.2	275
성별	남성	67.2	58.1	41.7	74.0	48.1	25.1	32.4	25.2	41.2	42.5	37.8	46.9	22.9	22.7	-	11.1	190
	여성	62.0	43.8	28.6	67.6	37.1	21.8	16.3	10.7	31.3	30.9	33.5	32.0	20.4	21.5	-	13.6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31.5	36.9	23.9	56.8	23.4	10.9	15.2	6.8	14.2	24.1	27.7	19.7	3.0	6.0	-	30.7	36
	25세~29세	73.6	54.3	39.8	74.6	43.6	24.5	25.6	21.1	33.8	43.0	43.0	49.0	25.3	21.7	-	8.6	88
	30세~34세	67.2	47.7	39.6	72.4	43.0	24.4	27.5	20.2	35.9	34.1	35.7	44.1	19.2	24.0	-	10.0	118
	35세~39세	66.0	57.8	31.9	71.3	48.8	26.0	24.7	18.4	46.7	39.9	32.9	35.2	27.6	25.7	-	11.6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80.9	55.0	39.1	81.5	49.1	31.9	27.0	18.0	47.1	45.6	36.3	49.2	28.6	27.1	-	5.1	107
	미혼+종속	51.6	45.1	32.4	61.3	29.9	14.4	22.2	13.4	19.2	24.7	35.8	31.4	11.1	11.5	-	18.5	123
	기혼+자녀없음	64.4	52.7	30.7	76.5	56.0	28.3	30.1	23.7	43.3	35.0	40.0	40.6	26.9	30.5	-	12.4	46
	기혼+자녀있음	63.7	55.7	38.8	68.9	47.7	23.8	23.4	24.1	45.6	46.2	32.7	40.4	26.0	27.3	-	12.0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3.8	52.4	36.1	73.9	44.6	24.9	25.9	18.5	36.9	38.4	37.5	41.9	22.5	22.4	-	11.8	333
	활동	80.0	36.5	28.7	27.3	19.5	3.1	9.4	18.4	32.8	17.7	9.6	9.6	10.3	18.1	-	18.6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70.9	42.7	23.4	11.9	-	-	11.5	15.5	11.5	-	11.9	7.8	7.8	11.9	-	29.1	15
	제조업/건설업	74.4	57.6	41.3	86.4	55.3	23.8	51.9	43.9	39.1	39.9	47.6	55.5	10.8	13.7	-	2.0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0.4	10.3	9.3	21.8	2.2	0.5	5.2	0.8	1.3	3.4	6.6	4.6	-	2.9	-	42.0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8.2	62.5	46.6	89.0	51.8	39.4	9.1	10.5	57.9	49.7	29.8	54.0	35.4	30.0	-	6.8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4.5	45.0	39.9	68.5	45.1	23.6	9.4	15.3	40.8	40.5	34.8	32.3	17.8	15.5	-	19.2	30
	보건복지업	44.8	58.4	37.3	85.1	46.7	32.5	8.4	12.5	27.4	41.7	47.3	32.6	21.5	19.4	-	7.1	36
	공공행정업	90.2	86.8	54.1	96.4	81.3	51.6	39.0	0.9	85.2	86.6	57.6	60.4	87.0	87.9	-	-	40
	기타서비스업	44.7	46.9	22.4	62.9	23.5	5.4	1.4	-	16.6	12.5	23.4	35.1	6.5	3.2	-	7.2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

15-2) 복리후생(추가희망)

[부록표 56] |전체|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전체 (n100%)
		식사 비용	특수 수당	인센 티브	기본 휴가	특수 휴가	교육· 훈련	교통	주거	의료· 건강	출산· 육아	명절· 기념일	경조사	사내 동호회	노조· 협의회	기타	없음		
전체		27.4	27.5	35.7	17.2	14.2	26.3	33.3	22.3	23.4	16.7	6.4	8.7	5.2	2.1	0.4	2.7	500	
지역별	전주 권역	29.2	25.7	33.6	16.9	12.6	21.3	27.0	25.3	21.9	15.0	6.9	10.8	3.6	2.2	0.7	4.4	221	
	군산/김제 권역	20.5	28.7	35.4	15.6	16.1	24.8	44.7	24.6	20.0	18.1	2.1	6.5	4.3	4.0	-	3.8	91	
	익산/원주 권역	24.2	30.2	32.4	17.5	14.7	36.6	32.6	18.5	30.3	20.6	8.4	8.2	6.0	1.7	0.4	-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22.1	33.5	39.5	24.4	40.6	21.2	23.0	27.7	27.0	17.2	5.5	-	-	-	-	-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39.5	22.2	40.4	24.9	9.7	31.5	43.0	6.7	28.2	14.1	17.6	8.3	7.6	-	-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35.2	29.1	52.2	15.2	12.5	26.7	41.1	19.7	16.5	14.1	1.4	6.9	13.6	-	-	1.1	41	
지역별	농촌지역	32.0	24.3	35.4	16.9	20.9	33.8	36.2	18.4	27.7	19.2	4.5	6.8	6.9	1.1	0.4	0.8	99	
	도시지역	26.2	28.3	35.7	17.3	12.5	24.4	32.6	23.3	22.3	16.1	6.9	9.2	4.8	2.3	0.4	3.2	401	
성별	남성	27.4	25.5	33.2	16.6	15.5	24.7	35.3	22.9	18.1	15.4	6.8	7.1	7.5	3.2	-	4.2	267	
	여성	27.3	29.8	38.4	17.9	12.7	28.0	31.2	21.6	29.4	18.3	6.0	10.5	2.5	0.8	0.8	1.1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47.8	35.5	42.6	29.8	18.0	21.7	27.7	20.4	24.1	13.4	3.1	5.3	0.6	-	-	0.9	120	
	25세~29세	29.4	30.6	31.7	14.2	14.5	25.4	34.0	26.6	22.5	16.5	6.6	7.4	4.5	2.1	-	3.7	132	
	30세~34세	19.0	23.4	33.9	12.5	12.6	31.6	37.2	22.7	23.7	18.7	8.3	9.8	8.4	2.2	-	2.9	130	
	35세~39세	13.7	20.5	35.0	13.1	11.6	26.0	34.2	19.1	23.4	18.1	7.6	12.4	7.2	4.1	1.6	3.3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0.5	27.3	40.6	11.2	11.6	28.7	36.4	36.1	14.8	13.1	6.3	8.3	5.1	1.5	1.1	2.1	138	
	미혼+중속	36.8	30.0	35.5	23.9	15.5	23.3	33.7	19.6	27.9	16.1	8.3	8.3	4.7	0.8	-	1.1	226	
	기혼+자녀없음	21.8	23.2	28.0	11.4	14.0	25.8	21.9	5.4	25.5	23.4	1.2	4.6	2.7	5.9	-	10.9	53	
	기혼+자녀있음	16.6	23.8	32.7	12.8	15.1	30.7	34.7	17.8	24.0	20.4	4.8	13.4	8.4	4.2	0.5	3.0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7.3	27.6	36.6	17.1	14.5	25.5	33.0	22.1	23.1	16.7	6.7	8.1	5.0	1.8	0.4	2.9	473	
	활동	27.9	26.2	20.2	19.4	8.4	38.8	39.2	25.9	28.9	17.8	1.3	18.6	8.4	6.4	-	-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1	9.8	25.5	13.0	30.9	35.7	36.1	28.3	47.4	17.6	-	15.3	3.5	-	-	-	18	
	제조업/건설업	11.5	29.5	40.5	10.4	15.1	26.4	32.1	13.0	25.3	19.6	5.4	8.6	11.3	4.5	-	2.9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1.3	29.7	38.3	31.6	18.9	34.3	24.6	9.6	36.7	19.3	6.2	8.7	-	-	-	-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7.9	25.8	30.9	15.7	9.8	30.2	36.5	35.8	10.9	18.8	9.9	8.1	7.0	-	2.8	2.2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1.9	29.5	29.1	20.3	7.0	29.1	32.9	27.4	22.2	16.2	16.6	9.3	8.7	6.0	-	-	52	
	보건복지업	48.9	33.6	36.7	12.8	10.9	15.4	49.5	24.5	25.5	6.0	-	10.8	3.2	3.3	-	-	52	
	공공행정업	13.4	14.7	33.4	9.2	13.8	23.3	33.4	28.2	7.7	8.1	5.8	5.8	0.9	-	-	15.9	54	
	기타서비스업	41.7	33.5	32.4	18.5	5.2	29.0	46.9	27.3	31.1	17.5	5.3	4.3	1.2	-	-	-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0.6	31.0	40.8	30.1	22.8	16.6	16.7	25.4	21.2	24.9	3.9	10.7	-	-	-	-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2.8	35.8	37.9	33.5	15.7	23.9	23.5	20.9	16.9	18.2	7.4	6.4	-	1.2	-	-	145	
	취업자	17.0	24.1	34.7	10.6	13.6	27.2	37.4	22.9	26.1	16.1	6.0	9.7	7.3	2.4	0.5	3.9	355	

[부록표 57] |미취업자|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전체 (n100%)
		식사 비용	특수 수당	인센 티브	기본 휴가	특수 휴가	교육· 훈련	교통	주거	의료· 건강	출산· 육아	명절· 기념일	경 조사	사내 동호회	노조· 협회	기타	없음	
전체		52.8	35.8	37.9	33.5	15.7	23.9	23.5	20.9	16.9	18.2	7.4	6.4	-	1.2	-	-	145
권역별	전주 권역	59.5	30.6	30.0	33.5	15.2	19.6	24.6	19.9	17.3	20.6	9.6	10.0	-	2.4	-	-	74
	군산/김제 권역	45.6	33.7	47.4	38.9	25.9	27.4	19.0	21.8	24.1	16.3	-	-	-	-	-	-	24
	익산/완주 권역	38.6	47.1	42.0	27.5	11.4	40.6	25.4	24.7	6.4	18.7	4.4	-	-	-	-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59.6	19.9	40.4	79.8	20.2	-	20.2	59.9	-	-	-	-	-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29.4	24.1	51.4	43.3	13.2	22.1	29.9	7.1	28.7	13.8	37.0	-	-	-	-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70.8	56.2	52.0	24.2	8.4	9.8	18.6	18.7	19.6	9.8	-	16.8	-	-	-	-	11
지역별	농촌지역	50.8	44.0	30.5	34.5	18.9	34.1	20.8	16.2	23.7	24.8	1.7	-	-	-	-	-	19
	도시지역	53.1	34.6	39.0	33.3	15.3	22.4	23.9	21.6	15.8	17.2	8.3	7.4	-	1.4	-	-	126
성별	남성	53.6	36.1	32.3	29.5	18.4	23.8	25.8	26.1	14.7	14.7	8.3	8.3	-	2.3	-	-	77
	여성	51.9	35.4	44.2	38.0	12.7	24.1	21.0	15.0	19.3	22.1	6.4	4.4	-	-	-	-	68
연령대 별	18세~24세	52.1	41.1	40.6	37.7	19.2	19.0	24.2	23.3	17.5	16.7	2.3	4.7	-	-	-	-	84
	25세~29세	60.1	36.7	33.8	25.3	9.2	27.6	23.5	17.8	16.7	19.1	8.7	12.2	-	4.0	-	-	44
	30세~34세	30.6	-	41.7	32.0	19.5	38.3	16.3	24.4	3.2	12.9	42.2	-	-	-	-	-	12
	35세~39세	52.5	23.7	20.8	38.9	5.7	41.7	28.9	-	40.3	47.5	-	-	-	-	-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3.6	27.8	53.5	21.9	15.2	32.1	24.2	35.9	13.4	6.4	3.9	2.0	-	-	-	-	31
	미혼+중속	54.4	38.9	34.9	37.9	14.6	19.6	25.7	18.6	17.0	18.5	9.2	7.2	-	1.7	-	-	104
	기혼+자녀없음	35.4	16.9	33.0	8.7	32.8	49.2	-	-	16.9	41.0	-	18.0	-	-	-	-	7
	기혼+자녀있음	33.6	51.4	-	55.3	18.8	29.8	-	-	44.7	66.4	-	-	-	-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2.2	34.6	39.2	33.2	16.4	23.7	24.5	21.8	17.6	17.5	7.7	5.5	-	-	-	-	139
	활동	66.5	63.2	7.1	40.6	-	29.7	-	-	-	33.5	-	29.7	-	29.7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	-	58.9	41.1	41.1	41.1	-	-	-	-	-	-	-	-	3
	제조업/건설업	26.3	35.7	51.9	62.3	19.0	-	22.7	19.0	-	19.0	-	25.1	-	-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1.6	28.4	-	38.4	10.1	17.9	61.6	-	10.4	10.1	29.0	-	-	-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7.1	40.8	32.4	35.4	4.8	43.7	18.9	23.0	14.4	13.0	11.8	8.1	-	-	-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9.0	46.1	29.2	34.8	4.8	39.0	24.4	13.2	15.4	24.5	19.7	-	-	-	-	-	22
	보건복지업	88.5	51.0	48.9	17.5	13.7	15.4	29.5	2.8	21.9	3.8	-	-	-	10.4	-	-	17
	공공행정업	40.6	27.0	52.4	35.2	26.7	12.4	30.9	24.7	26.3	23.9	-	-	-	-	-	-	14
	기타서비스업	60.1	-	39.9	60.1	-	39.9	-	100.0	-	-	-	-	-	-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0.6	31.0	40.8	30.1	22.8	16.6	16.7	25.4	21.2	24.9	3.9	10.7	-	-	-	-	45

[부록표 58] |취업자| 범주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추가 희망하는 복리후생																전체 (n100%)
		식사 비용	특수 수당	인센 티브	기본 휴가	특수 휴가	교육 훈련	교통	주거	의료· 건강	출산· 육아	명절· 기념일	경 조사	사내 동호회	노조 협약회	기타	없음	
전체		17.0	24.1	34.7	10.6	13.6	27.2	37.4	22.9	26.1	16.1	6.0	9.7	7.3	2.4	0.5	3.9	355
권역별	전주 권역	13.8	23.2	35.4	8.5	11.2	22.2	28.3	28.0	24.2	12.2	5.5	11.1	5.4	2.1	1.0	6.7	147
	군산/김제 권역	11.5	26.8	31.1	7.2	12.6	23.9	54.0	25.6	18.6	18.7	2.9	8.8	5.8	5.4	-	5.2	67
	익산/완주 권역	19.4	24.6	29.2	14.2	15.7	35.3	35.0	16.4	38.2	21.3	9.7	10.9	8.0	2.2	0.5	-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16.3	35.6	39.4	15.9	43.8	24.5	23.5	22.8	31.1	19.8	6.4	-	-	-	-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43.0	21.5	36.7	18.6	8.5	34.7	47.5	6.6	28.1	14.2	10.9	11.1	10.3	-	-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21.6	18.8	52.4	11.8	14.0	33.2	49.7	20.1	15.3	15.7	1.9	3.1	18.8	-	-	1.5	30
지역별	농촌지역	27.4	19.6	36.6	12.6	21.3	33.7	39.9	19.0	28.6	17.9	5.2	8.4	8.5	1.4	0.5	1.0	80
	도시지역	14.0	25.4	34.2	10.0	11.3	25.3	36.6	24.0	25.3	15.6	6.2	10.0	7.0	2.7	0.5	4.7	275
성별	남성	16.9	21.3	33.6	11.5	14.3	25.1	39.1	21.6	19.5	15.6	6.2	6.7	10.5	3.6	-	5.9	190
	여성	17.1	27.4	36.0	9.6	12.7	29.7	35.4	24.4	33.7	16.7	5.8	13.1	3.6	1.1	1.1	1.5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37.6	22.4	47.4	11.3	15.2	28.2	35.9	13.6	39.6	5.8	4.8	6.7	1.9	-	-	3.0	36
	25세~29세	14.0	27.5	30.6	8.7	17.2	24.3	39.2	31.1	25.4	15.2	5.6	5.0	6.8	1.1	-	5.6	88
	30세~34세	17.8	25.7	33.2	10.5	11.9	30.9	39.3	22.5	25.8	19.3	4.9	10.8	9.2	2.4	-	3.2	118
	35세~39세	11.9	20.4	35.6	12.0	11.9	25.3	34.4	20.0	22.6	16.8	7.9	13.0	7.5	4.3	1.6	3.5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0.9	27.2	36.9	8.1	10.5	27.8	39.9	36.2	15.2	15.0	7.0	10.1	6.5	1.9	1.4	2.7	107
	미혼+종속	21.9	22.4	36.0	12.2	16.3	26.4	40.4	20.4	37.2	14.0	7.5	9.2	8.7	-	-	2.1	123
	기혼+자녀없음	19.8	24.1	27.3	11.8	11.1	22.2	25.2	6.2	26.9	20.8	1.4	2.6	3.2	6.8	-	12.5	46
	기혼+자녀있음	15.9	22.6	34.2	10.9	14.9	30.7	36.3	18.6	23.1	18.3	5.0	14.0	8.7	4.4	0.5	3.2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7.0	24.6	35.4	10.4	13.7	26.3	36.6	22.3	25.4	16.3	6.3	9.3	7.1	2.6	0.6	4.1	333
	활동	17.3	16.1	23.7	13.6	10.8	41.3	49.9	33.0	36.8	13.6	1.6	15.6	10.7	-	-	-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7.3	11.7	30.5	15.6	25.4	34.7	35.1	25.8	56.6	21.1	-	18.3	4.2	-	-	-	15
	제조업/건설업	10.1	28.9	39.4	5.6	14.8	28.8	32.9	12.4	27.7	19.7	5.9	7.0	12.3	4.9	-	3.2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8.1	29.8	42.3	30.9	19.9	36.1	20.7	10.6	39.4	20.3	3.8	9.6	-	-	-	-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1	16.7	30.1	3.8	12.8	21.9	47.2	43.5	8.8	22.4	8.7	8.1	11.2	-	4.6	3.6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9.3	17.2	29.0	9.6	8.7	21.8	39.2	38.0	27.3	10.0	14.3	16.3	15.2	10.4	-	-	30
	보건복지업	30.2	25.4	31.0	10.6	9.6	15.3	59.0	34.8	27.2	7.1	-	15.9	4.7	-	-	-	36
	공공행정업	3.8	10.4	26.7	-	9.3	27.1	34.2	29.4	1.2	2.6	7.8	7.8	1.2	-	-	21.5	40
	기타서비스업	39.2	38.1	31.3	12.8	5.9	27.5	53.3	17.4	35.3	19.9	6.1	4.9	1.4	-	-	-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	-	-

16-1) 고용안정성 만족도

[부록표 59] |취업자| 범주별 고용안정성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고용안정성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4	6.1	27.5	31.2	31.8	310	3.82	-
지역별	전주 권역	5.3	5.3	19.7	33.3	36.4	132	3.90	0.795
	군산/김제 권역	3.4	12.1	22.4	29.3	32.8	58	3.77	.
	익산/완주 권역	1.5	5.9	42.6	25.0	25.0	68	3.64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42.9	42.9	14.3	7	3.65	.
	임실/순창/남원 권역	-	-	50.0	18.8	31.3	16	3.84	.
	고창/부안/정읍 권역	-	3.7	22.2	44.4	29.6	27	4.01	.
지역별	농촌지역	1.6	3.2	28.6	34.9	31.7	63	3.90	0.511
	도시지역	3.7	6.6	27.5	30.3	32.0	244	3.80	.
성별	남성	-	2.4	29.7	33.3	34.5	165	3.99	9.703
	여성	6.9	10.3	24.8	29.0	29.0	145	3.62	***
연령대 별	18세~24세	-	8.6	42.9	34.3	14.3	35	3.53	1.615
	25세~29세	5.0	7.5	21.3	30.0	36.3	80	3.87	.
	30세~34세	5.9	3.0	28.7	34.7	27.7	101	3.75	.
	35세~39세	1.1	7.4	25.3	27.4	38.9	95	3.9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1	1.0	24.7	35.1	35.1	97	3.96	1.513
	미혼+종속	2.8	9.4	31.1	31.1	25.5	106	3.66	.
	기혼+자녀없음	5.3	7.9	26.3	26.3	34.2	38	3.78	.
	기혼+자녀있음	1.5	6.0	26.9	29.9	35.8	67	3.90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3	6.4	28.1	31.1	31.1	299	3.80	2.752
	활동	-	-	11.1	33.3	55.6	9	4.37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	25.0	-	75.0	4	4.50	4.154
	제조업/건설업	2.7	4.5	31.3	42.0	19.6	112	3.7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9.1	54.5	30.3	6.1	33	3.3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0.0	10.0	27.5	52.5	40	4.24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1.5	3.8	26.9	19.2	38.5	26	3.66	.
	보건복지업	5.7	8.6	28.6	28.6	28.6	35	3.70	.
	공공행정업	7.5	-	12.5	15.0	65.0	40	4.32	.
	기타서비스업	-	13.6	27.3	36.4	22.7	22	3.6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2) 임금수준 만족도

[부록표 60] | 취업자 범주별 임금수준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임금수준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5.9	16.8	48.5	23.5	5.3	348	3.05	-
지역별	전주 권역	6.3	13.3	49.7	25.2	5.6	143	3.10	0.585
	군산/김제 권역	6.1	27.3	39.4	24.2	3.0	66	2.92	.
	익산/완주 권역	7.2	12.0	51.8	19.3	9.6	83	3.11	.
	무주/진안/장수 권역	-	25.0	25.0	50.0	-	8	3.24	.
	임실/순창/남원 권역	5.0	20.0	55.0	15.0	5.0	20	2.99	.
	고창/부안/정읍 권역	3.4	17.2	55.2	24.1	-	29	2.95	.
지역별	농촌지역	7.7	17.9	43.6	25.6	5.1	78	3.05	0.006
	도시지역	5.6	16.7	50.0	22.6	5.2	270	3.06	.
성별	남성	5.3	12.3	51.3	24.6	6.4	187	3.14	3.552
	여성	6.8	21.6	45.1	22.2	4.3	162	2.95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22.2	58.3	13.9	2.8	36	2.93	1.504
	25세~29세	10.6	16.5	40.0	30.6	2.4	85	2.98	.
	30세~34세	6.9	15.5	53.4	18.1	6.0	116	3.00	.
	35세~39세	2.7	16.1	46.4	26.8	8.0	112	3.20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8	17.8	50.5	22.4	6.5	107	3.11	2.533
	미혼+종속	10.1	19.3	46.2	21.0	3.4	119	2.89	*
	기혼+자녀없음	6.8	20.5	40.9	25.0	6.8	44	3.03	.
	기혼+자녀있음	3.8	10.1	51.9	27.8	6.3	79	3.2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0	17.2	47.7	23.6	5.4	331	3.05	0.448
	활동	-	5.9	64.7	23.5	5.9	17	3.20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6.7	8.3	41.7	25.0	8.3	12	3.10	1.172
	제조업/건설업	4.4	14.2	52.2	23.0	6.2	113	3.1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6	25.9	48.1	9.3	11.1	54	2.93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9	9.8	41.5	39.0	4.9	41	3.31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26.7	33.3	30.0	-	30	2.81	.
	보건복지업	8.6	14.3	37.1	34.3	5.7	35	3.11	.
	공공행정업	2.5	12.5	65.0	20.0	-	40	3.00	.
	기타서비스업	4.0	24.0	52.0	16.0	4.0	25	2.87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3) 근로시간 만족도

[부록표 61] | 취업자 범주별 근로시간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근로시간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3	15.9	44.7	28.4	6.7	355	3.17	-
지역별	전주 권역	4.8	14.3	44.9	29.3	6.8	147	3.20	0.239
	군산/김제 권역	9.0	19.4	34.3	28.4	9.0	67	3.09	.
	익산/완주 권역	1.2	16.9	51.8	24.1	6.0	83	3.18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70.0	30.0	-	10	3.28	.
	임실/순창/남원 권역	-	10.5	52.6	26.3	10.5	19	3.28	.
	고창/부안/정읍 권역	6.7	20.0	33.3	33.3	3.3	30	3.11	.
지역별	농촌지역	3.8	16.3	42.5	30.0	6.3	80	3.19	0.049
	도시지역	4.4	16.0	45.1	27.6	6.9	275	3.17	.
성별	남성	3.7	13.7	47.9	27.9	6.8	190	3.20	0.320
	여성	4.8	18.2	41.2	29.1	6.7	165	3.14	.
연령대 별	18세~24세	-	8.3	63.9	16.7	11.1	36	3.29	0.820
	25세~29세	8.0	11.4	45.5	30.7	4.5	88	3.12	.
	30세~34세	5.9	19.5	41.5	26.3	7.6	118	3.10	.
	35세~39세	0.9	17.7	41.6	33.6	6.2	113	3.25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8	18.7	41.1	29.0	8.4	107	3.22	1.568
	미혼+종속	7.3	11.4	50.4	23.6	7.3	123	3.12	.
	기혼+자녀없음	6.5	19.6	47.8	21.7	2.2	46	2.96	.
	기혼+자녀있음	1.3	16.5	36.7	38.0	6.3	79	3.31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4.5	15.9	43.5	29.7	6.3	333	3.18	0.120
	활동	-	18.2	59.1	9.1	13.6	22	3.10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3	6.7	46.7	13.3	13.3	15	3.12	0.795
	제조업/건설업	-	13.4	47.3	34.8	3.6	112	3.28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2	20.7	56.9	5.2	10.3	58	2.96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0	22.5	30.0	42.5	2.5	40	3.13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3.3	43.3	33.3	10.0	30	3.30	.
	보건복지업	8.3	11.1	36.1	33.3	8.3	36	3.20	.
	공공행정업	5.0	17.5	40.0	37.5	-	40	3.10	.
	기타서비스업	-	25.0	45.8	12.5	16.7	24	3.2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4) 일-삶 균형 만족도

[부록표 62] |취업자| 범주별 일-삶 균형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일-삶 균형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2.7	15.1	46.1	29.7	6.4	355	3.22	-
지역별	전주 권역	3.4	12.2	47.6	30.6	5.4	147	3.23	0.657
	군산/김제 권역	4.5	17.9	46.3	23.9	6.0	67	3.10	.
	익산/완주 권역	-	19.3	44.6	27.7	8.4	83	3.24	.
	무주/진안/장수 권역	-	10.0	30.0	40.0	10.0	10	3.58	.
	임실/순창/남원 권역	5.3	15.8	47.4	26.3	5.3	19	3.16	.
	고창/부안/정읍 권역	-	13.3	40.0	40.0	3.3	30	3.30	.
지역별	농촌지역	1.3	15.0	42.5	32.5	7.5	80	3.29	0.644
	도시지역	2.9	14.9	47.3	29.1	5.8	275	3.20	.
성별	남성	1.6	15.8	44.7	31.1	7.4	190	3.26	1.066
	여성	3.6	14.5	47.9	28.5	5.5	165	3.17	.
연령대 별	18세~24세	-	16.7	55.6	22.2	5.6	36	3.15	0.947
	25세~29세	4.5	11.4	51.1	23.9	9.1	88	3.23	.
	30세~34세	4.2	20.3	40.7	29.7	5.9	118	3.14	.
	35세~39세	0.9	13.3	44.2	37.2	5.3	113	3.32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0.9	16.8	43.9	28.0	9.3	107	3.28	3.783
	미혼+종속	3.3	15.4	48.8	26.8	5.7	123	3.16	**
	기혼+자녀없음	6.5	23.9	47.8	19.6	2.2	46	2.91	.
	기혼+자녀있음	1.3	7.6	43.0	41.8	5.1	79	3.42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7	15.3	45.9	30.0	6.0	333	3.22	0.127
	활동	4.5	13.6	45.5	27.3	9.1	22	3.29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3	6.7	33.3	33.3	13.3	15	3.39	1.795
	제조업/건설업	-	8.9	47.3	38.4	4.5	112	3.38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7	22.4	55.2	6.9	10.3	58	3.0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0	22.5	37.5	27.5	7.5	40	3.12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13.3	33.3	40.0	6.7	30	3.28	.
	보건복지업	2.8	11.1	47.2	33.3	2.8	36	3.23	.
	공공행정업	2.5	25.0	47.5	25.0	-	40	2.96	.
	기타서비스업	-	12.5	50.0	29.2	8.3	24	3.36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5)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부록표 63] | 취업자 | 범주별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작업시설환경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1.3	10.3	39.7	36.4	12.2	355	3.48	-
지역별	전주 권역	1.4	12.2	38.8	34.7	12.2	147	3.45	0.469
	군산/김제 권역	-	13.4	26.9	46.3	13.4	67	3.60	.
	익산/완주 권역	2.4	6.0	54.2	22.9	14.5	83	3.42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40.0	50.0	10.0	10	3.67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3	42.1	36.8	10.5	19	3.50	.
	고창/부안/정읍 권역	3.3	13.3	26.7	50.0	3.3	30	3.41	.
지역별	농촌지역	2.5	11.3	38.8	36.3	10.0	80	3.42	0.512
	도시지역	1.1	10.2	40.0	36.4	12.7	275	3.50	.
성별	남성	1.1	10.5	38.4	37.9	12.6	190	3.51	0.441
	여성	1.8	10.3	41.2	35.2	11.5	165	3.45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11.1	41.7	36.1	11.1	36	3.47	0.871
	25세~29세	-	9.1	44.3	35.2	11.4	88	3.47	.
	30세~34세	2.5	13.6	39.8	31.4	12.7	118	3.39	.
	35세~39세	0.9	8.0	35.4	43.4	12.4	113	3.5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0.9	9.3	35.5	40.2	14.0	107	3.57	1.035
	미혼+종속	0.8	13.0	43.1	30.1	13.8	123	3.43	.
	기혼+자녀없음	6.5	10.9	39.1	34.8	10.9	46	3.33	.
	기혼+자녀있음	-	7.6	41.8	43.0	8.9	79	3.52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5	10.2	39.6	36.6	12.3	333	3.48	0.068
	활동	-	13.6	40.9	31.8	13.6	22	3.43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	6.7	20.0	53.3	13.3	15	3.77	1.483
	제조업/건설업	-	9.8	47.3	28.6	13.4	112	3.45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7.2	50.0	22.4	10.3	58	3.27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15.0	40.0	40.0	5.0	40	3.35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6.7	40.0	36.7	13.3	30	3.41	.
	보건복지업	2.8	5.6	30.6	47.2	16.7	36	3.68	.
	공공행정업	2.5	2.5	25.0	65.0	7.5	40	3.68	.
	기타서비스업	-	16.7	33.3	25.0	25.0	24	3.58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6)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부록표 64] |취업자| 범주별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역량개발·직무교육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4.0	22.6	44.0	23.3	6.1	355	3.05	-
권역별	전주 권역	3.4	21.8	44.2	26.5	4.1	147	3.06	0.139
	군산/김제 권역	1.5	34.3	35.8	19.4	9.0	67	2.99	.
	익산/완주 권역	7.2	13.3	49.4	18.1	9.6	83	3.08	.
	무주/진안/장수 권역	-	30.0	50.0	20.0	-	10	3.00	.
	임실/순창/남원 권역	-	21.1	52.6	26.3	-	19	3.13	.
	고창/부안/정읍 권역	3.3	26.7	36.7	26.7	3.3	30	2.99	.
지역별	농촌지역	6.3	23.8	40.0	21.3	6.3	80	2.97	0.755
	도시지역	3.3	22.2	45.1	23.6	5.8	275	3.07	.
성별	남성	3.7	22.1	44.7	22.1	6.8	190	3.07	0.155
	여성	4.2	23.0	43.0	24.8	4.8	165	3.03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30.6	50.0	13.9	2.8	36	2.85	1.798
	25세~29세	1.1	25.0	40.9	28.4	3.4	88	3.09	.
	30세~34세	7.6	25.4	37.3	22.9	6.8	118	2.95	.
	35세~39세	3.5	15.0	51.3	22.1	8.8	113	3.1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9	22.4	49.5	20.6	6.5	107	3.08	0.806
	미혼+종속	4.1	29.3	39.8	20.3	5.7	123	2.95	.
	기혼+자녀없음	8.7	15.2	39.1	30.4	6.5	46	3.12	.
	기혼+자녀있음	3.8	16.5	45.6	26.6	6.3	79	3.13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6	22.5	43.8	24.6	5.7	333	3.07	1.699
	활동	9.1	27.3	45.5	4.5	9.1	22	2.80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7	40.0	33.3	6.7	13.3	15	2.89	0.746
	제조업/건설업	4.5	24.1	40.2	25.0	6.3	112	3.04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29.3	58.6	5.2	6.9	58	2.9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7.5	22.5	37.5	27.5	5.0	40	2.98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13.3	36.7	33.3	10.0	30	3.27	.
	보건복지업	5.6	8.3	47.2	38.9	2.8	36	3.26	.
	공공행정업	2.5	17.5	47.5	32.5	-	40	3.07	.
	기타서비스업	-	29.2	45.8	16.7	8.3	24	3.0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7)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부록표 65] |취업자| 범주별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업무내용·방식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9	12.2	41.0	34.4	8.5	355	3.32	-
권역별	전주 권역	4.8	13.6	37.4	38.8	5.4	147	3.26	0.654
	군산/김제 권역	4.5	16.4	41.8	26.9	10.4	67	3.22	.
	익산/완주 권역	4.8	7.2	45.8	27.7	15.7	83	3.43	.
	무주/진안/장수 권역	-	10.0	40.0	40.0	10.0	10	3.56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3	52.6	26.3	10.5	19	3.37	.
	고창/부안/정읍 권역	-	10.0	33.3	50.0	-	30	3.37	.
지역별	농촌지역	3.8	10.0	38.8	36.3	10.0	80	3.39	0.677
	도시지역	3.6	12.7	41.8	33.8	8.0	275	3.29	.
성별	남성	3.2	12.6	39.5	36.3	7.9	190	3.33	0.063
	여성	4.2	11.5	43.0	32.1	9.1	165	3.30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2.8	44.4	44.4	5.6	36	3.47	3.120
	25세~29세	4.5	17.0	37.5	34.1	6.8	88	3.23	**
	30세~34세	5.9	16.9	40.7	27.1	8.5	118	3.16	.
	35세~39세	2.7	6.2	42.5	39.8	10.6	113	3.49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7	13.1	42.1	30.8	11.2	107	3.32	3.089
	미혼+종속	3.3	17.1	37.4	35.0	7.3	123	3.27	**
	기혼+자녀없음	10.9	10.9	45.7	28.3	4.3	46	3.04	.
	기혼+자녀있음	1.3	5.1	44.3	41.8	8.9	79	3.5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4.2	12.3	40.5	34.8	8.4	333	3.31	0.312
	활동	-	9.1	45.5	27.3	13.6	22	3.4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3	-	40.0	33.3	13.3	15	3.36	0.674
	제조업/건설업	0.9	15.2	43.8	31.3	8.9	112	3.31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0.3	48.3	27.6	12.1	58	3.4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7.5	12.5	25.0	50.0	5.0	40	3.28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7	10.0	30.0	36.7	16.7	30	3.45	.
	보건복지업	5.6	5.6	44.4	38.9	5.6	36	3.34	.
	공공행정업	5.0	20.0	37.5	37.5	-	40	3.05	.
	기타서비스업	4.2	4.2	58.3	29.2	8.3	24	3.3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8)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부록표 66] |취업자| 범주별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경력향상·승진가능성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6.2	17.4	41.4	28.8	6.1	355	3.11	-
권역별	전주 권역	5.4	21.8	34.0	34.7	4.1	147	3.10	0.445
	군산/김제 권역	9.0	11.9	46.3	26.9	6.0	67	3.09	.
	익산/완주 권역	8.4	13.3	45.8	21.7	10.8	83	3.14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60.0	30.0	10.0	10	3.42	.
	임실/순창/남원 권역	-	15.8	52.6	26.3	10.5	19	3.25	.
	고창/부안/정읍 권역	3.3	26.7	43.3	26.7	-	30	2.95	.
지역별	농촌지역	5.0	12.5	47.5	27.5	6.3	80	3.16	0.286
	도시지역	6.5	18.9	39.3	29.5	6.2	275	3.10	.
성별	남성	4.2	16.3	36.8	35.3	6.8	190	3.24	7.103
	여성	8.5	18.2	46.7	21.2	5.5	165	2.96	***
연령대 별	18세~24세	2.8	27.8	33.3	30.6	5.6	36	3.13	0.170
	25세~29세	5.7	15.9	43.2	27.3	8.0	88	3.15	.
	30세~34세	8.5	15.3	43.2	28.0	5.1	118	3.06	.
	35세~39세	6.2	16.8	40.7	31.0	6.2	113	3.1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7	16.8	39.3	26.2	12.1	107	3.24	0.916
	미혼+종속	7.3	16.3	41.5	31.7	3.3	123	3.06	.
	기혼+자녀없음	10.9	15.2	41.3	28.3	6.5	46	3.05	.
	기혼+자녀있음	3.8	20.3	44.3	29.1	2.5	79	3.06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6	18.0	40.2	29.1	6.3	333	3.10	0.335
	활동	-	9.1	59.1	27.3	4.5	22	3.23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20.0	13.3	40.0	26.7	6.7	15	2.83	0.588
	제조업/건설업	6.3	14.3	39.3	29.5	9.8	112	3.22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7	24.1	51.7	13.8	6.9	58	3.01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25.0	37.5	32.5	5.0	40	3.18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0.0	-	50.0	36.7	-	30	3.15	.
	보건복지업	11.1	11.1	41.7	30.6	2.8	36	3.02	.
	공공행정업	7.5	20.0	30.0	37.5	2.5	40	3.06	.
	기타서비스업	-	29.2	41.7	29.2	4.2	24	3.05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6-9)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부록표 67] |취업자| 범주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3.1	11.3	44.7	34.6	6.4	355	3.30	-
지역별	전주 권역	3.4	11.6	41.5	39.5	4.1	147	3.29	0.822
	군산/김제 권역	4.5	16.4	44.8	28.4	6.0	67	3.17	.
	익산/완주 권역	2.4	9.6	49.4	26.5	12.0	83	3.37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40.0	50.0	10.0	10	3.67	.
	임실/순창/남원 권역	-	5.3	63.2	26.3	5.3	19	3.28	.
	고창/부안/정읍 권역	3.3	10.0	36.7	43.3	3.3	30	3.33	.
지역별	농촌지역	2.5	8.8	47.5	32.5	7.5	80	3.35	0.299
	도시지역	3.3	12.0	43.6	35.3	5.8	275	3.29	.
성별	남성	2.6	8.4	43.2	38.9	6.3	190	3.37	3.040
	여성	3.6	14.5	46.1	29.7	6.7	165	3.21	*
연령대 별	18세~24세	-	8.3	58.3	30.6	2.8	36	3.29	2.185
	25세~29세	5.7	13.6	43.2	34.1	4.5	88	3.19	*
	30세~34세	4.2	12.7	48.3	28.0	7.6	118	3.23	.
	35세~39세	0.9	9.7	37.2	43.4	8.0	113	3.47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7	7.5	45.8	33.6	7.5	107	3.32	1.988
	미혼+종속	4.1	13.8	43.9	33.3	4.1	123	3.21	.
	기혼+자녀없음	2.2	15.2	50.0	30.4	4.3	46	3.18	.
	기혼+자녀있음	-	10.1	40.5	40.5	8.9	79	3.49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3	11.4	44.1	35.1	6.3	333	3.30	0.014
	활동	-	9.1	50.0	27.3	9.1	22	3.32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13.3	6.7	40.0	26.7	6.7	15	3.13	0.341
	제조업/건설업	0.9	14.3	42.9	32.1	9.8	112	3.36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7	8.6	58.6	20.7	10.3	58	3.32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0.0	12.5	32.5	45.0	2.5	40	3.1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	13.3	46.7	36.7	3.3	30	3.28	.
	보건복지업	2.8	5.6	41.7	47.2	-	36	3.36	.
	공공행정업	5.0	5.0	40.0	47.5	-	40	3.30	.
	기타서비스업	-	16.7	54.2	20.8	8.3	24	3.23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7) 일자리 이직의향

[부록표 68] |취업자| 범주별 일자리 이직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일자리 이직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25.2	20.3	26.7	18.0	9.7	355	2.67	-
지역별	전주 권역	27.9	20.4	19.0	21.1	11.6	147	2.68	0.347
	군산/김제 권역	20.9	25.4	26.9	11.9	13.4	67	2.74	.
	익산/완주 권역	24.1	14.5	41.0	13.3	6.0	83	2.64	.
	무주/진안/장수 권역	40.0	20.0	20.0	20.0	-	10	2.30	.
	임실/순창/남원 권역	15.8	21.1	36.8	26.3	-	19	2.84	.
	고창/부안/정읍 권역	30.0	23.3	16.7	23.3	6.7	30	2.52	.
지역별	농촌지역	28.8	25.0	25.0	13.8	6.3	80	2.45	2.777
	도시지역	24.4	18.9	27.3	18.9	10.5	275	2.73	*
성별	남성	27.9	23.2	27.9	17.4	4.7	190	2.48	8.931
	여성	22.4	17.6	25.5	18.8	15.8	165	2.89	***
연령대 별	18세~24세	11.1	8.3	41.7	30.6	5.6	36	3.09	11.239
	25세~29세	15.9	13.6	23.9	29.5	14.8	88	3.13	***
	30세~34세	25.4	23.7	24.6	14.4	12.7	118	2.66	.
	35세~39세	36.3	25.7	26.5	8.8	3.5	113	2.1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1.5	19.6	26.2	18.7	14.0	107	2.84	11.567
	미혼+종속	14.6	20.3	27.6	25.2	12.2	123	3.02	***
	기혼+자녀없음	28.3	21.7	34.8	8.7	6.5	46	2.45	.
	기혼+자녀있음	45.6	21.5	21.5	10.1	1.3	79	2.02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4.0	21.3	26.7	18.0	10.2	333	2.69	2.109
	활동	40.9	4.5	27.3	18.2	-	22	2.27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3.3	6.7	20.0	13.3	6.7	15	2.09	1.904
	제조업/건설업	23.2	26.8	32.1	13.4	5.4	112	2.51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2.4	6.9	31.0	31.0	6.9	58	2.91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32.5	7.5	20.0	22.5	17.5	40	2.83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0.0	20.0	20.0	16.7	13.3	30	2.65	.
	보건복지업	13.9	19.4	30.6	22.2	13.9	36	3.05	.
	공공행정업	30.0	35.0	20.0	7.5	10.0	40	2.36	.
	기타서비스업	16.7	29.2	20.8	20.8	12.5	24	2.84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18)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부록표 69] |전체| 범주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26.8	20.3	25.5	17.8	9.6	500	2.63	-
권역별	전주 권역	23.5	20.4	27.1	14.0	14.5	221	2.75	1.299
	군산/김제 권역	28.5	18.6	23.0	23.0	6.6	91	2.60	.
	익산/완주 권역	31.0	19.1	29.2	16.4	3.6	110	2.41	.
	무주/진안/장수 권역	42.8	17.1	17.1	17.1	8.6	12	2.21	.
	임실/순창/남원 권역	27.4	15.7	27.4	23.5	3.9	26	2.65	.
	고창/부안/정읍 권역	22.1	29.4	14.7	24.5	9.8	41	2.72	.
지역별	농촌지역	29.3	29.3	19.2	15.2	7.1	99	2.40	3.859
	도시지역	26.2	18.2	26.9	18.4	10.2	401	2.69	*
성별	남성	30.0	20.6	26.6	16.5	6.4	267	2.49	6.534
	여성	23.2	20.2	24.4	19.3	13.3	233	2.79	**
연령대 별	18세~24세	12.5	19.2	25.0	28.3	15.0	120	3.15	19.150
	25세~29세	15.9	18.2	34.9	22.0	9.9	132	2.92	***
	30세~34세	37.7	20.0	21.6	9.2	10.8	130	2.36	.
	35세~39세	41.4	24.5	20.3	11.8	1.7	118	2.08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29.1	14.5	26.9	17.4	12.4	138	2.70	11.819
	미혼+종속	16.3	21.2	30.5	21.2	10.6	226	2.89	***
	기혼+자녀없음	33.9	22.6	22.6	15.0	7.5	53	2.39	.
	기혼+자녀있음	48.3	25.3	12.1	10.9	3.6	83	1.95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25.4	20.5	26.5	18.4	9.1	473	2.65	2.474
	활동	51.0	18.2	7.3	7.3	18.2	27	2.25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8.4	17.1	-	-	5.7	18	1.56	4.621
	제조업/건설업	27.8	21.2	30.2	15.5	4.9	122	2.49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9.9	18.9	37.7	6.3	6.3	64	2.40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30.9	17.0	20.1	21.6	12.3	65	2.67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26.7	19.1	28.7	19.1	7.6	52	2.61	.
	보건복지업	13.3	24.8	21.0	21.0	19.0	52	3.08	.
	공공행정업	25.7	27.5	18.4	20.2	9.2	54	2.58	.
	기타서비스업	29.1	25.4	18.2	18.2	10.9	28	2.5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1.2	11.2	29.1	33.6	15.7	45	3.34	.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11.7	13.8	31.7	26.2	16.5	145	3.22	46.288
	취업자	33.0	23.1	23.1	14.1	6.8	355	2.39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70] |미취업자| 범주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11.7	13.8	31.7	26.2	16.6	145	3.22	-
권역별	전주 권역	5.4	16.2	33.8	23.0	23.0	74	3.42	2.306
	군산/김제 권역	20.8	4.2	33.3	29.2	8.3	24	3.01	**
	익산/완주 권역	25.9	18.5	29.6	22.2	3.7	27	2.65	.
	무주/진안/장수 권역	-	-	50.0	-	50.0	2	4.00	.
	임실/순창/남원 권역	14.3	14.3	14.3	42.9	-	7	3.18	.
	고창/부안/정읍 권역	9.1	9.1	18.2	36.4	27.3	11	3.69	.
지역별	농촌지역	10.5	21.1	26.3	15.8	21.1	19	3.11	0.178
	도시지역	11.9	11.9	32.5	27.8	15.9	126	3.24	.
성별	남성	11.7	14.3	39.0	24.7	9.1	77	3.05	3.223
	여성	11.8	13.2	23.5	27.9	25.0	68	3.42	*
연령대 별	18세~24세	13.1	15.5	25.0	28.6	17.9	84	3.21	1.038
	25세~29세	2.3	13.6	40.9	25.0	18.2	44	3.40	.
	30세~34세	33.3	-	25.0	25.0	16.7	12	2.97	.
	35세~39세	20.0	-	80.0	-	-	5	2.53	.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12.9	3.2	35.5	32.3	16.1	31	3.35	2.111
	미혼+중속	9.6	15.4	31.7	24.0	18.3	104	3.27	.
	기혼+자녀없음	28.6	28.6	14.3	28.6	-	7	2.61	.
	기혼+자녀있음	50.0	25.0	25.0	-	-	4	1.94	.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12.2	12.2	31.7	27.3	15.8	139	3.23	0.005
	활동	-	33.3	33.3	-	33.3	6	3.19	.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6.7	33.3	-	-	-	3	1.41	1.672
	제조업/건설업	-	-	60.0	10.0	30.0	10	3.67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	16.7	66.7	-	33.3	6	3.48	.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12.5	8.3	29.2	25.0	25.0	24	3.41	.
	교육업/예술스포츠업	13.6	22.7	36.4	22.7	9.1	22	2.93	.
	보건복지업	11.8	17.6	17.6	29.4	29.4	17	3.41	.
	공공행정업	21.4	14.3	35.7	42.9	-	14	2.92	.
	기타서비스업	-	66.7	33.3	-	-	3	2.40	.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11.1	11.1	28.9	33.3	15.6	45	3.34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부록표 71] |취업자| 범주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비교

(단위: 명, %)

구분		전북 외 지역 이동의향					전체 (n,100%)	평균 (점)	t/F 검정
		전혀 의향없음	별로 의향없음	보통	약간 의향있음	매우 의향있음			
전체		33.0	23.1	23.1	14.1	6.8	355	2.39	-
권역별	전주 권역	33.3	23.1	23.8	9.5	10.9	147	2.41	0.354
	군산/김제 권역	31.3	23.9	19.4	20.9	6.0	67	2.45	
	익산/완주 권역	33.7	20.5	28.9	14.5	2.4	83	2.34	
	무주/진안/장수 권역	50.0	20.0	20.0	10.0	-	10	1.93	
	임실/순창/남원 권역	36.8	10.5	26.3	21.1	5.3	19	2.46	
	고창/부안/정읍 권역	26.7	36.7	13.3	20.0	3.3	30	2.35	
지역별	농촌지역	33.8	31.3	17.5	13.8	3.8	80	2.23	1.645
	도시지역	32.7	20.7	24.7	14.2	7.6	275	2.43	
성별	남성	36.8	23.2	22.1	13.2	5.3	190	2.26	3.886
	여성	28.5	23.0	24.2	15.8	8.5	165	2.53	
연령대 별	18세~24세	11.1	27.8	25.0	25.0	11.1	36	3.00	7.468
	25세~29세	21.6	20.5	31.8	20.5	5.7	88	2.68	
	30세~34세	39.0	22.0	21.2	7.6	11.0	118	2.30	
	35세~39세	42.5	25.7	17.7	12.4	1.8	113	2.06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3.6	17.8	24.3	13.1	11.2	107	2.52	4.413
	미혼+중속	22.0	26.0	29.3	18.7	4.1	123	2.56	
	기혼+자녀없음	34.8	21.7	23.9	10.9	8.7	46	2.36	
	기혼+자녀있음	49.4	26.6	10.1	11.4	3.8	79	1.96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0.9	24.0	24.3	14.7	6.3	333	2.41	2.253
	활동	63.6	9.1	4.5	9.1	13.6	22	1.99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73.3	13.3	-	-	6.7	15	1.59	1.996
	제조업/건설업	30.4	22.3	28.6	16.1	2.7	112	2.38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2.8	20.7	34.5	6.9	5.2	58	2.2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0.0	22.5	15.0	17.5	5.0	40	2.23	
	교육업/예술스포츠업	36.7	16.7	23.3	16.7	6.7	30	2.38	
	보건복지업	13.9	30.6	22.2	19.4	13.9	36	2.92	
	공공행정업	27.5	32.5	12.5	12.5	12.5	40	2.46	
	기타서비스업	33.3	20.8	16.7	20.8	12.5	24	2.52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주. * $p < 0.1$, ** $p < 0.05$, *** $p < 0.01$

다. 전북청년 일자리-삶 정책 수요

1)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부록표 72] |전체| 범주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전체 (n100%)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요인7	요인8	요인9	요인10		기타
전체		55.4	30.4	52.8	23.7	32.3	7.5	29.4	29.8	15.0	12.9	0.8	500
권역별	전주 권역	59.6	28.7	59.0	19.9	27.4	5.0	32.5	23.2	16.2	9.7	1.4	221
	군산/김제 권역	52.6	31.2	47.5	31.5	32.4	6.5	30.1	33.2	23.5	12.0	1.1	91
	익산/완주 권역	47.1	27.8	48.9	24.5	40.5	7.7	28.7	35.4	8.6	21.9	-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68.7	36.2	17.0	34.9	54.1	11.2	14.0	22.8	18.1	5.6	-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70.6	24.9	40.6	22.2	29.6	4.9	39.9	42.5	7.4	15.3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48.0	46.1	58.8	22.8	32.0	23.7	10.3	36.4	10.2	8.8	-	41
지역별	농촌지역	48.6	36.4	47.7	26.2	37.6	10.3	24.2	35.9	12.2	17.1	-	99
	도시지역	57.1	28.9	54.0	23.1	31.0	6.9	30.7	28.2	15.7	11.9	1.0	401
성별	남성	58.6	30.3	60.7	20.6	32.7	9.1	23.9	28.5	13.5	9.3	1.6	267
	여성	51.8	30.4	43.7	27.3	31.8	5.8	35.6	31.1	16.6	17.1	-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60.3	27.7	42.9	36.6	34.2	3.5	35.7	29.3	12.9	5.4	-	120
	25세~29세	59.2	30.3	57.3	17.7	33.5	10.9	30.2	31.0	8.3	14.3	-	132
	30세~34세	54.1	33.9	48.6	24.6	30.8	7.2	31.0	28.5	14.2	16.5	1.3	130
	35세~39세	47.8	29.2	62.2	16.4	30.7	8.3	20.2	30.2	25.4	15.1	2.1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0.6	31.7	54.8	26.6	36.8	6.6	36.6	31.6	7.5	6.2	3.0	138
	미혼+중속	62.8	27.2	50.4	25.5	30.4	8.3	33.0	32.9	11.3	8.6	-	226
	기혼+자녀없음	41.2	31.2	57.4	22.3	22.1	11.0	19.8	14.7	26.4	28.6	-	53
	기혼+자녀있음	52.5	36.2	52.9	15.0	36.4	4.8	13.4	27.7	30.1	25.7	-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5.2	29.7	52.9	24.9	33.0	7.0	30.3	30.2	13.4	12.9	0.6	473
	활동	59.1	41.2	50.7	4.0	20.5	17.1	13.2	21.6	41.8	13.2	5.3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6.5	31.4	42.1	3.9	49.0	24.2	8.7	29.2	39.3	6.1	-	18
	제조업/건설업	53.3	27.5	57.6	23.7	37.9	8.4	19.0	34.9	16.2	9.3	0.9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9.5	40.8	53.5	17.6	38.1	8.1	13.6	15.3	12.1	16.5	-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4.6	26.7	58.3	23.0	37.9	3.5	29.5	27.6	23.2	16.2	-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2.0	27.1	36.7	21.6	26.2	5.5	45.3	30.3	13.7	14.4	-	52
	보건복지업	64.6	31.4	42.7	36.8	18.9	7.5	44.7	38.3	6.6	6.8	-	52
	공공행정업	35.0	36.1	65.0	16.0	30.4	5.1	37.2	26.6	10.9	21.8	5.8	54
	기타서비스업	64.6	43.7	60.4	23.7	13.0	-	42.4	26.5	12.0	13.6	-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4.7	15.5	45.5	37.8	31.1	13.9	33.9	34.9	12.5	9.8	-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9.1	25.7	47.9	30.3	35.2	8.4	30.6	27.7	11.5	9.3	-	145
	취업자	53.9	32.3	54.7	21.0	31.1	7.2	28.9	30.6	16.4	14.4	1.2	355

[부록표 73] |미취업자| 범주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전체 (n1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기타	
전체		59.1	25.7	47.9	30.3	35.2	8.4	30.6	27.7	11.5	9.3	-	145
권역별	전주 권역	62.2	22.6	57.4	27.6	29.9	4.6	37.7	22.7	12.9	2.7	-	74
	군산/김제 권역	58.2	17.7	30.0	47.4	35.2	5.7	28.6	42.3	21.4	7.4	-	24
	익산/완주 권역	38.8	34.9	46.9	25.0	51.5	9.2	16.2	27.6	5.1	29.5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80.1	-	-	59.6	40.4	-	59.9	20.2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91.2	39.3	37.0	3.7	23.6	19.4	48.3	20.1	8.8	8.8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68.0	36.9	39.1	35.1	37.0	31.4	8.1	34.8	-	9.6	-	11
지역별	농촌지역	64.3	17.6	35.6	34.3	45.9	3.9	20.8	28.0	15.0	26.1	-	19
	도시지역	58.3	26.9	49.8	29.7	33.5	9.0	32.1	27.6	11.0	6.7	-	126
성별	남성	67.7	30.6	54.6	26.9	38.6	7.1	19.1	24.9	11.5	4.9	-	77
	여성	49.4	20.3	40.4	34.0	31.3	9.8	43.4	30.8	11.6	14.1	-	68
연령대 별	18세~24세	56.9	27.3	42.4	35.7	37.7	4.4	34.6	28.3	12.4	6.1	-	84
	25세~29세	65.3	26.3	65.3	22.0	34.9	15.2	15.5	27.9	3.8	13.1	-	44
	30세~34세	58.1	14.3	32.0	26.5	33.8	14.3	59.2	10.1	27.2	-	-	12
	35세~39세	44.1	20.8	23.7	20.8	-	-	28.9	55.9	26.7	50.3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2.3	27.7	46.7	29.6	44.7	8.4	29.0	36.9	6.4	8.1	-	31
	미혼+중속	63.4	24.3	50.2	32.6	34.4	5.7	33.8	25.0	10.3	5.2	-	104
	기혼+자녀없음	34.3	41.7	26.7	15.0	16.9	42.1	-	15.0	32.7	42.9	-	7
	기혼+자녀있음	39.5	17.8	33.6	-	10.7	17.8	10.7	49.8	48.6	71.5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8.6	25.5	46.0	31.3	36.7	7.4	30.6	28.8	10.6	9.7	-	139
	활동	70.3	29.7	92.9	7.1	-	29.7	29.7	-	33.5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1.1	-	41.1	-	41.1	58.9	-	-	58.9	-	-	3
	제조업/건설업	52.1	34.9	56.7	27.1	47.9	-	16.2	19.0	19.0	4.0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2.0	39.0	57.0	17.9	61.0	-	-	-	32.6	20.5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2.7	25.4	51.7	24.5	55.8	1.7	20.0	13.7	15.4	16.8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6.0	20.3	34.5	13.7	30.4	4.3	53.0	34.7	7.8	3.4	-	22
	보건복지업	81.8	35.4	44.2	34.6	25.2	9.0	36.7	33.2	-	-	-	17
	공공행정업	47.3	30.9	76.3	35.0	18.5	9.2	23.3	41.8	-	17.7	-	14
	기타서비스업	60.1	100.0	-	100.0	-	-	39.9	-	-	-	-	3
	미활동(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4.7	15.5	45.5	37.8	31.1	13.9	33.9	34.9	12.5	9.8	-	45

[부록표 74] | 취업자 | 범주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거주 고려요인											전체 (n100%)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8	요인 9	요인 10	기타	
전체		53.9	32.3	54.7	21.0	31.1	7.2	28.9	30.6	16.4	14.4	1.2	355
권역별	전주 권역	58.4	31.8	59.8	15.9	26.1	5.2	29.9	23.5	17.9	13.3	2.1	147
	군산/김제 권역	50.6	36.1	53.9	25.8	31.5	6.9	30.7	29.9	24.3	13.6	1.6	67
	익산/완주 권역	49.9	25.4	49.5	24.3	36.9	7.3	32.8	37.9	9.8	19.4	-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67.0	41.8	19.6	31.0	56.3	12.9	6.9	23.2	20.9	6.5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63.6	20.0	41.9	28.5	31.7	-	37.1	50.2	6.9	17.6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40.3	49.6	66.4	18.2	30.1	20.8	11.1	37.0	14.0	8.5	-	30
지역별	농촌지역	44.9	41.0	50.7	24.3	35.6	11.9	25.0	37.8	11.5	14.9	-	80
	도시지역	56.6	29.7	55.9	20.1	29.8	5.9	30.0	28.5	17.8	14.3	1.5	275
성별	남성	55.0	30.2	63.2	18.1	30.3	9.9	25.8	30.0	14.4	11.0	2.2	190
	여성	52.7	34.7	45.0	24.5	32.0	4.2	32.4	31.3	18.7	18.3	-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68.2	28.7	44.0	38.7	26.2	1.3	38.5	31.6	14.0	3.7	-	36
	25세~29세	56.2	32.3	53.3	15.6	32.8	8.8	37.6	32.5	10.6	14.9	-	88
	30세~34세	53.7	35.9	50.3	24.4	30.4	6.5	28.1	30.4	12.9	18.2	1.4	118
	35세~39세	48.0	29.6	63.9	16.2	32.1	8.6	19.8	29.1	25.3	13.5	2.2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0.1	32.8	57.2	25.8	34.6	6.1	38.8	30.1	7.9	5.7	3.9	107
	미혼+중속	62.2	29.7	50.6	19.5	27.1	10.5	32.4	39.6	12.1	11.5	-	123
	기혼+자녀없음	42.3	29.6	62.0	23.5	22.9	6.3	22.8	14.7	25.4	26.4	-	46
	기혼+자녀있음	53.1	37.0	53.7	15.7	37.6	4.2	13.6	26.7	29.2	23.6	-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3.8	31.5	55.8	22.2	31.4	6.8	30.2	30.8	14.6	14.3	0.8	333
	활동	56.0	44.4	39.1	3.2	26.2	13.6	8.7	27.5	44.1	16.9	6.8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9.5	37.5	42.3	4.7	50.5	17.4	10.4	34.9	35.5	7.3	-	15
	제조업/건설업	53.4	26.8	57.7	23.4	37.0	9.2	19.2	36.4	15.9	9.8	0.9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80.3	41.0	53.2	17.5	35.7	9.0	15.1	16.9	10.0	16.1	-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33.6	27.4	62.3	22.2	27.1	4.6	35.2	36.1	27.9	15.9	-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9.1	32.2	38.4	27.6	23.0	6.3	39.7	27.1	18.2	22.5	-	30
	보건복지업	56.6	29.6	42.0	37.8	16.0	6.7	48.5	40.6	9.7	10.0	-	36
	공공행정업	30.6	38.0	61.0	9.3	34.6	3.6	42.1	21.2	14.7	23.2	7.8	40
	기타서비스업	65.2	36.1	68.6	13.4	14.8	-	42.8	30.1	13.6	15.5	-	24
	미활동(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2)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부록표 75] |전체| 범주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기타	
전체		43.1	7.9	25.1	6.6	34.4	16.2	33.4	24.0	4.7	3.8	500
권역별	전주 권역	44.0	4.4	26.4	5.1	38.1	17.1	28.5	21.8	3.9	5.3	221
	군산/김제 권역	48.5	9.1	23.5	4.6	30.3	16.4	30.2	35.7	2.6	4.0	91
	익산/완주 권역	42.4	10.1	19.1	6.4	28.6	15.5	42.0	26.7	7.3	3.1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22.2	15.2	27.9	29.1	54.9	11.0	25.8	11.3	5.3	-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57.8	9.4	23.0	10.0	15.0	10.1	53.3	17.4	5.9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24.9	14.8	38.4	10.7	45.8	18.4	33.7	10.0	6.1	-	41
지역별	농촌지역	35.0	11.9	27.8	8.6	35.6	14.1	39.5	22.0	5.6	1.5	99
	도시지역	45.1	6.9	24.4	6.0	34.1	16.7	32.0	24.5	4.5	4.3	401
성별	남성	47.5	8.1	23.6	5.5	34.4	17.6	31.1	22.4	3.7	4.1	267
	여성	38.1	7.6	26.8	7.8	34.5	14.6	36.1	25.7	5.8	3.3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62.9	4.0	20.8	4.8	23.5	13.8	37.2	30.7	6.4	1.6	120
	25세~29세	39.3	6.2	29.7	3.7	36.7	15.1	36.3	25.3	2.0	4.0	132
	30세~34세	38.5	10.5	23.8	8.9	41.3	16.7	29.8	19.3	6.2	2.2	130
	35세~39세	32.3	10.7	25.6	8.9	35.5	19.3	30.3	20.7	4.3	7.4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4.0	8.3	20.1	7.1	31.5	20.0	33.4	23.0	3.9	4.8	138
	미혼+중속	50.5	4.9	27.6	4.9	32.3	13.5	35.5	25.7	4.0	3.3	226
	기혼+자녀없음	26.3	12.2	28.8	8.0	34.6	11.3	35.1	23.2	10.0	3.5	53
	기혼+자녀있음	32.4	12.5	24.1	9.2	45.0	20.6	26.8	21.6	4.5	3.5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44.1	7.6	25.1	6.0	33.7	16.6	33.5	23.9	4.9	3.7	473
	활동	26.5	11.9	25.0	15.9	47.1	10.2	32.0	25.0	2.0	4.4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38.0	12.2	37.7	10.6	35.5	1.6	48.0	15.2	1.4	-	18
	제조업/건설업	51.5	6.3	17.5	5.0	28.9	22.5	45.9	17.6	5.9	1.7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5.8	14.5	40.7	11.1	44.8	10.0	23.2	10.8	2.1	5.8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2.8	5.9	17.1	1.7	31.0	23.0	31.3	34.9	2.2	6.8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6.3	8.1	32.8	8.0	34.2	10.6	26.3	22.2	5.6	0.7	52
	보건복지업	31.8	5.6	22.9	9.8	43.9	19.7	36.5	21.2	8.9	2.0	52
	공공행정업	20.5	4.0	13.1	6.8	34.8	14.4	30.3	45.6	3.3	8.5	54
	기타서비스업	34.1	8.5	44.3	11.7	39.7	18.2	17.9	13.1	5.0	9.6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3.9	10.4	26.8	1.1	25.0	7.1	29.4	33.6	5.8	-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57.5	5.2	22.4	5.1	25.1	14.4	35.2	33.5	4.7	0.3	145
	취업자	37.2	8.9	26.2	7.2	38.2	17.0	32.7	20.1	4.7	5.2	355

[부록표 76] |미취업자| 범주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기타	
전체		57.5	5.2	22.4	5.1	25.1	14.4	35.2	33.5	4.7	0.3	145
권역별	전주 권역	62.7	2.4	22.1	2.4	27.7	17.9	32.2	30.3	5.3	-	74
	군산/김제 권역	60.2	6.3	14.9	7.9	21.1	12.8	35.0	46.3	-	-	24
	익산/완주 권역	51.4	4.4	21.7	2.2	17.6	10.9	45.3	45.1	4.8	1.4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40.1	-	20.2	-	80.1	-	-	39.8	39.8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54.3	14.2	27.0	32.0	6.3	-	47.4	13.8	4.9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36.6	19.6	39.6	9.1	38.3	13.7	29.2	8.9	4.9	-	11
지역별	농촌지역	41.1	6.9	26.8	9.9	27.1	7.8	43.0	32.1	4.9	2.0	19
	도시지역	60.0	5.0	21.7	4.3	24.8	15.4	34.0	33.7	4.6	-	126
성별	남성	59.9	6.3	20.7	3.4	28.9	14.6	35.9	29.0	5.5	-	77
	여성	54.8	4.1	24.3	7.0	20.9	14.2	34.5	38.5	3.7	0.6	68
연령대 별	18세~24세	65.1	1.1	17.2	4.2	25.1	14.8	37.5	35.3	7.6	-	84
	25세~29세	41.6	11.6	26.6	4.0	32.1	10.3	30.3	38.8	0.7	-	44
	30세~34세	63.8	12.9	53.0	17.7	-	24.4	16.3	11.7	-	-	12
	35세~39세	55.6	-	-	-	23.7	20.8	84.7	7.6	-	7.6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6.8	3.8	9.3	5.7	19.0	13.7	48.7	33.0	4.2	-	31
	미혼+종속	60.2	4.6	24.5	5.4	28.4	15.1	28.7	34.3	5.2	-	104
	기혼+자녀없음	25.6	18.0	50.8	-	-	15.0	56.4	34.3	-	-	7
	기혼+자녀있음	48.6	10.7	17.8	-	33.6	-	67.6	10.8	-	10.8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8.5	4.2	21.8	5.0	24.9	15.0	35.3	33.6	4.8	0.3	139
	활동	33.5	29.7	36.8	7.1	29.7	-	33.5	29.7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1.1	-	58.9	-	-	-	100.0	-	-	-	3
	제조업/건설업	85.9	-	20.3	8.0	6.1	-	56.7	23.0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53.1	-	10.1	-	61.0	29.0	46.9	-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6.2	4.8	19.0	4.4	29.3	24.2	30.1	40.0	-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72.2	-	26.5	14.5	12.2	11.5	32.2	38.1	-	1.7	22
	보건복지업	33.4	10.4	19.5	-	33.9	32.6	20.0	27.4	22.8	-	17
	공공행정업	33.8	-	15.9	12.4	38.0	-	45.7	48.9	2.3	-	14
	기타서비스업	39.9	-	-	-	-	60.1	60.1	39.9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63.9	10.4	26.8	1.1	25.0	7.1	29.4	33.6	5.8	-	45

[부록표 77] | 취업자 범주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구직자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기타	
전체		37.2	8.9	26.2	7.2	38.2	17.0	32.7	20.1	4.7	5.2	355
권역별	전주 권역	34.6	5.4	28.5	6.5	43.4	16.7	26.7	17.5	3.1	8.1	147
	군산/김제 권역	44.2	10.1	26.6	3.4	33.6	17.7	28.5	31.8	3.6	5.4	67
	익산/완주 권역	39.4	12.0	18.2	7.8	32.3	17.0	41.0	20.7	8.1	3.7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19.5	17.5	29.1	33.6	51.0	12.7	29.7	6.9	-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59.1	7.8	21.6	2.4	17.9	13.6	55.3	18.6	6.2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20.4	12.9	38.0	11.3	48.6	20.2	35.5	10.5	6.6	-	30
지역별	농촌지역	33.5	13.1	28.0	8.3	37.7	15.6	38.6	19.6	5.8	1.4	80
	도시지역	38.3	7.7	25.7	6.8	38.4	17.4	31.0	20.3	4.4	6.3	275
성별	남성	42.5	8.8	24.8	6.3	36.6	18.9	29.2	19.8	3.0	5.8	190
	여성	31.1	9.1	27.8	8.2	40.1	14.7	36.8	20.5	6.7	4.5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57.9	10.8	29.3	6.3	19.8	11.4	36.6	20.1	3.7	5.5	36
	25세~29세	38.1	3.5	31.3	3.6	39.1	17.6	39.3	18.5	2.7	6.0	88
	30세~34세	36.0	10.3	20.9	8.0	45.4	16.0	31.2	20.1	6.9	2.4	118
	35세~39세	31.3	11.2	26.7	9.3	36.0	19.2	27.9	21.3	4.4	7.4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0.2	9.6	23.2	7.5	35.1	21.8	28.9	20.1	3.8	6.2	107
	미혼+종속	42.3	5.1	30.2	4.5	35.7	12.2	41.3	18.4	3.0	6.2	123
	기혼+자녀없음	26.4	11.3	25.4	9.3	39.8	10.7	31.9	21.5	11.5	4.0	46
	기혼+자녀있음	31.7	12.6	24.4	9.6	45.5	21.5	25.0	22.0	4.7	3.2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38.0	9.0	26.5	6.4	37.4	17.2	32.8	19.9	4.9	5.2	333
	활동	24.6	7.1	21.8	18.3	51.8	13.0	31.6	23.7	2.6	5.5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37.3	14.5	33.6	12.6	42.4	2.0	37.8	18.1	1.6	-	15
	제조업/건설업	48.3	6.9	17.2	4.7	31.0	24.6	44.9	17.1	6.4	1.9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34.0	16.0	43.9	12.3	43.0	8.0	20.7	11.9	2.3	6.4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34.7	6.5	15.9	-	32.0	22.3	32.0	31.9	3.6	10.9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4.5	14.2	37.5	3.2	50.6	9.9	21.9	10.3	9.8	-	30
	보건복지업	31.1	3.4	24.4	14.5	48.6	13.6	44.3	18.2	2.4	2.9	36
	공공행정업	15.8	5.4	12.1	4.8	33.7	19.4	25.0	44.5	3.6	11.5	40
	기타서비스업	33.3	9.7	50.3	13.3	45.1	12.5	12.2	9.5	5.6	10.9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3)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부록표 78] |전체| 범주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기타	
전체		54.7	37.2	10.6	9.2	21.8	11.1	11.8	14.5	20.8	6.4	1.0	500
권역별	전주 권역	56.1	37.2	5.0	8.0	24.2	11.8	13.2	10.9	22.5	6.0	2.3	221
	군산/김제 권역	47.2	44.0	11.6	8.9	24.0	9.6	12.4	18.6	16.5	9.8	-	91
	익산/완주 권역	48.1	32.2	17.4	11.5	16.3	9.6	11.6	21.9	24.5	5.8	-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61.1	43.8	22.1	16.8	19.5	13.9	5.5	6.0	-	8.6	-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73.4	38.6	14.2	10.3	22.5	6.8	5.8	12.5	14.8	1.3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68.5	32.2	14.6	7.5	18.4	17.0	8.2	9.2	20.3	5.1	-	41
지역별	농촌지역	58.3	43.2	14.0	10.3	23.4	9.7	7.3	16.8	11.9	5.4	-	99
	도시지역	53.9	35.7	9.7	9.0	21.4	11.5	12.8	14.0	22.9	6.6	1.3	401
성별	남성	59.9	34.3	11.6	7.8	21.3	9.1	10.9	14.1	22.8	5.6	1.2	267
	여성	48.8	40.4	9.4	10.8	22.2	13.4	12.8	15.0	18.4	7.3	0.8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56.7	49.5	11.6	11.8	13.4	11.9	9.5	11.8	20.7	6.3	1.6	120
	25세~29세	53.6	42.0	10.5	8.2	18.5	11.1	10.4	19.2	21.4	3.6	1.3	132
	30세~34세	46.3	27.5	12.2	11.4	29.8	11.7	16.7	14.0	20.9	8.0	-	130
	35세~39세	63.3	29.8	7.8	5.4	25.1	9.7	10.1	12.7	20.0	7.9	1.2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9.1	32.0	12.8	9.3	26.9	9.7	15.0	15.4	19.1	7.4	1.1	138
	미혼+중속	58.2	44.7	11.0	10.6	17.5	11.2	8.9	13.0	19.3	4.6	1.6	226
	기혼+자녀없음	40.2	27.3	4.0	8.7	20.9	4.3	19.3	23.2	38.4	7.3	-	53
	기혼+자녀있음	63.9	31.5	9.9	5.8	25.2	17.5	9.3	11.7	16.0	9.0	-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4.3	36.8	10.2	9.3	22.5	11.7	11.5	14.9	20.8	6.5	0.8	473
	활동	62.0	42.9	16.8	7.8	9.7	1.1	15.7	8.1	20.1	4.4	5.3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2.9	47.6	5.6	-	19.6	-	19.2	17.1	18.3	8.7	-	18
	제조업/건설업	61.0	30.7	11.0	3.3	23.5	8.0	13.3	20.7	27.1	2.7	-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8.6	44.6	13.7	9.3	11.5	15.1	5.3	7.8	10.3	6.4	-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48.7	36.2	14.9	11.8	17.4	10.6	7.3	21.1	22.8	7.1	-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1.5	47.9	10.4	9.9	20.1	20.4	3.4	14.1	19.2	5.0	-	52
	보건복지업	50.6	35.0	10.3	17.6	35.2	12.1	12.9	5.7	22.0	5.3	-	52
	공공행정업	26.2	38.1	4.0	7.3	28.6	8.0	20.9	11.3	19.1	11.2	5.9	54
	기타서비스업	58.7	28.4	3.7	8.2	34.0	11.2	8.4	18.9	13.9	13.3	-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4.0	35.7	13.3	17.6	9.2	10.8	19.6	9.0	22.9	7.2	4.4	45
집단 유형별	미취업자	60.0	43.2	14.1	10.8	12.0	11.8	12.2	12.4	20.9	4.5	1.4	145
	취업자	52.6	34.7	9.1	8.6	25.7	10.8	11.6	15.4	20.7	7.2	0.9	355

[부록표 79] |미취업자| 범주별 전복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복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기타	
전체		60.0	43.2	14.1	10.8	12.0	11.8	12.2	12.4	20.9	4.5	1.4	145
권역별	전주 권역	62.6	48.5	4.6	12.3	14.5	12.9	12.6	10.0	24.7	2.7	2.7	74
	군산/김제 권역	47.5	44.8	20.1	4.4	16.8	8.4	18.1	14.8	6.0	17.3	-	24
	익산/완주 권역	51.0	40.1	24.9	17.6	2.2	4.8	9.7	18.7	26.5	-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60.2	-	40.4	39.8	-	39.8	-	-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86.2	35.1	32.0	-	19.4	-	-	8.6	13.6	5.1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76.3	22.8	22.9	-	5.6	31.8	12.5	11.2	21.0	-	-	11
지역별	농촌지역	61.8	43.0	13.8	8.9	9.3	15.3	9.5	24.6	10.6	1.8	-	19
	도시지역	59.7	43.2	14.1	11.0	12.4	11.3	12.7	10.5	22.4	4.9	1.6	126
성별	남성	67.0	37.7	14.7	12.6	10.1	8.3	14.1	13.3	24.5	3.2	-	77
	여성	52.2	49.4	13.4	8.7	14.1	15.7	10.1	11.3	16.8	5.9	2.9	68
연령대 별	18세~24세	58.7	50.4	11.5	9.5	9.9	15.7	13.6	10.2	18.2	6.6	2.3	84
	25세~29세	64.5	41.3	10.5	10.6	12.9	5.0	10.5	15.7	30.8	2.2	-	44
	30세~34세	41.7	-	51.9	24.4	28.6	14.3	14.3	5.3	5.3	-	-	12
	35세~39세	84.7	40.3	-	-	-	-	-	36.0	15.3	-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36.2	45.1	17.4	14.5	19.4	9.7	25.1	2.0	24.8	10.9	-	31
	미혼+중속	68.1	45.3	14.5	10.7	10.4	12.4	8.0	12.2	19.0	3.0	1.9	104
	기혼+자녀없음	40.6	17.3	-	-	8.7	18.0	24.1	50.3	16.9	-	-	7
	기혼+자녀있음	67.6	16.2	-	-	-	-	-	32.4	50.2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0.0	42.1	14.6	10.0	12.2	12.3	11.3	12.9	21.8	4.7	1.4	139
	활동	59.4	70.3	-	29.7	7.1	-	33.5	-	-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1.1	-	-	-	-	-	58.9	41.1	-	-	-	3
	제조업/건설업	79.7	46.1	16.2	19.0	29.1	16.2	-	-	12.6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100.0	10.4	29.0	17.9	10.1	32.6	-	-	-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63.6	61.2	21.2	4.9	18.4	-	3.9	20.2	12.9	-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56.5	50.6	12.0	-	4.8	27.9	-	19.8	24.0	4.3	-	22
	보건복지업	68.1	33.9	7.8	20.8	24.1	14.4	-	-	30.3	13.7	-	17
	공공행정업	40.6	51.8	12.8	-	-	-	44.8	14.6	27.0	-	-	14
	기타서비스업	60.1	60.1	-	-	-	-	-	39.9	39.9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54.0	35.7	13.3	17.6	9.2	10.8	19.6	9.0	22.9	7.2	4.4	45

[부록표 80] | 취업자 | 범주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직장인 일자리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기타	
전체		52.6	34.7	9.1	8.6	25.7	10.8	11.6	15.4	20.7	7.2	0.9	355
권역별	전주 권역	52.9	31.5	5.1	5.9	29.0	11.2	13.6	11.3	21.4	7.7	2.2	147
	군산/김제 권역	47.1	43.7	8.5	10.6	26.6	10.0	10.3	19.9	20.3	7.1	-	67
	익산/완주 권역	47.1	29.5	14.9	9.5	21.0	11.1	12.3	23.0	23.8	7.7	-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61.2	50.5	19.3	13.3	22.5	10.0	6.4	6.9	-	10.0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69.0	39.9	8.1	13.9	23.6	9.2	7.8	13.9	15.2	-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65.5	35.8	11.5	10.3	23.3	11.3	6.6	8.5	20.1	7.0	-	30
지역별	농촌지역	57.5	43.3	14.1	10.6	26.8	8.3	6.8	14.9	12.2	6.3	-	80
	도시지역	51.2	32.2	7.7	8.0	25.5	11.6	12.9	15.6	23.1	7.4	1.2	275
성별	남성	57.1	32.9	10.3	5.9	25.9	9.4	9.6	14.4	22.1	6.6	1.7	190
	여성	47.4	36.7	7.7	11.7	25.6	12.4	13.9	16.6	19.0	7.8	-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52.0	47.3	11.9	17.1	21.4	2.9	-	15.5	26.5	5.5	-	36
	25세~29세	48.2	42.4	10.5	6.9	21.4	14.1	10.3	21.0	16.6	4.2	2.0	88
	30세~34세	46.7	30.2	8.3	10.1	29.9	11.5	17.0	14.9	22.4	8.8	-	118
	35세~39세	62.3	29.4	8.1	5.7	26.2	10.1	10.5	11.6	20.2	8.3	1.3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52.9	28.2	11.4	7.8	29.1	9.7	12.1	19.3	17.4	6.4	1.4	107
	미혼+중속	49.8	44.1	8.1	10.5	23.6	10.2	9.6	13.7	19.6	5.9	1.4	123
	기혼+자녀없음	40.2	28.9	4.6	10.0	22.7	2.3	18.6	19.0	41.7	8.4	-	46
	기혼+자녀있음	63.7	32.2	10.3	6.0	26.4	18.3	9.7	10.8	14.5	9.4	-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1.9	34.6	8.3	9.0	26.7	11.4	11.6	15.8	20.4	7.3	0.5	333
	활동	62.8	35.4	21.3	1.8	10.4	1.4	10.9	10.3	25.5	5.6	6.8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55.3	56.9	6.7	-	23.4	-	11.5	12.4	21.9	10.3	-	15
	제조업/건설업	59.3	29.3	10.5	1.9	23.0	7.2	14.5	22.6	28.4	3.0	-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6.4	48.2	12.1	8.4	11.6	13.2	5.9	8.6	11.3	7.1	-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39.6	21.0	11.1	15.9	16.7	17.0	9.4	21.6	28.8	11.5	-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47.8	45.9	9.2	17.3	31.5	14.8	6.0	9.8	15.6	5.4	-	30
	보건복지업	42.3	35.5	11.4	16.1	40.4	11.1	18.9	8.4	18.1	1.4	-	36
	공공행정업	21.1	33.3	1.0	9.9	38.6	10.8	12.5	10.2	16.4	15.2	8.0	40
	기타서비스업	58.6	24.1	4.1	9.3	38.6	12.7	9.5	16.1	10.4	15.1	-	24
	미활동(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4)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부록표 81] |전체| 범주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수요 11	수요 12	기타	
전체		64.4	42.3	17.4	24.7	17.0	37.1	11.4	8.2	35.8	8.6	12.5	3.9	0.7	500
권역별	전주 권역	66.6	47.8	20.0	19.4	12.6	37.0	11.2	6.6	30.6	9.7	11.8	4.1	1.4	221
	군산/김제 권역	68.6	36.2	17.9	17.9	20.1	46.3	12.9	10.3	37.1	6.9	13.9	6.3	-	91
	익산/완주 권역	56.0	41.6	18.8	43.4	17.1	29.2	9.9	4.5	36.9	5.0	12.7	3.1	-	110
	무주/진안/장수 권역	54.5	13.5	11.1	11.0	44.3	49.3	24.3	8.7	49.4	8.5	11.3	6.0	-	12
	임실/순창/남원 권역	69.5	55.4	10.9	23.0	19.2	28.1	12.2	10.6	51.1	8.0	1.2	-	-	26
	고창/부안/정읍 권역	64.9	27.8	5.1	22.8	24.2	40.3	9.0	20.5	44.2	16.4	20.0	1.2	1.2	41
지역별	농촌지역	59.2	34.6	11.3	25.2	25.7	37.5	13.3	11.4	45.4	8.4	11.8	2.8	0.5	99
	도시지역	65.6	44.2	19.0	24.5	14.9	37.0	10.9	7.4	33.4	8.6	12.7	4.2	0.8	401
성별	남성	64.6	40.6	18.1	26.8	16.3	35.2	14.2	7.3	32.6	8.6	11.4	3.5	1.2	267
	여성	64.1	44.3	16.7	22.3	17.8	39.2	8.1	9.2	39.4	8.6	13.8	4.3	0.2	233
연령대 별	18세~24세	60.1	45.8	18.9	25.0	12.1	32.4	17.2	7.5	42.4	11.5	14.5	4.2	0.4	120
	25세~29세	60.6	37.1	19.2	25.3	14.2	43.5	9.2	7.0	41.7	10.2	11.9	5.2	-	132
	30세~34세	70.3	46.8	22.6	26.7	18.2	35.9	12.0	5.8	25.7	5.0	10.6	2.9	1.3	130
	35세~39세	66.3	39.7	8.4	21.3	23.7	35.8	7.2	12.8	33.6	7.8	13.2	3.3	1.2	118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4.4	40.7	20.2	21.6	13.1	44.6	10.5	6.8	32.0	6.1	13.1	1.8	0.3	138
	미혼+중속	67.2	45.8	18.2	24.4	15.5	34.0	16.0	8.4	35.4	9.0	12.9	5.6	0.7	226
	기혼+자녀없음	47.4	39.0	10.9	37.6	20.3	35.8	3.6	3.7	45.2	13.3	9.2	0.7	-	53
	기혼+자녀있음	67.5	37.5	15.0	22.1	25.4	33.7	5.1	12.8	37.2	8.5	12.5	4.8	1.8	83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3.8	43.2	17.3	24.7	16.5	38.1	11.2	8.5	36.0	8.4	11.7	4.0	0.4	473
	활동	74.1	26.4	19.1	23.8	24.9	19.7	14.0	2.7	31.7	11.1	25.8	1.3	6.1	27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65.8	17.2	29.6	35.1	32.4	17.2	10.6	-	22.9	7.5	19.7	-	9.6	18
	제조업/건설업	71.1	52.1	19.6	28.2	16.6	28.7	5.6	12.1	35.5	6.1	8.5	2.0	0.4	12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6.4	43.9	16.9	21.2	22.5	33.2	17.0	7.1	37.7	5.5	14.2	4.8	2.3	64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53.4	35.2	20.5	20.8	11.2	52.1	14.6	12.6	31.3	4.3	17.4	3.6	-	65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4.5	55.8	12.6	26.6	20.1	34.7	13.3	4.2	35.1	10.9	8.3	6.0	-	52
	보건복지업	66.4	41.7	8.6	19.5	11.9	44.3	14.0	5.0	34.8	12.4	24.0	6.9	-	52
	공공행정업	50.1	37.9	22.0	19.7	14.3	53.9	2.8	0.7	36.5	6.8	3.2	5.2	-	54
	기타서비스업	67.3	44.0	16.6	23.4	13.2	26.0	18.8	8.8	36.6	16.4	16.0	2.6	-	28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71.5	22.6	14.1	32.2	20.5	32.2	15.4	12.8	46.1	16.8	11.8	2.6	-	45
	미취업자	58.7	43.3	18.9	28.9	14.8	31.2	14.8	6.8	41.0	12.6	12.4	3.5	-	145
집단 유형별	취업자	66.7	41.9	16.9	23.0	17.9	39.4	10.0	8.7	33.7	6.9	12.5	4.0	1.0	355

[부록표 82] |미취업자| 범주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수요 11	수요 12	기타	
전체		58.7	43.3	18.9	28.9	14.8	31.2	14.8	6.8	41.0	12.6	12.4	3.5	-	145
권역별	전주 권역	59.8	48.1	20.6	24.1	14.3	22.6	14.8	5.0	38.3	15.0	12.7	5.3	-	74
	군산/김제 권역	56.1	39.4	17.3	39.0	19.7	48.0	5.5	15.1	29.2	4.4	21.9	-	-	24
	익산/완주 권역	52.6	34.9	25.4	38.4	9.8	45.3	17.1	2.2	49.7	6.7	4.4	4.4	-	27
	무주/진안/장수 권역	20.2	39.8	-	-	-	40.4	100.0	-	59.9	-	-	-	-	2
	임실/순창/남원 권역	83.6	45.8	15.0	38.3	4.9	18.6	19.4	-	69.4	-	-	-	-	7
	고창/부안/정읍 권역	63.0	38.7	-	14.5	27.0	24.5	14.5	17.4	43.9	37.6	18.9	-	-	11
지역별	농촌지역	54.9	30.3	8.8	25.9	21.1	28.8	24.9	12.6	58.8	21.7	7.3	-	-	19
	도시지역	59.3	45.2	20.4	29.3	13.8	31.6	13.3	6.0	38.3	11.2	13.2	4.1	-	126
성별	남성	57.2	32.4	21.2	31.9	12.0	32.7	23.0	5.5	34.0	12.9	14.8	2.6	-	77
	여성	60.4	55.4	16.3	25.5	17.9	29.6	5.7	8.3	48.8	12.3	9.8	4.6	-	68
연령대 별	18세~24세	57.8	46.7	22.0	26.0	11.3	31.1	15.1	9.7	42.0	11.1	13.9	4.7	-	84
	25세~29세	59.1	32.5	19.6	28.3	19.2	36.5	10.0	4.0	43.6	20.3	8.2	2.7	-	44
	30세~34세	61.3	56.0	2.0	42.9	14.3	17.5	24.4	-	19.8	-	23.1	-	-	12
	35세~39세	64.0	50.3	-	49.7	36.0	20.8	28.9	-	50.3	-	-	-	-	5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49.5	33.3	18.0	33.1	9.2	43.3	10.1	1.5	34.0	14.0	17.2	-	-	31
	미혼+중속	63.0	47.0	21.1	25.6	16.2	28.8	16.6	9.1	41.3	10.5	11.9	4.9	-	104
	기혼+자녀없음	26.7	18.0	-	73.3	15.0	23.7	16.9	-	42.9	35.4	-	-	-	7
	기혼+자녀있음	78.3	71.5	-	-	21.7	10.7	-	-	89.3	17.8	10.7	-	-	4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57.0	43.5	19.7	28.7	15.4	32.6	15.4	7.1	40.0	11.9	11.4	3.7	-	139
	활동	100.0	36.8	-	33.5	-	-	-	-	63.2	29.7	36.8	-	-	6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41.1	-	-	100.0	-	-	-	-	41.1	-	-	-	-	3
	제조업/건설업	64.8	70.9	-	16.2	-	39.0	23.0	-	44.1	-	23.0	-	-	10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71.6	79.5	-	10.4	61.6	10.1	28.4	-	38.4	-	-	-	-	6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22.2	37.4	27.7	33.2	6.6	41.5	23.1	14.7	30.1	5.0	33.0	8.1	-	24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2.6	79.5	19.1	21.1	10.9	19.1	9.0	2.6	49.7	11.6	-	8.8	-	22
	보건복지업	75.2	55.4	14.8	26.4	14.2	26.8	13.7	-	38.2	19.6	13.7	-	-	17
	공공행정업	49.2	20.8	30.2	26.1	15.0	37.9	3.5	-	41.5	26.3	-	-	-	14
	기타서비스업	60.1	39.9	100.0	39.9	-	60.1	-	-	-	-	-	-	-	3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71.5	22.6	14.1	32.2	20.5	32.2	15.4	12.8	46.1	16.8	11.8	2.6	-	45

[부록표 83] | 취업자 범주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비교(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전북청년 주거정책 수요													전체 (n100%)
		수요 1	수요 2	수요 3	수요 4	수요 5	수요 6	수요 7	수요 8	수요 9	수요 10	수요 11	수요 12	기타	
전체		66.7	41.9	16.9	23.0	17.9	39.4	10.0	8.7	33.7	6.9	12.5	4.0	1.0	355
권역별	전주 권역	70.0	47.7	19.6	17.0	11.8	44.3	9.3	7.4	26.7	7.0	11.4	3.5	2.1	147
	군산/김제 권역	73.1	35.1	18.1	10.3	20.2	45.7	15.5	8.6	40.0	7.8	11.1	8.6	-	67
	익산/완주 권역	57.1	43.8	16.6	45.1	19.6	23.9	7.5	5.3	32.8	4.4	15.4	2.6	-	83
	무주/진안/장수 권역	59.7	9.4	12.8	12.7	51.1	50.6	12.6	10.0	47.8	9.8	13.0	6.9	-	10
	임실/순창/남원 권역	64.6	58.8	9.4	17.8	24.0	31.4	9.7	14.2	44.8	10.7	1.6	-	-	19
	고창/부안/정읍 권역	65.7	23.7	7.0	26.0	23.1	46.3	6.9	21.6	44.3	8.4	20.4	1.7	1.6	30
지역별	농촌지역	60.2	35.7	11.9	25.1	26.8	39.6	10.5	11.1	42.2	5.2	12.9	3.5	0.6	80
	도시지역	68.5	43.7	18.3	22.4	15.3	39.4	9.8	8.1	31.2	7.5	12.4	4.2	1.1	275
성별	남성	67.5	43.8	16.8	24.8	18.1	36.2	10.7	8.0	32.0	6.8	10.0	3.9	1.7	190
	여성	65.7	39.7	16.9	20.9	17.7	43.1	9.1	9.6	35.5	7.1	15.5	4.2	0.3	165
연령대 별	18세~24세	65.3	43.7	11.6	22.8	13.9	35.6	22.1	2.3	43.4	12.4	15.9	3.0	1.3	36
	25세~29세	61.4	39.4	19.0	23.8	11.7	47.0	8.8	8.5	40.7	5.1	13.7	6.4	-	88
	30세~34세	71.3	45.8	24.6	25.1	18.6	37.8	10.8	6.4	26.3	5.5	9.4	3.2	1.4	118
	35세~39세	66.4	39.2	8.8	20.1	23.2	36.5	6.3	13.4	32.8	8.2	13.8	3.4	1.3	113
가구 형태별	미혼+독립	68.7	42.9	20.8	18.3	14.2	45.0	10.6	8.4	31.4	3.9	11.9	2.4	0.4	107
	미혼+종속	70.7	44.8	15.8	23.5	14.9	38.4	15.6	7.7	30.4	7.7	13.8	6.1	1.4	123
	기혼+자녀없음	50.6	42.2	12.5	32.2	21.1	37.6	1.6	4.3	45.5	10.0	10.5	0.8	-	46
	기혼+자녀있음	67.0	36.0	15.6	23.1	25.6	34.7	5.3	13.4	34.8	8.1	12.6	5.0	1.8	79
귀농귀촌 활동여부별	미활동	66.6	43.1	16.4	23.1	17.0	40.4	9.5	9.1	34.3	7.0	11.9	4.2	0.6	333
	활동	67.1	23.6	24.4	21.2	31.7	25.1	17.9	3.4	23.1	6.1	22.8	1.6	7.8	22
산업 분야별	농축수산업	70.7	20.5	35.4	22.4	38.7	20.6	12.7	-	19.3	8.9	23.6	-	11.5	15
	제조업/건설업	71.7	50.4	21.4	29.3	18.1	27.7	4.0	13.3	34.7	6.7	7.1	2.2	0.4	112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65.8	40.1	18.7	22.4	18.4	35.6	15.8	7.9	37.6	6.1	15.7	5.4	2.5	58
	정보통신업/금융보험업 등	72.3	33.9	16.2	13.2	14.0	58.5	9.4	11.3	32.0	3.8	8.0	1.0	-	40
	교육업/예술스포츠업	65.8	38.1	7.7	30.6	27.0	46.2	16.5	5.4	24.3	10.3	14.4	3.9	-	30
	보건복지업	62.2	35.3	5.6	16.2	10.9	52.6	14.1	7.3	33.2	9.0	28.9	10.2	-	36
	공공행정업	50.4	43.9	19.2	17.5	14.0	59.5	2.6	1.0	34.8	-	4.3	7.0	-	40
	기타서비스업	68.3	44.6	5.3	21.2	15.0	21.4	21.4	9.9	41.6	18.6	18.2	3.0	-	24
	미해당(구직단념, 비경제활동)	-	-	-	-	-	-	-	-	-	-	-	-	-	-

정책연구 2025-34

전북형 청년 일자리 질적 향상 방안 연구

발행인 | 장성화

발행일 |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15-6 9533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5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의 결혼·출산·양육 인식 및 정책 수요조사 연구
전북자치도 기후변화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변동 요인 분석 연구
지방재정투자심사 제도 운영 사례 검토 및 전북형 모델 개발 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 및 전북자치도 활용 방향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전북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물발자국 정책활용 방안 연구
인구감소 시대 공간계획방향 설정을 위한 토지이용 특성 분석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 연구

기획연구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농생명 전통·미래 자산 예코뮤지엄 구축 방안
전북자치도 지역특화자원의 글로벌 관광콘텐츠 방안 연구
새만금 농생명용지 경관농업 적용과 추진방안
전북자치도 지역상권 활력제고 전략 수립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전북자치도 중추도시 육성 전략(공간체계 개편 중심)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어메니티 웨딩(Amenity Wedding) 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형 RE100 특구 도입 방안 연구
K-방위산업 MRO 클러스터 조성 방향 연구
K-컬처 복합 엔터테인먼트파크 조성 방향
전북자치도 초저온 산업 육성 전략 연구
합계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형 반일제 정규직 도입방안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사회적 질병으로서 외로움과 문화적 치유 방안 연구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활용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수소특화단지 조성 방향 연구
전북자치도 정부 R&D사업 대응력 제고 방안 연구
전북 동부산악권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군산시 산단 체류인구의 정주화를 위한 과제발굴 연구
전북형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운용 방안 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단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농산물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시설농업 중심)
전북특별자치도 생성형 AI 적용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방안 연구
농지관리 제도 개편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대응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별도청사 신축·이전 타당성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대응기금 활성화 방안

현안연구

제2중앙경찰학교 입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연구
한익임상술기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북자치도 시외버스 재정지원의 효율적 배분기준 연구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